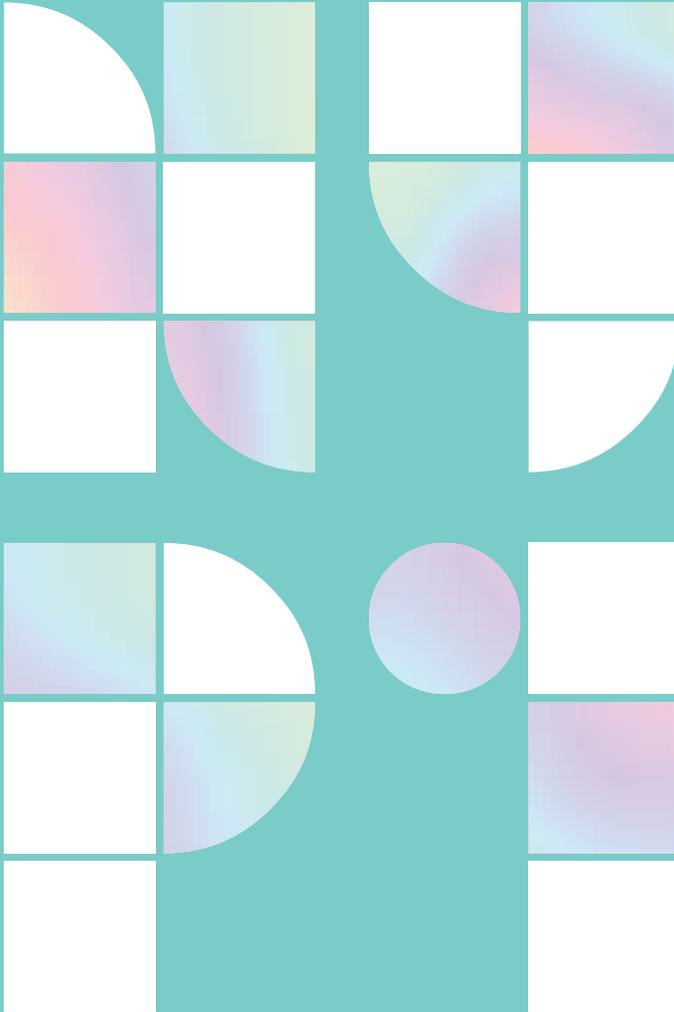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12

서정아 · 성윤숙 · 홍순구 · 권일남



---

연구보고 21-R12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저 자 서정아, 성윤숙, 홍순구, 권일남

연 구 진 연구책임자 \_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_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 홍순구(동아대학교 교수)  
\_ 권일남(명지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_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를 끝마칠 즈음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무색하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도 코로나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 등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에도 벅찬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맞아 복합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속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으로 질주하는 미래라는 자동차 바퀴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른들에게도 혼란스러운데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마스크를 쓰는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 화면 넘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나던 이들에게 학교는, 가족은,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이들의 삶을 위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구는 데이터의 의미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비정형 민원 빅데이터,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 청소년의 생각과 욕구, 기존의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는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스마트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책 의제 도출 방법과 외국, 국제기구 사례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료 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연구진, 집필진, 자문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을 고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 모두를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서정아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이 청소년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체계의 기존 운영, 정책 방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적응시켜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취적,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재난 상황과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적응 변화하는 증거기반적(evidence-based)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포스트코로나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정책분석방법론 콜로키움 개최
-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사례 검토
- 비정형, 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제 도출
- 청소년 설문조사
- 청소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심층면접

### 3. 주요결과

#### 1) 외국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UN의 경우 청소년전략 'Youth2030'의 내용 및 실행계획 안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정책과 실천에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현행 정책과 실천, 플랫폼 등이 청소년의 의견 청취와 참여 보장을 위해 적절한지, 특히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차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었고, Barnardo's(2020)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종식 이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과 모든 학교 내의 검증된 상담 전문가 배치가 고려되고 있다.
- 청소년정책의 이상적 구현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의 전체적 시각에서 설계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청소년정책 관련 핵심 기구인 “연방 청소년 자문위원회 BJK(Bundesjugendkuratorium)”는 2021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없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라는 명료한 “Cut”을 기대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는 물론 미래의 팬데믹을 대비하는 ‘뉴 노멀(New Normal)’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 대책의 결과들을 적절히 보완하고 발전시킨 아동·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 2) 청소년 설문조사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을 3가지 고르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디어 감상(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을 하는 경우가 56.6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게임(컴퓨터, 모바일 등) 45.3%, 학습 및 숙제 34.8%, SNS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2.1%, 취미 활동 31.4%,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냄 23.1%, 집안일 도움 19.5%, 스포츠 및 신체활동 12.3%, 가족돌봄(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5.1%, 취업 준비 2.8%, 아르바이트 또는 일함 3.5%, 상급학교로의 진학 준비 2.2%, 기타 1.5% 순으로 1/2 이상의 청소년이 미디어 활용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3.23점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 직업별( $p < .001$ ), 가족의 경제상태별( $p < .001$ ),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별( $p < .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생보다는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경제상태가 낮은 편인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이 아닌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29.7%), 생활리듬이 깨짐(시간, 건강관리)(26.0%),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25.6%),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24.3%), 원격수업(20.2%), 심심함/의욕이 없음(15.9%),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14.9%),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불가능(11.6%), 막연한 걱정과 스트레스(9.0%),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등)(7.6%), 특별히 힘든 점 없음(7.3%), 온라인 과다, 무방비 노출(5.6%), 불평등한 학습 손실, 더 커지는 학습격차(5.5%),

외로움/고립감(5.3%), 부모님 등 가족과 자주 싸움(4.0%), 경제적으로 어려워짐(3.6%), 식사 해결이 어려워짐(2.9%), 열악한 원격학습 환경(2.3%), 학교나 청소년시설이 문을 닫음(2.2%), 기타(1.6%), 나 또는 가족이 일자리를 잃음(1.1%),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감소(0.7%) 순으로 나타났다.

### 3) 전문가 심층면접

- 청소년복지, 활동, 상담, 보호 관련 청소년기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초래한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열정과 노력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져온 구조적 어려움에도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 하였고, 온택트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한 블렌디드 방식의 구조전환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업무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과중한 업무나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예산과 재정문제, 장비와 지원 부족, 전염병의 지속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치창출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통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여성가족부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8개의 토픽이 나타났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6개의 토픽들로 분류되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 관련 정책 이슈로는 청소년 및 가족대상 상담서비스 기관 및 지원 확대, 아동관련 기관의 성범죄/아동학대 정보 및 경력조회 시행, 맞벌이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서비스 확대, 성매매/자살

예방 의무교육 실시,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청소년증 의무발급,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이 도출되었다.

- 교육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개의 토픽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6개의 토픽들로 다소 감소하였다. 코로나 이후 등교연기 및 온라인수업 문제, 아동폭력 예방 교육 및 보건교원 확대, 유해시설 인근 교육환경 개선 및 보상 요청, 코로나 방역 및 안전문제, 학교신설 및 교육투자 확대 요청, 대학수학능력과 및 교육과정 개선 요청 등이 청소년 관련 정책이슈로 도출되었다.
- 교육청은 코로나 이전에는 9개의 토픽이 나타났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폭력문제 대응 및 피해대책, 돌봄 교실 운영 문제, 교사업무 및 수업평가 필요성,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요청,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신설 요청, 유해시설 인근 학교 이전 및 신설 요청 등과 같은 7개의 이슈가 나타났다. 대부분이 학교 신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년정책 이슈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 지자체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 데이터를 LDA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12개의 토픽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8개의 토픽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로는 코로나 방역 및 확진자 치료, 청년 및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 및 지역 운영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개학연기 및 보육문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학입시제도 등이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경제관련 이슈 등이 추가로 등장하였다.

##### 5)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공공데이터인 청소년종합실태와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증가, 스트레스의 감소, 자살 충동의 하락,

주관적 건강 평가의 상승,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의 감소가 이뤄져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최근에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민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행복감이 감소하였다. 비록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감도 함께 증가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 청소년의 미래 정책의제는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자율성에 기반한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개선이 요구된다. 나아가,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상담 및 가족치료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 기회를 확대하고 식사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교우 관계에 대한 가정 내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4. 정책제언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을 제언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12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 과정 .....	6
3. 연구내용 및 방법 .....	7
<b>II. 이론적 배경</b> .....	11
1. 포스트 코로나 등 국가 재난 상황 개념 .....	13
2. 포스트 코로나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	19
3.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험과 대응 및 환경 분석 .....	22
<b>I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외국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b> .....	33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	35

2.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	126
3. 시사점 .....	133
<b>IV. 청소년 설문조사 .....</b>	<b>141</b>
1. 조사 영역 및 내용의 구성 .....	143
2. 표집 .....	148
3. 조사결과 .....	152
<b>V.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 현안     모색 심층면접 .....</b>	<b>201</b>
1. 심층면접 개요 .....	203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208
3. 소결 .....	267
<b>VI. 정책 제언 .....</b>	<b>269</b>
<b>참고문헌 .....</b>	<b>283</b>
<b>부록 .....</b>	<b>317</b>
<b>국문초록 .....</b>	<b>363</b>
<b>ABSTRACT .....</b>	<b>365</b>

표 목차

표 II - 1.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변화 (단위 : %) .....	23
표 II - 2. 청소년의 신체활동(야외) 여부 (단위: %) .....	24
표 II - 3.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 .....	28
표 III - 1. 코로나19 기간 중 취약가정의 지원 욕구 .....	69
표 III - 2. 아동학대 관련 상담 건수(Childline) .....	72
표 III - 3. 온라인 성착취 관련 상담 건수(Childline) .....	74
표 III - 4. 영국 정부의 교육 부문 주요 대응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	80
표 III - 5. 사회 회복과 재건을 위한 14개 지원프로그램 계획 .....	84
표 III - 6. 미래 선도를 위한 장기 혁신 전략(2021-2035) .....	88
표 III - 7. AYPH의 미래 청소년정책에 관한 제언 .....	91
표 III - 8. Barnardo's의 미래 청소년정책에 관한 제언 .....	92
표 III - 9. UN 청소년전략(Youth2030)의 5대 우선순위 분야 .....	128
표 III-10. UN 청소년전략 -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계획 .....	130
표 III-11. OECD 프레임워크의 5대 전략 .....	132
표 IV - 1. 설문조사 문항 세부 사항 .....	144
표 IV - 2.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 .....	148
표 IV - 3. 시도별, 교급별 청소년 인구수 .....	149
표 IV - 4.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 (3,000명 환산, 원수치) .....	150
표 IV - 5.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 (3,000명 환산, 수치조정) .....	150
표 IV - 6.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별 표집목표 (3,000명 환산, 수치 조정, 고3 포함) .....	151
표 IV - 7.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별 표집목표 (3,000명 환산, 수치 조정, 고3 제외) .....	151

표 IV- 8. 조사대상 일반 특성 .....	153
표 IV- 9.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	154
표 IV-1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	155
표 IV-1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 (다중응답) .....	156
표 IV-12.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3가지 .....	157
표 IV-13.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활동 .....	158
표 IV-14.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심리정서 .....	161
표 IV-15.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관계 등 .....	163
표 IV-16.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 .....	165
표 IV-17. 선호하는 수업(또는 활동) 형태 .....	167
표 IV-18.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 평균 등교일수 .....	168
표 IV-19.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 .....	169
표 IV-20.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 3가지 .....	171
표 IV-2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 .....	172
표 IV-22. 최근 1년간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다중응답) .....	173
표 IV-23. 행복감 .....	184
표 IV-24. 삶의 만족도 .....	185
표 IV-25. 미래에 대한 생각 .....	186
표 IV-26.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	187
표 IV-27.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	188
표 IV-28.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 .....	190
표 IV-29.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 3가지 .....	191
표 IV-30.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	192
표 V-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 .....	204

## 그림 목차

그림 II-1.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 차이 인식	23
그림 II-2.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단위: %) .....	25
그림 II-3. 코로나-19시기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 .....	26
그림 II-4. 만 9~24세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영역별 비교 (단위: %) .....	27
그림 II-5.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변화 .....	28
그림 II-6.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 .....	30
그림 II-7.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	31
그림 III-1. 미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 .....	51
그림 III-2. 미국의 연방 기관간 공동협력을 위한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준거들 .....	59
그림 III-3. 연방기관 협력계획 '청소년을 위한 통로 (Pathways for Youth)'의 구성 .....	61
그림 III-4. 연령별 취업자 수(2019년 9월 - 2020년 9월) .....	70
그림 III-5.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의 정신건강 .....	75
그림 III-6. 오크 전국 아카데미(Oak National Academy) .....	79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 과정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sup>1)</sup>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청소년의 삶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보호·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모든 현장과 이를 지원하는 전달체계, 이들의 근간이 되는 법, 제도, 행정 등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나타났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경험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현장은 물론 청소년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 학계까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일정 기간 혼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막연한 미래의 일로 생각되던 언택트(untact) 서비스가 당연시 여겨지는 즉,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흔한 표준이 되어 가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제기구, 연구자, 다양한 조직 등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논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방대한 저작물로 나타난다. 세계은행, 유럽연합, 국제연합, OECD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더불어 교육적, 사회경제적, 정책적 대응방안과 청소년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OECD, 2020; United Nations, 2020.3.27.; United Nations, 2020.4.15.; United Nations,

1) '제1장 서론'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2020.8.; World Bank, 2020), 다양한 연구자들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정혜옥, 2020; Courtney et al., 2020; Liang et al., 2020; Power et al, 2020; Sinha et al., 2020), 경제(Jesus, Landry, & Jacobs, 2020; Marjit & Mishra, 2020), 환경과 사회(Matthewman & Huppatz, 2020; Verma & Prakash, 2020), 직업과 권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물론 예측되는 중, 장기 영향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Fong & Iarocci, 2020). 국내에서도 청소년 현장(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외, 2021; 서울시복지재단, 2020; 아동권리보장원,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8.18.;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12.1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과 학교 교육현장(강대중 외, 2020;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외, 2020; 정용주 외, 2020)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차원에서도 이슈페이퍼나 대응 보고서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강성국 외, 2020; 국회입법조사처, 2020; 김아름, 박은영, 2020; 예충열 외, 2020; 이쌍철 외, 2020; 최윤경 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이러한 현상은 국제기구(Youth Partnership, 2020)나 외국의 기관(National Youth Agency, 2020.4.; National Youth Agency, 2020.8.; National Youth Agency, 2020.8.8.)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한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도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12.11.)의 영향과 뉴노멀 시대로의 도래(Buheji, 2020; Jesus et al., 2020), 지속가능한 미래(Bajpai & Biberman, 2020.10.; Goffman, 2020; Semerikov et al., 2020)와 UN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Leave no one behind)으로의 지향(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https://unsdg.un.org/>, 2021년 2월 19일 인출), 기존의 활동, 보호, 복지가 아닌 창의융합 등 새로운 청소년

영역의 개념의 혁신(이수미, 조아미, 2020)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로의 변화의 불확실성에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은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어려운 변수를 부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재난 상황이 청소년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체계의 기존 운영, 정책 방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적응시켜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첫째, 국내외 문헌검토 및 외국사례, 국제기구 사례 검토를 통해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둘째,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과 청소년현장이 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욕구, 희망을 파악하며

셋째, 기존의 전문가, 정책 입안가 위주의 정책의제 도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두 권의 보고서를 통해 비정형 빅데이터(민원자료)와 정형 빅데이터(통계청 청소년 관련 자료)를 분석, 미래 청소년정책 의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취적,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재난 상황과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적응 변화하는 증거기반적(evidence-based)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추진 과정

연구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국내외 문헌 연구

-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 분석
- 외국 및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등 분석
- 최신 정책분석방법에 대한 국내외 자료 분석
  - 자료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거버넌스 방법론을 비정형 민원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최신 정책분석 방법론 및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

- 미국, 영국, 독일과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및 미래 정책 방향 검토

### □ 정책분석방법론 콜로키움 실시

- 정책분석방법론 전문가를 활용하여 콜로키움 실시
  - 제목 : 정책분석론 “절차, 모형 및 분석 기법의 총괄 소개”

### □ 비정형, 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제 도출(별권으로 각 1권 구성)

- 비정형 민원 빅데이터(국민신문고, 청와대국민청원)와
- 정형 빅데이터(통계청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청소년 정책 핵심영역 및 영역별 정책의제 도출

- 비정형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를 위한 랜선포럼 실시
  - 빅데이터 및 정책분석 전문가를 활용하여 랜선포럼 실시
    - 제목 : 부처별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책의제 도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경험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9세~24세 청소년 5,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실시하여 코로나19 관련 경험 및 인식, 생각, 희망사항 등 조사·분석
  
-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실시
  -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가, 서비스 실천현장 전문가 등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실시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현장의 대응과 적응방안, 미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등 면접·분석

### 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포스트코로나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포스트 코로나 등 국가 재난 상황 개념
  - 청소년 변화, 청소년 환경(가족, 학교, 사회, 지역사회 등) 변화, 청소년법정책 변화, 청소년 전달체계 변화, 청소년 교육·활동·보호·복지 현장 변화 등 파악
  -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검토
  - 청소년정책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 정책분석방법론 콜로키움 개최
  - 콜로키움에서 정책분석의 조건, 유의사항과 더불어 미래예측과의 관련성,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최신 분석방법론을 발표하고 학습함.
  
-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사례 검토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외국(미국, 영국, 독일), 국제기구(국제연합, OECD, 세계은행 등) 사례 분석 및 제시
  -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국가, 국제기구 차원의 예측 및 대응방안 분석 및 제시 등
  
- 비정형, 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제 도출(별도 보고서)
  - 비정형 빅데이터(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 활용)와
  - 정형 빅데이터(통계청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미래 정책 핵심 영역 및 핵심 영역별 정책의제 도출
  
- 청소년 설문조사(웹 기반 조사)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경험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9세~24세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 표집은 전국의 청소년수를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험과 인식, 희망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경험을 파악함
  
- 청소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심층면접
  -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가, 서비스 실천현장 전문가 등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실시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현장의 대응과 적응방안, 미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등 면접·분석

〈섭외대상〉

-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전달체계 전문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문가
- 청소년현장 전문가: (1)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2)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전문치료기관, 청소년보호·재활센터)와 여성가족부 주요 국가사업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포스트 코로나 등  
국가 재난상황 개념
- 2. 포스트 코로나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 3.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험과 대응 및 환경 분석



## 1. 포스트 코로나 등 국가 재난 상황 개념<sup>2)</sup>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 즉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증후군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후 COVID-19는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COVID-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했음을 선언하였다(WHO, 2020.3.11.).

흔히 COVID-19 팬데믹이 초래한 인간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언택트(Untact) 혹은 온택트(Onta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관계적 용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한 것처럼 인간(人間)은 '사람(人) 사이(間)', 즉 관계의 존재이다. 그리고 관계의 본질은 '나눔', 또는 '공유'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영어 communication의 어원인 라틴어 communicare가 '나누다', 또는 '공유하다'이고, 동시에 내포된 단어 communis는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community(공동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나누고 공유하는, 즉 관계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2) '제2장 이론적 배경'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그런데 COVID-19로 사회적 관계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의 대면(Contact) 중심에서 비대면(Untact)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학교에선 휴교와 온라인 수업이 이어졌으며 재택근무가 도입되었다. 언택트(Untact)라는 단어는 2017년 8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원들과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음식점의 무인 키오스크, 주유소의 셀프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기술의 확산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외, 2017). 그러다 COVID-19가 초래한 위기 상황이 언택트 개념의 광범위한 상용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정상(Normal)이던 대면(Contact)이 비정상이 되고 비대면(Untact)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택트는 COVID-19에 의해 강요된 수동적 의미의 비대면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온택트(Ontact)는 COVID-19로 발생한 Online 거래, 교육, 근무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관계를 수동적 비대면성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구성하자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택트와 온택트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또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사용되지만(손숙미·이인화, 2020; 박선영, 2020), 엄밀히 보면 둘 사이엔 분명한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일례로 COVID-19로 인해 도입된 재택근무는 언택트로 볼 수 있고 재택근무를 새로운 근무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은 온택트적 마인드라 할 수 있다. 실제 구글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한 재택근무제를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근무의 형태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연 근무 주'라는 방식으로 주 3일 출근,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구글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다양한 근무 형태가 과연 생산성과 협동성,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조선일보, 2020.12.15.).

중요한 것은 구글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온택트가 단순히 Online을 통한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온택트(On+Untact)’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구글 이외에도 2020년 6월, 영국 제약업체 GSK는 차세대 HIV 치료제인 ‘도바토’의 론칭 기자간담회를 홀로그램 영상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홀로그램 영상 기술은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3D 그래픽 영상을 송출한다. GSK는 그 외에도 참석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극장, 루프탑 등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도 했다 (eMD Medical News, 2020.6.24). 이처럼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면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점에서, 온택트(Ontact)는 비대면(Untact)을 넘어 융합사회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와 나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다시 말해 COVID-19로 대면관계(Contact)가 비대면 관계(Untact)로 이행한 것을 소통의 빛이 꺼진(Off) 것으로 이해할 때, Online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개발 적용하여 그 빛을 다시 켜기 위한(On) 사회의 제반 움직임이 온택트(Ontact)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 COVID-19로 초래된 대면(Contact)에서 비대면(Untact) 그리고 온택트(Ontact)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상관관계는 더 진지하고 심각하며 다층적이다. 코로나가 초래한 비대면은 단순히 문자적 의미 그대로 대면관계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COVID-19는 인류 전체의 삶 전 영역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거대한 장벽을 구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은 삶의 한 가운데 세워진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론적 단절의 ‘장벽’을 의미한다. 2021년 2월 21일 COVID-19의 첫 발생 후 1년이 조금 더 지난 현재 팬데믹 상황판(Corona Board)을 보면 세계적으로 1억 이상이 확진되었고 그중 2백 40만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겐 어느 순간 오늘과 내일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더 이상 현재와 미래가 ‘대면’하지 못하고 생명의 시계추를 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한계상황은 생존에 대한 이기적이고 근원적인 본성을 자극하였다. 그 결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제와 문화 교류가 냉각되었고 국가 간 지역 간 장벽이 구축되었다. 더욱이 백신과 치료제를 위한 국가 간 쟁탈전까지 가세하며 1970년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의 물결이 멈추고 폐쇄적 민족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다시 팽배하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계층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경제적, 정치적, 성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다. 마르크스적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격차는 코로나로 인해 더 벌어졌다.

2021년 1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아젠다(The Davos Agenda)’ 주간에 맞춰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발표하였다(Oxfam International,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의 경우 재산손실이 있었어도 불과 9개월이면 원상회복됐지만 극빈층의 경우 10년 이상이 지나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부가 2020년 3월 18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3.4조 달러가 증가했으며 보고서가 발표되는 현재 이들의 총자산은 11.4조 달러로 G20 정부가 이번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같다고 지적한다.

반면 이번 팬데믹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하였고 수억 명의 실직과 빈곤, 그리고 기아를 불러왔다고 보며, 그 결과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가 2030년 2억~5억 명이 증가하고, 또한 노약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관심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됨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세계 빈곤의 감소세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이러한 격변은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영업 제한이나 휴교에 직면하였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맞이하는 문제의 체감온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일상에서도 COVID-19가 초래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계층 간 장벽은 쉽게 경험되고 있다. 옥스팜의 보고서는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가 결국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히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는

79개국 29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COVID-19가 다양한 계층 간에 지금껏 존재하던 것 이상의 거대한 장벽을 세움으로 인해, 신분제도 없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는 형식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론 차별과 불평등의 분리주의가 전 세계에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현상엔 양면성이 있듯 COVID-19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선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대폭적인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Venter et al, 2020).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25% 감소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50% 감소해 추정치로 보면 적어도 77,000명의 목숨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Burke, 2020.3.8.; McMahon, 2020.3.16.).

그렇다면 COVID-19 팬데믹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COVID-19는 문명사회가 지향하는 공존과 상생의 지속 가능한 미래, 즉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평화로운 지구공동체를 위해,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와 권고의 기호로 볼 수 있다. 먼저 COVID-19는 세계 각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 안에 존재하는 폐쇄적 이기주의의 민낯을 명확히 드러내 주었다. 인류는 국가와 민족, 인종과 성, 그리고 다양한 계층 사이에 말 그대로의 ‘communicare’, 즉 공유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경제와 정치가 있고, 학교와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며 국제 교류와 여행이 가능하고, 사회공동체 내에서 대화가 어떤 형식이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는 Contact의 어원적 의미처럼 ‘Con’, 즉 ‘함께’의 대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COVID-19는 그런 표면상의 대면(Contact) 안에 실제로는 단절의 비대면(Untact), 즉 대인간(interpersonal)의 비가시적인 장벽이 심각하게 고착되어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UN 사무부총장 Amina J. Mohammed이 COVID-19가 기존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노출시켰다(European Youth Forum, 2020; 박선영, 2020, p.174에서

재인용)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양극화와 불평등, 다양한 인종과 계층 사이의 차별, 성적 불평등, 약자를 향한 강자의 억압과 착취는 COVID-19가 새롭게 양산한 문제가 아니다. 대면(Contact) 안의 모든 실질적 비대면(Untact)은 폐쇄적 이기주의로 점철된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고, COVID-19는 그 환부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는 코로나19 이전 이미 인류가 내면에 착용하고 있던 불통의 기호일 수 있다. 관계의 장벽, 상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부재, 그로 인한 불신과 타인에 대한 규정, 판단, 차별, 무시 그리고 폭력과 착취, 억압 등, 공유와 나눔의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일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노력과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19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국회입법조사처, 2020), 경제 사회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면사회로 복귀하여 인류가 다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일은 분명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COVID-19가 던진 권고와 경고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COVID-19는 인간사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실질적인 ‘Non-contact’ 내지 ‘Zero-contact’ 사회였는지 경고함으로 문명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불화와 반목, 불신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의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연 환경의 일시적 개선을 통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자행한 환경파괴를 경고하며, 자연과 환경을 향해 쏟아놓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비대면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존과 상생의 백신 개발을 통한 ‘On-tact’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또 다른 COVID-19를 만나지 않고, 관계의 빛을 밝히는(On) 진정한 On-tact의 사회로 가기 위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포스트 코로나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제기구, 연구자, 다양한 조직 등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논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방대한 저작물로 나타난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0), 국제연합(United Nations, 2020.3.27.; United Nations, 2020.4.15.; United Nations, 2020.8), OECD(OECD, 2020)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더불어 교육적, 사회경제적, 정책적 대응방안과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부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신건강(Courtney et al., 2020; Liang et al., 2020; Power et al., 2020; Sinha et al., 2020), 경제(Jesus et al., 2020; Marjit & Mishra, 2020), 환경과 사회(Matthewman & Huppatz, 2020; Verma & Prakash, 2020), 직업과 권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 등, 코로나19의 단기적인 영향은 물론 예측되는 중, 장기 영향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Fong & Iarocci, 2020).

국내에서도 공공차원에서 이슈페이퍼나 대응 보고서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국회입법조사처, 2020) 큰 틀에서의 대응과제와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주요국 현황과 대응체계를 소개한 후, 재정 및 공공부문, 사회와 산업부문의 부문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시 협동연구총서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예충열 외, 2020)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경제·사회·산업·행정(법·제도) 전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는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과 소득단절 및 감소, 산업 전반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며, 공공 보건·교육·돌봄 영역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특히 취약계층에 큰 고통이 될 것을

예상하며,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정책분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연재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복지정책의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다음으로 청소년 부문에서 Covid-19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국제기구(Youth Partnership, 2020)나 외국의 기관(National Youth Agency, 2020.4.; National Youth Agency, 2020.8.; National Youth Agency, 2020.8.8.)을 통한 여러 연구와 보고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복지, 활동, 상담, 그리고 보호 등 청소년의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분석과 대응책이 제시되었다. 먼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속에서의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정책포럼>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과 함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1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한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8.18.), 한국청소년학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New Normal 시대의 청소년 지원방향과 관련하여 청소년 미래교육, 소외 청소년 교육 복지 지원 방안, 그리고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12.11.). 나아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뉴노멀 시대를 향한 청소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전환, 효과적인 청소년 심리지원, 진로지도 지원,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성장지원과 대안을 모색하였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2.26.). 그 외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대중은 ‘코로나19 한국교육의 잠을 깨우다’(강대중 외, 2020)에서 비대면 수업, 입시와 사교육, 대학, 미래교육

방향, 사회안전망, 지역사회와 연대라는 주제를 통해 교육영역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말하고 있다. 홍섭근은 ‘코로나 1년이 갈라놓은 아이들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점과 함께 학교자치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홍섭근, 2021.5.10.). 정용주 역시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와 위기, 취약청소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정용주 외, 2020). 그 외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코로나19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 체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지향적 원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강성국 외, 2020; 이쌍철 외, 2020). 동일한 맥락에서 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점검과(백병부, 2020) 효과적인 체제 구축방안이 연구되었고(강성국 외, 2020), 학교의 역할을 재점검하고자 하는 노력(이혜정·민윤·박진아, 2020) 및 타 국가의 학교 교육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장경숙·이복희·여예솔, 2020). 이 외에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6.25.). 육아 분야의 대응체계를 구축했고(최윤경 외, 2020), 아동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김아름·박은영, 2020).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청소년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코로나 19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12.11.)의 영향과 뉴노멀 시대로의 도래(Buheji, 2020; Jesus et al., 2020), 지속가능한 미래(Bajpai & Biberman, 2020.10.; Goffman, 2020; Semerikov et al., 2020)와 UN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Leave no one behind)으로의 지향(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https://unsdg.un.org/>, 2021.2.19. 인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청소년 활동, 상담, 보호, 복지 등을 포함한 청소년 삶 전체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전환이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3.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험과 대응 및 환경 분석

#### 1) 청소년 환경 변화

COVID-19는 비대면(Untact)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청소년 삶의 영역에도 미쳤다. 첫째, 삶의 중심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됨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왔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 비대면 수업의 적응 정도에 따라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수업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습득과 교육기회의 가능성을 주어 실질적인 자기 주도 학습 가능성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교사 학생 간 기존의 일방적 전달과 수용의 수직구조에서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교사와 의논하여 실천하는 수평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에서 학습자로,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의 개별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홍문화, 2020). 하지만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뉴노멀의 새로운 표준 창출 가능성을 부여할지라도(경향신문, 2020.4.19.), 코로나19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사실이고(백병부, 2020), 따라서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정도에 편차가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낮은 경우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백병부, 2020),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수 있다. 또한 접속 지연, 상호소통의 어려움 및 학습이력 관리 불가 등 원격교육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강성국 외, 2020). 원격교육 체제에 대한 정확한 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쌍철 외, 2020). 나아가 가정환경,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학업 효율성이 달라지고 심각한 학력 격차라는 학업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더 심각했다(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외, 2020).



### 학생 간 학습 격차 인식

학생 간 학습 격차 인식이 커졌다 46.33%, 매우 커졌다 32.67%, 변화없다 17.64%, 줄어들었다 3.15%, 매우 줄어들었다 0.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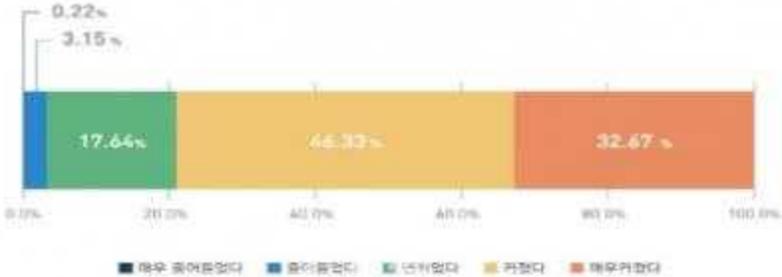


그림 II-1.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 차이 인식

\* 출처: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외(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p.40의 그림을 인용함.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에 따른 설문에서 교사 79%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계보경 외, 2020). 결국, 이러한 변화는 학업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이어진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 46.0%로 나타났고, 특히 13~18세(48.2%)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 II-1.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변화 (단위 : %)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전체	1.4	6.9	45.9	38.8	7.2	
연령	9~12세	1.3	8.2	50.6	35.8	4.1
	13~18세	1.4	6.6	43.8	40.6	7.6
	19~24세	1.4	6.4	45.1	38.9	8.3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둘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은 교육환경과 함께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자유로운 시간 활용으로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스포츠의 향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변화된 생활환경의 부적응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신체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주 평균 2.1시간으로 2017년 대비 오히려 1.7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약 8시간 20분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II-2. 청소년의 신체활동(야외) 여부 (단위: %)

구분		신체 활동 여부		
		예	활동시간	아니오
연도별	2011년	75.9	4.5	24.1
	2014년	76.1	3.3	23.9
	2017년	56.7	3.8	43.3
	2020년	39.1	2.1	60.9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또 무절제한 식단으로 비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20년 10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3월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아이들의 체질량 지수(BMI)가 상승하고, 과체중 비중이 늘었다(공공보건포털 G-health, 2021.1.10.). 나아가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여(Chen et al., 2020), 이는 불법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및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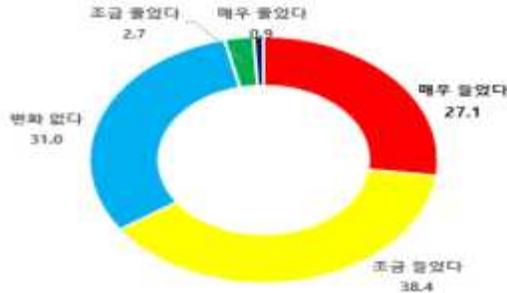


그림 11-2.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단위: %)

\* 출처: 중독포럼 보도자료(2020.11.2.). 청소년 미디어 사용 시간 늘면서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폭력 경험 증가, p.3 부분 캡처.

실제 중독포럼의 조사결과를 보면,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였고(65.5%), 그중 '매우 늘었다'는 27.1%에 달했다. 온라인미디어 사용 증가에 비례하여 우울, 자살 생각, 사이버폭력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독포럼 보도자료, 2020.11.2.).

셋째, 비대면의 일상화는 생활환경 변화와 함께 청소년의 심리와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학업성취의 책임이 청소년 스스로에게 전가됨에 따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rtney, Watson, 2020). 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청소년은 직업 및 진로 선택의 불확실성 등 생애설계의 문제를 겪고, 행복감의 상실이나 우울, 그리고 자살 등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재단이 청소년 1천 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인된다(한국청소년재단, 코리아스픽스, 202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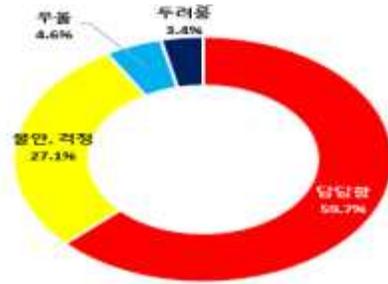


그림 II-3. 코로나-19시기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

\* 출처: 한국청소년재단, 코리아스픽스(2020.8.12.).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p.38의 그림을 인용함.

실제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10~20대 자살 사망자가 전년보다 10.3%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21.9.28.). 기본적으로 코로나-19시기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은 답답함(619명, 59.7%), 불안, 걱정(281명, 27.1%), 우울함(48명, 4.6%), 두려움(35명, 3.4%)으로 부정적 감정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의 9~24세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198명, 청소년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청소년 대부분은 불안과 걱정(59.8%)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짜증(36.6%)과 분노(28.1%)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재단의 조사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264명·25.5%),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250명·24.1%), 그리고 무엇보다 ‘학업 및 진로의 불투명성’(304명, 29.3%)이었다. 아래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서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망이 긍정적(7.0%)보다 부정적으로(41.6%)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4. 만 9~24세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영역별 비교 (단위: %)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넷째, 비대면 중심의 청소년 환경변화는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청소년들은 관계단절을 힘들어한다.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친구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26.6%)이 긍정적 변화(15.4%)보다 많았다.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과 ‘생활의 리듬이 깨짐’(64.6%),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62.2%)을 토로했다. 이를 학교폭력문제와 연결하여 보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SNS에 의존적으로 바뀌게 됨으로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청소년 일탈 등의 문제가 감소하나, 사이버불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의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 대상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교육부 보도자료, 2021.1.20),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2019.4.1~2019.4.30) 대비 0.7%p 감소했다. 즉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했지만 학교폭력 피해유형에서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5.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변화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1.20.).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표 11-3.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p)
	1차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33.6	△2.0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26.0	2.8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6.7	△2.0
신체폭력	11.7	11.5	11.9	12.1	11.7	10.0	8.6	7.9	△0.7
사이버폭력	9.1	9.3	9.2	9.1	9.8	10.8	8.9	12.3	3.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5.4	△0.9
성폭력	3.3	3.8	4.2	4.5	5.1	5.2	3.9	3.7	△0.2
강요	6.1	4.7	4.2	4.3	4.0	3.9	4.9	4.4	△0.5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1.20.).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에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피해 응답률 감소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비대면(Untact)의 결과일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 피해 응답률 감소는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과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COVID-19가 학교폭력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이버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통해 학교폭력은 상존하며, 이 폭력성이 COVID-19를 통해 다른 형식으로 표출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수업 전환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적 증가로 이어져 가족 생활의 선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역으로 가족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에 따라 가족 탄력성은 비례한다(윤숙자·김희정, 2013).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가족갈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혜옥, 2020). 무엇보다 앞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2.1%)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9.6%)보다 컸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2020년 상담 건수 분석을 보면 심리나 가족관계 등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상담이 2019년에 비해 30% 이상 늘었고, 특히 가족 문제 상담은 75.8%,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상담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20.12.17.). 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2020년 가족갈등 상담건수 역시 전해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20.12.17.). 이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표면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함께'의 시간의 양적 증가를 개개의 가정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가 요구된다.



그림 II-6.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

\* 출처: 한국청소년재단, 코리아스픽스(2020.8.12.).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p.38의 그림을 인용함.

마지막으로 비대면의 일상화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685명)이었다. 그런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을 보면 코로나 이전 6.41점에서 코로나 이후 4.14점으로 -2.27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대로 COVID-19 팬데믹은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COVID-19로 초래된 대면(Contact)에서 비대면(Untact) 사회로의 전환은 그 비대면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에게 이중적 의미로 다가온다. 첫째, COVID-19로 인한 대면(Contact)에서 비대면(Untact)으로의 전환은 기존 교육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주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주며, 다양한 생산적 활동 및 바람직한 관계의 장을 열어주었다. 반면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 다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 기존의 대면(Contact) 사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한 비대면(Untact)의 문제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삶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면(On-tact)의 차원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관계의 바람직한 ‘대면’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나아가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와의 ‘대면’을 가로막는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의 삶에 공유와 나눔 그리고 ‘함께’라는 새로운 대면(On-Tact)의 미래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 등 청소년이 삶의 행복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대면의 요소들을 제거할 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 즉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8.18.). 이를 위해 탈자본주의적이며 생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백병부·이수광·박복선, 2020), 진리는 전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제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주체들 간의 이성적이고 열린 대화를 통한 생산적, 미래지향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1-7.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 출처: 교육부(2020.10.5.). [포스터]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2020년 11월 교육부는 발간지 '행복한 교육'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교육부, 2020.11.). 우리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자명하다. 동시에 COVID-19는 그러한 정책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히 의식의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가시화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권력에의 의지'로 고착된 우리 사회의 이기심을 거둬내고, 공존과 상생, 이해와 화합의 기초하에 행복한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자율적 선의지를 현실 안에서 구현하는 일이다.

# ○ —————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외국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 3.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 외국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의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sup>3)</sup>

##### (1) 서론

미국의 청소년들의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경제와 사회분야의 상승과 하락 등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수혜와 손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민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경제적 전망의 변화는 십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사회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되는데 이렇게 제도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하게 한다.

특히, 코로나 19(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전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전대미문의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이혜정·민윤·박진아, 2020). 미국의 청소년들이

3) '제3장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천정웅 교수가 작성하였다.

경험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중에서도 오늘날의 COVID-19가 초래한 영향은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공교육분야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전반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서구선진국들은 제각기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통적인 대면중심의 교육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교육분야는 물론 청소년분야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와 시설 등을 포함한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 현장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면서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간 부분을 비롯한 청소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면서 종사자들의 비자발적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엄중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험과 대응 노력을 고찰하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 속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파악한 후 그러한 미래 전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내용과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시사하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 (2) 코로나19 경험과 대응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10세-24세 사이의 청소년(adolescents)과 청년(young adults)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 규모는 약 6천 4백만 명으로 추산하며, 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20). 전통적인 개념

으로는 주로 12~18세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지만, 문화적·경제적 변화(cultural and economic shifts)로 인해 청소년기의 연령은 연장되고 있다. 20~24세라는 정책 대상 연령 규정은 사춘기가 10세 경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24세까지의 연령은 성인기로의 완전한 전이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Fernandes-Alcantara, 2020).

#### ① 청소년 대상 서비스/정책/전달체계/법제도적 대응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대응은 2020년 1월 29일 보건후생부 장관을 비롯하여 12개 기관 책임자들을 포함하는 ‘백악관코로나바이러스 TF(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 구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3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하고, 중국, 이란, 유럽 전역과 영국과 한국 등 주요국에 대한 여행 및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또한 동년 3월 13일에는 스태포드 법(Stafford Act)에 따라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주의 학교와 공공장소 등이 폐쇄되고 10명 이상의 모임 금지와 자택 대피령이 발령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청소년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대응은 대표적인 정부 기관의 청소년정보포털(portal)인 유스닷컴(youth.gov)에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초기화면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추가하면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내용은 주제별(topics) 및 유관 기관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제별 내용으로는 ㉠ 백신(vaccine), ㉡ 아동돌봄, ㉢ 교육, ㉣ 고용과 실업보험, ㉤ 재정/경제적 영향에 따른 지급/세제 지원/학생대출, ㉥ 식품과 영양, ㉦ 건강/정신건강/스트레스와 대처, ㉧ 대인 서비스 및 지역중심단체 지원 및 ㉨ 안전과 가정폭력 등의 아홉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sup>4)</sup>.

4) <https://youth.gov/feature-article/covid-coronavirus-resources>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유스닷거브(youth.gov)는 청소년에 관한 연방정부기관의 연합데이터베이스로서 효과적인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미국 정부의 공식포털이다. 청소년통계, 재정지원 정보, 지역사회 자산을 평가하는 도구(tools)를 제공하고 지역과 연방의 자원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청소년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최근의 청소년 관련 소식(news)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백악관을 비롯하여, 국무부, 보건인간서비스부, 교육부 등을 포함하여 33개 연방부서와 13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sup>5)</sup>.

유스닷거브(youth.gov)와 관련하여 미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의 또 다른 두드러진 대응 중의 하나는 기존에 이 데이터에서는 28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2020년 이후 청소년건강(adolescent health)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면서 총 29개 주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6)</sup>.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이슈들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불링 예방, 시민적 관여, 취업, 홈리스 및 가출, 소년사범, 멘토링, 긍정적 청소년개발, 자살예방, 폭력예방 등이 포함된다<sup>7)</sup>. 따라서 서비스 되는 자료항목의 내용은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여성가족부, 2020).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 내 청소년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지시하고 이에 필요한 연방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하였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청소년업무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교육부에 '21세기 학습지원센터'와 '커뮤니티 스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sup>8)</sup>. 먼저, '21세기 학습지원 센터(21st Century Learning Centers)'를 통해 정신적 외상(trauma)을 겪는 아동 지원을 지속하고 학생지원 및 학업강화

5) <https://youth.gov/federal-resources>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6) <https://youth.gov/youth-topics/opportunity-youth>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7) <https://youth.gov/youth-topics/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8) <https://www.edweek.org/leadership/how-bidens-new-actions-on-guns-could-affect-students-and-schools/2021/04> 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Student Support and Academic Enrichment) 기금과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 포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s)’과 ‘희망 이웃(Promise Neighborhoods)’ 보조금 정책을 연방 교육부에서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 ② 현장의 대응: 학교교육과 청소년업무

코로나 19 감염과 관련한 상황은 사회적 위치와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불평등한 현실을 초래하는데, 기존의 취약한 집단들에게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학교는 방역과 학습 및 돌봄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현장이 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이러한 방역, 학습, 돌봄의 세 가지로 충분하며 또 과연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혜정 외, 2020).

미국의 경우,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은 2020년 3월 15일에 휴교하게 되면서 각 주별로 원격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년이 종료되는 6월 말까지 휴교가 계속되고 여름학기에 이르러 출석 정상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초기 대응은 원격교육이 학교 교육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오재호, 2020). 이에 따라 대부분 학생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시간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학습 참여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권점례 외, 2020). 또한, 학교는 주로 온라인 자료 개발과 보급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9)</sup>.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대비 COVID-19에 따른 수업결손을 246개 교육구청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평균 8일로 나타났으며, 11일에서 30일까지의 수업

---

9)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coronavirus-public-health-emergency-underscores-need-department-educations-proposed-distance-learning-rules> 에서 2021년 8월 22일 인출.

결손을 경험한 학교는 29%였으며, 수업결손이 없었던 학교는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sup>10)</sup>.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는 원격수업을 엄격한 수준(Rigorous), 중간 수준(Moderate) 그리고 최소 수준(Perfunctory)로 구분하여 학교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미국 전체 표준 집단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약 20%는 엄격한 수준, 중간 수준은 약 50%이며, 나머지는 최소 수준의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여기서 엄격한 수준은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며, 모든 학생들의 출석과 참여를 요구하는 형태이다. 수업 참여 결과 및 학업 성취에 따른 교사의 평가가 요구되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일대일 지도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크나큰 혼란(disruption)을 초래하였다. 팬데믹은 청소년에게도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 많은 청소년은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불안 속에서 학교-집 환경을 향해하고 있다(Ettekal & Agans, 2020).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영향은 다른 계층과 연령에서 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공백은 물론이고 그동안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기회 감소와 참여 축소는 결국 청소년에게 그러한 경험이 주는 긍정적 기여를 약화시키게 한다(박선영, 2020).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학교 중퇴율이 높아지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학대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Cohen & Bosk, 2020).

---

10) [https://nasbe.nyc3.digitaloceanspaces.com/2020/04/Hedger\\_Continued-Learning-Plans\\_Final.pdf](https://nasbe.nyc3.digitaloceanspaces.com/2020/04/Hedger_Continued-Learning-Plans_Final.pdf)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11) <https://www.aei.org/covid-19-education-response-longitudinal-survey-cerls/>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특히, 청소년의 생태체계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팬데믹은 보다 악화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주간 보호기관과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아동을 돌볼 곳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장 일이 없는 부모는 팬데믹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직 등에 따른 재정적 속박을 경험하게 된다. 팬데믹에 의해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ttekal & Agans, 2020).

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초래한 크나큰 상황변화 속에서 미국의 청소년분야는 다양한 대응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의 하나는 팬데믹 상황을 청소년에 대한 하나의 역설적 기회로 보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sup>12)</sup>. 팬데믹에 따른 제약으로 청소년은 자유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으며,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한 청소년 분야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적인 모습은 직접적인 대면활동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의 하나로, 사우스 다코다(South Dakota)주의 한 교사가 학생의 집에 가서 현관 문 앞에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수학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다<sup>13)</sup>. 다른 사례로는 다소 혁신적인 비대면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평행 놀이(parallel play)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빵을 굽거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청소년과

---

12) <https://forumfyi.org/blog/what-happens-when-out-of-school-time-is-all-the-time/>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13) <https://www.cnn.com/2020/03/31/us/coronavirus-math-lesson-teacher-trnd/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성인들이 유사한 활동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대응 모습들은 COVID-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인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대응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팬데믹 상황은 당연히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멘토, 코치, 리더 등과 같은 성인 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과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는 서치 연구소(Search Institute)의 발달 자산 모델과 같은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천현장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부모 외의 청소년을 돌보는 성인들과 지속적이며 일관성(consistency) 있는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rossman & Rhodes, 2002).

예를 들면, 애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에서는 프로젝트 플레이(Project Pla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코치들에게 아이들이 활동을 유지하고 신체적 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팀별로 스포츠 영화를 보고 비대면으로 배운 점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sup>15)</sup>.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세븐 테피스(Seven Tepees)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는 단체. 직원들이 청소년과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sup>16)</sup>.

둘째,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를 갖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집에 함께 있게 되는 상황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요리를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요리는 집에 있는 많은 성인들

---

14) [https://www.momjunction.com/articles/parallel-play-toddlers-benefits-activities\\_00680826/](https://www.momjunction.com/articles/parallel-play-toddlers-benefits-activities_00680826/)에서 2021년 6월 21일 인출.

15) <https://www.aspenprojectplay.org/coronavirus-and-youth-sports/>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16) <https://www.seventepees.org>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에게는 인기 있는 소일거리(pastime)인데 이를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요리는 물론,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Ettekal & Agans, 2020). 사례 중에는 팬데믹으로 문을 닫을 상황에 있는 제과점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에서 만드는 피자 키트(at-home pizza making kits)”를 개발하여 파는 일이 있다<sup>17)</sup>. 또한, 가족들이 함께 보드 게임(board game)이나 팀 기반 게임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협력성이나 전략적 사고, 대인간 기술 및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도는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많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복잡한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배우거나 예술에 관한 학습을 통해 기술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Ettekal & Agans, 2020).

셋째, 팬데믹 시기에도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활동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의 기술 함양 활동은 청소년의 강점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며 인지적 기술, 행동적 기술 및 사회적 관계 기술의 범주를 포함한다. 사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스포츠와 같은 활동들은 비대면 모임으로 적응하기 쉽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료, 공간, 또는 집에서의 장비들이 부족하며 특히,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함께하는 성인들이 있거나 학습자에게 지식습득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하는 지원방법이나 학습촉진의 발판이 필요하다<sup>18)</sup>.

미국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s)는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교육적 게임과 기술함양활동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sup>19)</sup>. 또한, 4-H에서는 “집에서 4H(4-H at Hom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17) <https://www.kbtx.com/content/news/Blue-Baker-making-the-most-out-of-their-COVID-19-situation-569518421.html>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18)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calgary-parents-homeschool-pandemic-1.5535203>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19) <https://www.pbs.org/about/blogs/new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거리두기에서도 학습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sup>20</sup>). 볼티모어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리빙 클래스룸(Living Classrooms)은 가족들이 STEAM 활동함(box)을 음식 배분 장소에서 찾아가게 하고 비대면 음악 수업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21</sup>).

넷째,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청소년의 리더십 개발과 관련한 방과후 활동을 강조하게 한다. 방과후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가치로운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리더십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다(Mahoney, Vandell, Simpkins, & Zarrett, 200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중요한 작업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 팬데믹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종전의 리더십과 함께 팬데믹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Minnesota) 주의 와일더재단(Wilder Foundation)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청소년들이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2</sup>). 또한 콜로라도 위기서비스(Colorado Crisis Services)에서는 청소년 리더들이 팬데믹 시기 정신건강에 대한 자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sup>23</sup>). 또한, 위스콘신주, 데인 카운티(Dane County)의 보이즈 앤걸즈 클럽(Boys & Girls Club)에서는 지역 청소년을 위해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연례 샴록셔플(Shamrok Shuffle)이라는 모금행사를 개최해 오던 것을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다<sup>24</sup>). 이 클럽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금 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만들었다<sup>25</sup>).

---

20) <https://4-h.org/about/4-h-at-home>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21) <https://livingclassroom.org/important-safety-update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22) <https://www.wilder.org/article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23) <https://kdvr.com/news/teens-working-on>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24) <https://www.cnn.com/2020/03/31/us/coronavirus-math-lesson-teacher-trnd/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거나 지역 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릴랜드(Maryland)주에 있는 10대 두 명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주도하여 CNN의 관심을 받았다<sup>26)</sup>. 청소년들은 기부를 요청하거나, 배달을 조직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GoFundMe'와 같은 가상 플랫폼을 통해 모금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이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sup>27)</sup>. 유스리드(YouthLead)라는 단체는 세계 도처의 청소년 리더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COVID-19에 대응하는 입장을 갖도록 임파워(empower)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sup>28)</sup>.

이와 같이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청소년 분야의 현장적 대응 사례는 대체로 청소년과 가족들이 성인-청소년 관계성을 유지하고 적응하거나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례, 기술함양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 그리고 기존의 리더십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https://givewp.com/fundraising-events-are-cancelled-giving-is-decreasing-what-now/>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26) <https://www.cnn.com/2020/04/15/us/iyw-teens-delivery-service-for-the-elderly-trnd/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27) <https://www.gofundme.com/> 에서 2021년 6월 21일 인출.

28) <https://youthlead.org/innovation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3)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

#### ①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와 예측

미래 모습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오해섭, 문호영, 2020). 지난 2000년에는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의 내용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 이후의 전체적 변화의 정도 보다 더 크고 급격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거 100년간에 일어났던 변화보다 더 급격하고 대폭적인 생활양식의 변혁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를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① 첨단기술에 기반한 경제사회의 획기적 변화, ② 인류사회 및 우리나라의 난제는 여전히 지속, ③ 삶의 질,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국민의식 변화 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이 모든 것이 청소년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지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기술들이 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혁신적인 변화 유발”이라는 내용을 첫 번째와 관련하여 가정 먼저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post-corona)의 시대 또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불리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미래전망을 더욱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지능 정보기술에 의해 변화할 사회의 형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논의들이 있어 왔다. 향후의 직업구조들에 지능정보기술들이 미칠 영향과 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들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자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기업과 노동, 개인과 개인 등의 사회적 관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인간의 사회적, 개인적 삶의 양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김한준, 2017). 청소년들의 현재 혹은 미래의 미시적, 거시적 사회관계에 지능정보기술들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이경상·이창호·김민, 2018).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도입되어 직업구조 및 노동과정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일상적 사회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도입되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이경상·이창호·김민, 2018).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사회변화가 청소년을 위한 일들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orze & Korze, 2020).

최근 미국의 퓨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미래사회를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전역의 915명의 기술혁신가, 개발자, 기업인 및 정책 지도자, 연구가와 사회운동가들은 앞으로의 중요한 변화로 ①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worsen economic inequality) ② 대형 기술기업의 권력 확대(enhance the power of big technology firms) ③ 거짓 정보의 확산 배가(multiply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등의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팬데믹에 의해 새롭게 나타나는 희망적 상황도 예측하고 있는데, ① 인종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혁의 시작(inaugurate new reforms aimed at racial justice and social equity) ② 많은 가족과 노동자를 위한 삶의 질의 확대(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many families and workers) ③ 기술적 상승의 창출(produce technology enhancements)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Anderson, Rainie, & Vogels, 2021).

이러한 6가지 테마는 이들 전문가들에게 COVID-19에 의해서 2020년에 진행되고 있는(set in motion) 변화들이 무엇이며, 2025년 경의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은 어떤 모습일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응답자의 47%는 2025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유행(pandemic) 이전보다 생활이 '대체로 악화(mostly worse)'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약 39%는

‘대체로 향상(mostly better)’ 된다고 보았다. 또 다른 14%의 응답자들은 팬데믹이 없었다면 있었을 삶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으로 대답하였다. 팬데믹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응답한 86% 중에는 디지털 생활의 진화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반인들의 태도와도 흥미롭게 연결되고 있다. 2020년 8월에 실시한 Pew Research의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 성인의 51%는 팬데믹이 종식된 뒤에도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Anderson, Rainie, & Vogels, 2021).

## ②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미래사회의 모습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분야는 가장 대표적인 대응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에서도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과 정보통신 등의 분야가 새롭게 융합되고 하나로 연결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일자리는 물론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예측된다. 이런 점에서 그에 따른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 트렌드의 빠른 변화는 컴퓨팅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의 로보틱스, 인공지능, 뇌과학, 자동주행 자동차, 모바일 컴퓨팅, 가상 현실, 메타 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테크놀로지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after-school) 프로그램이나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코딩(coding)교육과 앱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 되고 있다<sup>29)</sup>.

미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과학적 개념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체험 교육을 지향하는 STEM(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Mathematics 수학) 수업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에서의

---

29) [https://www.nypi.re.kr/brc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iBwu1rV&brcd\\_id=BDIDX\\_zewPqUx5V8ZThtw5o5fm99&tab=&selTab\\_idx=0](https://www.nypi.re.kr/brc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iBwu1rV&brcd_id=BDIDX_zewPqUx5V8ZThtw5o5fm99&tab=&selTab_idx=0) 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변화 노력이 미래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STEM을 통해 기존과 다른 통합적 학습 환경과 과학적 사고 및 방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업무에서 관심을 갖는 사회-정서적 학습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와 같이 K-12 공립교육의 주류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천가, 부모, 및 정책 결정자들은 점차 청소년업무의 개념에 친숙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나 학교밖 시간에 수행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개념들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Jones & Doolittle, 2017).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out-of-school time programs)의 제공과 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점차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Bodily & Beckett, 2005).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 해결(complex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인력 관리(people management), 타인과의 협력(coordinating with others),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판단과 의사 결정(judgment and decision making), 서비스 지향(service orientation), 협상 능력(negotiation),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등이 포함된다<sup>30)</sup>.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은 또한 이러한 10가지의 기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성공적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것은 아니며, 포스트 COVID-19의 직업시장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1)</sup>.

30) <https://www.forbes.com/sites/elleavate/2018/08/06/the-skills-you-need-to-succeed-in-2020/?sh=3aa7db89288a>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31) <https://www.weforum.org/agenda/2020/10/3-ways-to-prepare-young-people-for-the-post-covid-jobs-market>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미국의 유명 대학과 세계적 선도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인재를 찾고 있지만, 미국의 공교육체제나 학교환경, 그리고 진로교육의 내용에서 얼마나 이에 잘 맞추고 있는지는 또 다른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혁신적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8세-29세 전국 청소년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21년 4월에 발표한 하버드 청소년 여론조사 41판(Harvard Youth Poll, 41st Edition)의 결과는 지금의 미국 청소년들의 현 바이던 행정부와 미래사회 전망,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 등에 대해 밝히고 있어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2)</sup>.

우선, 하버드 청소년여론조사는 미국에 대한 희망이 높고 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믿음도 높음을 보여준다. 2017년 가을의 조사에서는 미국 청소년의 31%가 미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답했으며 67%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약 4년 뒤인 이번 조사에서는 56%가 희망을 갖고 있었다. 백인 청소년들의 희망정도는 11%가 높아졌는데(35%에서 46%) 유색 청소년의 태도변화는 놀라운 수준이다. 2017년에는 흑인 중 18%였던 것이 72%가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4%). 히스패닉 청소년은 2017년에는 29%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높게 나타났다<sup>33)</sup>. 특히, 미국 청소년의 약 40%는 바이던 행정부 이후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sup>34)</sup>. 이는 트럼프(Trump) 대통령에 대한 것 보다 약 2:1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이던(Biden) 행정부에 대한 기대는 40%가 더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으며, 나빠질 것으로 답한 것은 19%로 나타났다. 25%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다<sup>35)</sup>.

---

32)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33)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34)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35)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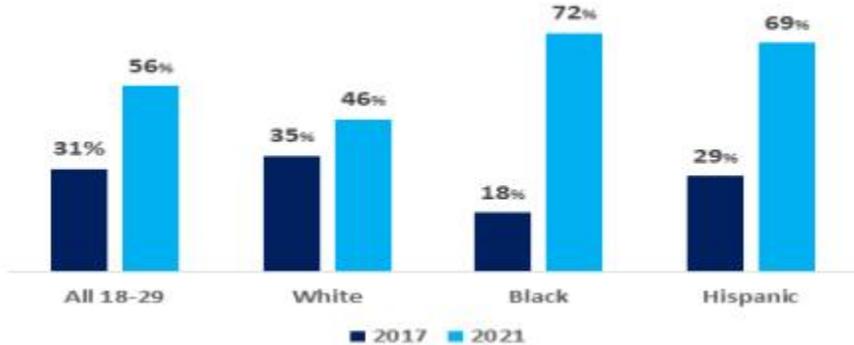


그림 III-1. 미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

\* 출처: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하버드 청소년여론 조사는 또한, 미국 청소년의 4분의 3 이상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 미디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미국 정부가 빅테크(big tech)를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페이스북(Facebook)은 16개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9%의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을 신뢰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유사하게 38%는 월 스트리트(Wall Street)도 신뢰한 적이 없으며, 35%는 트위터(Twitter), 32%는 일반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약 4분의 1은 아마존(Amazon)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35%의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는 정신건강과 미국 민주주의 두 가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4분 1에 못 미치는 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가운데 약 5분의 3(58%)은 정치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일반 시민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sup>36)</sup>.

36)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이와 같이 하버드청소년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오늘의 미국 청소년들은 보다 희망적이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이며 미국인에 대한 보다 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에서는 점차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가장 큰 투표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치와 참여와 관련한 의식과 생각은 미국 사회의 미래전망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이들이 관심을 갖는 미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긴급성을 알려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4) 미래사회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방향

##### ①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미국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5개년계획’과 같은 중장기 종합계획(master plan)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한 범분야 연방 청소년정책(a single overarching federal youth policy) 또는 입법 장치(legislative vehicle)를 갖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 전문가와 민간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합의된 단일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천정웅·이민희·박선영·황성하, 2013).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청소년전문가 9명 중 7명은 국가청소년정책의 결여를 미국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도전과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Borden et al., 2020). 이는 미국의 정부체제가 연방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성 자체가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정책의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은 주별, 지역별로 따로 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미국은 21곳 이상의 연방부서와 기관들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아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하부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다(Pozzoboni & Kirshner, 2016). 다만, 이들 유관기관들은 2008년 이후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기관간 실무그룹(IWGYP: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을 설치하여 공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IWGYP의 성과는 지난 2016년 12월에 ‘청소년을 위한 통로(Pathway for You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있는데, 이 기구에 참여 중인 “연방 협력기관(partners)들의 공통의 목적을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IWGYP, 2016: 3).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관점에서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과 지역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천정웅, 2020). 청소년개발은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잠재력 발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진입하도록 돕는 접근방법이다(여성가족부, 2020). 이러한 정책적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COVID-19 팬데믹(pandemic)과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Arnold, 2020),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취약한(vulnerable)’ 청소년, ‘위기에 처한(at-risk)’ 청소년 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단절된(disconnected)’ 청소년 등과 같은 용어들이 새롭게 ‘기회(opportunity)’ 청소년 또는 ‘가능성이 있는(at-promise)’ 청소년 등과 같은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7)</sup>. 사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부정적 레이블(label)에서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a new paradigm)으로 ‘가능성이 있는(at-promise)’ 청소년(학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Swadener & Niles, 1991).

사실, ‘취약한’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보편적 정의는 없다. 이러한 명칭에 대해 일부에서는 잠재적 낙인효과가 있다고 보아 사용하지 않아야

---

37) <https://www.aspencommunitysolutions.org/who-are-opportunity-youth/>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Fernandes-Alcantara, 2020). 최근 Measure of America(MOA) 라는 비영리 사회과학연구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에서는 16-24세 청소년 중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2018년의 경우 약 11.2%로 청소년 9명 중 1명으로 나타났는데, 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4 또는 5명 중 1명의 비율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20).

미국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은 그동안 이러한 기존의 용어에 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전개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접근과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용어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sup>38)</sup>. 우선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스닷거브(youth.gov)에서도 기회청소년(opportunity youth)으로 공식화하고 있다<sup>39)</sup>. 특히,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는 기존에 '위기에 처한(at-risk)' 청소년으로 부르던 것을 2020년 1월부터 '가능성이 있는(at-promise)' 청소년으로 부르도록 하는 입법 개정이 있었다<sup>40)</sup>. 기존의 용어가 해당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기인식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41)</sup>. 이러한 청소년들은 교육적 지원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결정으로 평가된다<sup>42)</sup>.

청소년 용어에서의 전환적 접근 외에도, 최근 미국 청소년분야의 핵심적 리더들은 청소년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s)을 강조하고

---

38) <https://www.aypf.org/youth-populations/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39) <https://youth.gov/youth-topics/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40) <https://www.foxnews.com/us/california-change-at-risk-to-at-promise-youth> 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41) <https://www.impact.upenn.edu/opportunity-youth-toolkit/why-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42)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at-promise-can-a-new-term-for-at-risk-change-a-students-trajectory/2020/01>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있다. Borden 등(2020)은 청소년 가치의 국가적 인정과 연방정책을 지역적 상황에 맞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Shek, Leung & Merrick(2017)은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소프트 스킬(soft skill) 개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Fusco(2012)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 목소리를 촉진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정책의 핵심은 청소년업무의 가치와 공유된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청소년 업무의 핵심가치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청소년업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청소년 분야가 분열적(fractured field)이라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청소년업무의 실천현장은 “활동이 있는 장소들이 다양한 만큼 제각각이다”(Pozzoboni & Kirshner, 2016: 3). 청소년지도자들을 고용하는 단일한 기구는 없으며, 청소년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일한 상황은 없다(Cooper, 2018).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각기 다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ozzoboni & Kirshner, 2016). 즉, 청소년 분야의 복합적이고 분열적인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관 간의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며, 이는 기관들 간의 이기적 벽을 허물고 청소년분야를 하나된 것으로 향해나가도록 할 것으로 본다(Border et. al., 2020).

또 다른 주장은 기존의 단체와 기관 중심의 현장 활동과 분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과 조직들 간의 제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Dunne, Ulicna, Murphy, & Golubeva, 2014). 기관별로 자기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siloed organizations)의 본질적 특성은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가치와 조직의 기여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청소년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Borden et al., 2020). 조직들 간의 제휴는 청소년업무 분야의 융합과 진전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IWGYP의 연방공동협력 전략계획의 첫 번째 목적에서도 청소년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된 전략을 증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IWGYP, 2016). 즉,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범주화된 프로그램과 기관별 이기적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들에 적합하지 않은 복합적인 도전과제들에 직면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제휴하고 공동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IWGYP, 2016: 15).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청소년정책과 실천의 내용을 지역적 상황에 맞도록 맥락화하는(contextualizing locally) 것을 요청한다. 국가적 차원의 연방정책과 이니셔티브들을 지역적 상황에서 맥락화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미국은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일반적 지침을 만들거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배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수준에서의 청소년정책이던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없다. 또한, 연방정책은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위한 준비(work readiness)와 같은 구체적 분야에서의 각 지역별 정책의 도전과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방차원의 이니셔티브와 정책들을 지역적 맥락(local context)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로서, 지역적 커뮤니티로서 각기 적합한 현지화된 정책으로 지역적 상황에 맞도록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인 것이다(Borden et al., 2020).

미국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청소년을 주로 서비스의 대상과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보는 기존의 접근을 청소년 참여적 인권에 기반한 청소년 주도적(youth-led) 업무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모든 업무(youth work)와 정책설정(policy setting)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업무 자체에서 청소년 자신들의 기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Leman et al., 2017). 청소년주도

(youth-led) 이니셔티브들은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 정책 변화,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위한 청소년업무의 중심적 전제는 청소년인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과 관계성, 커뮤니티, 및 공정(fairness)에 관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혁신적이며 긍정적 인간(human being)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Fusco(2012)는 청소년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커뮤니티의 입장을 명목주의(tokenism)를 넘어 대표하게 될 때에만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범주로서의 '청소년'은 연령주의(ageism)가 전제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전제에 도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 전체의 너무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은 정책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책에서의 발전과 실행의 민주주의적 과정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②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및 실천 방안

미국에서 단일한 범분야 증장기 국가청소년정책이 없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형성과 관련한 역사적 과정, 미국의 정부 구성형태와 시스템, 사회문화적 전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정책은 1900년대 초에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복수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니셔티브들로 부터 진전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시작 때부터 1950년대까지, 청소년정책은 광의적 아동복지 이슈의 준거틀(framework) 속에서 실행되어 왔다. 이 시기에 16-23세의 청소년을 위한 일과 교육 지원프로그램들이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재정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후 점차 연방의 관심은 비행청소년의 수적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64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선언 이후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관련 기관들을 통해 나타나고 만들어졌다(Fernandes-Alcantara, 2020).

최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개발을 증진시키고 청소년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연방기관들 간의 조정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IWGYP인 것이다. 특히, IWGYP에서는 2016년 12월에 ‘청소년을 위한 통로: 연방 공동협력을 위한 전략 계획(Pathway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을 발행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만든 최근의 공식적 정책계획문서로 평가된다. 시기적으로 COVID-19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이 계획 내용에 반영되는 않았지만,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부서 간의 업무협력과 실행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여기에는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 및 실천방안 등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IWGYP, 2016).

우선, IWGYP는 청소년에 초점을 둔 활동을 지원하는 12개의 연방 부서와 7개의 연방 기관으로 구성되며, 기본 책무는 2008년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459호와 Omnibus Appropriation Act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 연방, 주, 지역 및 마을 차원에서 혁신적 공동협력의 증진, ㉡ 증거 기반 전략의 규명과 보급, 그리고, ㉢ 청소년에 관한 연방 기관간 웹사이트 개발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IWGYP, 2016). ‘청소년을 위한 통로(Pathways for Youth)’는 10-24세 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일, 가족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강조한다.

IWGYP는 본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공적 의견수렴을 하였다. 미국 전역에서의 청문회, 청소년 주제에 초점을 가진 학술행사를 활용한 단기 청문회, 청소년과의 청문회, 라운드 테이블, 연구자와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주체들과 함께한 웨비나, 유스닷컴(youth.gov)을 통한 피드백, 그리고 연방 정부 관보를 통한 공지 등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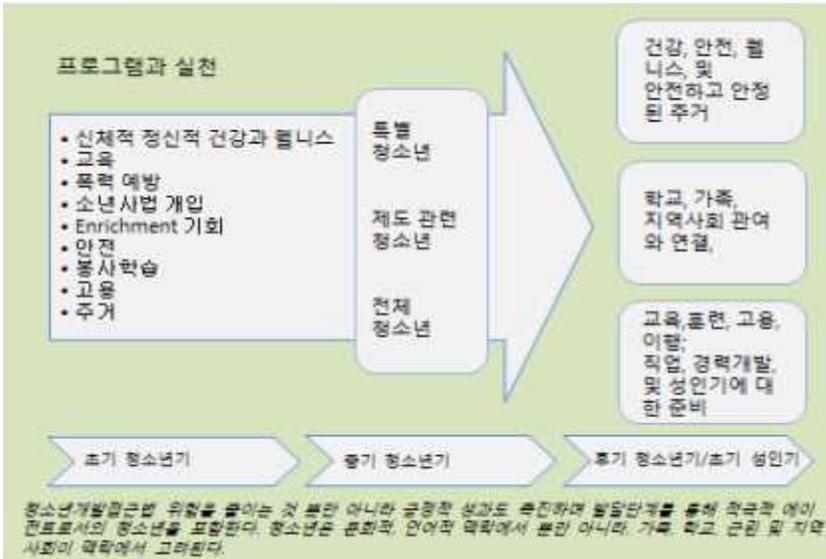


그림 III-2. 미국의 연방 기관간 공동협력을 위한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준거틀

\* 출처: IWGYP(2016), p.7에서 번역하여 재인용함.

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적인 과정은 ㉑ 의견을수렴을 위한 분석틀 개발, ㉒ 일반국민 의견수렴, ㉓ 연방 전략계획을 포함하여 청소년주제에 관한 핵심적 전략문서의 검토, ㉔ 의견수렴 결과의 요약 공시 및 일반인의 피드백 요청, ㉕ 연방파트너 기관들의 관여, ㉖ 초안 문서 개발과 국민들의 피드백 요청, ㉗ 청소년을 위한 통로(Pathways for Youth) 마무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스닷거브(youth.gov)에 제시된 초안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한 공식적인 커멘트는 총 43개 였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초안의 내용을 지지하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의 공동협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IWGYP, 2016).

‘청소년을 위한 통로(Pathways for Youth)’는 청소년을 위한 비전(vision for youth)과 3대 전략목적(goal)을 갖고 있다. 각 목적은 몇 개의 목표(objective)와 전략을 갖는다. 전략목적은 IWGYP의 기본 목적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연방, 주, 지역 수준에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것이다. 각 기관의 일과 부서들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본 계획에 제시된 세 가지 전략을 추구한다(IWGYP, 2016). 이러한 계획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은 19개 파트너 연방 부서와 기관들에 확산되었으며, 이는 최선을 다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을 교환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중복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화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IWGYP, 2016). 계획에 서술된 업무 프로그램들은 기관들이 공동협력하여 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계획의 전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b>서론</b>		
IWGYP의 배경과 임무; 계획 마련을 위한 과정에 대한 서술, 최초의 분석들, 공적 의견수렴 과정, 연방정부의 초안 작성		
<b>청소년을 위한 비전</b>		
강점 기반의 청소년을 위한 비전을 통해 청소년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결과 안전, 건강 및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는 안정된 장소를 포함하는 통로(pathways)의 중요성 확인		
<b>청소년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b>		
<p><b>목표 1:</b> 청소년 성과 개선을 위한 조정 전략의 증진</p> <p>하위목표 1: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지침의 조율과 단순화</p> <p>하위목표 2: 연방, 주, 지역 및 마을 차원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의 조정</p> <p>하위목표 3: 자원을 지렛대로 하는 기술지원 노력의 조정</p>	<p><b>목표 2:</b> 연방, 주, 지역, 마을 차원에서의 증거기반 및 혁신적 전략 시용의 증진</p> <p>하위목표 1: 증거기반 전략의 채택 격려 및 그 실행 지원</p> <p>하위목표 2: 혁신 지원 및 지식의 격차를 메꾸는 증거기반의 심화</p>	<p><b>목표 3:</b> 프로그램 강화와 청소년에게 이로운 청소년 관여와 파트너십의 증진</p> <p>하위목표 1: 지속된 청소년관여의 지원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인 관계성의 증진</p> <p>하위목표 2: 생활기술과 리더십기술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비판적 기술을 개발, 숙련, 응용하는 복합적 기회의 연방, 주, 지역 및 마을 차원에서의 제공과 격려</p>
<b>범분야 이니셔티브</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방지원 신청과 연방 문건과 출판을 위한 범분야 청소년 주제들에 관한 공유어 개발</li> <li>2. 청소년을 위한 기회의 통로를 제공하는 공동협력 모델의 평가·보급 및 긍정적 결과 도출</li> <li>3. 청소년 관여와 파트너십 전략을 포함하는 청소년을 위한 증거기반 전략에 관한 정보의 집중과 보급</li> <li>4. 데이터 수집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장기적 평가의 증진</li> </ol>		
<b>관련 문서</b>		
행정명령 13459호, Omnibus Appropriations Act 언어, IWGYP 참가자 명단, IWGYP 공공 의견수렴 요약보고서		

**그림 III-3. 연방기관 협력계획 ‘청소년을 위한 통로(Pathways for Youth)’의 구성**

\* 출처: IWGYP(2016), p.38의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함.

##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는 국가가 되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백신 등 대응조치에서도 가장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국가전략의 큰 틀은 없지만, 주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사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COVID-19 경험과 그에 따른 대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청소년을 중심에 두는 청소년제일(youth-first)의 접근과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역설적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포털인 유스닷거브(youth.gov)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청소년기관단체 등의 모든 웹페이지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정보를 초기화면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원격교육 제공과 출석 정상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시간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학습참여 및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 보다 가정에서 시간을 주로 보내면서 자유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대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모임을 활용한 기존 프로그램과 활동의 지속으로 멘토나 성인지도자 및 또래들과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자체를 경험하는 기술함양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활동과 관련한 리더십 개발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은 물론, 청소년업무와 관련하여 학생과 청소년을 중심에 두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한 청소년에 특화된 정보 제공은 물론, 비대면

상황에서도 청소년프로그램과 활동의 지속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적극적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긍정적 청소년발달과 청소년개발의 기조로 하는 가운데, 청소년 가치의 국가적 인정과 청소년기관 중심의 이기적인 분산적 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하나의 청소년운동이 되도록 하는 등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 관점(positive perspective)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취약한’ 청소년,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의 용어들이 ‘기회’ 청소년, ‘가능성의’ 청소년이란 용어로 전환되고 있으며, 청소년업무가 가치로운 일로 인정받고 핵심가치에 대해 합의하는 연방 청소년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동안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분열적인 청소년업무 실천 현장을 통합하고 청소년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형태에서 청소년운동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업무의 진전을 위해 각자의 목적과 범주별 재정에 의존하는 기관들의 이기성을 극복하여 제휴를 모색하고 공동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사회발전(development)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positive development) 또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에 대한 재조명이 요청된다. 사실,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들은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정 청소년집단을 주변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오해섭, 문호영, 2020), 미국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중요한 것이다. 특히, 미국 청소년 정책의 한계는 능력보다는 청소년이 문제를 교정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친사회적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방정부가 일반적 지침을 만들거나 주정부와의 역할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인 계획과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에 맞도록 하는 지역적 맥락화(community-based local contextualization)가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령에 의해 구성된 미국의 연방 청소년기관들의 협의기구인 IWGYP에서 수립한 정책 계획인 ‘청소년을 위한 통로(Pathways for Youth)’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목표1’의 하위목표로서 ‘연방, 주, 지역 및 마을 차원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의 조정’ 및 ‘목표 2’로 제시된 ‘연방, 주, 지역, 마을차원에서의 증거기반 및 혁신적 전략 사용의 증진’과도 연결된다.

미국의 청소년전문가들은 하나의 국가로서 지역적 커뮤니티로서 각기 적합한 현지화된 정책이 가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의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미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지역적 맥락화는 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통하여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현실성 있는 개입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지역적 맥락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넷째, 청소년업무의 초점을 청소년을 중심에 두도록 하고 청소년의 긍정성과 혁신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내용과 실천과정에서 명목주의나 연령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주도하는 접근(youth-led approach)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업무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유사하거나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업무가 인위적으로 제도화되고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마련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소년 지도자의 사회적 존재성은 미약하다. 또한, 지난 1998년 이후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을 국가중장기계획의 핵심적 내용으로 해 왔지만,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정책기구라기 보다는 청소년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 자치단체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청소년위원회 운영이 더욱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궁극적 목표는 청소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학 기술 발달과 코로나 19 감염병이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던 긍정적으로 하던 청소년업무의 본질적 가치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상황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능정보기술들이 청소년은 물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긍정적인 것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할 것임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업무의 필요성과 목표,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의 경험과 정책적 동향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의 개발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청소년제일(youth-first)과 새로운 플랫폼(platform)을 통한 역설적 기회 활용, 적극적 관점(positive perspective)의 준거틀(framework)로서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에 대한 재조명,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중심의 현지 맥락화(local contextualization), 그리고 청소년의 혁신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청소년주도(youth-led)의 접근은 미국의 사례가 주는 대표적 함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의 영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sup>43)</sup>

### (1) 서론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보고된 것은 2020년 1월 31일이나(2명),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부터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3월에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올랐고 급기야 4월에서 5월, 일일 확진자 수가 4천에서 6천여 명에 달하며 1차 대유행을 맞았다. 이후 증가 추세가 다소 진정되다가 9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10월부터는 일일 확진자가 만 명대에 돌입하였고, 2021년 초에는 5~6만여 명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였던 2021년 1월 4일의 경우 76,136명). 그 결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영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4,879,950명, 누적 사망자 수는 128,303명에 달하여 유럽 내에서도 심각한 편이다(영국 정부 포털 코로나19 데이터 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월 말부터 영국 정부는 소극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봉쇄정책(lock-down)을 시행하였고, 이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어, 2021년 7월 1일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누적 4,501만여 명(성인 인구 전체의 82.8%),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3,324만여 명(61.2%)에 이른다(영국 정부 포털 코로나19 데이터 페이지).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완화, 해결하고자 2020년 3월 노동자의 대량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유지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지원계획(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

43) ‘제3장 영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는 홍신대학교 손병덕 교수가 작성하였다.

Scheme) 등을 빠르게 도입하고(영국 정부 포털 코로나19 대응 페이지), 2020년 5월에는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대응전략으로 「재건계획: 영국 정부의 코로나 19 극복 전략(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을 발표하는 등 사회 주요 영역에 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국가 중 하나인 동시에 오늘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영국의 코로나 19 경험과 대응,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습, 심리·정서, 안전과 보호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청소년정책 방향성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코로나19 경험과 대응

### ①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어려움과 문제

청소년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낮은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 영국 내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률, 감염 시 위험도 및 치사율 등은 다른 연령집단 보다 크게 낮아 2020년 한 해 동안 잉글랜드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25명에 불과했다(Geddes & Quinn, 2021; Swann et al., 2020). 그러나 이들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건강 및 정신건강 문제, 아동학대 위험, 사회성,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및 범죄 노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저소득, 한부모, 이주배경 등의 취약 청소년에게서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과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학습 결손 문제, 폭력과 학대 위협,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치는 영국의 많은 청소년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및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110만여 명이 빈곤선 아래 즉 절대빈곤 상태로 추락하였고 이 중 아동·청소년은 20만 명이 넘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IPPR, 2020).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Universal Credit(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당을 통합한 통합수당)'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직후인 2020년 4월과 5월, 아동이 있는 신규 수당 신청 가구는 40만 이상에 달했다(Hagell, 2021).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선단체 Buttle UK가 사회 복지, 교육복지, 의료보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실천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Smith & Barron, 2020). 아래 표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약가정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정적 지원 및 식품, 주거비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중 푸드뱅크(83%), 지역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64%), 경제생활 관련 조언(62%), 공과금 지원(58%)에 대한 욕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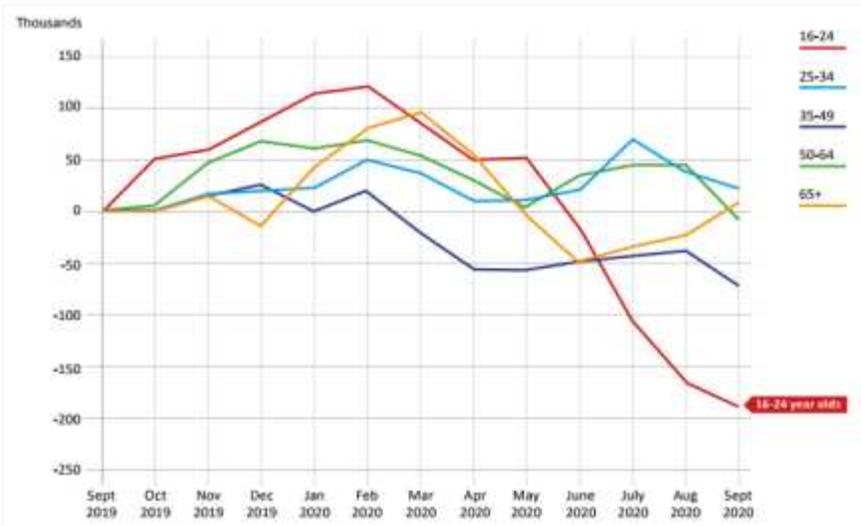
표 III-1. 코로나19 기간 중 취약가정의 지원 욕구

(단위: %)

구분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율	코로나19 이후 변화		
		지원 필요 감소	변화 없음	지원 필요 증가
푸드뱅크	47	1	16	83
경제생활 관련 조언	43	2	36	62
지역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	39	1	35	64
주거용품 지원(가구, 가전 등)	35	5	37	38
공과금 지원	34	2	41	58
주거공간 지원	32	7	55	38
집세 지원	31	2	48	50

\* 출처: Smith & Barron (2020). The State of Child Poverty 2020 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Covid-19 on Families and Young People Living in Poverty: 27.

한편 청소년 고용여건도 악화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청소년 고용자 수는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는 다른 연령집단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였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어려움은 Gustafsson(2020)의 연구에서도 다르지 않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3명 중 약 1명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고통받고 있다 하겠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 시기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과 정신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Griggs & Walker, 2008; Paleologou et al., 2018)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 출처: Hagell (2021). Summarising What We Know So Far about The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5.

그림 Ⅲ-4. 연령별 취업자 수(2019년 9월 - 2020년 9월)

### ○ 학습 결손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가 학습 결손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3월경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학교를 닫았고(전면 폐쇄 150개국, 부분 폐쇄 10개국, 학교 운영 10개국) 그 결과 지난 1년간 약 2억 1,400만 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 학습 결손을 경험하였다(UNICEF, 2021a).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비슷했다. 영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3월 20일 전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초·중등학교, 기술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휴교령을 발표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재개와 휴교를 반복했다(강호원, 2020). 그 결과 영국 청소년의 대부분은 최소 6개월 이상 학교

에서의 학습기회를 잃었고, 이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첫 봉쇄 기간 동안 영국 청소년의 교육시간이 약 30% 감소했다고 평가했다(Andrew et al., 2020; Hagell, 2021).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또는 부분적 휴교가 늘면서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었는데, 이 또한 많은 청소년에게 어려움과 부담을 야기했다. 관련 연구들은 많은 청소년이 원격학습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연결이 없거나, 또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책상 등이 없는 어려움이 주요했다(Ofcom, 2020; Smith & Barron, 2020).

### ○ 폭력과 학대 위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돌봄 또는 복지기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의 폭력과 학대 위험은 높아졌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지원기관들은 코로나19 및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신고, 상담 등이 급증하였음을 보고하며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의 취약성과 위험,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하는 청소년 보호 및 지원방안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전국 규모의 가정폭력 상담기관인 ‘National Domestic Abuse helpline’은 코로나19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전화 및 온라인 신고가 약 25% 증가하였다고 밝혔고(Kelly & Morgan, 2020), 무료 온라인 상담서비스인 ‘Kooth’는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성학대, 방임 등에 대한 신고가 전년 대비 69% 증가, 특히 서남권 지역에서 87%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Kooth, 2020).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구 ‘Childline’ 역시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1,325건이었던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 코로나 이후에는 1,730건(2020년 5월 기준)으로 약 31% 증가하였다(Romanou & Belton, 2020).

표 III-2. 아동학대 관련 상담 건수(Childline)

(단위: 건)

구분	아동학대 전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 3일) 월평균 상담건수	1,325	420	303	30	572
2020년 4월 1일-30일 상담건수	1,624	547	483	31	563
2020년 5월 1일-31일 상담건수	1,730	559	500	44	627

\* 출처: Romanou & Belton (2020). Isolated and Struggling: Social Isolation and the Risk of Child Maltreatment, in Lockdown and Beyond: 31.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중대한 아동보호 사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실천 검토위원회(Child Safeguarding Practice Review Panel)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 증가한 학대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보호실천 검토위원회의 2020년 연차보고서(Child Safeguarding Practice Review Panel, 2021)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대 사고로 보고된 사례는 482건, 이 중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206건이었는데 이때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및 휴교 조치를 취한 2020년 4월부터 9월 동안 보고된 중대 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7% 많아,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의 학대 위험은 큰 반면 학교와 복지시설 등이 문을 닫은 가운데 이들을 발견하고 보호, 지원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온라인 폭력과 성착취 위험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대부분의 집에 머무는 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폭력과 성착취 위험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전 세계적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작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그 위험성이 더욱 심화된 추세이다(Townsend, 2021; Winchester, 2020).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에 따르면, 아래 표로 제시한 바와 같이 온라인 성착취 관련 상담은 코로나19 봉쇄 전 월평균 207건에서 봉쇄 후 230건으로 11% 증가하였고, 이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대한 상담은 봉쇄 전 97건에서 봉쇄 후 129건으로 33% 증가,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도움전화(helpline) 연락 건수는 봉쇄 전 117건에서 봉쇄 후 187건으로 60% 증가하였다(NSPCC, 2020).

최근에는 온라인 또는 디지털 그루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또는 ‘디지털 그루밍(digital grooming)’은 온라인 채팅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국에서는 주로 채팅 또는 메시지 앱(Discord, Kik, Whatsapp 등), 소셜미디어 네트워크(Facebook, Instagram, Snapchat 등),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Twitch, Yubo 등), 온라인게임 채팅 서비스(Fortnite, Battle Royale 등) 등이 주요 경로로 밝혀졌다(NSPCC, 2020).

표 III-3. 온라인 성착취 관련 상담 건수(Childline)

(단위: 건)

구분	봉쇄 전 월평균 상담 건수	봉쇄 후 월평균 상담 건수	봉쇄 전-후 상담 증가율
온라인 성착취 관련 전체 상담 건수	207	230	1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건수	97	129	33%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도움전화(helpline) 연락 건수	117	187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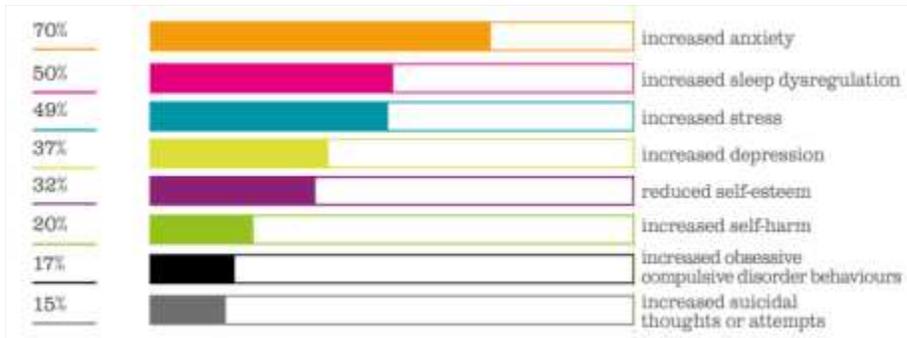
\* 출처: NSPCC (2020).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Child Welfare: Online Abuse: 14-15.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 청소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채팅 앱이나 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처음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청소년 대부분은 이러한 온라인 범죄와 위험, 그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NSPCC, 2020). 이에 오늘날 디지털화가 사회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성학대와 성착취를 비롯하여 온라인 도박, 온라인 폭력과 괴롭힘 등 다양한 온라인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며, 동시에 이러한 범죄들로부터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 하겠다.

### ○ 건강 및 정신건강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전국적 봉쇄 및 휴교 조치가 발효되던 초기 즉 2020년 4-5월경, 영국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조치들로 인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청소년 및 부모와 양육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합동연구로서 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레스터 대학교 등 여러 대학과 연구진이 참여한 ‘Co-Space 연구(Co-Space study)’에 따르면, 봉쇄 및 휴교 기간 동안 청소년의 행동적 어려움, 안절부절(증),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gell, 2021; Pearcey et al., 2020). Barnardo’s(2020)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불안이 증가하거나(70%) 스트레스(49%), 우울(37%), 자해(20%), 자살 생각 또는 시도(15%)가 증가한 청소년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 출처: Barnardo’s (2020). Mental Health and Covid-19: In Our Own Words: 6.

### 그림 Ⅲ-5.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영양, 운동 등의 변화 또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Barnardo’s(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적지 않은 청소년의 수면생활이 불규칙해졌고, Kooth(2020)에 의뢰된 청소년 상담에서도 밤중에 깨거나 잠들지 못하는 등 수면 문제에 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반면 식생활과 영양, 운동 등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발견된다. Barnardo's(2020)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브리스톨 지역 응답자의 약 41%는 코로나19 이후 식생활의 질(quality)이 높아진 반면 39%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의 경우, Streetgames(2020)의 연구에서 응답 청소년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Barnardo's(2020)의 연구에서는 응답 청소년의 약 45%는 봉쇄조치로 인해 오히려 운동량이 늘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 ○ 취약 청소년

Mutter(2016)는 자신의 저서 「재난 불평등」을 통해 지진과 태풍 등과 같은 재난의 피해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음을, 다시 말해 약자에게 더 크고 가혹함을 보여주며 그 불평등성을 고발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역시 저소득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장애 청소년, 정신건강 상 어려움(예: ADHD, 우울 등)을 갖고 있던 청소년에게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nardo's, 2020; Cullinane & Montacute, 2020;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Hagell, 2021). 예를 들어 저소득 청소년은 온라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컴퓨터, 인터넷 연결 등) 부족으로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Cullinane & Montacute, 2020), 고소득 가정 청소년보다 하루 약 1.3시간 적게 학습하고(Andrew et al., 2020), 숙제 등 학습 결과물의 질적 저하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ullinane & Montacute, 2020).

이러한 편차는 정신건강 및 웰빙(well-being) 차원에서도 발견되어, 저소득 청소년, 장애 청소년,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의 약자로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을 지칭)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높은 불안,

더 낮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고(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기존에 ADHD나 우울 등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갖고 있던 청소년의 대부분(83%)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Barnardo's, 2020).

이외에도 주거 빈곤 또는 노숙 청소년(Abbs & Marshall, 2020),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청소년(Adoption UK, 2020),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간호와 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Carer Trust, 2020) 등 다양한 취약 청소년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상의 붕괴, 심리·정서적 어려움 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맞춤형된 정책과 개입이 시급하였다.

## ②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을 위한 영국 정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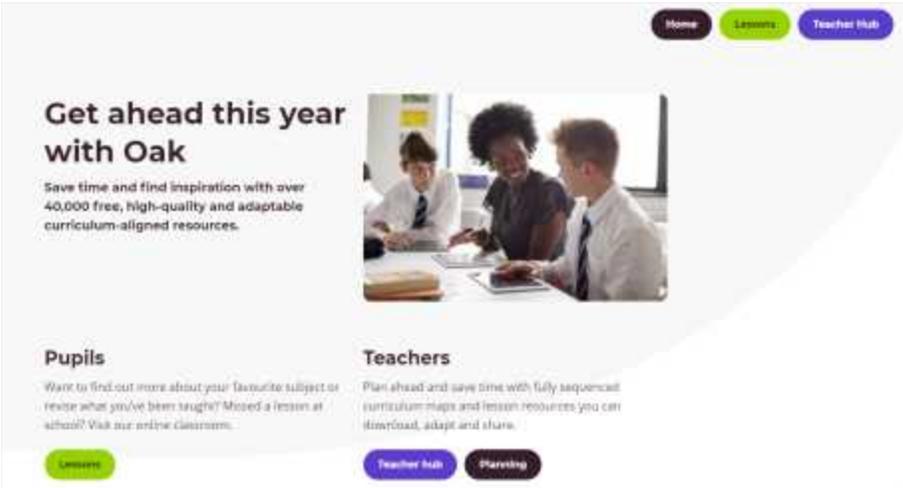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 1차 접종자 수가 성인 인구 전체의 82.8%,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성인 인구 전체의 61.2%에 이르는 등(영국 정부 포털 코로나19 데이터 페이지),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 개입하고 있는지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보호, 복지 부문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 ○ 교육 부문의 정책적 대응

영국 정부는 교육 관련 대응 및 지원으로서 봉쇄 및 휴교 기간 중 학교 운영, 원격수업 지원, 급식(바우처)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먼저

영국 정부는 봉쇄 및 휴교 기간에도 필수 노동자(보건복지, 교육·보육, 주요 공무, 중앙 및 지방 정부, 치안 및 국가안보, 대중교통, 통신, 수도·전기, 은행, 식자재 공급 관련 종사자)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하여는 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ibieta & Cottell, 2020). 그 결과 잉글랜드 지역 전체 학교의 약 71%에 해당하는 학교가 휴교 기간에도 문을 열었고 전체 학생의 1.7%에 해당하는 학생이 등교하였다. 이와 함께 중학교 과정을 평가하는 GCSE 또는 대학입학시험에 해당하는 A-level을 준비하는 학년 집단,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집단에 대하여는 다른 학년 집단보다 휴교 기간을 5~8주 단축하여 학업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4월에 ‘오크 전국 아카데미(Oak National Academy)’라는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여 2020년 가을학기부터 각 학교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녹화 강의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강호원, 2021;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b). 오크 전국 아카데미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학령 전 과정에서부터 중등과정(~11학년)까지 국가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온라인 녹화강의, 수업 슬라이드, 활동지, 퀴즈 등 약 4만 종의 자료를 개발하였고, 그를 통해 약 1억 3천만 차시의 수업을 제공하였다(Oak National Academy 홈페이지, 아래 그림 참조). 이처럼 원격수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 및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 지원도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지방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20만여 명(전체 학생의 약 2.6%)에게 노트북을 지원, 4만 7천여 명(전체 학생의 약 0.6%)에게 4G 인터넷 공유기를 지원하였다(Sibieta & Cottell, 2020).



\* 출처: Barnardo's (2020). Mental Health and Covid-19: In Our Own Words: 6.

### 그림 III-6. 오크 전국 아카데미(Oak National Academy)

수업 손실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특히 학생 간 학습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2020년 가을학기부터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캐치업 프리미엄(Catch-Up Premium: CUP)’을 추진하고 있다. 총 10억 파운드(한화로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중 6억 5,000만 파운드(한화 약 9,750억 원)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3억 5,000만 파운드(한화 약 5,250억 원)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을 위한 교내 보충수업(개인 및 소그룹 교습 지원) 곧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National Tutoring Programme: NTP)’ 지원으로 편성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가을학기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 1년 동안 약 240,200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021년 7월 기준 5,700개 이상의 학교에 약 27,000명의 튜터, 약 950개 학교에 1,000명 이상의 멘토를 지원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1b, 2021c).

휴교령 발효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결식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지원 또한 도입하였다. 지역에 따라 1인당 주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사이(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주 15파운드)로 책정되었고, 학기 중과 방학 기간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Sibieta & Cottell, 2020). 가정 및 온라인 학습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 지원도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지방정부는 취약 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20만여 명(전체 학생의 약 2.6%)에게 노트북을 지원, 4만 7천여 명(전체 학생의 약 0.6%)에게 4G 인터넷 공유기를 지원하였다(Sibieta & Cottell, 2020). 아래 표로 교육 부문에서 추진된 정부의 주요 대응을 요약하였다.

표 III-4. 영국 정부의 교육 부문 주요 대응(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	내용
봉쇄 기간 중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면교육 운영: 잉글랜드 지역 전체 학교의 71% / 전체 학생의 1.7%(취약계층 학생의 6.7%) 등교</li> <li>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휴교 기간 운영 (GCSE 및 A-level 준비 학년의 경우 5주 /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및 6학년의 경우 7주 / 그 외 학년의 경우 12-14주)</li> </ul>
원격수업 및 디지털 격차 해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학교 '오크 전국 아카데미(Oak National Academy)' 설립 및 온라인 녹화 강의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령 전 과정에서부터 중등과정(Early Years Foundation ~ Key Stage 4) / 국가교육과정 대상</li> <li>약 4만 종의 교육자료 개발(녹화강의, 수업 슬라이드, 활동지, 퀴즈 등)</li> <li>약 1억 3천만 차시의 수업 제공(전국)</li> </ul> </li> <li>노트북: 전체 학생의 2.6%(20만여 명)</li> <li>인터넷 공유기: 전체 학생의 0.6%(4만 7천여 명)</li> </ul>
학습 격차 해소 지원 (빈곤층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치업 프리미엄(Catch-Up Premium):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을 위한 일회성 지원 및 교내 보충학습(개인, 소집단), 곧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National Tutoring Programme)'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을 대상으로 총 1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 지원</li> <li>2020 가을 ~ 2021년 봄(1년): 전국 약 240,200명의 학생 참여</li> </ul> </li> </ul>

구분	내용
급식(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주일에 £15의 바우처 제공</li> <li>• 학기 및 방학 기간 모두 포함</li> </ul>

\* 출처: '②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을 위한 영국 정부의 대응'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자가 정리함.

## ○ 보호 및 복지 부문의 정책적 대응

영국의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정책의 핵심은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기관에 대한 가이드(『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지침을 준수하되, 대면 방문과 같이 이전의 접근과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침(Coronavirus: Guidance for Children's Social Care Services)」(Department for Education, 2021a)를 발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위험 사정,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방문(전화, 화상회의 도구 등), 입양과 위탁 양육 관련 지원(코로나19 상황 속 심사, 모니터링, 각종 지원), 위탁 양육 청소년 지원(양육 전반, 청소년 및 양육자 정신건강 등의 지원),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자립생활, 정신건강, 사례관리 지원), 취약계층 교육 관련 지원(원격학습, 가정학습 관련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청소년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와 시민

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자 2021년 초 지원 기금 'Youth Covid-19 Support Fund'을 조성하였다(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Office for Civil Society, 2021).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기관(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시민사회청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소년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소형 풀뿌리 단체 540곳과 전국 규모의 대형기관 11곳의 총 551개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1,258만 파운드(한화로 약 188억 원)를 지원하였다(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Office for Civil Society, 2021).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지난 2019년 「온라인 유해물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온라인 유해물 백서 협의에 대한 정부 회신(Online Harms White Paper: Full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을 2020년 12월 내놓으며 「온라인유해물법안(Online Harms Bill)」의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온라인 유해물(online harms)'은 테러리즘,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교란, 성학대 및 성착취(특히 아동·청소년 성학대 및 성착취), 자해 또는 자살 조장, 불법약물 매매, 악플, 개인정보 해킹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이연옥, 2019), 법안은 이러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해성 콘텐츠에 대하여 제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 및 서비스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김지현, 2021; Hern, 2020).

이와 함께 정부는 2021년 2월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부모와 양육자가 아동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Coronavirus: Support for Parents and Carers to Keep Children Safe Online)」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크게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성학대, 착취, 급진적이고 과격한 콘텐츠 노출(예: 혐오, 테러리즘 등), 성적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 및 전송(‘섹스팅(sexting)’으로 불림),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 노출(예: 외설물), 유해한 콘텐츠 노출(예: 자해 또는 자살 콘텐츠)의 7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위험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관련 기관(단체) 등을 함께 제공하여 부모와 양육자의 청소년 보호를 돕고 있다(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epartment for Education & Home Office, 2021).

### (3)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 등)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

현재 코로나19가 온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1차, 2차, 3차 대유행 등 계속하여 확산 및 대유행 추세가 반복되는 등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에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과 대응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그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완화 또는 종식 후 사회 전 영역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재건계획: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전략(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보다 더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서 「영국 혁신 전략: 혁신 창출에 의한 미래 선도(UK Innovation Strategy: Leading the Future by Creating It)」를 발표하여 영국의 미래상 및 2035년까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고는 이 두 정책을 중심으로 영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코로나19로부터의 사회 회복과 재건 전략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 「재건계획: 영국 정부의 코로나 19 극복 전략(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에서 사회 전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총 14개 지원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하였다(HM Government, 2020). 아래 표로 14개 지원프로그램 계획을 요약하였다.

표 III-5. 사회 회복과 재건을 위한 14개 지원프로그램 계획

지원프로그램	내용
NHS 및 돌봄 분야의 수용력 및 운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거나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 등의 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의료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NHS) 및 돌봄 분야의 수용력을 제고하고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자 함</li> <li>• 구체적으로 ① 국가의료시스템과 돌봄 현장의 수용력 확보 및 의료·돌봄 인력 보호 강화, ② 보건 및 돌봄 분야의 운영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 도모, ③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적 치료, 개인화된 치료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④ 40개 병원 신축, 5천만 의원(GP surgery) 신규 승인, 간호사 5만 명 이상 선발 및 교육, 사회서비스 개혁 등 추진, ⑤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지원</li> </ul>
요양 관련 시설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기관 등의 요양 관련 시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취약성이 매우 큼. 이에 기간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요양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 및 강화할 계획임</li> <li>• 구체적으로 ① 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 우선 예방접종, 지속적 방역 관리 등의 지원, ② 돌봄 전문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모집 캠페인,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과 훈련 개발 등의 지원, ③ 요양 관련 시설과 인근 주치의 의원(GP)의 일대일 매칭을 통한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나아가 향후 원격 의료상담 도입 등을 추진하며 의료적 지원 강화, ④ 시설 유형 및 돌봄 대상자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자문 지원, ⑤ 지역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li> </ul>
가장 취약한 사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발 이후 의료적 취약성이 크고 부양가족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음식, 기본 용품, 돌봄, 의약품 등을 지원해 왔음</li> </ul>

지원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의료적 취약성이 매우 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약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의 욕구 파악 및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단기적 지원과 근본적으로 취약성 해결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증거 기반의 과학적, 효과적 타게팅(target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등에 관한 임상 자료 및 연구를 통해 꾸준히 수집하고, 이러한 증거에 기반해 다양한 인구 집단 중 감염과 사망 위험이 큰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증거 기반의 타게팅),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 지원을 하고자 함</li> <li>• 이를 위해 옥스퍼드 대학과 협업하여 위험 예측 모델 ‘QCovid’를 개발하고 7종의 국가 데이터세트(GPES v3; GPES : data for pandemic planning and research; HES; PDS; SACT; RTDS; SPL)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위험 측정과 평가, 고위험 집단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NHS, 2021a)</li> <li>• 그 결과, 현재까지의 증거에 기반하여 선정한 위험 집단은 의사로부터 특히 위험하다고 판정된 사람, 장기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면역치료나 항암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 폐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현임산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성인 등임(NHS, 2021b)</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확한 질병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쇄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감염병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을 빠르게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이 필수적임</li> <li>• 이에 영국 정부는 바이오안보(biosecurity)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합동 바이오안보 센터(Joint Biosecurity Centre)’가 운영할 이 시스템은 감염병 발발 시, 실시간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감염 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조기 개입하여 감염병 확산을 저지, 예방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감염병이 확산된 후에는 감염병 확산 추이와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진단검사 및 추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검사,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추적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을 저지, 예방하는데 필요한 과정임</li> <li>•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일일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추적의 효과성 및 속도를 제고하고자 테스크포스 팀 구축 및 운영, ‘NHS COVID-19’ 앱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과학적 이해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적으로 보다 잘 이해할수록 감염병의 확산 저지, 치료방법 향상,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정확하게,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이해 제고는 매우 중요함</li> <li>•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초과학(특히 유전학) 및 의료 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음</li> </ul>

지원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과 영국연구혁신원(UKRI)은 27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460만 파운드(한화 369억 원)를 지원하였음</li> <li>• 또한 영국 정부는 유사 질병에 대한 기존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9,000명의 환자를 모집하였고(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한편 유전자 시퀀스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을 파악하고자 '유전체학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한 초기 연구예산으로 2,000만 파운드(한화 약 300억 원)를 지원하였음</li> <li>• 코로나19 관련 연구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연구개발 촉진 플랫폼(ACCORD)'을 출범시켜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과 협업을 촉진하고 있음</li> </ul>
COVID-19 안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거나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 등의 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인과 가족, 직장, 학교, 교도소, 공공시설 등 각각의 유형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li> </ul>
더 나은 거리 두기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거 기반의 타게팅, 질병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등의 발전을 통해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거리 두기 방침, 특히 인구 집단 별 위험도와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거리 두기 방침을 개발, 적용해 나갈 계획임</li> </ul>
일상생활 유지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사회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경제사회적 지원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li> <li>• 취약계층 지원: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급여 인상</li> <li>• 노동자 지원: 고용유지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근로세제 지원</li> <li>• 사업자 지원: 자영업자 소득지원계획(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임대업자 지원, 세제 지원, 정부 대출 및 민간금융 대출조건 완화, 혁신기업 지원 등</li> <li>• NHS(국가의료시스템) 및 그 외 공공서비스 지원: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수, 공무원 등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 및 공공서비스 부문 지원</li> <li>• 사회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원</li> </ul>
치료와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는 백신 또는 치료제의 개발, 테스트, 제작 및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의 최소화가 중요함</li> <li>•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① 백신 및 치료제 테스크포스(Vaccines and Treatments Taskforce)를 출범하고 ② 치료제 파일럿 테스트, ③ 백신 및 치료제 제작 용량 확보, ④ 백신 및 치료제의 원활한 보급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li> </ul>

지원프로그램	내용
국제적 행동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중요</li> <li>• 국제적 리더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 -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즉 저개발국가와 빈곤국가 지원 /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금 후원 등</li> </ul>
대중 소통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함. 특히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략</li> <li>• 공공 보건/건강 교육 강화를 통해 대중의 이해 및 인식을 제고할 계획</li> </ul>
지속 가능한 정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 또는 그 외 새로운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을 토대로 하여 정부 구조를 혁신</li> <li>• 이를 통해 미래의 어떤 질병 또는 위기가 발생해도 대처,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역량 준비, 함양</li> </ul>

\* 출처: HM Government (2020). 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 33-46.

## ②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장기 혁신 전략(2021-2035)

영국 정부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전략으로써 최근 「영국 혁신 전략: 혁신 창출에 의한 미래 선도(UK Innovation Strategy: Leading the Future by Creating It)」를 발표하였다(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 보고서는 혁신(innovation)을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적용’으로 정의하면서, 203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혁신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의 영국(The UK as a global hub for innovation)’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전략은 ‘비즈니스 촉발(Unleashing Business)’로 혁신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여러 지원책을 포괄한다. 두 번째 전략은 ‘사람(People)’으로 (잠재적) 혁신가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영국을 혁신가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세 번째 전략은 ‘기관과 지역(Institutions & Places)’으로 연구, 개발 및 혁신 기관들이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문제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네 번째 전략은 ‘미션과 기술(Missions & Technologies)’로 핵심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영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혁신의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강조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 이에 다음의 표로 각 전략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행방안을 요약하였다.

표 III-6. 미래 선도를 위한 장기 혁신 전략(2021-2035)

전략	실행계획
<p><b>1. 비즈니스 촉발 (Unleashing Busi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매년 확대</li> <li>- 금융/재정 분야의 미래 전문가 양성, 훈련</li> <li>- 종자펀드(Seed Fund) 조성 및 잠재성 높은 혁신 비즈니스에 대하여 초기 투자 제공</li> <li>- 온라인 금융/재정 및 혁신 허브(hub) 개발</li> </ul> </li> <li>• 인프라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5,000만 파운드 지원</li> <li>- 온, 오프라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문 론칭</li> </ul> </li> <li>• 미래사회에 대비한 규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에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 설치</li> <li>- ‘Agile Nations(애자일 국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국제사회 환경에서의 혁신 활성화 추구</li> <li>-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공동 실행 계획(A Joint Action Plan on Standard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및 국가측정전략(UK Measurement Strategy) 발표</li> </ul> </li> <li>• 그 외 혁신을 위한 긍정적, 효과적 경쟁 프레임워크 구축과 활성화,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발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 지원, 지적재산권 서비스(International IP Services) 론칭 등 계획</li> </ul>

전략	실행계획
<p><b>2. 사람 (Peopl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프로그램(Emerging Skills Programme)’ 두 번째 프로젝트 론칭 및 기술가치사슬(Skills Value Chain)에 관한 연구, 탐색</li> <li>• 개츠비 재단(The Gatsby Foundation)의 혁신센터 지원</li> <li>• 영국연구혁신위원회(UKRI)의 리더십 역할 발전</li> <li>• 연구자들의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 지원</li> <li>• 학문과 산업, 제3섹터의 분야 간 협력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야를 넘나드는 훈련 지원</li> <li>• 중소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관리자 대상의 교육과 지원</li> <li>• 전 세계 혁신가 및 잠재적 혁신가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민시스템(비자시스템) 개선 -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위한 취업비자인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우수 기술인재를 위한 취업비자인 ‘Scale-Up Visa’, 혁신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혁신가 비자(Innovator Visa)’ 등</li> </ul>
<p><b>3. 기관과 지역 (Institutions &amp; Plac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주체들과 영국연구혁신위원회(UKRI) 간 이해와 상호작용 제고</li> <li>• 모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개발, 혁신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독립적 모니터링과 자문</li> <li>• 영국 고등연구발명국(UK 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 ARIA) 신설 - 미국 고등연구계획국(ARPA)을 모델로 하여 영국연구혁신위원회(UKRI)와는 독립적으로 운영</li> <li>• ‘지역 특성화 기반 강화 기금(Strength in Places Fund)’ 약 1억 2,700만 파운드를 5개 프로젝트에 배분하여 지역 기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li> <li>• 추가로 ‘역량 연계 기금(Connecting Capability Fund)’ 약 2,500만 파운드를 조성하여 산학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li> <li>• 연구개발(R&amp;D) 중심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li> </ul>
<p><b>4. 미션과 기술 (Missions &amp; Technologi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혁신 미션(Innovation Missions)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앞으로 영국 사회가 겪게 될 주요한 이슈와 문제 해결을 도모</li> <li>• 7대 미래기술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li> <li>•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젝트 8개를 론칭 -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정부가 연계,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li> <li>• 영국연구혁신위원회(UKRI)와 IBM의 합동 투자 -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지원</li> <li>• 국가 양자컴퓨팅센터(National National Quantum Computing Centre) 투자지원</li> <li>• 국무총리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신설</li> </ul>

\* 출처: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 UK Innovation Strategy: Leading the Future by Creating It: 104-107.

#### (4)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 등) 미래사회 청소년정책 방향

2021년 현재,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 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적 대응과 지원 방안, 그리고 백신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 교육을 비롯한 교육적, 사회적 회복 방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정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래사회 청소년정책 방향에 관한 정부의 특정 보고서를 분석하기보다는 청소년 웰빙과 복지에 관한 주요 연구보고서(Barnardo's, 2020; Hagell, 2021; Smith & Barron, 2020)가 향후 미래사회에 대한 정책 및 개입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AYPH(Association for Young People's Health)의 Hagell(2021)은 청소년에 대한 향후 개입 및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하여 '청소년 소통과 참여, 학교 중심의 개입, 후기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자치와 봉사 활성화, 불평등과 격차 해소, 데이터 측정과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III-7. AYPH의 미래 청소년정책에 관한 제언

제언	내용
청소년 소통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의 소통 강화 / 의견 경청과 수렴에 투자</li> <li>• 청소년 참여와 리더십 증진, 청소년과 함께 정책 개발</li> </ul>
학교 중심의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자율성 및 개별화된 교육과 지도 보장</li> <li>• 모든 학교에 훈련, 검증된 상담가 배치</li> <li>• 디지털 격차 해소 - 노트북 등의 장비와 인터넷 통신</li> </ul>
후기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프런티스십(apprenticeship, 견습)’ 프로그램</li> <li>•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확대</li> <li>• 후기청소년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예: 공유주택)</li> <li>• 후기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li> </ul>
지역사회 자치와 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활동, 청소년 단체/모임 등에 대한 지원 증대</li> <li>• 지역사회 봉사자 및 봉사 단체에 대한 보호, 지원</li> </ul>
불평등과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 청소년을 위한 소득 지원, 복지 지원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보충수업 등)</li> <li>• 가장 취약한 청소년 집단 파악 및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개발, 제공</li> <li>•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정책(전략) 개발</li> </ul>
데이터 측정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관련 정책이 현재 및 미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평가</li> <li>• 코로나19를 비롯한 오늘날의 다양한 위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증거 도출</li> </ul>

\* 출처: Hagell (2021). Summarising What We Know So Far about the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13.

Barnardo’s(2020)는 코로나19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이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레질리언스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투자’, ‘교육 시스템 내 교육과 복지의 균형’, ‘명확하고 투명하며 빠른 정보 제공과 접근성 보장’,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 ‘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노동 기회 보장 증진’,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치료적 개입 개발과 테스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정부 지원’의 7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8. Barnardo's의 미래 청소년정책에 관한 제언

제언	내용
레질리언스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이자 위기를 경험하였음(개인에 따라 정도차는 있겠으나 모든 아동, 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정신건강적, 사회적 어려움 경험)</li> <li>따라서 코로나19 종식 후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질리언스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준비해야 함(궁극적으로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 청소년부터 우선적으로 제공)</li> </ul>
교육시스템 내 교육과 복지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종식 후 적응 기간 동안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이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li> <li>교육과 복지의 균형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이 최우선이 되도록 함</li> </ul>
명확하고 투명하며 빠른 정보 제공과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빠른 정보의 제공, 그리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보장 중요</li> <li>특히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성을 갖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 필요</li> </ul>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종식 후 회복 계획(Recovery Planning)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역할 보장</li> </ul>
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노동 기회 보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기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직업훈련 또는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li> <li>교육, 직업훈련, 노동 참여를 통해 후기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역량 및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도모</li> </ul>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치료적 개입 개발과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적, 치료적 개입 방안(예를 들어 치료제, 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 필요</li> </ul>
장기적, 지속적인 지역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정부의 청소년 및 가족의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li> <li>지역사회 내 학교, 의료기관, 비영리부문 등 공공과 민간 주체들의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운영 지원</li> </ul>

제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대하여 조기 개입과 예방에 초점을 둔 개입, 특히 소수 및 취약계층(예: BAME(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민족)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위탁양육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 등)에 대한 고려 강조</li> <li>청소년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 즉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차원, 나아가 디지털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추구</li> <li>개입의 영향 측정 및 평가 지원</li> </ul>

\* 출처: Barnardo's (2020). Mental Health and Covid-19: In Our Own Words: 35.

한편 Buttle UK는 빈곤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 (Smith & Barron, 2020) 말미에서 향후 청소년정책 계획 및 추진에 대한 시사점이자 제언으로 ‘코로나19 종식 후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때, 학습 결손의 보충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정서, 정신건강 차원의 결핍의 보완 즉 웰빙 증진에 초점을 둘 것’, ‘디지털 격차에 대한 보다 장기적, 지속적 지원을 모색할 것’, 그리고 ‘다양한 취약 청소년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영역, 민간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협력하여 집단 지성을 발휘할 것’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5) 시사점

이상과 같이 영국의 코로나19 경험과 대응,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 예측 및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재난의 주요 취약계층, 청소년

첫 번째 시사점은 청소년이 국가적 또는 세계적 재난과 위협에 있어 주요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률 그 자체 그리고 감염 시 증상

과 사망률 등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그 위험도와 취약성이 낮지만,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 두기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실제 영국 내 관련 통계, 연구보고서 등은 코로나19가 학습 결손과 격차,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디지털 범죄 등への 노출 위험, 또래 관계와 사회성 발달 등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함을 보여주었다(Barnardo's, 2020; Hagell, 2021; IPPR, 2020; NSPCC, 2020; Romanou & Belton, 2020; Smith & Barron, 2020).

이처럼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련 지원 정책과 관심은 감염률과 치사율 등에 있어 취약한 노인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의료인력 및 그 외 필수노동자 등 성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청소년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습 결손과 격차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이를 위한 출발점은 바로 청소년이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과 위험의 주요 취약계층이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일 것이다.

## ②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 요구

영국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학습, 건강, 심리·정서, 일상생활(경제, 주거 등), 폭력과 학대 위험 등 삶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각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는 다른 영역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청소년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학습,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 등 각 영역으로 분절되지 않고, 청소년을 둘러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인적이고 통합적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관련 논의는 대부분 학습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적 관심과 시야가 확장될 필요가 크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학습 결손, 기초학력 부진과 격차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지원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그뿐 아니라 경제 문제, 건강, 심리·정서, 문화·여가, 가족 문제, 폭력과 학대 위험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크다.

### ③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입

영국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된다. 영국 사회 내 많은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불안, 스트레스, 우울, 주의집중 및 행동적 어려움, 안절부절(증), 자살 생각 또는 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Barnardo's, 2020; Hagell, 2021; Pearcey et al., 2020), 우울이나 단절감, 고립감 등의 심리·정서 문제가 디지털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NSPCC, 2020).

이 때문에 Barnardo's(2020), Smith와 Barron(2020) 등의 연구보고서들은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차원에 대한 지원과 개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Barnardo's(2020)는 모든 청소년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이자 위기를 경험하면서 심리·정서적,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질리언스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Hagell(2021)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모든 학교에 검증된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청소년 정신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우울(35.3%)과 불안(32.6%)을 경험하였고, 10명 중 1명(10.2%)은 최근 2주 이내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진희 외, 2021). 이처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아래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해와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

#### ④ 취약 청소년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는 청소년 중에서도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애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노숙 청소년,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에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약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격차와 원격학습의 어려움, 그에 따른 학습 및 학력 격차,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 등을 더 많이, 더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bbs & Marsharll, 2020; Andrew et al., 2020; Barnardo's, 2020; Cullinane & Montacute, 2020; Hagell, 2021; Smith & Barron, 2020).

이에 Hagell(2021)은 단기적 차원으로 취약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곧 경제적 지원, 기초학력 부진과 격차 해소 지원, 그 외 다양한 복지 지원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 차원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회적 위험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취약한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체계와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설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 및 주거빈곤 청소년, 장애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이 원격수업을 비롯한 학업 수행의 어려움과 한계, 경제 문제, 폭력과 학대

위험, 심리·정서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기-중장기 차원의 전략을 참고하여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취약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의 사회적 위험과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회복 역량 제고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위험과 재난 발생 시 취약 집단을 빠르게 파악하여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대응 역량 향상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⑤ 디지털 및 신기술을 통한 개별화, 맞춤화 추구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 영역의 디지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 집합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적 한계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은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전략, 그리고 주요 보고서들이 향후 방향성으로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및 신기술을 통한 개별화, 맞춤화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화상회의 시스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의 새로운 기술과 도구, 그리고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의 연결과 융합은 청소년정책과 서비스의 대상, 문제, 욕구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 각 대상과 문제에 대한 개별적이고 맞춤화한 정책과 서비스의 고안,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발굴도 가능하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전략으로서 사회 회복과 재건을 위한 14개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반복적으로 ‘증거 기반’, ‘타게팅’, ‘맞춤형’, ‘원격’ 등의 키워드를 제시한 것 역시 디지털 및 신기술에 기반하여 개별화, 맞춤화, 원격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개별화 및 맞춤화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며, 그에 기반한 청소년정책과 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⑥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여섯 번째 시사점은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서다.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디지털 격차(예를 들어 가정 내 컴퓨터나 노트북 등 원격학습을 위한 장비 유무, 인터넷 통신 연결 여부 등)는 원격학습에 대한 접근성과 용이성, 학습성과 등으로 이어지며 학습 격차를 야기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 및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 EBS, 민간 부문 등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 인터넷 연결 등의 지원, 온라인 강의영상 제공,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과 학습 지원 등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하여는 앞으로 증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에 맞게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여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소통, 협업하는 한편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성학대와 성착취 등의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에, 오늘날 청소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디지털 성학대 및 성착취 피해 청소년 상당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채 디지털 기기, 온라인 플랫폼 등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와 폭력, 착취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특히 기술과 도구 이용능력, 지식과 정보 처리

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과 관계, 범죄와 안전, 법과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교육이 빠르게 도입되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⑦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

마지막 시사점은 정부와 공공기관,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민간기관,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다. 전 세계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이후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키워드로 협력과 협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 혁신 전략: 혁신 창출에 의한 미래 선도」(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 보고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및 제3섹터(NGO/NPO, 사회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등) 간 협력과 협업을 강조한다. 주요 보고서의 향후 청소년정책에 관한 제언들 역시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Barnardo's(2020)는 지역사회 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의 혁신적 협력체계를 제안하였고, Smith와 Barron(2020) 또한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한 집단 지성의 발휘를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의 등장과 유행,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여러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창의적이고 전략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점은 Barnardo's(2020), Hagell(2021), Smith와 Barron(2020) 등 주요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정책 과정 내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제언하였다는 점이다. 즉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의 청소년정책 계획과 추진에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전문가와 시민 등 여러 주체의 참여에서 절대로 간과되어선 안 될 주체는 바로 청소년이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증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형 정책과정 체계의 구축, 청소년 참여형 정책 점검과 평가 활성화, 청소년의 정책과정 이해 및 역량 제고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의 독일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sup>44)</sup>

#### (1) 서론

독일은 연방 국가이다. 중앙에 연방정부(Bund)가 있고,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됨으로서 구(舊) 동독의 5개 주가 합해져 전국에 16개 주(州) 정부들(Länder)이 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룬 후 초기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연합(EU)의 수장 국가가 될 만큼 안정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정부에는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을 주무부처로서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청소년정책을 일찍부터 국가 미래의 원천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가치를 부여해왔고, 아동정책은 청소년 정책이나 가족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져 왔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 1992년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가 되면서부터 아동정책이 청소년정책보다 국가로부터 정책적으로 더 관심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가운데에 2020년이 시작되면서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코로나 팬데믹(corona-pandemic)을 맞게 되었다.

통일 직후에는 통일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서독 청소년들과 통일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화감에 직면한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 이는 통일 후

---

44) '제3장 독일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는 평택대학교 이민희 교수가 작성하였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일에서의 온전한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 후유증 속에서도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인식되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아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를 맞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이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 위상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과학에 기초하여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독일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국가 역량과 시스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탄탄한 독일의 청소년정책도 갑자기 닥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는 여타 다른 선진국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어렵고, 어두운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뉴 노멀’ 시대의 독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미래 시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전 세계적인 혼돈과 불안, 백신 민족주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길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뉴 노멀의 길인지 찾아가는 걸음에 독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 함께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 코로나19 경험과 대응

21세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가운데에 있다. 이들에게 이러한 위기와 재앙은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다.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이와 유사한 재앙의 경험들은 인류에게 최초의 것은 아니다. 14세기 당시 세계 인구 5억명 중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 15세기 이후부터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전파된 천연두, 20세기 1차 세계대전 시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소위 ‘스페인 독감’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재앙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지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과 그들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세기적 위기를 맞아 많은 시행착오들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며 코로나 위기에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일련의 독일 사례들이 소개된다.

### ① 초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세대 간 갈등

독일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봄부터 세대 간 갈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가 막 발발하여 위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 독일의 공개적 논쟁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다수 성인들에게서 관찰되었다. 공개적으로 청소년은 거의 협력적이지 않고, 책임의식도 없는 것으로 자주 묘사되었다. 소위 “코로나 파티(Corona-Party)”라는 새로운 유행어는 이미 온라인 백과사전인 독일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등재되었고, 여기서 실린 용어의 내용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 “코로나 파티는 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혹은 팬데믹 때문에 있게 되는 사교적인 모임으로 표시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통 학교의 폐쇄로 집에 머무는 대신에 파티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에 관하여 보도하고 언급하고 있다. 파티들은 클럽, 개인 집, 혹은 공개된 장소들에서 개최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위키피디아의 ‘코로나 파티’에 대한 개념 정의에 의해 모든 독일의 언론보도들은 반(反) 코로나 대책의 위반사례로서 코로나 파티를 관련시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들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반의 원인제공자로 초점이 맞추어 진다. 하지만

---

45) <https://de.wikipedia.org/wiki/Corona-Party>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과학적 연구들에서나, 공식적인 측면에서의 제보들에서도 코로나 파티에 참가하는 연령, 전체 인원, 빈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이다.

친구를 만나거나, 파티를 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키려는 분별 없는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보다 하나의 반(反) 코로나 정책을 침체화시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정말 그러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는가? ‘벤토(bento)’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거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실제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벤토는 이에 관하여 “풍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현상으로서의 ‘코로나 파티’에 관하여 관계당국, 경찰 혹은 지역관공서의 입장에 의하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다. 독일의 12~27세 연령의 약 1,400만 명 청소년들은 “청소년”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결국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코로나 파티’ 현상은 일부 미디어로부터 오보된 무책임하고 비협력적인 청소년들의 대중 현상들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이 ‘Fachkräfteportal<sup>46)</sup>’의 코로나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논쟁에 대한 결론이다(Salihi, 2021).

## ② 코로나 폐쇄로 인한 청소년청(Jugendamt)의 어려움

독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을 들자면 ‘청소년청’이다. 청소년청은 독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직상의 핵심”(Deutscher Bundestag, 2013: 290)으로 인정되고 있다.<sup>47)</sup>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직면하여 청소년청은 아동, 청소년, 가족의 일상을 위한 대응 기관으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맞게 되었다. 이미 코로나 초기에 과연 청소년청이 코로나

---

46)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털

47) 청소년청은 이미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지역마다 설치되도록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독일 전국에 57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19로 인해 갑자기 닥친 위험들 앞에서 이들의 안녕을 지켜내는 법적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염려로 독일청소년연구소(DJI)는 청소년청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와 도전들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얻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코로나로 인한 독일 전역에 폐쇄(Lockdown)가 시작된 후인 2020년 4월 2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총 575개소 청소년청들 중 65%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중심에는 위기의 조건들 아래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업무들, 특히 일반적 사회서비스(ASD<sup>48)</sup>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일반적 사회서비스들에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지원을 증개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일들이 속해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청의 근무자들은 아동의 안녕을 위협하는 유기, 학대, 성폭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때로는 이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청들 중 55%는 아동의 안녕을 위협할만한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진 것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이, 많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정에서의 폭력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인지, 혹은 청소년청이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 어쨌거나 청소년청은 유효한 접촉제한을 아동보호 대책의 축소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98%의 청소년청들은 폐쇄된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과 같은 선택적 방법들이 가정에서의 상황을 추정하는 데 선별되었다.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접촉제한 상황에서는 미디어로 증개된 의사소통 이용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8) Allgemeine Soziale Dienste의 약칭

청소년청이 코로나로 인한 폐쇄로 고유한 업무들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어떤 기관들은 그들의 업무가 정지되었던지, 정지되어야만 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폐쇄 이후 청소년청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요구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기관들은 이와 함께 전문 인력들이 가능한 자신들을 위해서나 수요자들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건강 위협 상황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대책들을 조처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체계상 중요한 과제들, 조직들,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들과 함께 무엇보다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 등에 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과 더불어서 청소년청들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공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전문 인력들과 청소년 수요자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위험들은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선택적 의사소통 통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본 설비들을 갖추어서 줄일 수 있다. 기본 설비들에는 예를 들어, 서비스 랩톱(service laptops)들, 온라인 비디오 회의를 위한 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들이 속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청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이러한 영역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eutsche Jugendinstitut, 2020: 42~43).

### ③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 디지털 행사 개최

2021년 5월 18일~20일 3일간 독일에서는 17번째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의 날(DJHT<sup>49)</sup>”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독일의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정부출연기관으로 독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지원사업협회(AGJ<sup>50)</sup>’가 1964년부터 3, 4년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

49) Deutscher Kinder- und Jugendhilfetag의 약칭

수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행사이다. 이 행사는 독일 전역과 유럽을 망라 해서 독일 청소년의 인권, 활동, 보호, 복지, 교류, 문화, 정치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청소년 박람회, 참여자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개최되고 있다. 금번 17회 행사는 독일의 남서부 중소 도시 Essen에서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 - 지금!”의 구호를 가지고 비대면 디지털 행사로 개최되었다. 3일 동안 참여 인원이 약 37,000명에 달했으며, 77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들은 315개가 개최되었으며, 박람회에는 320개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50년 가깝게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지만 디지털 온라인으로 개최된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때문이었다. 행사 후 AGJ로부터 작성된 모니터 보고서 “Deutscher Kinder- und Jugend(hilfe) MONITOR 2021”에는 “기회 체크 - 코로나 불구(저항) 미래<sup>51)</sup>”가 주제였다. 여기에는 독일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들이 평가분석되고, 모아졌다. 데이터들의 근거들은 가장 최근의 사회와 교육 관련 보고서들, 젊은이들에 대한 코로나 팬데믹 영향들에 관한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다.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전체인구의 26.5%에 해당되는 약 2,200만의 0~26세 젊은이들<sup>52)</sup>이 살고 있고, 이 중 0~14세는 약 1천 50만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통계는 2019년 기준 독일에 약 2,120만 명의 이주배경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는 독일인 4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들은 대체로 독일 국적의 사람들보다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다. 이전의 동독 지역에는 이주민들을 혐오하는 극우주의가 확산되어 있는 이유로 구서독 지역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 젊은이들이 40%가 넘고, 지역에 따라서는 50%를 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관련된 독일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50) Arbeitsgemeinschaft für Kinder- und Jugendhilfe의 약칭

51) “Chancen-Check - Zukunft trotz(t) Corona”

52)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젊은이’의 개념에 해당되고 있는 연령이다. 이 법은 ‘아동’을 0~13세로 규정되고, ‘청소년’은 14~17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특이하게 이 법에서는 또한 ‘젊은 성인’이라는 개념 아래에 18~26세의 연령을 부여하고 있다.

계층의 청소년들이 가장 피해가 컸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토록 하고 있다. 독일도 고령화 사회가 진작 도래했고, 점차 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에 직면하여 독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독일 거주 청소년들에 대한 공평하고, 적합한 성장을 위한 정책들과 서비스들이 특히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니터 보고에 따르면 독일의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미래에 코로나와 다른 바이러스들은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미래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만 하고, 새로운 위생 상황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들에 대하여 원치는 않지만,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가지는 지배적인 감정은 두려움과 불쾌함으로 표명되고 있다. 11~17세 청소년의 1/3은 심리적인 의심 증세를 보이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매우 극심한 위기감으로부터 부담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GJ, 2021: 1~2)

### (3)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 ①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와 Agenda 2030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독일 지속 가능 전략 - 지속가능 성장 2021” 정책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올해 2021년 3월 10일 내각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이는 2015년 9월 25일 미국 뉴욕(New York)의 UN에서 193개국의 수장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genda 2030”을

결의한 것을 따르는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이다. 독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전략을 발표하여 확정하기까지는 독일 전 영역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Agenda 2030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7개 발전 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을 가지고 있다. 2019년 뉴욕에서는 각국의 수장들이 “SDG 정상회의”로 모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정 발표되었다. 기후변화, 멸종위기, 자원의 고갈 등은 세대들과 지역들의 정의 문제와 같은 지구적 한계들에 명백하게 부딪히게 되어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UN은 이 정상 회의에서 향후 “10년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과 구조의 기간(“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간주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각국 정상들의 호소는 국가와 그 구성원들이 Agenda 2030을 수행하려는 속도와 요망 수준을 뚜렷이 높이려 할 때에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도달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2021년 3월 독일의 내각에서 최종 확정된 “독일 지속가능 전략 - 지속가능 성장 2021” 정책은 독일의 향후 10년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표면화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보다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충격으로부터 무기력하게 모든 영역들에서 발전이 중단될 수 있는가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짧은 시간 동안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 변화시켜 놓았다. 이와 싸우는 것은 일상생활과 경제, 각 남녀 개인들에게 그때까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제한들을 요구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반응한 정치적 대책들은 국가적으로, 유럽과 국제적 차원에서 아젠다 2030과 글로벌 지속가능 목표들에 실행되어야만 하고, 특히 아젠다 2030의 기본원칙인 “leave no one behind(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행위준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했다. 따라서 독일의 성장을

위한 “독일 지속가능 전략(DNS<sup>53</sup>)”은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고, 동시에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강화될 수 있는 대책들을 포괄하고 있다.

## ② “독일의 지속가능 전략(DNS)”과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대응

### 가. 국제적 대응

독일 연방정부는 보편성을 가진 아젠다 2030을 국제적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자주의적 무역과 출발점을 신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아젠다 2030의 다양한 주제영역들에서 국제법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다른 형태들 및 전략적 동맹과 주제별 파트너십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책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다자주의적 차원에서 다른 국제적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면역약품들, 치료제들, 진단재료들에 대한 개발과 분배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테두리에서 무엇보다 독일의 WHO, 글로벌 면역동맹 GAVI<sup>55)</sup> 및 AIDS, 결핵, 말라리아와의 투쟁을 위한 글로벌 기금에의 기여금들이 증액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sup>56)</sup>)는 이미 2020년 4월 포괄적인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10억€, 한화 약 1조 3,700억 원을 그 해에 단기적인 위기극복을 위하여 예산 조정을 통해 배정하였다. 이에 더해 두 번째 추가경정으로 15억 5천만€, 한화로 약 2조 1,228억 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파트너 국가들을 위한 진단, 훈련, 물과 위생과 관련된 대책들을 지원하는데 투입되고

---

53) Deutsche Nachhaltigkeitsstrategie의 약칭

54) 이러한 발의는 2020년 3월 26일 G20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55)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의 약칭.

5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의 약칭

있다. 독일정부는 이와 함께 파트너 국가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재난에 있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안전 프로그램과 현금 지원들을 통하여 이웃을 돕고 있다. 독일 외무부는 UN 사무총장의 Global Human Hilfsplan에 따라 4억 5천만€를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허락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연방환경부(BMU<sup>57)</sup>) 소속의 국제기후보호단체(IKI<sup>58)</sup>)에게 2020년 6월 6,800만€를 코로나 대책기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파트너 국가들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들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새로운 출발과 사회적 안정이 많은 IKI 파트너 국가들의 전문 상담자들을 통하여 기후보호와 생물의 다양성이 보전되는 것과 함께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Die Bundesregierung, 2020: 10~11).

## 나. 국내적 대응

독일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지속가능 목표들에 도달하고자 하는 압박이 많은 영역들에서 대대적인 코로나 위기영향에 의해 더욱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코로나의 연장을 없애고, 복지를 안정시키며, 미래역량을 강화한다(Die Bundesregierung, 2020: 41).”라는 제목으로 큰 틀에서의 목표들을 정하고 경기와 위기의 극복, 미래 및 독일의 국제적 책임을 알리는 대책들에 대한 협약을 발표하였다. 연방정부가 내어 놓은 목표들은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독일이 조속히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추진을 작동시켜 성장 경로를 이끌어냄으로서, 국가가 강해져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피하기 위한 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돌봄 및 상담 서비스들로

---

57)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의 약칭

58) Internationale Klimaschutzinitiative의 약칭

돕고 있다. 목표는 자영업의 존속과 사회적 서비스들을 지켜내고, 일자리를 보전하며, 경제적 긴급 상황과 위기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연립정부 파트너는 2020년 6월 3일 2020년과 2021년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위해 1,300억€, 한화 약 178조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수상 Angela Merkel은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는 미래에 대하여 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10년간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와 혁신들을 경기 부양 프로그램의 2년 동안에 모두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목표에 충실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혁신이 변화와 미래를 가깝게 내다볼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Die Bundesregierung, 2020: 41).”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여 독일 연방정부의 경기와 위기를 극복하려는 협약은 이미 2020년에 대부분 경기를 부양하는 세금 감축, 아동보육 보너스 등의 효과 있는 대책들로 수행되었다. 미래를 위한 협약 대책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국가 수자원 전략, 미래 프로그램 병원 증설, EU의 단기 노동 프로그램 등의 몇몇 중요한 요소들은 이미 2020년에 수행되었다. 전기충전소 확충,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생산, 추가적인 독일 철도자본에의 참여 그리고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대책들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이외에도 Agenda 2030의 SDGs와 관련된 목표들에 대한 대책들이 독일의 지속가능 전략(DNS)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 가족 휴양소와 같은 이용시설들, 청소년활동 시설들, 국제청소년교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연방에서 2020년에 지원 대책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었고, 그간에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질병보호법」 56조에 따라 탁아소, 학교, 장애인 시설 등이 잠정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아동을 스스로 돌보아야만 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과 가족과 직장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각 가정들은 2020년 10월과 11월에만 아동수당 보너스로 300€, 약 41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90.000개의 새로운 탁아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10억€, 약 1조 3,800억을 코로나 팬데믹 추가 예산을 2020~2021년에 투입하기로 하였고, 종일학교 (Ganztagsschule)의 확충을 위해서는 총 35억€, 약 4조 8,300억 정도를 배정하였다.

이외에도 독일의 지속가능 전략 대책들 중에서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미래의 대응에는 보건시스템의 강화를 빼 놓을 수 없다. 독일의 연방과 주정부들은 2020년 9월에 공공 보건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테두리에서 보건당국들에게 인적 구성, 기술, 디지털화를 강화하는데 약 40억€, 한화 약 5조 4,800억 원 정도가 배정되었다. 또한, 연방은 병원을 디지털화하는 “미래 병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30억€를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시민단체 질병예방연합 (CEPI<sup>59</sup>)에 독일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지원하여, 독일에서도 효과적이고 확실한 백신을 가까운 시점에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팬데믹 투쟁을 위한 공동의 결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위기 의사소통이 증거기반 사회의 담론을 가능하게 해왔다. 연방과 주정부들은 독립적인 사실의 이해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과학적 의사소통이 이러한 담론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국가적인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기록적인 가치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위탁으로 개발된 코로나 경고 애플리케이션 “Corona-Warn-App”은 최근 가장 잘 알려진 디지털 서비스이다. 시민사회기관들과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캠페인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공동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함께 돕고 있다. 거기에 관련된 많은 캠페인들이 모든 연령층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Corona-Warn-App”은

---

59)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약칭

최고의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최소한의 간편함으로 코로나 감염경로로 더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차단하며,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정부의 의사소통 내용의 핵심은,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독일에서와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의 출발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공식발표와 연관되어 있다(Die Bundesregierung, 2020: 42~46)

Agenda 2030 이행을 위한 독일의 지속가능 전략 보고서는 독일 미래사회의 전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독일과 지구촌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은 국제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러 영역들에서 큰 수행 압력을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상황이 대폭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단기적 대책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이 대책들은 장기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대책들은 지속가능을 함께 고려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정부는 향후 수개월과 수년의 기간은 지구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도전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은 Agenda 2030의 이행을 위한 독일의 지속가능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게 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구촌에서나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길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자신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독일 지속가능 전략(DNS)”을 Agenda 2030의 SDGs들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확립하여야만 하며,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힘주어 호소하고 있다.

#### (4)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방향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독일 정부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이전에는 UN에서 2015년에 결의된 ‘Agenda 2030’의 17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였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독일 지속가능 전략 - 지속가능 성장 2021” 정책을 개발해오던 중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은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래 독일 사회를 위한 청소년정책도 “독일 지속가능 전략(DNS)” 정책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을 맞아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특별한 지원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출현 이후 이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야기된 결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20억€, 한화로 약 2조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에 있어서 심한 격차를 확장시키는 결손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많은 교류들과 활동들을 빼앗아 갔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회복 행동 프로그램”으로 2021~2022년 2년 동안 20억€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회복하고, 방학이나 주말의 자유 시간 동안에 여가활동을 통해 심신을 회복할 것이며,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서비스들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원래 수행되던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의 자치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연방의 가정 관련 주무부처에서 6억 8천€, 한화로 약 9천 3백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

하기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회복” 행동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BmfBF<sup>60</sup>) & BmfFSFJ<sup>61</sup>), 2021: 2~9).

### 가.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돌아보면 독일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은 오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심한 제한 속에서 생활했다. 현재에도 영유아와 학교 교육,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 그리고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여가 및 휴가 시설들이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폐쇄는 1/4 정도 학생들의 뚜렷한 교육 격차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제한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이들과 가족들에게 지속되거나 불평등이 고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육 목표를 도달하고 그들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도전과 필요를 성취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연방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회복 행동 프로그램”에 2021년과 2022년 2년 간 아래와 같이 총 20억 유로를 책정하게 된 것이다.

-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한 10억€
- 영유아 교육, 일상과 학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 휴가,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10억€

---

60)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연방교육연구부)의 약칭

6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약칭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지원들은 이미 형성된 인프라 구조들의 사용 아래 신속히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연방 정부는 이미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동안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지방 정부들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은 자치단체들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독일의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들이 적어도 교육 격차의 해소에 있어서 행동 프로그램의 목표도달을 위하여 형평성이 있고, 자신들만의 기여와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투명하게 이에 대하여 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들과 함께 이미 마련된 예산의 투입과 지방 정부의 세수 확정을 통한 예산에의 합의를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의 자체 예산과 중앙 정부의 예산 투입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게 된다. 이 협약에는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지방 정부로부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확약이 있게 된다. 연방 정부와 모든 지방정부들이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 재정조정법(Finanzausgleichsgesetz)의 개정이 뒤따르게 될 예정이다.

## 나. 프로그램의 대책들

### ㄱ) 교육 격차의 해소

독일 연방과 지방 정부는 팬데믹 조건에서 심화된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들을 통해 회복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책들의 수행은 지방 정부의 기존 구조들의 테두리 안에서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 대책들이 교육 격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격하게 적용되고,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피드백(feedback) 되어 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대책들이 이미 수행되고 있는 학교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각 핵심 과목들과 역량들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된다. 지원 대책들은 몇몇의 작은 그룹들로 수행되며, 정해진 담당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돌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소위 “회전문 모델”로 일컬어지는 교실에서의 수업과 개인 지원이 교대로 투입된다. 중요한 것은 15세 이하의 40% 가까이 해당하는 이주민 배경의 아동과 청소년들도 이러한 대책들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다. 관련 당국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특성을 따르면서, 더 특별한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행의 중심에는 학교와 그들의 추가적인 서비스들의 네트워크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예산으로 학교 유형으로부터 독립되고, 위탁 주체 중립적으로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방학 중의 캠프들과 배움 작업 터전들

■ 새로운 학년 시작 시 핵심과목들에 수업이 동반된 지원 대책들

위의 대책들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이주민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 평생교육 학교들 및 상업적인 도우미 제공업체들과의 협업이 있게 된다. 또한, 지방 정부는 은퇴한 교사 인력과 사범대 학생들을 투입하게 된다. 학교와 수업은 교육자치법이 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재정조정법에서의 수직적 세금 배분의 개정을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총 10억€가 고려될 것이다.

ㄴ) 방학 여가시간들과 학교 밖 서비스들

청소년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시간도 단축되었지만, 프로젝트들이나 여행들을 통한 사회적 배움의 기회들과 스포츠나 문화적 활동 서비스들로부터의 배움의 기회들도 심한 제한을 받았다. 또한 이들의 가족들도 다시 힘을 충전하기 위하여 지원들과 회복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 ㉠ '아동·청소년계획(Kinder-und Jugendplan)'의 확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더 강화되고 좋은 방향 여가, 교류, 및 활동 서비스들이 어렵지 않게 회복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휴양, 문화적·정치적 청소년육성, 청소년 스포츠사업, 국제 청소년교류 및 청소년단체들을 위한 '아동·청소년계획'의 예산도 증액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익한 방학 및 주말 여가 시간들 및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청소년교류들과 서비스들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계획의 2021/2022년 분기 5천만€, 한화 약 680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

### ㉡ 가족 단위 방학휴가 지원

저소득층 가정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갑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공동이용 가족휴양지들에서 가족이 1주일 머무는데 보조금이 각 휴가 가정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역시 5천만€, 한화 약 680억 원 정도가 2021/2022년 회계에 책정되어 진다.

### ㉢ 지방 정부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여가시간의 강화

지방 정부들은 유익한 방학과 주말 여가시간들 및 청소년교류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얻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들은 민간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시설들과, 공공시설, 청소년유스호스텔, 비영리 여행단체들로부터 제공된다. 지방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은 지방 정부의 세금의 증액을 통하여 7천만€, 한화 약 950억 원 정도가 고려되고 있다.

### ㉣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밖 서비스들

위에서 언급된 첫 번째 교육 격차 해소 대책들은 핵심 교과목들에서의 역량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수업이 동반되거나 방학

중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대책들은 다른 학교 밖 서비스들로 추가적인 보충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프로그램 “문화가 강하게 한다”가 해당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 밖 문화교육의 예산으로 창조성, 인성 개발, 사회적 역량을 지원하고 더 많은 교육정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실습과 학생 및 교육 실습협회 네트워크를 넘어서 추가로 학교 밖의 영역들, 예를 들면 자연과학, 공학, 언어, 경제 및 정치 과학들 영역에서 교육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이다. 여기에는 2021/2022년 회계연도에 연방교육연구부의 프로젝트 지원 예산이 5천만€, 한화 약 680억 원이 증액될 것이다.

#### ㄷ) 미래를 위한 행동 - 일상과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동행과 지원

독일 정부는 위기로부터의 결과를 극복하고 좋은 전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팬데믹 조건하에서 교육과 결속의 손실들은 어려운 생활 처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특별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교육 차원의 다양한 형태들의 지원과, 인성개발 그리고 일상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염려와 압박 속에서 놓쳤던 교육 자료와 내용들을 가능한 빠르게 회복하여야만 하고, 홀로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1년 후 일상에서나 혹은 격리 중에서의 복귀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하여 여름 캠프들이나 학교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대학생이나 대학졸업생들이 멘토나 자원봉사자들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행동”의 지봉아래서 지금까지 이미 멘토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행동가들은 그들의 감성과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하고, 미래포럼인 “코로나 후의 회복”에 함께하는 수행과 더 큰 행보들을 나누며 화합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행동 프로젝트 2021/2022에 연방 정부는 총 320만€, 한화 약 435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② 미래 코로나 팬데믹에 요구되는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sup>62)</sup>

2021년 6월 30일 개최된 독일 내각회의에서 독일 연방보건부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공동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건 상황들을 개괄적으로 보고하였다. 이 보고의 후반부에는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개괄적으로 보고되었고, 이어서 향후 미래에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요구되는 주요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접종 여부를 떠나서 교육과 돌봄의 기관들이 정규적으로 확실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주(州) 정부들의 과제이다.
- 연방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문인력들과 가족들에게 접종한다.
- 주 정부들은 높은 양질의 믿을만한 진단 테스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 연방정부는 감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아동용 마스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돌봄이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응급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특별히 지원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들의 확장
-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보건 상황에 대한 데이터 개선

---

62) 이 부분은 2021년 6월 30일 개최되었던 내각회의에서 연방보건부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공동으로 보고한 내용인 “Übersicht zu gesundheitlichen Auswirkungen der Corona-Pandemie auf Kinder und Jugendliche(Stand 29. Juni 2021)”에서 필자가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 (5) 시사점

독일에서 청소년정책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JK<sup>63</sup>)”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정부, 학계, 현장에서 일하는 15명 이하의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는 연방정부 소속 기구이다. BJK는 2021년 5월 18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현재와 미래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결과로서 “코로나 시대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BJK는 이 보고서 서론에서 “단순히 ‘끝까지 견디어내자’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그것보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뉴 노멀(New Normal)’로 인도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금까지의 발전들과 대책들의 결과들을 완화시키는 아동·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없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라는 명료한 “Cut”은 없을 것이다.(BJK, 2021: 5)”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방법은 인간과 함께 생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꾸로 인간도 이러한 코로나 19의 생존 본능에 따른 변이에 지속적으로 인간 자신의 생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사회도, 청소년정책도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인정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with Corona”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의미와 같이 교육,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정책영역들에서 극단적인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정책들을 점차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부터 진행되어야 할 ‘뉴 노멀’이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가

---

63) Bundesjugendkuratorium의 약칭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독일의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JK는 코로나19에 직면하여 급작스럽게 수행하였던 강력한 아동·청소년 정책들에서의 폐쇄적 조치를 완화시키는 기초 위에서 그들의 입장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표명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들로부터 도출된 직접적인 행동 촉구들이 있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정책의 대책들과 행보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미래에는 장기적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합한 위기대응 정책과 그에 해당하는 위기관리 전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BJK, 2021: 6).

이러한 BJK의 입장을 우리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청소년정책에 대비하여 생각해 보자. 현재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뚜렷한 단기적인 행동 촉구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의 전제는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정책 영역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데이터들이다. 이 증거기반 데이터들이 실시간 백업되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적 주제들과 이에 따른 과제들을 만들어 내는데 기초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과제들이 최종적으로 대정부 행동으로서 촉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서술된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독일은 연방가정·노년·여성·청소년부, 한국의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독일청소년연구소(DJI), 우리의 청소년단체 협의회와 유사한 아동·청소년지원사업협회(AGJ),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 정책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JK)가 각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함께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청소년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여성가족부, 학계, 민간 청소년정책 현장 전문가들은 보다 코로나 대응 청소년 정책의 개발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BJK가 내세운 중장기적 청소년정책들도 청소년계가 다함께 모이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협력하여 마련해 내어야 한다.

독일의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JK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기적 아동·청소년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K-방역'을 통하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심한 팬데믹 상황을 상대적으로 덜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청소년정책 현장은 현재 지속가능성의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에서 드러난 숙박형 수련시설들의 처참한 현장 실태는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청소년정책의 4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인권, 활동, 복지, 보호 영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은 활동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토대장정 성추행 사건, 해병대 캠프, 세월호 사태로 이어지는 활동 영역의 흑한기를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19가 닥쳐 수련 시설, 특히 많은 수의 민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좁게는 청소년수련시설정책, 넓게는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청소년정책의 예산을 조정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매년 확충해왔던 수련시설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앞에서 서술한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 활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만의 최대 강점을 청소년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관련 IT 및 디지털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정부는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함께,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프로그램들 중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여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중기적 청소년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with Corona'의 뉴 노멀 시대로 되어버릴지, 아니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금번의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독일의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JK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러한 긴급 사태를 예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위기대응 청소년정책과 위기관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되돌아보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과 같은 뒷북 행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대장정 성추행 사건과 해병대캠프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법·제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청소년정책의 행정에서 장기적인 위기대응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 중의 안전뿐만 아니라 현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자연적, 인위적 재난들에 대비한 법·제도 마련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 개발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감염자가 급증하고, 돌파감염이 늘어나자 '백신 민족주의'나 '백신 주권'과 같은 용어가 등장했다. 2015년 UN에서 193개국 수장들이 모여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의 지구촌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Agenda 2030'을 결의한지 5년을 맞는 시점에 각국은 코로나19를 예외 없이 겪고 있다. 지구의 문제들을 책임질 것 같았던 G7과 같은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 이후 '백신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도 '백신 주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압박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혼돈의 와중에 대한민국은 올해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 D<sup>64</sup>)로부터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up>65</sup>) 38개 국가들 중에서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

64)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약칭

6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칭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강국이 되었다. 선진국은 지위가 격상된 대가로 책임과 의무가 더해진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독일의 ‘독일 지속가능 전략(DNS)’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미래대응 전략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단계적인 계획 아래, 목표 지향적으로 차분하게 수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6개월 만에 똑딱하고 광복 100주년을 내다 보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만들어 코로나19 출현 직전인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수장 국가로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부담을 적지 않게 가지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이 시국에 강조하고 있는 점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을 하나의 기회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확고한 자기 주문과 신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으니 코로나 팬데믹 중이긴 하지만 지위에 걸맞게 UN에서 결의된 Agenda 2030의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들을 새롭게 국내 상황에 대응하여 점검해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어느 좌표에 놓여있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떠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정부, 학계, 현장 모두가 함께 심사숙고할 시기이다.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sup>66)</sup>

### 1) 서론

코로나19는 전 세계 청소년에게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빈곤 아동·청소년의 수는 약 7억 1,500만여 명, 전체 아동·청소년 중 빈곤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8.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억 8,200만여 명, 32.2%)에 비하여 약 2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UNICEF, 2020a). 더욱 심각한 위기는 학습 차원에서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전 세계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전 세계 16억 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학습활동에 영향을 받았고, 컴퓨터 또는 인터넷 통신망, 학습콘텐츠 등의 어려움으로 원격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4억 6,3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UNICEF, 2021b).

학교를 비롯한 사회적 봉쇄 조치 결과 청소년의 폭력 및 학대 위험 또한 높아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유럽 지역의 가정 폭력 신고 전화는 약 60%, 폭력과 학대 등으로 인한 온라인 상담 건은 5배 가량 늘었고(Kluge, 2020),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Mlambo-Ngcuka, 2020). 이러한 여러 문제는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남미 지역 9개국의 만 13세 이상 2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적지 않은 수가 불안(27%) 또는 우울(15%)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NICEF, 2020b).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스스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중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

---

66) '제3장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는 총신대학교 손병덕 교수가 작성하였다.

이에 UN,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상황 아래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복지 증진 방안 등을 고안하여 각 국가에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뉴노멀 시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UN과 OECD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 아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 2) UN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범세계적 기구로서,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하여 감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자, UN은 30여 개 UN 산하·전문기구들과 함께 서둘러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A UN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코로나19에 대한 UN의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대응 체계)」를 발표하였다.

UN은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대응 전략으로 (1) 최우선적으로 건강 보호, (2) 사회적 보호, (3) 경제적 대응과 회복, (4) 거시경제적 대응과 다차원적 협업, (5) 사회 응집(social cohesion)과 지역사회 레질리언스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전략 추진 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취약 집단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청년을 선정하였다(UN, 2020). 그에 따라 전략별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응계획을 밝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전략의 하나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 지원, 두 번째 전략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원격학습과 식사 지원,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다섯 번째 전략의 경우 청소년 기관(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의 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UN은 2018년 「Youth 2030: UN Youth Strategy(청소년2030: UN 청소년전략)」을 발표하며, 청소년을 위한(for youth)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with youth) UN 체계를 선포하였다(UN, 2019). UN 청소년전략은 ‘모든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고, 모든 청소년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세계 사회’의 비전 아래 (1) 관계, 참여 및 옹호, (2) 교육 및 보건 기반, (3)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4) 청소년과 인권, (5) 평화 및 레질리언스 구축의 5대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하였는데(UN, 2019), 아래 표로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요약하였다.

표 III-9. UN 청소년전략(Youth2030)의 5대 우선순위 분야

우선순위 분야	내용 및 주요 실행계획
1. 관계, 참여 및 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확대</li> <li>• 주요 실행계획 : 청소년 주류화, 정책이나 포럼 등에 청소년 참여 보장 및 확대, 청소년 참여 메커니즘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지침 제공, 청소년과의 접촉과 소통 확대 등</li> </ul>
2. 교육 및 보건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li> <li>• 주요 실행계획 : 양질의 교육 옹호, 비형식(non-formal) 교육 증진, 접근 가능한 청소년 대응 보건 서비스 및 환경 보장, 청소년 친화적 정신 보건 서비스 지원 등</li> </ul>
3.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인 고용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li> <li>• 주요 실행계획 : 양질의 일자리 확보, NEET 비율 감소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 서비스 및 생산 자산에 대한 접근 증진,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 등</li> </ul>
4. 청소년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인권을 보호, 증진하며 청소년의 시민 및 정치적 참여를 지원</li> <li>• 주요 실행계획 :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인권 주류화,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 촉진, 인권 교육 및 역량 강화 등</li> </ul>
5. 평화 및 레질리언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제로서 청소년 지원</li> <li>• 주요 실행계획 : 청소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 지속적인 대화 촉진, 공식적 평화 구축 프로세스 내 청소년 참여 추진, 파트너십 및 힘 실어주기 등</li> </ul>

\* 출처: UN (2019). 청소년 2030: UN 청소년전략(이지향 역). pp.10-12.

UN 청소년전략 'Youth2030'은 지난 2021년 4월 첫 번째 보고서인 「Youth 2030 Progress Report 2021(청소년 2030 성과 보고서 2021)」를 발표하여 그간의 청소년전략(Youth2030) 추진 성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대응, 그리고 향후,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UN,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UN 및 산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청소년에 관한 여러 연구 및 조사 수행, 그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 및 전문 보고서 발표, 교육과 정신건강 등 주요 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지침 개발 및 발표, 'Y+ Social Aid Fund', 'The Youth Fund: COVID-19'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취약성이 큰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UN-Habitat(UN 인간주거계획)는 35개 청소년 단체와 연대하여 케냐, 소말리아, 에콰도르 등지에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이끄는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세계보건기구와 UNICEF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실시간 세미나(webinar)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전략(Youth203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전략으로 크게 '함께 더 나은 사회로의 회복'과 '일관된 전달체계 강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께 더 나은 사회로의 회복' 전략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곧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회복을 함께 추구할 것, '일관된 전달체계 강화' 전략은 다양한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이때 각 체계들의 청소년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추적과 관리, 관련 일자리 또는 정책 과정 등에서의 청소년 참여 증진 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UN, 2021).

표 III-10. UN 청소년전략 -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계획

구분	내용 및 주요 실행계획
1. 함께 더 나은 사회로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극복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함께 추구하는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회복 추구</li> <li>• 국가별로 청소년이 처한 상황(실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격차(gap) 파악, 목표-현실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대안 설계, 각 국가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추진 지원</li> </ul>
2. 일관된 전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국가, 지역 수준의 주체들간의 공동 및 협력 활동(joint work) : 예를 들어 공동의 전략 계획 또는 체제, 공동 프로젝트, 공동 전달 체계 등</li> <li>• 자원과 성과의 투명한 추적 : UN사무국 내 통합적 계획, 관리 및 보고 시스템(Integrated Planning,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과 같이 청소년 지원 활동 현황과 자원,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 및 적용</li> <li>• 청소년 인턴십과 일자리 재구성 :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활동 기반을 혁신 및 강화하기 위해서 UN 시스템(산하, 전문기구 등 포괄) 및 UN 외부의 유관 기관(단체) 등에 청소년의 인턴십 및 일자리 참여 확대 필요</li> <li>• 청소년 참여 활성화 : 모든 정책과 실천에 청소년의 의미있는 참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UN 시스템 내부 뿐 아니라 외부 각 국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 참여가 증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현행 정책과 실천, 플랫폼 등이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보장하는데 적절한지, 특히 디지털 기술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수렴하는지 등의 점검 필요</li> </ul>

\* 출처: UN (2021). Youth2030 Progress Report 2021. pp.51-52.

### 3) 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21년 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청소년의 안녕(well-being)과 복지의 회복, 증진에 관한 정책보고서 「Securing the Recovery, Ambition, and Resili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Post-COVID-19 Decade」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아동의 빈곤과 불평등, 가족 문제, 학습 손실,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 특히 폭력과 학대 피해, 장애, 가정 밖 양육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문제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청소년 안녕(well-being)과 복지 증진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chie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Post-COVID-19 Decade, 이하 ‘OECD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제시하였다(OECD, 2021).

OECD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어려움과 피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미래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것(to promote future resilience of global systems)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체제 개발, 적절한 재정자원 동원,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배,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리더십과 행동의 5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직 초안 단계여서 전략별 주요 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OECD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에 아래 표로 OECD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11. OECD 프레임워크의 5대 전략

전략	내용
1. 데이터 체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체제(data framework) 개발</li> <li>• 국가 내 아동·청소년 안녕과 복지 실태와 추이,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 등의 데이터</li> </ul>
2. 재정자원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됨. 이에 적절한 재정자원의 동원 필요</li> <li>• 아동·청소년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지출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체제 구축 필요 → 향후 OECD WISE(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Equal opportunity) 센터에서 분석체제 개발 예정</li> </ul>
3.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여러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범정부적 접근(또는 통합형 정부 접근,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필요</li> <li>•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하고 투명한 분배, 지역간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협력과 조정 시스템 개선 등</li> </ul>
4.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복지에 있어 가족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자 요인 → 따라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 필요</li> <li>• 서비스의 질(quality)과 효과성, 효율성 모두 고려</li> <li>• 오늘날 사회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가족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신기술과의 결합 추진</li> </ul>
5.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및 활성화</li> <li>• 아동 주류화(Child mainstreaming) 전략 - 모든 정책의 계획과 이행, 입법, 평가 등에 있어 아동권리의 관점을 반영시킴</li> <li>• 아동 주류화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 특히 시민사회,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li> </ul>

\* 출처: OECD (2021). Securing the Recovery, Ambition, and Resili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Post-COVID-19 Decade. pp.9-15.

### 3. 시사점<sup>67)</sup>

앞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국제기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들은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감에 있어 나름의 생산성과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 및 국제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책에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 정책이다. 이 경우 청소년은 객관화, 대상화된다. 반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때 청소년은 주체화, 인격화된다. 청소년 정책이 실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자 중심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청소년을 소중한 고객으로 보는 ‘청소년 배려’의 접근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정책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다. 먼저 ‘청소년 배려’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 특히 청소년을 중심에 두는 청소년 제일(youth-first)의 접근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보고, 청소년에게 COVID-19 관련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정부의 청소년포털인 유스닷거브(youth.gov)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청소년기관단체 등의 모든 웹페이지에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동시에 팬데믹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을,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모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기존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멘토나 성인지도자 및 또래들과의 사회적 연결을

---

67) ‘제3장 시사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유지하며,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자체를 중시하는 기술함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한 리더십 개발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원격교육 제공과 출석 정상화 정책의 시행, 효과적인 학습 참여 및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했고, 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은 물론, 인권, 활동, 복지, 보호 등 제반 영역에서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UN의 경우 청소년전략 ‘Youth2030’의 내용 및 실행 계획 안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정책과 실천에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현행 정책과 실천, 플랫폼 등이 청소년의 의견 청취와 참여 보장을 위해 적절한지, 특히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의 구체적 사례로는 UN-Habitat(UN 인간주거계획)가 35개 청소년 단체와 연대하여 케냐, 소말리아, 에콰도르 등지에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이끄는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또 ‘유럽평의회 청소년 전략(Council of Europe Youth Sector Strategy 2030)’의 목표에도 청소년 참여를 위한 기반 확대(participation)가 포함되어 있고, OECD의 경우도 ‘OECD 프레임워크의 5대 전략’의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행동’의 내용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 특히 시민사회,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국도 Hagell(2021), Barnardo’s(2020), Smith와 Barron(2020) 등 주요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 보장을 제안하였다. 실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되어선 안 될 참여 주체는 바로 청소년이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주체일 수 있다. 이에 우리도 청소년

참여가 현실화, 실제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형 정책 과정 체계의 구축, 청소년 참여형 정책 점검과 평가 활성화, 청소년의 정책 과정 이해 및 역량 제고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부분이 아닌 전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큰 틀에서 소극적, 적극적인 차원의 양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소극적 측면은 청소년에게 ‘걱정 없는 삶’을 제공하는 일이다. 2021년 OECD의 코로나 관련 보고서나 영국의 사례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학습, 건강, 심리·정서, 일상생활(경제, 주거 등), 폭력과 학대 위험 등 삶의 대부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불안, 스트레스, 우울, 주의집중 및 행동 어려움, 자살 시도 등이 확인되었고(Barnardo’s, 2020; Hagell, 2021; Pearcey et al., 2020), 디지털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 등도 문제가 되었다(NSPCC, 2020).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차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었고, Barnardo’s(2020)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종식 이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과 모든 학교내의 검증된 상담 전문가 배치가 고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해와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을 통해, 코로나가 청소년 삶에 초래한 부정적 문제들을 해소, 해결해 줌과 동시에 청소년 정신건강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 청소년 삶의 적극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취업 등 자아실현과 삶의 다양한 과정과 영역에서 ‘행복한 삶’을 성취하길 원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 특히 진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 요구된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술과 도구 이용능력,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능력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과 관계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탐색, 활용,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 나아가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과의 생산적 소통,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청소년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직업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UN 청소년전략에 따라 UN 시스템(산하, 전문기구 등 포괄) 및 UN 외부의 유관 기관(단체) 등이 청소년의 인턴십 및 일자리 참여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또 'EU 청소년 전략'의 경우 구체적 목표로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청소년 정책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걱정 없는 삶'과 '행복한 삶', 두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국제기관 등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교육은 물론, 경제, 건강, 심리·정서, 문화·여가, 가족, 사회 등 청소년 삶의 제반 영역을 통합하는 청소년 정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정책의 이상적 구현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의 전체적 시각에서 설계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청소년 정책 관련 핵심 기구인 "연방 청소년 자문위원회 BJK(Bundesjugendkuratorium)"는 2021년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없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라는 명료한 "Cut"을 기대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는 물론 미래의 팬데믹을 대비하는 '뉴 노멀(New Normal)'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 대책의 결과들을 적절히 보완하고 발전시킨 아동·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노력과 함께, 또한 그러한 미래가 실제 수용자인 청소년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하버드 청소년 여론조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2017년 미국 청소년의 평균 31%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67%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4년 뒤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6%로 높아졌다. 백인 청소년들의 경우 35%에서 46%로, 유색 청소년 중, 흑인은 18%에서 72%로, 히스패닉 청소년은 29%에서 6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 청소년의 약 40%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들이 정부의 미래 청소년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참여 지향적 정책개발로 나아가는 한편, 장기적인 정책 설계에 있어 청소년을 향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참여기회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동시에 각 주의 다양한 지역적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 정책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함께 지자체와 각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대응하는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다만 각 지역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상황과 처지의 다양성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일반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애 청소년,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 청소년의 요구 또한 고려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Hagell(2021)은 단기적으로 취약 청소년을 위해 교육과 경제 격차 해소 지원 및 다양한 복지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취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 설계를 제안하였다. OECD 프레임워크 역시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을 5대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나아가 취약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극복을 넘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

(to promote future resilience of global systems)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도 통일성에 기초하여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험과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회복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성에 기초하여 저소득 및 주거 빈곤 청소년, 장애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 장기적,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의 성공적 구현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정부 등이 아닌 모두 ‘함께’이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민간기관,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유기적 소통,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기관 중심의 자체적, 분산적 정책이 아닌 통합적 청소년운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영국의 경우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및 제3섹터(NGO/NPO, 사회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등) 간 협력과 협업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주요 보고서 역시 향후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제언들을 통해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UN 청소년전략 ‘Youth203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 ‘함께 더 나은 사회로의 회복’과 ‘일관된 전달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관된 전달체계 강화’ 전략은 다양한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각 체계들의 청소년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추적과 관리 등을 강조한다(UN, 2021).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는 독일의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JK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존재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먼저 청소년 정책 영역들에서 도출된 결과의 과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증거기반 데이터들이 실시간 백업되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정책적 주체들과 이에 따른 과제들을 만들어 내는데 기초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과제들이 최종적으로 대정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든 어디든, 형식이 아닌 능력 기반의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재정지원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로 청소년에게 야기된 피해회복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회복 행동 프로그램”으로 2021~2022년 2년 동안 20억€, 한화 약 2조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10억€, 그리고 영유아 교육, 일상과 학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 휴가,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10억€이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 예산이 교육과 활동에 합리적으로 균등 배분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4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인권, 활동, 복지, 보호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활동영역이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많은 청소년수련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회복되고, 청소년 활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및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은 상존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가올 다양한 위기와 문제에 생산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4장 청소년 설문조사

- 1. 조사영역 및 내용의 구성
- 2. 표집
- 3. 조사결과



## 1. 조사 영역 및 내용의 구성<sup>68)</sup>

청소년 설문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였으며(과제관리 번호 NYPI-202109-HR-고유-039-01) 크게 'I.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경험과 이에 대한 생각', 'II.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1년간 경험과 생각', 'III. 삶 전반에 대한 생각', 'IV. 지난 1년간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 'V. 일반적인 사항'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코로나19와 청소년 삶에 대한 기존 연구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연구진 3명의 안면타당도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 후 최종 확정 사용하였다. 조사는 웹기반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9월이다. Windows용 SPSS 통계 패키지 Ver.20.0을 활용하여 빈도, 교차,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은 표와 같다.

68) '제4장 청소년 설문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표 IV-1 설문조사 문항 세부 사항

대영역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9세-17세용	18세-24세용		
I.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경험과 이에 대한 생각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Q1	Q1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Q2	Q2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다중응답)		Q3	Q3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II.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1년간 경험과 생각 (계속)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3가지		Q4	Q4	굿네이버스(2020) 수정·보완	
	활동	운동 산책 등 신체활동 감소	Q5_1	Q5_1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잠자는 시간 불규칙	Q5_2	Q5_2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잠자는 시간 증가	Q5_3	Q5_3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	Q5_4	Q5_4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수정·보완	
		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	Q5_5	Q5_5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수정·보완	
		온라인 수업을 등교 수 업보다 열심히 참여	Q5_6	Q5_6	권하영(2021) 수정·보완	
	심리 정서	방역수칙 준수	Q5_7	Q5_7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수정·보완	
		스트레스	Q501_1	Q501_1	보건복지부 2021 인식 조사 수정·보완	
		우울감, 절망감	Q501_2	Q501_2	여성가족부(2021.3.10.) 수정·보완	
		사회 관계 등	또래관계 불안 증가	Q502_1	Q502_1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성적에 대한 불안감 증가	Q502_2	Q502_2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나 혼자 보내는 시간 증가	Q502_3	Q502_3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이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증가	Q502_4	Q502_4	신영미, 권순범(2021) 수정·보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	Q502_5	Q502_5	정혜욱(2020) 수정·보완
가족 간의 갈등 증가			Q502_6	Q502_6	정혜욱(2020) 수정·보완	

대영역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9세-17세용	18세-24세용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전에 대한 생각	Q6_1	Q6_1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수정·보완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생각	Q6_2	Q6_2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수정·보완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	Q6_3	Q6_3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수정·보완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	Q6_4	Q6_4	보건복지부 2021 인식조사 수정·보완
	4차 대유행에 대한 생각	Q6_5	Q6_5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인식조사 수정·보완
	교육(학력) 격차 증가에 대한 생각	Q6_6	Q6_6	박미희(2020) 수정·보완
II.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1년간 경험과 생각	선호하는 수업(또는 활동) 형태	Q7	Q7	조안나(2021), 김대용·최진혁(2020) 수정·보완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 평균 등교일수	Q8	Q8	김희진(2021) 수정·보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	Q9	Q9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김경애 외(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수정·보완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 3가지	Q10	Q10	Government of Ireland 수정·보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	Q11	Q11	천안시태조사청소년수련관(2000)
	최근 1년간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 (다중응답)	Q12	Q12	신규 구성
	코로나19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 (자유기재)	Q13	Q13	신규 구성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 (자유기재)	Q14	Q14	신규 구성
	코로나19 발생 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 (자유기재)	Q15	Q15	신규 구성
	코로나19 이후 좋았던 점 (자유기재)	Q16	Q16	신규 구성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자유기재)	Q17	Q17	신규 구성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 (자유기재)	Q18	Q18	신규 구성

대영역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9세~17세용	18세~24세용	
III. 삶 전반에 대한 생각	주관적 복지감	행복감	Q19	Q19	World Value Survey
		삶의 만족도	Q20	Q20	World Value Survey
	미래에 대한 생각		Q21	Q21	Government of Ireland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Q22	Q22	World Value Survey,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동 복지연구소(2020), 서울시 복지재단(2021) 수정·보완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Q23	Q23	World Value Survey,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동 복지연구소(2020), 서울시 복지재단(2021) 수정·보완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		Q24	Q24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동 복지연구소(2020) 수정·보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 3가지		Q25	Q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2020)
IV. 지난 1년간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다중응답)		Q26	Q26	보건복지부(2021), 여성가족부(2021), 서정아(2017),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수정·보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좋았던 점 (자유기재)		Q27	Q27	서정아(2017) 수정·보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 (자유기재)		Q28	Q28	서정아(2017) 수정·보완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장소 (자유기재)		Q29	Q29	서정아(2017) 수정·보완

대영역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9세-17세용	18세-24세용	
일반적인 사항	성별	Q30	QQ2	-
	태어난 연도와 월	Q31	Q30	-
	현재 직업	Q32	Q3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수정·보완
	현재 살고 있는 곳	Q33	QQ3	-
	지역규모	Q34	QQ4	서정아(2017) 수정·보완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 성적	Q35	Q32	서정아(2017) 수정·보완
	가족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	Q36	Q33	서정아(2017) 수정·보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경제 상태 변화에 대한 인식	Q37	Q34	한종민(2021) 수정·보완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Q38	Q35	신규 구성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다중응답)	Q39	Q36	서정아(2017)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Q40	Q37	World Value Survey 수정·보완

\* 주: 세부 설문조사 항목은 부록 참조

## 2. 표집

표집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대로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를 파악한 후 확률추화표집을 실시하였다. 대상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9세~24세이며 초·중·고 연령의 경우 표 IV-3 에서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약 1% 내외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웹기반 설문조사의 특성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따로 표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이 전반적인 청소년의 코로나19 관련 생각과 경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 부득이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만 9세~17세 연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섭외하였으며 18세~24세 연령의 경우 리서치사가 확보한 해당 연령의 패널을 활용하되 대상이 편포되지 않도록 연령, 성별, 지역 등의 안배에 각별히 유의하였다.

표 IV-2.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

구분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서울	110,884	106,630	216,514	117,340	110,474	227,814	119,730	112,605	232,335	391,434	416,440	807,934	739,508	745,149	1,484,657
부산	40,821	38,876	79,697	40,519	38,229	78,748	41,286	38,326	79,612	138,141	129,034	267,225	260,767	244,515	505,282
대구	32,612	30,466	63,078	33,649	31,449	65,098	35,661	32,218	67,879	111,774	99,546	211,320	213,666	193,679	407,375
인천	41,712	39,265	80,977	41,642	39,665	81,307	41,187	39,010	80,197	127,104	118,263	245,367	251,645	236,203	487,848
광주	22,778	21,356	44,134	23,664	22,081	45,745	24,235	22,288	46,523	74,224	68,328	142,552	144,951	134,053	279,014
대전	21,164	19,955	41,119	22,073	20,779	42,852	22,724	21,009	43,733	70,476	66,108	136,584	136,437	127,851	264,288
울산	17,678	16,214	33,892	17,406	16,217	33,623	17,265	15,202	32,467	52,395	42,329	94,724	104,744	89,952	194,706
세종	7,921	7,466	15,387	7,067	7,121	14,208	5,731	5,881	11,612	12,370	11,432	23,802	33,109	31,900	65,009
경기	204,448	198,936	398,384	204,148	194,368	398,516	197,207	186,788	383,995	592,748	546,729	1,139,477	1,189,553	1,121,636	2,320,387
강원	19,907	18,683	38,590	20,398	18,903	39,301	21,351	19,711	41,062	68,718	56,406	125,124	130,374	113,703	244,077
충북	22,586	21,248	43,834	22,699	21,214	43,913	22,778	20,719	43,497	70,323	60,582	130,905	138,366	123,763	262,149
충남	31,603	29,389	60,992	31,651	29,336	60,987	30,278	28,297	58,575	88,265	75,546	163,811	181,797	162,588	344,365
전북	25,276	24,033	49,309	26,147	24,396	50,543	26,926	25,019	51,945	81,264	70,836	152,160	159,613	144,344	303,957
전남	24,619	23,506	48,125	24,964	23,476	48,440	25,429	23,710	49,139	79,433	65,200	144,633	154,445	135,882	290,337
경북	34,122	31,701	65,823	34,418	31,578	65,996	35,131	31,308	66,439	103,730	87,481	196,271	212,461	182,083	394,529
경서	50,220	47,112	97,332	50,129	46,762	96,891	49,255	44,434	93,689	145,339	118,681	264,000	294,973	258,989	551,962
제주	11,224	10,432	21,656	10,975	10,248	21,223	10,777	9,691	20,468	29,834	26,363	56,197	62,810	56,734	119,544
합계	719,575	679,268	1,388,843	728,949	686,311	1,415,220	727,071	676,216	1,403,287	2,242,772	2,059,414	4,302,186	4,418,277	4,101,209	8,519,486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2021.10.1. 인출.

\* 주 : 1) 조사기준일 : 2020년

표 IV-3. 시도별, 교급별 청소년 인구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학업중단	재학	학업중단	재학	학업중단	
서울	409,536	5,154	207,081	2,414	224,316	4,318	969,788
부산	153,527	786	73,749	495	76,573	1,328	256,293
대구	122,587	535	62,563	351	65,807	1,047	132,309
인천	156,928	932	76,346	523	74,886	1,235	77,502
광주	86,419	458	43,415	189	45,612	741	121,904
대전	79,807	575	40,694	275	42,488	747	160,815
울산	67,397	271	31,797	139	31,391	325	37,569
세종	29,487	408	12,395	114	10,246	226	24,348
경기	761,731	6,422	362,917	3,432	350,199	6,919	474,638
강원	73,478	318	37,836	227	39,806	808	124,413
충북	85,135	266	41,458	230	41,549	781	129,052
충남	120,115	535	57,541	378	57,791	1,093	202,215
전북	94,661	219	48,873	206	52,932	882	134,474
전남	92,405	307	46,050	199	49,112	796	73,333
경북	129,079	436	62,499	299	66,899	1,110	206,889
경남	190,849	588	91,164	410	89,026	1,301	119,443
제주	40,575	156	19,468	120	18,679	237	31,342
합계	2,693,716	18,366	1,315,846	10,001	1,337,312	23,894	3,276,32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2021.10.1. 인출.

본 연구의 표집 목표(안)은 3,000명으로 이를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 비례에 따라 할당한 수치는 표 IV-4와 같다. 이 경우 만 9-11세, 만 12-14세, 만 15-17세 청소년 총합과 만 18-24세 합이 약 1:1로 나타나 본 연구는 만 18-24세 후기 청소년보다 초·중·고등학교 연령인 만 9-17세에 연구의 관심이 있는 바, 보다 대표성 있는 표적 집단 샘플링을 위해 만 9-11세, 만 12-14세, 만 15-17세, 만 18세-24세 연령별로 1:1:1:1로 수정하여 표집하였다. 각 집단별로 남:녀 성비는 1:1로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급 최소 정원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20명의 배수로 18세 이상 연령의 경우 기존 수치에 가깝게 할당하였다. 조정된 표집 목표(안)은 표 IV-5와 같다.

표 IV-4.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3,000명 환산, 원수치)

구분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서울	39	37	76	41	39	80	42	40	82	138	147	285	260	262	523
부산	14	14	28	14	13	28	15	13	28	49	45	94	92	86	178
대구	11	11	22	12	11	23	13	11	24	39	35	74	75	68	143
인천	15	14	29	15	14	29	15	14	28	45	42	86	89	83	172
광주	8	8	16	8	8	16	9	8	16	26	24	50	51	47	98
대전	7	7	14	8	7	15	8	7	15	25	23	48	48	45	93
울산	6	6	12	6	6	12	6	5	11	18	15	33	37	32	69
세종	3	3	5	2	3	5	2	2	4	4	4	8	12	11	23
경기	72	68	140	72	68	140	69	66	135	209	193	401	422	395	817
강원	7	7	14	7	7	14	8	7	14	24	20	44	46	40	86
충북	8	7	15	8	7	15	8	7	15	25	21	46	49	44	92
충남	11	10	21	11	10	21	11	10	21	31	27	58	64	57	121
전북	9	8	17	9	9	18	9	9	18	29	25	54	56	51	107
전남	9	8	17	9	8	17	9	8	17	28	23	51	54	48	102
경북	12	11	23	12	11	23	12	11	23	38	31	69	75	64	139
경남	18	17	34	18	16	34	17	16	33	51	42	93	104	90	194
제주	4	4	8	4	4	7	4	3	7	11	9	20	22	20	42
합계	253	239	493	257	242	498	256	238	494	790	725	1,515	1,556	1,444	3,000

표 IV-5.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3,000명 환산, 수지조정)

구분	9-11세(초3-초6)			12-14세(중1-중3)			15-17세(고1-고3)			18-24세			전체	
	원안	조정후	배분	원안	조정후	배분	원안	조정후	배분	원안	조정후	배분	원안	조정후
서울	76	114	120	80	120	120	82	123	120	285	142.5	140	523	500
부산	28	42	40	28	42	40	28	42	40	94	47	45	178	165
대구	22	33	40	23	34.5	40	24	36	40	74	37	35	143	155
인천	29	43.5	40	29	43.5	40	28	42	40	86	43	40	172	160
광주	16	24	20	16	24	20	16	24	20	50	25	25	98	85
대전	14	21	20	15	22.5	20	15	22.5	20	48	24	25	93	85
울산	12	18	20	12	18	20	11	16.5	20	33	16.5	20	69	80
세종	5	7.5	0	5	7.5	20	4	6	20	8	4	10	23	50
경기	140	210	190	140	210	210	135	202.5	200	401	200.5	200	817	800
강원	14	21	20	14	21	20	14	21	20	44	22	20	86	80
충북	15	22.5	20	15	22.5	20	15	22.5	20	46	23	25	92	85
충남	21	31.5	40	21	31.5	40	21	31.5	40	58	29	25	121	145
전북	17	25.5	40	18	27	20	18	27	20	54	27	25	107	105
전남	17	25.5	40	17	25.5	20	17	25.5	20	51	25.5	30	102	110
경북	23	34.5	40	23	34.5	40	23	34.5	40	69	34.5	30	139	150
경남	34	51	40	34	51	40	33	49.5	50	93	46.5	45	194	175
제주	8	12	20	7	10.5	20	7	10.5	20	20	10	10	42	70
합계	493	739.5	750	498	747	750	494	741	750	1,515	757.5	750	3,000	3,000

또한 조사기간이 9월인 관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자가 가까워 고3 연령인 만 17세는 제외하고 해당 표집수는 고1과 고2에 안배하여 최종 표집목표수를

확정하였다. 최종 표집목표수는 표 IV-7과 같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분석대상에 포함된 청소년 수는 총 4,347명이다.

**표 IV-6.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별 표집목표(3,000명 환산, 수치 조정, 고3 포함)**

구분	만 9-11세(초4-초6)				만 12-14세(중1-중3)				만 15-17세(고1-고3)				만 18-24세	전체
	초4	초5	초6	소계	중1	중2	중3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서울	40	40	40	120	40	40	40	120	40	40	40	120	140	500
부산		20	20	40	20	20		40	20	20		40	45	165
대구	20	20		40	20		20	40	20		20	40	35	155
인천	20		20	40		20	20	40	20	20	20	40	40	160
광주		20		20	20			20	20			20	25	85
대전			20	20		20		20		20		20	25	85
울산	20			20			20	20			20	20	20	80
세종				0	20			20	20			20	10	50
경기	60	60	70	190	70	70	70	210	70	70	60	200	200	800
강원		20		20		20		20		20		20	20	80
충북			20	20			20	20			20	20	25	85
충남	20	20		40	20	20		40	20	20		40	25	145
전북	20		20	40			20	20			20	20	25	105
전남		20	20	40	20			20	20			20	30	110
경북	20		20	40		20	20	40	20	20	20	40	30	150
경남		20	20	40	20	20		40	30	20		50	45	175
제주	20			20			20	20			20	20	10	70
합계	240	240	270	750	250	250	250	750	260	250	240	750	750	3,000

**표 IV-7. 시도별,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수별 표집목표(3,000명 환산, 수치 조정, 고3 제외)**

구분	만 9-11세(초4-초6)				만 12-14세(중1-중3)				만 15-16세(고1-고2)			만 18-24세	전체
	초4	초5	초6	소계	중1	중2	중3	소계	고1	고2	소계		
서울	40	40	40	120	40	40	40	120	60	60	120	140	500
부산		20	20	40	20	20		40	20	20	40	45	165
대구	20	20		40	20		20	40	20	20	40	35	155
인천	20		20	40		20	20	40	20	20	40	40	160
광주		20		20	20			20	20		20	25	85
대전			20	20		20		20		20	20	25	85
울산	20			20			20	20	20		20	20	80
세종				0	20			20		20	20	10	50
경기	60	60	70	190	70	70	70	210	100	100	200	200	800
강원		20		20		20		20	20		20	20	80
충북			20	20			20	20		20	20	25	85
충남	20	20		40	20	20		40	20	20	40	25	145
전북	20		20	40			20	20	20		20	25	105
전남		20	20	40	20			20	20	20	20	30	110
경북	20		20	40		20	20	40	20	20	40	30	150
경남		20	20	40	20	20		40	30	20	50	45	175
제주	20			20			20	20		20	20	10	70
합계	240	240	270	750	250	250	250	750	370	380	750	750	3,000

### 3. 조사결과

#### 1) 조사대상 일반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전체 분석대상자 수는 4,347명이며 남자가 48.7%, 여자가 51.3%로 약 1:1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만 9세-11세가 18.6%, 만 12세-14세가 34.0%, 만 15-17세가 29.8%, 만 18-24세가 17.6%로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수가 비교적 많이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평균 14.77세였다. 직업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5.4%, 중학생이 36.4%, 고등학생이 22.4%, 대학생이 10.3%,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이 2.9%,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이 2.0%, 주부가 0.1%,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0.5%로 일도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 족의 비율이 약 0.5%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6%, 부산 5.1%, 대구 4.9%, 인천 6.4%, 광주 6.4%, 대전 4.3%, 울산 3.3%, 세종 3.6%, 경기 17.3%, 강원 4.8%, 충북 3.5%, 충남 6.5%, 전북 4.4%, 전남 7.4%, 경북 3.9%, 경남 3.3%, 제주 4.3%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5.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0.3%, 농어촌(읍·면·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14.4%를 차지하였다.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은 낮은 편이 18.2%, 중간 정도가 57.1%, 높은 편이 24.7%였으며 가족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11.3%가 낮은 편, 74.9%가 중간 정도, 13.8%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 경제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22.5%, 경제 상태가 변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4.8%였으며 기타 의견이 2.8%를 차지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3.4%가 이주배경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2.7%, 양부모가정 84.1%, 한부모가정 11.1%, 조손가정 0.6%, 소년소녀가정 0.4%, 기타 1.1%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상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62.1%가 건강한 편이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8%가 전혀 건강하지 않다 또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IV-8. 조사대상 일반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115	48.7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45.3	
	여자	2232	51.3		중소도시	1750	40.3	
	합계	4347	100.0		농어촌(읍·면·리)	628	14.4	
			합계		4347	100.0		
연령	만 9세-11세	804	18.6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낮은 편	739	18.2	
	만 12세-14세	1472	34.0		중간 정도	2325	57.1	
	만 15세-17세	1291	29.8		높은 편	1006	24.7	
	만 18세-24세	763	17.6		합계	4070	100.0	
	합계	4330	100.0		낮은 편	491	11.3	
	(최소, 최대)	(9, 24)		중간 정도	3256	74.9		
	(평균, 표준편차)		(14.88, 3.70)	높은 편	600	13.8		
직업	초등학생	1098	25.3	가족의 경제상태	합계	4347	100.0	
	중학생	1581	36.4		경제 상태 나빠짐	976	22.5	
	고등학생	972	22.4		경제 상태 변화 없음	3250	74.8	
	대학생	446	10.3	코로나로 인한 가족 경제상태 변화	기타 <sup>69)</sup>	121	2.8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127	2.9		합계	4347	100.0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88	2.0		이주배경 청소년여부	예	146	3.4
	주부	4	.1			아니오	4106	94.5
	아무것도 하지 않음	22	.5	잘 모름		95	2.2	
	기타 <sup>70)</sup>	9	.2	합계		4347	100.0	
	합계	4347	100.0	현재 살고 있는 곳	가족유형 <sup>71)</sup>	1인가구	116	2.7
서울	460	10.6	양부모가정			3648	84.1	
부산	221	5.1	한부모가정			481	11.1	
대구	215	4.9	조손가정			27	.6	
인천	277	6.4	소년소녀가정			18	.4	
광주	279	6.4	기타			47	1.1	
대전	188	4.3	합계			4337	100.0	
울산	144	3.3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다	68	1.6
세종	156	3.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402	9.2
경기	753	17.3				보통	1178	27.1
강원	209	4.8		건강한 편이다	1534	35.3		
충북	150	3.5		매우 건강하다	1165	26.8		
충남	282	6.5		합계	4347	100.0		
전북	193	4.4		(최소, 최대)	(1, 5)			
전남	322	7.4		(평균, 표준편차)	(3.77, 0.99)			
경북	168	3.9						
경남	145	3.3						
제주	185	4.3						
합계	4347	100.0						

##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경험과 이에 대한 생각

###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16.4%가 접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83.6%가 접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17.5%, 여자의 15.4%가 접종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9세-11세의 1.5%, 만 12-14세의 1.4%, 만 15세-17세의 1.9%, 만 18세-24세의 85.7%가 접종하였으며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p < .001$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특별·광역시)는 18.3%, 중소도시 15.8%, 농어촌(읍·면·리) 12.1%로 대도시가 가장 많고 농어촌이 가장 적었으며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1$ ).

표 IV-9.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였습니까	예	빈도 371 (%) (17.5)	빈도 343 (%) (15.4)	빈도 12 (%) (1.5)	빈도 20 (%) (1.4)	빈도 24 (%) (1.9)	빈도 654 (%) (85.7)	빈도 361 (%) (18.3)	빈도 277 (%) (15.8)	빈도 76 (%) (12.1)	빈도 714 (%) (16.4)
	아니오	빈도 1744 (%) (82.5)	빈도 1889 (%) (84.6)	빈도 792 (%) (98.5)	빈도 1452 (%) (98.6)	빈도 1267 (%) (98.1)	빈도 109 (%) (14.3)	빈도 1608 (%) (81.7)	빈도 1473 (%) (84.2)	빈도 552 (%) (87.9)	빈도 3633 (%) (83.6)
전체	빈도 2115 (%) (100.0)	빈도 2232 (%) (100.0)	빈도 804 (%) (100.0)	빈도 1472 (%) (100.0)	빈도 1291 (%) (100.0)	빈도 763 (%) (100.0)	빈도 1969 (%) (100.0)	빈도 1750 (%) (100.0)	빈도 628 (%) (100.0)	빈도 4347 (%) (100.0)	
	x <sup>2</sup> 3.73		3246.50***				14.232**				

\*  $p < .05$ , \*\*  $p < .01$ , \*\*\*  $p < .001$

69) 기타 의견으로는 잘 모르겠다(24명)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좋아졌다(7명)는 의견도 나타났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 상태가 나빠지다 못해 박살나기 직전이다.”, “변화가 없었다가 부모님께서 코로나 확진 받으신 후 타격이 생겼다.”, “부모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직장인이라 타격이 없지만 어머니는 중국과 사업을 하셔서 타격이 매우 크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해서 더 좋아졌다”, “코로나 전보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좋다가 나빴다가 날마다 바뀐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 음식을 시켜먹거나 만들어 먹어야 해서 그 돈이 더 나간다.” 등이 있었다. “약간 나빠짐”, “약간 좋아짐”, “보통” 등으로 정도를 포함하여 기타에 응답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추후 연구에서는 문항의 선택지를 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0) 기타 사례로는 군인(4명)이 있었다.

7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다중응답)을 유형별로 재부호화한 후 분석·제시하였다.

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66.9%가 '예', 30.7%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약 1/3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32.8%, 여자는 33.5%, 연령별로는 만 9-11세는 49.4%, 만 12-14세는 38.4%, 만 15-17세는 27.0%, 만 18-24세는 16.4%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p < .001$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특별·광역시)는 33.3%, 중소도시는 33.8%, 농어촌은 30.7%로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빈도	1421	1485	407	907	942	638	1313	1158	435	2906
		(%)	(67.2)	(66.5)	(50.6)	(61.6)	(73.0)	(83.6)	(66.7)	(66.2)	(69.3)	(66.9)
	아니오	빈도	694	747	397	565	349	125	656	592	193	1441
		(%)	(32.8)	(33.5)	(49.4)	(38.4)	(27.0)	(16.4)	(33.3)	(33.8)	(30.7)	(33.1)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434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21		232.280***				2.04			

\*  $p < .05$ , \*\*  $p < .01$ , \*\*\*  $p < .001$

③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다중응답)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다중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음 31.1%,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20.0%, 기본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8%, 기타 7.5%,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4.9%,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되어서(이미

항체가 있어서) 1.4%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응답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도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식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 규모별로는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다중응답)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중응답)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빈도 918 (%) (43.4)	빈도 1306 (%) (58.5)	빈도 331 (%) (41.2)	빈도 735 (%) (49.9)	빈도 736 (%) (57.0)	빈도 416 (%) (54.5)	빈도 1043 (%) (53.0)	빈도 859 (%) (49.1)	빈도 322 (%) (51.3)	빈도 2224 (%) (51.2)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빈도 435 (%) (20.6)	빈도 434 (%) (19.4)	빈도 130 (%) (16.2)	빈도 266 (%) (18.1)	빈도 264 (%) (20.4)	빈도 205 (%) (26.9)	빈도 384 (%) (19.5)	빈도 364 (%) (20.8)	빈도 121 (%) (19.3)	빈도 869 (%) (20.0)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빈도 271 (%) (12.8)	빈도 241 (%) (10.8)	빈도 105 (%) (13.1)	빈도 149 (%) (10.1)	빈도 134 (%) (10.4)	빈도 122 (%) (16.0)	빈도 252 (%) (12.8)	빈도 199 (%) (11.4)	빈도 61 (%) (9.7)	빈도 512 (%) (11.8)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빈도 120 (%) (5.7)	빈도 92 (%) (4.1)	빈도 40 (%) (5.0)	빈도 58 (%) (3.9)	빈도 55 (%) (4.3)	빈도 58 (%) (7.6)	빈도 106 (%) (5.4)	빈도 76 (%) (4.3)	빈도 30 (%) (4.8)	빈도 212 (%) (4.9)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되어서(이미 항체가 있어서)	빈도 38 (%) (1.8)	빈도 22 (%) (1.0)	빈도 16 (%) (2.0)	빈도 10 (%) (0.7)	빈도 6 (%) (0.5)	빈도 28 (%) (3.7)	빈도 35 (%) (1.8)	빈도 20 (%) (1.1)	빈도 5 (%) (0.8)	빈도 60 (%) (1.4)
	특별한 이유 없음	빈도 769 (%) (36.4)	빈도 582 (%) (26.1)	빈도 286 (%) (35.6)	빈도 492 (%) (33.4)	빈도 376 (%) (29.1)	빈도 192 (%) (25.2)	빈도 595 (%) (30.2)	빈도 553 (%) (31.6)	빈도 203 (%) (32.3)	빈도 1351 (%) (31.1)
	기타	빈도 165 (%) (7.8)	빈도 162 (%) (7.3)	빈도 88 (%) (10.9)	빈도 98 (%) (6.7)	빈도 96 (%) (7.4)	빈도 43 (%) (5.6)	빈도 128 (%) (6.5)	빈도 157 (%) (9.0)	빈도 42 (%) (6.7)	빈도 327 (%) (7.5)
	전체	빈도 2115 (%) (128.5)	빈도 2232 (%) (127.2)	빈도 804 (%) (124)	빈도 1472 (%) (122.8)	빈도 1291 (%) (129.1)	빈도 763 (%) (139.5)	빈도 1969 (%) (129.2)	빈도 1750 (%) (127.3)	빈도 628 (%) (124.9)	빈도 5555 (%) (127.8)

### 3)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1년간 경험과 생각

####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3가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을 3가지 고르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디어 감상(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을 하는 경우가 56.6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게임(컴퓨터, 모바일 등) 45.3%, 학습 및 숙제 34.8%,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2.1%, 취미 활동 31.4%,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냄 23.1%, 집안일 도움 19.5%, 스포츠 및 신체활동 12.3%, 가족돌봄(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5.1%, 취업 준비 2.8%, 아르바이트 또는 일함 3.5%, 상급학교로의 진학 준비 2.2%, 기타 1.5% 순으로 1/2 이상의 청소년이 미디어 활용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연령별로는 주로 한 활동의 순위가 달라져 성별, 연령별로 개별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3가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을 3가지 내로 골라주세요.	집안일 도움	빈도	444	403	166	238	204	234	376	322	149	847
		(%)	(21.0)	(18.1)	(20.6)	(16.2)	(15.8)	(30.7)	(19.1)	(18.4)	(23.7)	(19.5)
	가족돌봄(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빈도	104	118	54	67	49	50	103	89	30	222
		(%)	(4.9)	(5.3)	(6.7)	(4.6)	(3.8)	(6.6)	(5.2)	(5.1)	(4.8)	(5.1)
	학습 및 숙제	빈도	719	794	346	538	456	171	734	588	191	1513
		(%)	(34.0)	(35.6)	(43.0)	(36.5)	(35.3)	(22.4)	(37.3)	(33.6)	(30.4)	(34.8)
	미디어 감상(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빈도	1044	1417	343	823	812	474	1132	969	360	2461
		(%)	(49.4)	(63.5)	(42.7)	(55.9)	(62.9)	(62.1)	(57.5)	(55.4)	(57.3)	(56.6)
	취미 활동	빈도	593	773	303	518	414	123	589	576	201	1366
		(%)	(28.0)	(34.6)	(37.7)	(35.2)	(32.1)	(16.1)	(29.9)	(32.9)	(32.0)	(31.4)
	스포츠 및 신체활동	빈도	399	134	126	195	131	77	236	221	76	533
		(%)	(18.9)	(6.0)	(15.7)	(13.2)	(10.1)	(10.1)	(12.0)	(12.6)	(12.1)	(12.3)
	게임(컴퓨터, 모바일 등)	빈도	1303	667	428	733	567	232	852	849	269	1970
		(%)	(61.6)	(29.9)	(53.2)	(49.8)	(43.9)	(30.4)	(43.3)	(48.5)	(42.8)	(45.3)
	SNS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빈도	429	967	70	494	564	267	628	545	223	1396
		(%)	(20.3)	(43.3)	(8.7)	(33.6)	(43.7)	(35.0)	(31.9)	(31.1)	(35.5)	(32.1)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냄	빈도	414	590	262	332	252	153	469	407	128	1004
		(%)	(19.6)	(26.4)	(32.6)	(22.6)	(19.5)	(20.1)	(23.8)	(23.3)	(20.4)	(23.1)
	아르바이트 또는 일함	빈도	71	81	4	2	28	118	72	59	21	152
(%)		(3.4)	(3.6)	(0.5)	(0.1)	(2.2)	(15.5)	(3.7)	(3.4)	(3.3)	(3.5)	
상급학교로의 진학 준비	빈도	56	41	4	16	52	25	44	41	12	97	
	(%)	(2.6)	(1.8)	(0.5)	(1.1)	(4.0)	(3.3)	(2.2)	(2.3)	(1.9)	(2.2)	
취업 준비	빈도	43	79	1	5	12	104	56	42	24	122	
	(%)	(2.0)	(3.5)	(0.1)	(0.3)	(0.9)	(13.6)	(2.8)	(2.4)	(3.8)	(2.8)	
기타	빈도	33	32	23	19	17	6	21	37	7	65	
	(%)	(1.6)	(1.4)	(2.9)	(1.3)	(1.3)	(0.8)	(1.1)	(2.1)	(1.1)	(1.5)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11748	
	(%)	(267.3)	(273)	(264.9)	(270.4)	(275.5)	(266.7)	(269.8)	(271.1)	(269.1)	(270.3)	

##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 ①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활동 부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에 대해 평균 3.20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p<.001), 연령별(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균 3.0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성별(p<.001), 연령별(p<.001)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85점으로 중간보다 낮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성별(p<.001), 연령별(p<.001)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3.90점으로 4점에 가까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p<.001), 연령별(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반해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3.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활동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t) 값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생활의 변화: 활동	1)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성별	남자	2115	1	5	3.10	1.25	27.76***
		여자	2232	1	5	3.30	1.18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02	1.29	7.86***
			만 12세-14세	1472	1	5	3.21	1.22	
			만 15세-17세	1291	1	5	3.27	1.22	
			만 18세-24세	763	1	5	3.27	1.11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21	1.24	.62
	중소도시		1750	1	5	3.18	1.20		
	농어촌(읍·면·리)		628	1	5	3.24	1.21		
		전체	4347	1.0	5.0	3.20	1.22		
	2)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성별	남자	2115	1	5	2.85	1.27	51.32***
		여자	2232	1	5	3.13	1.30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6	1.30	39.17***
			만 12세-14세	1472	1	5	2.9	1.28	

3)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지역규모	만 15세-17세	1291	1	5	3.1	1.31	1.03	
		만 18세-24세	763	1	5	3.2	1.18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00	1.28		
		중소도시	1750	1	5	2.97	1.31		
	전체	농어촌(읍·면·리)	628	1	5	3.05	1.30		
		전체	4347	1.0	5.0	3.00	1.29		
	성별	남자	2115	1	5	2.74	1.21	35.45***	
		여자	2232	1	5	2.96	1.23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5	1.22	50.03***	
		만 12세-14세	1472	1	5	2.7	1.20		
		만 15세-17세	1291	1	5	2.9	1.24		
		만 18세-24세	763	1	5	3.2	1.12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85	1.23	.40	
		중소도시	1750	1	5	2.84	1.22		
		농어촌(읍·면·리)	628	1	5	2.89	1.21		
		전체	4347	1.0	5.0	2.85	1.22		
4)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3.52	1.15	64.48***	
		여자	2232	1	5	3.79	1.08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29	1.27	41.68***	
		만 12세-14세	1472	1	5	3.69	1.10		
		만 15세-17세	1291	1	5	3.70	1.10		
		만 18세-24세	763	1	5	3.90	.96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65	1.12	.53	
		중소도시	1750	1	5	3.65	1.15		
		농어촌(읍·면·리)	628	1	5	3.70	1.07		
		전체	4347	1.0	5.0	3.66	1.12		
	5) 코로나19 이후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3.1	1.35	97.68***
			여자	2232	1	5	2.7	1.37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48	1.41	62.87***
			만 12세-14세	1472	1	5	2.85	1.38	
			만 15세-17세	1291	1	5	2.91	1.36	
			만 18세-24세	763	1	5	3.41	1.18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88	1.37	.63	
		중소도시	1750	1	5	2.93	1.38		
		농어촌(읍·면·리)	628	1	5	2.88	1.36		
		전체	4347	1.0	5.0	2.90	1.37		
6)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등교 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2.88	1.16	27.43***
			여자	2232	1	5	2.70	1.12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07	1.14	29.84***
			만 12세-14세	1472	1	5	2.78	1.11	
			만 15세-17세	1291	1	5	2.59	1.17	
			만 18세-24세	763	1	5	2.81	1.09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83	1.12	2.66	
		중소도시	1750	1	5	2.76	1.15		
		농어촌(읍·면·리)	628	1	5	2.73	1.18		
		전체	4347	1.0	5.0	2.78	1.14		
	7)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주기적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잘 지키고 있다.	성별	남자	2115	1	5	3.98	1.02	23.31***
			여자	2232	1	5	4.12	.89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4.15	.98	4.83**
			만 12세-14세	1472	1	5	4.05	.96	
			만 15세-17세	1291	1	5	4.00	.96	
			만 18세-24세	763	1	5	4.00	.91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4.09	.94	4.90**	
		중소도시	1750	1	5	3.99	.98		
		농어촌(읍·면·리)	628	1	5	4.07	.94		
		전체	4347	1.0	5.0	4.05	.96		

\* p<.05, \*\* p<.01, \*\*\* p<.001

‘코로나19 이후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2.90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응답수준을 나타냈으며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반해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등교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에 대해서는 2.78점으로 중간보다 낮아 온라인 수업을 등교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주기적 환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잘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는 4.0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 ② 심리정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심리정서 부문은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직업,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가족의 경제상태,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가족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3.23점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 직업별( $p < .001$ ), 가족의 경제상태별( $p < .001$ ),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별( $p < .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생보다는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경제상태가 낮은 편인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이 아닌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가족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절망감을 자주 느꼈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50점으로 중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 $p < .001$ ), 연령이 높은 집단이

( $p < .001$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와 대학생인 경우( $p < .001$ ),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이 낮은 편인 경우( $p < .01$ ), 양부모가정보다 1인가구,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 $p < .001$ ) 우울감, 절망감을 더 느끼고 있었으며 지역규모,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심리정서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t) 값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생활의 변화: 심리정서	7)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별	남자	2115	1	5	3.12	1.33	28.99***
			여자	2232	1	5	3.33	1.23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17	1.39	12.46***
			만 12세-14세	1472	1	5	3.12	1.31	
			만 15세-17세	1291	1	5	3.24	1.27	
			만 18세-24세	763	1	5	3.46	1.09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21	1.28	.18
			중소도시	1750	1	5	3.23	1.30	
			농어촌(읍·면·리)	628	1	5	3.25	1.27	
		직업	초등학교생	1098	1	5	3.19	1.38	5.94***
			중학생	1581	1	5	3.10	1.30	
			고등학생	972	1	5	3.29	1.25	
			대학생	446	1	5	3.45	1.05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127	1	5	3.61	1.09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88	1	5	3.39	1.06		
	주부		4	1	5	3.00	1.15		
	아무 것도 하지 않음		22	1	5	3.63	1.04		
	기타	9	1	5	3.44	1.42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낮은 편	739	1	5	3.28	1.28	1.58	
		중간 정도	2325	1	5	3.20	1.26		
		높은 편	1006	1	5	3.17	1.38		
	가족의 경제상태	낮은 편	491	1	5	3.47	1.27	10.38***	
		중간 정도	3256	1	5	3.19	1.26		
		높은 편	600	1	5	3.22	1.39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예	146	1	5	2.91	1.37	4.68**	
		아니오	4106	1	5	3.24	1.28		
		잘 모름	95	1	5	3.21	1.29		
	가족 유형	1인가구	116	1	5	3.44	1.13	.89	
양부모가정		3648	1	5	3.21	1.29			
한부모가정		481	1	5	3.27	1.29			
조손가정		27	1	5	3.33	1.24			
소년소녀가정		18	1	5	3.33	1.49			
기타		47	1	5	3.27	1.22			
전체			4347	1.0	5.0	3.23	1.28		
8)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절망감을 자주 느꼈다.	성별	남자	2115	1	5	2.32	1.22	80.44***	
		여자	2232	1	5	2.66	1.26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13	1.20	107.90** *	
		만 12세-14세	1472	1	5	2.29	1.21		
		만 15세-17세	1291	1	5	2.59	1.25		
		만 18세-24세	763	1	5	3.11	1.14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51	1.25	.387	
		중소도시	1750	1	5	2.48	1.24		
		농어촌(읍·면·리)	628	1	5	2.52	1.26		

		직업	초등학생	1098	1	5	2.17	1.21	38.82***
			중학생	1581	1	5	2.35	1.21	
			고등학생	972	1	5	2.67	1.27	
			대학생	446	1	5	3.13	1.11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127	1	5	3.09	1.17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88	1	5	3.04	1.14	
			주부	4	1	5	2.75	.95	
			아무 것도 하지 않음	22	1	5	3.45	1.05	
		기타	9	1	5	3.33	1.65	6.02**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낮은 편	739	1	5	2.60		1.29
			중간 정도	2325	1	5	2.44		1.20
			높은 편	1006	1	5	2.40	1.31	
		가족의 경제상태	낮은 편	491	1	5	2.93	1.30	33.99***
			중간 정도	3256	1	5	2.45	1.21	
			높은 편	600	1	5	2.42	1.34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예	146	1	5	2.39	1.34	1.50
			아니오	4106	1	5	2.50	1.24	
			잘 모름	95	1	5	2.68	1.33	
		가족 유형	1인가구	116	1	5	3.06	1.24	7.29***
			양부모가정	3648	1	5	2.46	1.24	
			한부모가정	481	1	5	2.63	1.28	
			조손가정	27	1	5	2.63	1.21	
			소년소녀가정	18	1	5	3.05	1.51	
			기타	47	1	5	2.61	1.27	
		전체	4347	1.0	5.0	2.50	1.25		

\* p<.05, \*\* p<.01, \*\*\* p<.001

### ③ 사회관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관계 등 부분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또래관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2.31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p<.001), 연령별(p<.001)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2.63점으로 역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p<.001), 연령별(p<.001), 지역규모별(p<.001)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읍·면·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증가한 점이 주목해볼 만하다. ‘코로나19 이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3.24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성별(p<.001), 연령별(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99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았다.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 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에 대해서는 3.41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성별( $p < .05$ ), 연령별(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늘었다’에 대해서는 2.31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며( $p < .05$ ) 농어촌(읍·면·리)에 비해 대도시(특별·광역시)와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5.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관계 등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t) 값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생활의 변화: 사회관계 등	10) 코로나19 이후 또래 관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2.20	38.18***	
			여자	2232	1	5	2.42		1.15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05	1.14	60.24***
			만 12세-14세	1472	1	5	2.27	1.13	
			만 15세-17세	1291	1	5	2.26	1.08	
			만 18세-24세	763	1	5	2.77	1.12	
			전체	4347	1.0	5.0	2.31	1.14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35	1.15	2.22
			중소도시	1750	1	5	2.29	1.13	
			농어촌(읍·면·리)	628	1	5	2.25	1.10	
	11) 코로나19 이후 성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2.45	1.25	80.09***
			여자	2232	1	5	2.80	1.28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01	1.14	95.57***
			만 12세-14세	1472	1	5	2.62	1.29	
			만 15세-17세	1291	1	5	2.93	1.28	
			만 18세-24세	763	1	5	2.79	1.17	
			전체	4347	1.0	5.0	2.63	1.28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63	1.28	3.59*
			중소도시	1750	1	5	2.59	1.26	
			농어촌(읍·면·리)	628	1	5	2.75	1.31	
	12) 코로나19 이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3.09	1.28	55.74***
			여자	2232	1	5	3.37	1.24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73	1.35	88.54***
			만 12세-14세	1472	1	5	3.17	1.28	
만 15세-17세			1291	1	5	3.33	1.19		
만 18세-24세			763	1	5	3.72	1.04		
전체			4347	1.0	5.0	3.24	1.26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23	1.27	1.48	
		중소도시	1750	1	5	3.21	1.27		
		농어촌(읍·면·리)	628	1	5	3.31	1.22		
13) 코로나19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성별	남자	2115	1	5	2.81	1.26	87.04***	
		여자	2232	1	5	3.16	1.26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43	1.27	94.15***	

14)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지역규모	만 12세-14세	1472	1	5	2.96	1.27	1.11		
		만 15세-17세	1291	1	5	3.10	1.23			
		만 18세-24세	763	1	5	3.46	1.10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98	1.28			
		중소도시	1750	1	5	2.98	1.28			
	성별	남자	2115	1	5	3.37	1.11	5.80*		
		여자	2232	1	5	3.45	1.07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51		1.15	8.30***
			만 12세-14세	1472	1	5	3.38		1.10	
			만 15세-17세	1291	1	5	3.32		1.07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41	1.11	.00		
		중소도시	1750	1	5	3.41	1.09			
		농어촌(읍·면·리)	628	1	5	3.41	1.06			
	전체	4347	1.0	5.0	3.41	1.09				
	15)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늘었다.	성별	남자	2115	1	5	2.23	1.14	19.87***	
여자			2232	1	5	2.38	1.16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09	1.14	30.83***		
		만 12세-14세	1472	1	5	2.29	1.15			
		만 15세-17세	1291	1	5	2.27	1.11			
		만 18세-24세	763	1	5	2.63	1.16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33	1.17	4.37*		
		중소도시	1750	1	5	2.33	1.16			
		농어촌(읍·면·리)	628	1	5	2.18	1.06			
		전체	4347	1.0	5.0	2.31	1.15			

\* p<.05, \*\* p<.01, \*\*\* p<.001

### (3)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해서는 2.54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p<.001), 연령별(p<.01), 지역규모별(p<.01)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역제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3.51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p<.01), 연령별(p<.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방역 정책을 잘 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3.02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성별(p<.001), 연령별(p<.001), 지역규모별(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 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에 대해서는 3.25점으로 중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연령별,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치명률(그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4차 대유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해서는 2.42점으로 중간보다 낮아 청소년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p<.001$ ), 연령별( $p<.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간에 교육(학력) 격차가 커졌다’에 대해 3.42점으로 중간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p<.001$ ), 연령별(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6.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t) 값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	1)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다.	남자	만 9세-11세	대도시(특별·광역시)	2115	1	5	2.60	1.11	13.31***		
		여자	만 12세-14세	중소도시	2232	1	5	2.48	.98			
		연령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804	1	5	2.56		1.09	4.63**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1472	1	5	2.50		1.04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전체	1291	1	5	2.49		1.02	
			만 18세-24세	전체	763	1	5	2.65	1.05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1969	1	5	2.61		1.05	8.43***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전체	1750	1	5	2.47		1.04	
			농어촌(읍·면·리)	전체	628	1	5	2.51	1.02			
		2) 코로나19 역제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남자	만 9세-11세	대도시(특별·광역시)	2115	1	5	3.45		1.08	14.91***
	여자		만 12세-14세	중소도시	2232	1	5	3.57	.98			
	연령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804	1	5	3.60	1.05	3.52*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1472	1	5	3.52	1.04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전체	1291	1	5	3.48	1.02		
			만 18세-24세	전체	763	1	5	3.45	1.00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1969	1	5	3.54	1.03	1.18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전체	1750	1	5	3.48	1.03		
			농어촌(읍·면·리)	전체	628	1	5	3.52	1.05			
	3) 우리 정부는 방역 정책을 잘하고 있다.		남자	만 9세-11세	대도시(특별·광역시)	2115	1	5	2.96	1.12	14.42***	
		여자	만 12세-14세	중소도시	2232	1	5	3.08	.96			
연령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804	1	5	3.40	.99	50.31***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1472	1	5	3.00	1.00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전체	1291	1	5	2.84	1.03			
		만 18세-24세	전체	763	1	5	2.96	1.08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1969	1	5	3.07	1.05	4.59*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전체	1750	1	5	2.99	1.03			
		농어촌(읍·면·리)	전체	628	1	5	2.94	1.04				
4) 나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남자	만 9세-11세	연령	만 12세-14세	2115	1	5	3.21	1.15		4.66*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2232	1	5	3.28	1.04				
	연령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804	1	5	3.27	1.10	.42			
		만 12세-14세	만 12세-14세	1472	1	5	3.22	1.08				

통제하고 방역자금을 원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지역규모	만 15세-17세	1291	1	5	3.25	1.09	1.10
		만 18세-24세	763	1	5	3.26	1.12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26	1.10	
		중소도시	1750	1	5	3.24	1.09	
		농어촌(읍·면·리)	628	1	5	3.19	1.09	
전체	4347	1.0	5.0	3.25	1.10			
5) 치명률(그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4차 대유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별	남자	2115	1	5	2.51	1.11	31.16***
		여자	2232	1	5	2.33	.99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2.27	1.00	29.21***
		만 12세-14세	1472	1	5	2.36	1.00	
		만 15세-17세	1291	1	5	2.39	1.07	
		만 18세-24세	763	1	5	2.73	1.14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2.43	1.07	.74
		중소도시	1750	1	5	2.43	1.05	
		농어촌(읍·면·리)	628	1	5	2.37	1.06	
		전체	4347	1.0	5.0	2.42	1.06	
6)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 간에 교육(학력) 격차가 커졌다.	성별	남자	2115	1	5	3.30	1.08	49.00***
		여자	2232	1	5	3.52	1.00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06	1.04	42.28***
		만 12세-14세	1472	1	5	3.43	1.03	
		만 15세-17세	1291	1	5	3.55	1.05	
		만 18세-24세	763	1	5	3.54	.99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42	1.05	.28
		중소도시	1750	1	5	3.41	1.05	
		농어촌(읍·면·리)	628	1	5	3.44	1.01	
		전체	4347	1.0	5.0	3.42	1.04	

\* p<.05, \*\* p<.01, \*\*\* p<.001

#### (4) 선호하는 수업(또는 활동) 형태

선호하는 수업(또는 활동) 형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교수업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등교수업+온라인학습 28.3%, 온라인학습 26.6%, 등교수업+온라인학습+순회교육 2.0%, 등교수업+순회교육 1.1%, 기타 0.75, 순회교육 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p<.001), 연령별(p<.001), 지역규모별(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만 9세-11세, 만 12세-14세는 등교수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데 반해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는 등교수업+순회교육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부분이 눈에 띈다. 즉, 연령별 선호에 맞춘 차별화된 수업(또는 활동) 운영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7. 선호하는 수업(또는 활동) 형태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다음 중 어떠한 수업 (또는 활동) 형태를 선호합니까?	등교수업	빈도	794	968	399	671	473	210	760	734	268	1762
		(%)	(37.5)	(43.4)	(49.6)	(45.6)	(36.6)	(27.5)	(38.6)	(41.9)	(42.7)	(40.5)
	온라인학습	빈도	657	501	170	392	335	257	527	483	148	1158
		(%)	(31.1)	(22.4)	(21.1)	(26.6)	(25.9)	(33.7)	(26.8)	(27.6)	(23.6)	(26.6)
	순회교육	빈도	14	12	2	8	6	10	11	12	3	26
		(%)	(0.7)	(0.5)	(0.2)	(0.5)	(0.5)	(1.3)	(0.6)	(0.7)	(0.5)	(0.6)
	등교수업+ 온라인학습	빈도	571	661	202	349	437	242	584	458	190	1232
		(%)	(27.0)	(29.6)	(25.1)	(23.7)	(33.8)	(31.7)	(29.7)	(26.2)	(30.3)	(28.3)
	등교수업+ 순회교육	빈도	21	28	11	16	10	12	27	19	3	49
		(%)	(1.0)	(1.3)	(1.4)	(1.1)	(0.8)	(1.6)	(1.4)	(1.1)	(0.5)	(1.1)
등교수업+ 온라인학습+ 순회교육	빈도	39	50	13	27	23	25	50	30	9	89	
	(%)	(1.8)	(2.2)	(1.6)	(1.8)	(1.8)	(3.3)	(2.5)	(1.7)	(1.4)	(2.0)	
기타 <sup>72)</sup>	빈도	19	12	7	9	7	7	10	14	7	31	
	(%)	(0.9)	(0.5)	(0.9)	(0.6)	(0.5)	(0.9)	(0.5)	(0.8)	(1.1)	(0.7)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434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45.75***		137.26***				22.20*				

\* p<.05, \*\* p<.01, \*\*\* p<.001

(5)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 평균 등교일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주 평균 등교일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5일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2일 8.8%, 주1일 5.9% 순이었다. 성별 (p<.05), 연령별(p<.001), 지역규모별(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주5일 등교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72) 기타 의견으로는 '방학처럼 숙제를 내주고 스스로 자율학습', '격일 등교수업', '전공에 따른 수업차별화', '온라인 수업을 하되 조금 더 선생님의 심도 있는 수업을 원함' 등이 있었다.

표 IV-18.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 평균 등교일수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에 평균 며칠 학교에 직접 등교합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	194 (9.2)	220 (9.9)	7 (0.9)	25 (1.7)	13 (1.0)	368 (48.2)	206 (10.5)	156 (8.9)	52 (8.3)	414 (9.5)	
	주1일	빈도 (%)	145 (6.9)	113 (5.1)	50 (6.2)	85 (5.8)	32 (2.5)	89 (11.7)	127 (6.4)	105 (6.0)	26 (4.1)	258 (5.9)	
		주2일	빈도 (%)	204 (9.6)	180 (8.1)	137 (17.0)	134 (9.1)	30 (2.3)	82 (10.7)	229 (11.6)	116 (6.6)	39 (6.2)	384 (8.8)
	주3일	빈도 (%)	150 (7.1)	146 (6.5)	74 (9.2)	77 (5.2)	71 (5.5)	73 (9.6)	169 (8.6)	96 (5.5)	31 (4.9)	296 (6.8)	
		주4일	빈도 (%)	56 (2.6)	67 (3.0)	13 (1.6)	34 (2.3)	27 (2.1)	49 (6.4)	57 (2.9)	55 (3.1)	11 (1.8)	123 (2.8)
	주5일	빈도 (%)	1366 (64.6)	1506 (67.5)	523 (65.0)	1117 (75.9)	1118 (86.6)	102 (13.4)	1181 (60.0)	1222 (69.8)	469 (74.7)	2872 (66.1)	
		빈도 (%)	2115 (100.0)	2232 (100.0)	804 (100.0)	1472 (100.0)	1291 (100.0)	763 (100.0)	1969 (100.0)	1750 (100.0)	628 (100.0)	4347 (100.0)	
	전체		빈도 (%)	2115 (100.0)	2232 (100.0)	804 (100.0)	1472 (100.0)	1291 (100.0)	763 (100.0)	1969 (100.0)	1750 (100.0)	628 (100.0)	4347 (100.0)
	x2			11.82*	2140.69***				81.67***				

\* p<.05, \*\* p<.01, \*\*\* p<.001

(6)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29.7%), 생활리듬이 깨짐(시간, 건강관리)(26.0%),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25.6%),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24.3%), 원격수업(20.2%), 심심함/의욕이 없음(15.9%), 나와 주변사람들의 감염 위험(14.9%),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불가능(11.6%), 막연한 걱정과 스트레스(9.0%),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등)(7.6%), 특별히 힘든 점 없음(7.3%), 온라인 과다, 무방비 노출(5.6%), 불평등한 학습 손실, 더 커지는 학습격차(5.5%), 외로움/고립감(5.3%), 부모님 등 가족과 자주 싸움(4.0%), 경제적으로 어려워짐(3.6%), 식사 해결이 어려워짐(2.9%), 열악한 원격학습 환경(2.3%), 학교나 청소년시설이 문을 닫음(2.2%), 기타(1.6%),

나 또는 가족이 일자리를 잃음(1.1%),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감소(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만	만	만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9세-11세	12세-14세	15세-17세	18세-24세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을 3가지 내로 표시해 주세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	빈도 (%)	789 (37.3)	862 (38.6)	365 (45.4)	612 (41.6)	424 (32.8)	243 (31.8)	769 (39.1)	686 (39.2)	196 (31.2)	1651 (38.0)
	원격수업	빈도 (%)	387 (18.3)	492 (22.0)	207 (25.7)	359 (24.4)	215 (16.7)	96 (12.6)	408 (20.7)	351 (20.1)	120 (19.1)	879 (20.2)
	생활리듬이 깨짐(시간, 건강관리)	빈도 (%)	509 (24.1)	621 (27.8)	115 (14.3)	385 (26.2)	420 (32.5)	203 (26.6)	507 (25.7)	425 (24.3)	198 (31.5)	1130 (26.0)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	빈도 (%)	640 (30.3)	650 (29.1)	274 (34.1)	427 (29.0)	376 (29.1)	210 (27.5)	576 (29.3)	532 (30.4)	182 (29.0)	1290 (29.7)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빈도 (%)	462 (21.8)	649 (29.1)	257 (32.0)	324 (22.0)	258 (20.0)	265 (34.7)	489 (24.8)	451 (25.8)	171 (27.2)	1111 (25.6)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등)	빈도 (%)	153 (7.2)	178 (8.0)	12 (1.5)	73 (5.0)	123 (9.5)	122 (16.0)	153 (7.8)	124 (7.1)	54 (8.6)	331 (7.6)
	나와 주변사람 들의 감염 위험	빈도 (%)	277 (13.1)	370 (16.6)	133 (16.5)	189 (12.8)	197 (15.3)	125 (16.4)	290 (14.7)	257 (14.7)	100 (15.9)	647 (14.9)
	마스크 등 개인방역 권리 막연한 걱정과 스트레스	빈도 (%)	575 (27.2)	481 (21.6)	232 (28.9)	336 (22.8)	335 (25.9)	150 (19.7)	466 (23.7)	435 (24.9)	155 (24.7)	1056 (24.3)
	부모님 등 가족과 자주 싸움	빈도 (%)	175 (8.3)	215 (9.6)	53 (6.6)	99 (6.7)	122 (9.5)	115 (15.1)	176 (8.9)	151 (8.6)	63 (10.0)	390 (9.0)
	동아리, 봉사 활동 등 체험 활동 불가능	빈도 (%)	68 (3.2)	108 (4.8)	39 (4.9)	58 (3.9)	48 (3.7)	30 (3.9)	84 (4.3)	76 (4.3)	16 (2.5)	176 (4.0)
	식사 해결이 어려워짐	빈도 (%)	204 (9.6)	302 (13.5)	103 (12.8)	203 (13.8)	152 (11.8)	47 (6.2)	214 (10.9)	216 (12.3)	76 (12.1)	506 (11.6)
	열악한 환경 학습 환경	빈도 (%)	72 (3.4)	56 (2.5)	25 (3.1)	39 (2.6)	33 (2.6)	30 (3.9)	54 (2.7)	56 (3.2)	18 (2.9)	128 (2.9)
	불평등한 학습 손실 더 커지는 학습격차	빈도 (%)	47 (2.2)	52 (2.3)	6 (0.7)	23 (1.6)	31 (2.4)	39 (5.1)	52 (2.6)	33 (1.9)	14 (2.2)	99 (2.3)
	온라인 과다, 무병비 노출	빈도 (%)	125 (5.9)	113 (5.1)	15 (1.9)	84 (5.7)	106 (8.2)	32 (4.2)	107 (5.4)	85 (4.9)	46 (7.3)	238 (5.5)
	이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감소	빈도 (%)	120 (5.7)	124 (5.6)	35 (4.4)	83 (5.6)	84 (6.5)	41 (5.4)	114 (5.8)	94 (5.4)	36 (5.7)	244 (5.6)
	학교나 청소년 시설이 문을 닫음	빈도 (%)	17 (0.8)	15 (0.7)	6 (0.7)	9 (0.6)	10 (0.8)	7 (0.9)	15 (0.8)	12 (0.7)	5 (0.8)	32 (0.7)
		빈도 (%)	50 (2.4)	47 (2.1)	16 (2.0)	31 (2.1)	33 (2.6)	17 (2.2)	47 (2.4)	38 (2.2)	12 (1.9)	97 (2.2)

외로움/고립감	빈도	102	127	35	67	58	66	111	92	26	229
	(%)	(4.8)	(5.7)	(4.4)	(4.6)	(4.5)	(8.7)	(5.6)	(5.3)	(4.1)	(5.3)
심심함/ 의욕이 없음	빈도	313	379	133	259	210	87	289	299	104	692
	(%)	(14.8)	(17.0)	(16.5)	(17.6)	(16.3)	(11.4)	(14.7)	(17.1)	(16.6)	(15.9)
나 또는 가족이 일지리를 잃음	빈도	17	32	6	11	11	20	20	22	7	49
	(%)	(0.8)	(1.4)	(0.7)	(0.7)	(0.9)	(2.6)	(1.0)	(1.3)	(1.1)	(1.1)
경제적으로 어려워짐	빈도	57	101	20	33	50	53	68	61	29	158
	(%)	(2.7)	(4.5)	(2.5)	(2.2)	(3.9)	(6.9)	(3.5)	(3.5)	(4.6)	(3.6)
특별히 힘든 점 없음	빈도	204	114	59	125	100	34	152	124	42	318
	(%)	(9.6)	(5.1)	(7.3)	(8.5)	(7.7)	(4.5)	(7.7)	(7.1)	(6.7)	(7.3)
기타 <sup>73)</sup>	빈도	41	30	19	25	20	7	34	33	4	71
	(%)	(1.9)	(1.3)	(2.4)	(1.7)	(1.5)	(0.9)	(1.7)	(1.9)	(0.6)	(1.6)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11522
	(%)	(255.4)	(274)	(269.3)	(261.7)	(264.7)	(267.2)	(263.8)	(266.2)	(266.3)	(264.9)

### (7)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 3가지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 3가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미/흥미를 가진 활동을 할 수 있음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덜 바쁨(30.4%), 단순하고 느리고 조용한 생활(30.0%),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26.9%), 특별히 좋은 점 없음(21.0%),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생김(19.9%),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14.6%), 운동을 할 시간이 늘음(14.4%), 건강한 끼니를 챙겨먹을 수 있게 됨(9.1%), 친구관계가 더욱 돈독해 짐(6.9%), 재정상태가 좋아짐(4.8%),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73) 기타 의견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이지 못하는 것(3명)',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못 감(8명)', '마스크를 써서 불편함(6명)', '체육관 등이 문을 닫아서 수영, 운동, 볼링, 당구, 탁구 같은 스포츠 활동을 못함(4명)', '많이 먹어서 살이 찌(2명)', '\*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을 가지 못함(2명)', '가게가 일찍 닫음(2명)',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낌(1명)', '사람들이 화가 많아짐(1명)',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운동회 등 많은 행사가 사라짐(4명)' 등이 있었다.

표 IV-20.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 3가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을 3가지 내로 표시해 주세요.	운동을 할 시간이 늘음	빈도	413	213	134	207	175	106	282	265	79	626
		(%)	(19.5)	(9.5)	(16.7)	(14.1)	(13.6)	(13.9)	(14.3)	(15.1)	(12.6)	(14.4)
	건강한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게 됨	빈도	222	175	99	125	99	70	182	181	34	397
		(%)	(10.5)	(7.8)	(12.3)	(8.5)	(7.7)	(9.2)	(9.2)	(10.3)	(5.4)	(9.1)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생김	빈도	410	453	119	277	264	198	405	333	125	863
		(%)	(19.4)	(20.3)	(14.8)	(18.8)	(20.4)	(26.0)	(20.6)	(19.0)	(19.9)	(19.9)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빈도	588	581	323	365	275	201	567	454	148	1169
		(%)	(27.8)	(26.0)	(40.2)	(24.8)	(21.3)	(26.3)	(28.8)	(25.9)	(23.6)	(26.9)
	취미/흥미를 가진 활동을 할 수 있음	빈도	879	968	345	699	570	228	827	753	267	1847
		(%)	(41.6)	(43.4)	(42.9)	(47.5)	(44.2)	(29.9)	(42.0)	(43.0)	(42.5)	(42.5)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	빈도	298	336	59	183	245	144	292	233	109	634
		(%)	(14.1)	(15.1)	(7.3)	(12.4)	(19.0)	(18.9)	(14.8)	(13.3)	(17.4)	(14.6)
	단순하고 느리고 조용한 생활	빈도	554	749	167	440	427	261	553	545	205	1303
		(%)	(26.2)	(33.6)	(20.8)	(29.9)	(33.1)	(34.2)	(28.1)	(31.1)	(32.6)	(30.0)
	친구관계가 더욱 돈독해 짐	빈도	171	128	69	116	66	48	129	126	44	299
		(%)	(8.1)	(5.7)	(8.6)	(7.9)	(5.1)	(6.3)	(6.6)	(7.2)	(7.0)	(6.9)
재정상태가 좋아짐	빈도	114	96	20	34	52	103	92	86	32	210	
	(%)	(5.4)	(4.3)	(2.5)	(2.3)	(4.0)	(13.5)	(4.7)	(4.9)	(5.1)	(4.8)	
덜 바쁨	빈도	668	655	256	485	388	187	583	562	178	1323	
	(%)	(31.6)	(29.3)	(31.8)	(32.9)	(30.1)	(24.5)	(29.6)	(32.1)	(28.3)	(30.4)	
특별히 좋은 점 없음	빈도	422	493	170	317	285	142	420	354	141	915	
	(%)	(20.0)	(22.1)	(21.1)	(21.5)	(22.1)	(18.6)	(21.3)	(20.2)	(22.5)	(21.0)	
기타 <sup>74)</sup>	빈도	39	45	30	25	24	5	28	42	14	84	
	(%)	(1.8)	(2.0)	(3.7)	(1.7)	(1.9)	(0.7)	(1.4)	(2.4)	(2.2)	(1.9)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9670	
	(%)	(226)	(219.1)	(222.7)	(222.3)	(222.5)	(222)	(221.4)	(224.5)	(219.1)	(222.4)	

74) 기타의견으로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4명)', '게임을 많이 해서 좋다(5명)', '잠 자는 시간이 늘었다(1명)', '식당 및 유흥 주점이 10시에 문을 닫아서 10시 이후에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1명)', '아빠가 술집을 안 가고 있다(1명)', '온라인수업(3명)',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다(4명)', '집에만 있을 수 있다(4명)',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같은 교내 행사를 안해서 좋다(2명)', '학교를 안 가거나 덜 가거나 수업시간이 줄어서 좋다(6명)', '학원에서 일찍 보내줘서 좋다(3명)', '회식을 안한다(1명)', '공장이 일을 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줄었다(1명)' 등이 있었다.

(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가생활 지원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지원(18.6%), 식사지원(11.7%), 진로/취업지원(10.8%), 활동지원(8.5%), 심리상담(7.3%), 시간관리지원(6.0%), 봉사활동지원(4.1%), 기타(3.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p < .001$ ), 연령별( $p < .001$ )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여가생활 지원	빈도 631 (%) (29.8)	빈도 665 (%) (29.8)	빈도 226 (%) (28.1)	빈도 486 (%) (33.0)	빈도 386 (%) (29.9)	빈도 195 (%) (25.6)	빈도 605 (%) (30.7)	빈도 513 (%) (29.3)	빈도 178 (%) (28.3)	빈도 1296 (%) (29.8)
	학습지원	빈도 383 (%) (18.1)	빈도 425 (%) (19.0)	빈도 183 (%) (22.8)	빈도 260 (%) (17.7)	빈도 275 (%) (21.3)	빈도 85 (%) (11.1)	빈도 360 (%) (18.3)	빈도 306 (%) (17.5)	빈도 142 (%) (22.6)	빈도 808 (%) (18.6)
	봉사활동지원	빈도 106 (%) (5.0)	빈도 73 (%) (3.3)	빈도 43 (%) (5.3)	빈도 58 (%) (3.9)	빈도 52 (%) (4.0)	빈도 26 (%) (3.4)	빈도 66 (%) (3.4)	빈도 86 (%) (4.9)	빈도 27 (%) (4.3)	빈도 179 (%) (4.1)
	시간관리지원	빈도 133 (%) (6.3)	빈도 126 (%) (5.6)	빈도 28 (%) (3.5)	빈도 74 (%) (5.0)	빈도 89 (%) (6.9)	빈도 66 (%) (8.7)	빈도 113 (%) (5.7)	빈도 102 (%) (5.8)	빈도 44 (%) (7.0)	빈도 259 (%) (6.0)
	심리상담	빈도 114 (%) (5.4)	빈도 203 (%) (9.1)	빈도 50 (%) (6.2)	빈도 96 (%) (6.5)	빈도 81 (%) (6.3)	빈도 90 (%) (11.8)	빈도 157 (%) (8.0)	빈도 126 (%) (7.2)	빈도 34 (%) (5.4)	빈도 317 (%) (7.3)
	활동지원	빈도 199 (%) (9.4)	빈도 171 (%) (7.7)	빈도 93 (%) (11.6)	빈도 127 (%) (8.6)	빈도 84 (%) (6.5)	빈도 65 (%) (8.5)	빈도 162 (%) (8.2)	빈도 154 (%) (8.8)	빈도 54 (%) (8.6)	빈도 370 (%) (8.5)
	식사지원	빈도 256 (%) (12.1)	빈도 252 (%) (11.3)	빈도 108 (%) (13.4)	빈도 192 (%) (13.0)	빈도 139 (%) (10.8)	빈도 66 (%) (8.7)	빈도 234 (%) (11.9)	빈도 206 (%) (11.8)	빈도 68 (%) (10.8)	빈도 508 (%) (11.7)
	진로/취업지원	빈도 210 (%) (9.9)	빈도 259 (%) (11.6)	빈도 26 (%) (3.2)	빈도 125 (%) (8.5)	빈도 151 (%) (11.7)	빈도 164 (%) (21.5)	빈도 215 (%) (10.9)	빈도 187 (%) (10.7)	빈도 67 (%) (10.7)	빈도 469 (%) (10.8)
	기타 <sup>75)</sup>	빈도 83 (%) (3.9)	빈도 58 (%) (2.6)	빈도 47 (%) (5.8)	빈도 54 (%) (3.7)	빈도 34 (%) (2.6)	빈도 6 (%) (0.8)	빈도 57 (%) (2.9)	빈도 70 (%) (4.0)	빈도 14 (%) (2.2)	빈도 141 (%) (3.2)
	전체	빈도 2115 (%) (100.0)	빈도 2232 (%) (100.0)	빈도 804 (%) (100.0)	빈도 1472 (%) (100.0)	빈도 1291 (%) (100.0)	빈도 763 (%) (100.0)	빈도 1969 (%) (100.0)	빈도 1750 (%) (100.0)	빈도 628 (%) (100.0)	빈도 4347 (%) (100.0)
x <sup>2</sup>		42.92***		289.29***				25.80			

\*  $p < .05$ , \*\*  $p < .01$ , \*\*\*  $p < .001$

75) 기타의견으로는 '딱히 없다(23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14명)', '게임을 할 수 있게 지원(3명)', '모르겠다(3명)', '체험, 취미,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3명)', '휴대폰 지급(1명)', '장애인 돌봄서비스(1명)' 등이 있었다.

(9) 최근 1년간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다중응답)

최근 1년간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다중응답)을 살펴본 결과 위의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73.3%로 전체의 3/4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돈을 적게 벌게 됨(18.7%), 가족구성원이 병원에 입원했음(4.1%), 직업을 잃거나 해고당함(3.5%), 가족구성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1.5%), 기타(1.5%),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1.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경우와 직업을 잃거나 해고당한 경우가 20% 이상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22. 최근 1년간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다중응답)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만	만	만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 도시	농어촌 (읍·면·리)		
				9세-11세	12세-14세	15세-17세	18세-24세					
다음 중 최근 1년간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가족구성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	빈도	41	26	10	21	17	19	32	29	6	67
		(%)	(1.9)	(1.2)	(1.2)	(1.4)	(1.3)	(2.5)	(1.6)	(1.7)	(1.0)	(1.5)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	빈도	40	15	7	13	19	15	25	20	10	55
		(%)	(1.9)	(0.7)	(0.9)	(0.9)	(1.5)	(2.0)	(1.3)	(1.1)	(1.6)	(1.3)
	가족구성원이 병원에 입원했음	빈도	97	83	20	51	49	60	79	70	31	180
		(%)	(4.6)	(3.7)	(2.5)	(3.5)	(3.8)	(7.9)	(4.0)	(4.0)	(4.9)	(4.1)
	직업을 잃거나 해고당함	빈도	83	71	14	27	41	71	70	62	22	154
		(%)	(3.9)	(3.2)	(1.7)	(1.8)	(3.2)	(9.3)	(3.6)	(3.5)	(3.5)	(3.5)
	돈을 적게 벌게 됨	빈도	345	468	98	205	257	247	404	299	110	813
		(%)	(16.3)	(21.0)	(12.2)	(13.9)	(19.9)	(32.4)	(20.5)	(17.1)	(17.5)	(18.7)
위의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	빈도	1561	1627	639	1156	955	428	1422	1291	475	3188	
	(%)	(73.8)	(72.9)	(79.5)	(78.5)	(74.0)	(56.1)	(72.2)	(73.8)	(75.6)	(73.3)	
기타 <sup>76)</sup>	빈도	39	27	24	26	14	2	21	41	4	66	
	(%)	(1.8)	(1.2)	(3.0)	(1.8)	(1.1)	(0.3)	(1.1)	(2.3)	(0.6)	(1.5)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4523	
	(%)	(104.2)	(103.9)	(101)	(101.8)	(104.8)	(110.5)	(104.3)	(103.5)	(104.7)	(103.9)	

76) 기타의견으로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함(15명)',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남(3명)',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자주 담배를 피우심(2명)', '부모님의 이혼(1명)', '가족과 떨어져서 자주 못 보게 됨(1명)', '부모님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옴(1명)', '가족의 죽음(1명)' 등이 있었다.

## (10) 코로나19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자유기재)

코로나19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 위에서 이미 선택형 문항으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여 제시된 내용 중 선택형 문항에서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0시 이후 공부할 장소의 부재]** “10시 이후 모든 매장을 다는데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도 닫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도서관 문을 닫거나 시간이 줄어들음”
- **[추억을 박탈당한 세대]** “각종 행사들이 사라져서 학창시절의 추억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대학 입학 시기와 겹쳐 신입생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입학식, 엠티, 축제, 체육대회 등 전면취소되었고 과미팅 등도 못 해봄.”
- **[낮은 원격수업의 질]** “대학교 원격수업 질이 낮다.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 없이 수준 낮은 교육현실이 불만이다.”
- **[사교육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겪는 상대적 어려움/박탈감]** “고3 겨울방학때 코로나가 발생한 후 고3이 된 상태로 거의 2달 정도를 비대면 수업으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초반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EBS 강의를 올려주면 그저 듣기만 하는게 다였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도 안되고 모르는 부분을 바로 물어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피 불편했습니다. 특히 학교는 가지 못하면서 학원은 가는 상황이 저처럼 사교육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 **[장애청소년의 어려움]** “나는 아니지만 장애인들(특히 청각장애로 말하지 못하는)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모두 한 장소에서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갈등]** “동생이랑 같이 지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엄마와 싸움이 굉장히 괴롭다. 가족과 좀 떨어져 있고 싶다. 돈만 있으면 나 혼자 살고 싶다.”
-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 “마스크 진짜 여드름 땀 불편하고 전 아토피가 있어서 마스크를 1년 정도 썼을 때 쯤 얼굴이 빨갛고 간지럽고 해서 피부과를 계속 다녔어야 했습니다.”

- **[방역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로 퇴사]** “쇼핑몰 안내데스크 직원인데 00구청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지시했고 회사에서 그 업무를 우리에게 지시해서 수행하던 중에 고객들의 심각한 갑질과 위협, 희롱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데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두려운 아르바이트 자리]**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알바를 하기도 두렵다” “일을 못해 수입이 없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진로계획의 좌절, 미래의 불확실성 생김]** “예정됐던 유학이 취소되고 미래가 불확실해짐. 학교에 나가지 못해 선후배 및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저같은 경우는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급여를 적게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 직전에 휴학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과거에 계획했던 휴학 계획이 모두 어그러져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에 따른 기기/자료/교재 관련 어려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니 중간에 학교에 못 나오는 경우 학습지나 프린트를 다음 등교때 받아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 “온라인수업때 기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때 힘들어요” “원격수업을 반복하다보니 교과서를 나르기가 힘들었다.”
- **[정신건강의 문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 정신의학과에 갔다.”

## (1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자유기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도 이미 선택형 문항으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제시된 내용 중 선택형 문항에서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도움 중에서는 ‘경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특히 많이 나타났다.

- **[경제지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식당일을 하시는데 호프집이라 10시 제한으로 특히 타격이 컸어서...지원금 같은 제도가 좀 더 다양하고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재난지원금 더 많이 주면 좋겠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겐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도 주면 좋겠어요.”
- **[식사지원]** “엄빠가 집에 없어서 아침은 먹지만 점심은 안 먹을 때가 많다.”
- **[위드코로나로의 전환]** “그냥 위드코로나로 빨리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바꾸고 방역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지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 **[백신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백신부작용을 더 섬세하게 진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병원에 찾아가도 무시하는 경향이 커요..”
- **[학교등교에 대한 상반된 의견]** “솔직히 학교 가는게 싫긴 하지만 학교를 가야 교육에 격차가 덜 생길 것 같고 교육에 돈을 더 투자해 프로그램집이나 학생들에게 문제집을 사주거나 하면 도움이...” “솔직히 학교에서 방역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는데 이러다가 집단 감염 나오기 전에 강 온클 하는게 나을 듯.” “코로나19로부터 위험하지 않은 등교방식과 수업방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2) 코로나19 발생 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자유기제)

코로나19 발생 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형 문항으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제시된 내용 중 선택형 문항에서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오히려 건강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코로나 이전에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했다.” “취직준비도 잘 해서 취직도 하게 되었다.”
- **[건강리듬이 깨진 것]** “건강리듬이 깨지면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병원을 거의 맨날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운동을 잘 안하게 되었고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 스스로 시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에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외로움]** “원래 외로운 것을 잘 느끼는 성격이 아닌데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 **[자기주도 학습]** “혼자 공부를 잘 못했는데 스스로 찾아서 하는 습관이 들었다.” “나만의 공부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되었다.” “자기주도형 사람이 되었음”
- **[비대면 시대에 맞게 인생 계획을 수정]** “코로나19로 비대면을 하게 되면서 인생 계획을 거기에 맞춰 수정하였다.”

### (13) 코로나19 이후 좋았던 점(자유기재)

코로나19 이후 좋았던 점 중 선택형 문항에서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에서의 해방]** “작년에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학교를 안 가서 안 좋은 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좋았어요.”
- **[불필요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해방]**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핑계가 생겨서 좋아요.” “불필요한 만남이 감소했어요.” “사람들과 쓸데없는 약속, 회식을 안 해서 좋아요.”
- **[위생에 신경쓰는 계기가 됨]** “사람들이 위생에 더 신경쓰게 된 것 같아요.”
- **[온라인 강의를 하는 점]** “온라인 강의를 해서 좋아요.”
- **[집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점]** “집에 오래 있을 수 있게 돼서 좋아요.”
-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것]** “학교를 안 가도 돼서 좋아요.”
- **[휴식시간이 늘어난 것]**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 **[대인기피증 감소]**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코로나 덕에 사람들을 얼마 안봐도 돼서 좋았어요.”
- **[비대면수업이 더 잘 맞아서 성적이 향상]** “대면시험이 아닌 레포트로 시험을 대체해서 나에게 더 잘 맞아서 성적이 올랐어요.”
-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우관계 형성]** “미디어를 활용해서 친구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 (14)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한 결과를 많이 언급된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가족과 함께 여행가고 싶다’는 것으로 약 1,400번 가량 언급되고 있었다.

- **[가족 등과 여행]** “가족들과 여행가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이제까지 못 가본 명소들을 가보고 싶어요.” “다른 지역으로 여행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 가고 싶어요.” “부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여행가고 싶어요.” “세계일주 하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어요.” “시외 버스 타고 다른 지역 가고 싶어요.”
- **[마스크 벗기]** “마스크 버리고 싶어요.”, “아빠가 마스크 벗고 덜 힘들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은 친구 얼굴이 보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5명 이상이 놀러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공기 맡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공부하고 싶어요.”
- **[친구들과 함께 놀기, 여행하기]** “친구집에 가서 놀고 싶어요.” “친구들과 밖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친구들과 여행가고 싶어요.”
-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가기]** “PC 방에 가서 게임하고 싶어요.” “사람 많은데 놀러가고 싶어요.” “각종 행사나 공연에 가고 싶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이 무서워 노래방에 안 간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시원하게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어요.” “찜질방 가고 싶어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카페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같이 늦게까지 있고 싶어요.”
- **[운동하기]** “수영하고 싶어요.” “배드민턴 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싶어요.”
- **[학교 활동 참여 하며 추억 만들기]** “학교에서 체험행사 가고 싶어요.” “수학여행 진짜 가고 싶어요. 추억이 없어요.” “수련회 가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 **[매일 등교수업하기]** “등교수업을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 **[밖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놀고 활동하기]** “길거리 음식을 길을 가면서 먹고 싶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항상 사서 집에까지 달려가서 먹었는데 편하게 따뜻한 상태로 먹고 싶어요.” “식당에서 편하게 떠들면서 밥 먹고 싶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런데 끝날 때 쯤이면 게임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일 것 같아요.”
- **[관계 개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친구들이랑 더 돈독한 관계를 쌓는데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끝난다면 학교에서 친구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어요.”
- **[없음]** “삶의 의욕을 잃어서 그런거 없네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15) 국가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받고자 하는  
코로나19 관련 도움

‘국가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한 결과를 많이 제시된 의견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의견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약 1,600번 가량 언급되고 있었다.

-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관련]** “경제적 지원대상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국민지원금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소득분위로 구간을 나누어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세요.”
- **[방역, 위생, 백신 관련]** “방역원이 와서 방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5명 이상 노는 사람들을 심하게 처벌해 주세요.” “KF 마스크를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싶어요.” “각 집마다 코로나 방역물품 상자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감염자 위치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리두기 안 지키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역을 할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규제대상이고 저기는 아니고 이럴땐 되고 저럴땐 안되고 정확한 대안이 필요한 듯 합니다.” “너무 강한 규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원합니다.”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마스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세요. 경계심을 올려 주세요.” “할머니께서 백신 부작용을 크게 앓으셨는데 백신 부작용이 아닐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입원 못하게 해서 짜증났어요.” “백신 맞고 싶어요.” “백신 접종 중단해 주세요.”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급식, 식사 및 식비 지원]** “가끔 식료품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간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늘어난 식사비 등을 감당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처럼 음식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 식비가 많이 듭니다.”
- **[여가, 휴식, 휴가 지원]** “가족 모두 할 수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학습 지원]** “계속 등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터넷 강의 등 학습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한 가정에 청소년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좀 확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선별적인 아닌 보편적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수업할 수 있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패드를 사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성적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나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부분 공공도서관 등은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등교하게 하고 유흥시설은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무상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 **[심리 정서 지원]** “가족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술치료나 상담이요.” “보호자에게 비밀로 부칠 수 있는 안전한 심리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싶어요.”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인력 충당을 확 늘려야 합니다.” “영업에 제한이 가는 정책을 시행한 기간동안 타격을 입은 가게 매출에 대해 보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혼가정으로 아버지 혼자 쫓겨다니지만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하시며 저 하나 먹여 살리십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하루 6시간 일하시고 주말엔 쉬셨는데 이제 그런건 없고 일하시는 시간만 14시간 늘었지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예산낭비 말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저말고 사회취약계층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 **[규제완화]** “자영업자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물가안정]** “장바구니 물가를 줄여주세요.”
-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채택근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취업관련하여 더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해주십시오.” “직업 찾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및 취업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소수정예나 온라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 **[의료지원]** “의료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거지원]** “청년 월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일상회복]** “안전하게 다시 예전 같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4) 삶 전반에 대한 생각

##### (1) 주관적 복지감

###### ① 행복감

주관적 복지감 중 행복감<sup>77)</sup>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지역규모, 직업,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가족의 경제상태,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가족 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평균 3.42점으로 중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 $p<.001$ ), 연령( $p<.001$ ), 직업( $p<.001$ ),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p<.001$ ), 가족의 경제상태( $p<.001$ ), 가족 유형( $p<.001$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고등학생, 청년 연령보다 초등학생, 중학생 연령이 행복감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주부와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행복감이 낮았다. 성적이 높은 편보다 낮은 편인 경우 행복감이 낮았으며, 가족의 경제상태가 낮은 편인 경우 행복감이 낮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보다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의 행복감이 낮았다. 지역규모와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77) 행복감의 경우 '1=매우 행복한 편~5=전혀 행복하지 않은 편'인 관계로 역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V-23. 행복감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78)	평균	표준편차	F(t) 값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자	2115	1	5	3.49	.95	24.59***
		여자	2232	1	5	3.35	.89	
	연령	만 9세-11세	804	1	5	3.55	.91	19.37***
		만 12세-14세	1472	1	5	3.48	.90	
		만 15세-17세	1291	1	5	3.4	.94	
		만 18세-24세	763	1	5	3.22	.91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5	3.44	.93	.50
		중소도시	1750	1	5	3.41	.91	
		농어촌(읍·면·리)	628	1	5	3.42	.92	
	직업	초등학생	1098	1	5	3.53	.92	9.08***
		중학생	1581	1	5	3.46	.92	
		고등학생	972	1	5	3.38	.94	
		대학생	446	1	5	3.31	.87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127	1	5	3.22	.92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88	1	5	3.07	.81	
		주부	4	1	5	3	1.15	
		아무 것도 하지 않음	22	1	5	2.46	.91	
		기타	9	1	5	2.89	1.26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낮은 편	739	1	5	3.23	.95	34.41***
		중간 정도	2325	1	5	3.45	.87	
		높은 편	1006	1	5	3.59	.96	
	가족의 경제상태	낮은 편	491	1	5	2.99	.98	98.05***
		중간 정도	3256	1	5	3.42	.88	
		높은 편	600	1	5	3.76	.97	
	아주배경 청소년 여부	예	146	1	5	3.36	.98	1.18
		아니오	4106	1	5	3.43	.92	
	가족 유형	잘모름	95	1	5	3.3	1.00	6.35***
1인가구		116	1	5	3.2	1.02		
양부모가정		3648	1	5	3.45	.91		
한부모가정		481	1	5	3.26	.93		
조손가정		27	1	5	3	.96		
소년소녀가정		18	1	5	3.17	.98		
기타		47	1	5	3.49	.99		
전체	4347	1.0	5	3.42	.92			

\* p<.05, \*\* p<.01, \*\*\* p<.001

## ② 삶의 만족도

인지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즘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 6.38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보기에는 부족할

78) 값이 높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보다 남자( $p < .001$ ), 고등학생, 청년 연령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 $p < .001$ )이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주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p < .001$ ). 성적이 낮은 편인 경우( $p < .001$ ), 가족의 경제상태가 낮은 편인 경우( $p < .001$ ), 이주배경 청소년인 경우( $p < .05$ )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 조손가족과 더불어 생활만족도가 낮아( $p < .001$ ) 1인 가구 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24. 삶의 만족도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t) 값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구하는 요즈음 삶에 대 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 십니까?	성별	남자	2115	1	10	6.63	2.17	54.76***
		여자	2232	1	10	6.15	2.05	
	연령	만 9세-11세	804	1	10	6.59	2.19	14.13***
		만 12세-14세	1472	1	10	6.54	2.12	
		만 15세-17세	1291	1	10	6.32	2.16	
		만 18세-24세	763	1	10	6.00	1.95	
	지역규모	대도시(특별·광역시)	1969	1	10	6.44	2.12	1.40
		중소도시	1750	1	10	6.32	2.12	
		농어촌(읍·면·리)	628	1	10	6.38	2.15	
	직업	초등학생	1098	1	10	6.55	2.18	6.17***
		중학생	1581	1	10	6.49	2.13	
		고등학생	972	1	10	6.29	2.17	
		대학생	446	1	10	6.11	1.90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127	1	10	6.22	1.87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88	1	10	5.64	1.80	
		주부	4	1	7	5.00	2.30	
		아무 것도 하지 않음	22	1	7	4.59	1.76	
	기타	9	2	10	6.00	2.64		
	학교에 다니는 경우, 성적	낮은 편	739	1	10	5.84	2.25	44.59***
		중간 정도	2325	1	10	6.44	2.03	
높은 편		1006	1	10	6.80	2.18		
가족의 경제상태	낮은 편	491	1	10	5.30	2.22	102.06***	
	중간 정도	3256	1	10	6.42	2.03		
	높은 편	600	1	10	7.09	2.22		
이주배경 청소년 여부	예	146	1	10	6.13	2.32	2.94*	
	아니오	4106	1	10	6.40	2.11		
	잘모름	95	1	10	5.97	2.43		
가족 유형	1인가구	116	1	10	5.56	2.31	5.77***	
	양부모가정	3648	1	10	6.45	2.10		
	한부모가정	481	1	10	6.18	2.16		
	조손가정	27	1	8	5.66	2.07		
	소년소녀가정	18	1	10	6.83	2.45		
	기타	47	1	10	6.36	2.18		
전체		4347	1.0	10.0	6.38	2.13		

\*  $p < .05$ , \*\*  $p < .01$ , \*\*\*  $p < .001$

## (2) 미래에 대한 생각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표시해 주세요.’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확실하게 느껴짐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걱정됨(27.6%), 신남(12.7%), 두려움(9.1%), 낙관적임(8.4%), 수용적임(6.0%), 비관적임(3.4%), 기타(2.9%), 슬픔(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p < .001$ ), 연령( $p < .001$ ), 지역규모(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걱정됨, 불확실하게 느껴짐 간에 우선순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IV-25. 미래에 대한 생각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표시해 주세요	낙관적임	빈도	194	169	56	78	127	99	198	124	41	363
		(%)	(9.2)	(7.6)	(7.0)	(5.3)	(9.8)	(13.0)	(10.1)	(7.1)	(6.5)	(8.4)
	걱정됨	빈도	537	661	261	435	343	158	509	528	161	1198
		(%)	(25.4)	(29.6)	(32.5)	(29.6)	(26.6)	(20.7)	(25.9)	(30.2)	(25.6)	(27.6)
	불확실하게 느껴짐	빈도	554	681	109	406	435	282	552	485	198	1235
		(%)	(26.2)	(30.5)	(13.6)	(27.6)	(33.7)	(37.0)	(28.0)	(27.7)	(31.5)	(28.4)
	비관적임	빈도	76	70	8	33	53	50	63	52	31	146
		(%)	(3.6)	(3.1)	(1.0)	(2.2)	(4.1)	(6.6)	(3.2)	(3.0)	(4.9)	(3.4)
	두려움	빈도	174	220	62	140	118	71	179	154	61	394
		(%)	(8.2)	(9.9)	(7.7)	(9.5)	(9.1)	(9.3)	(9.1)	(8.8)	(9.7)	(9.1)
슬픔	빈도	41	32	20	20	9	24	36	31	6	73	
	(%)	(1.9)	(1.4)	(2.5)	(1.4)	(0.7)	(3.1)	(1.8)	(1.8)	(1.0)	(1.7)	
신남	빈도	323	229	210	225	82	32	254	221	77	552	
	(%)	(15.3)	(10.3)	(26.1)	(15.3)	(6.4)	(4.2)	(12.9)	(12.6)	(12.3)	(12.7)	
수용적임	빈도	153	109	24	94	100	42	128	95	39	262	
	(%)	(7.2)	(4.9)	(3.0)	(6.4)	(7.7)	(5.5)	(6.5)	(5.4)	(6.2)	(6.0)	
기타 <sup>79)</sup>	빈도	63	61	54	41	24	5	50	60	14	124	
	(%)	(3.0)	(2.7)	(6.7)	(2.8)	(1.9)	(0.7)	(2.5)	(3.4)	(2.2)	(2.9)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434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54.66***		511.77***				36.37**				

\*  $p < .05$ , \*\*  $p < .01$ , \*\*\*  $p < .001$

79) 기타 의견으로는 “걱정되는 동시에 기대됨(3명)”, “그냥 그림(7명)”, “관찰을 것 같음(3명)”, “나의 꿈을 코로나 때문에 못 이룰 것 같아서 두렵고 걱정됨(1명)”, “환경파괴가 심해질까봐 두려움(1명)”, “모르겠음/생각해본 적 없음(41명)”, “즐거움(1명)”, “희망(2명)” 등이 있었다.

(3)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다음 중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족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15.0%), 여가(취미) (9.9%), 공부(9.8%), 돈(경제적인 것)(9.0%), 진로(일)(7.9%), 자유(6.9%), 건강 (6.4%), 학교(4.1%), 안전(1.9%), 기타(1.5%), 종교(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 $p < .001$ ), 연령별(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6.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만	만	만	대도시 (특별·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9세-11세	12세-14세	15세-17세	18세-24세				
다음 중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빈도 587 (%) (27.8)	빈도 561 (%) (25.1)	빈도 416 (%) (51.7)	빈도 381 (%) (25.9)	빈도 233 (%) (18.0)	빈도 114 (%) (14.9)	빈도 532 (%) (27.0)	빈도 469 (%) (26.8)	빈도 147 (%) (23.4)	빈도 1148 (%) (26.4)
	친구	빈도 295 (%) (13.9)	빈도 357 (%) (16.0)	빈도 71 (%) (8.8)	빈도 304 (%) (20.7)	빈도 218 (%) (16.9)	빈도 59 (%) (7.7)	빈도 289 (%) (14.7)	빈도 261 (%) (14.9)	빈도 102 (%) (16.2)	빈도 652 (%) (15.0)
	여가(취미)	빈도 230 (%) (10.9)	빈도 199 (%) (8.9)	빈도 49 (%) (6.1)	빈도 149 (%) (10.1)	빈도 153 (%) (11.9)	빈도 76 (%) (10.0)	빈도 193 (%) (9.8)	빈도 180 (%) (10.3)	빈도 56 (%) (8.9)	빈도 429 (%) (9.9)
	공부	빈도 199 (%) (9.4)	빈도 225 (%) (10.1)	빈도 40 (%) (5.0)	빈도 140 (%) (9.5)	빈도 172 (%) (13.3)	빈도 70 (%) (9.2)	빈도 173 (%) (8.8)	빈도 179 (%) (10.2)	빈도 72 (%) (11.5)	빈도 424 (%) (9.8)
	학교	빈도 81 (%) (3.8)	빈도 96 (%) (4.3)	빈도 15 (%) (1.9)	빈도 52 (%) (3.5)	빈도 50 (%) (3.9)	빈도 59 (%) (7.7)	빈도 80 (%) (4.1)	빈도 70 (%) (4.0)	빈도 27 (%) (4.3)	빈도 177 (%) (4.1)
	진로(일)	빈도 142 (%) (6.7)	빈도 203 (%) (9.1)	빈도 15 (%) (1.9)	빈도 85 (%) (5.8)	빈도 111 (%) (8.6)	빈도 134 (%) (17.6)	빈도 159 (%) (8.1)	빈도 129 (%) (7.4)	빈도 57 (%) (9.1)	빈도 345 (%) (7.9)
	종교	빈도 34 (%) (1.6)	빈도 20 (%) (0.9)	빈도 8 (%) (1.0)	빈도 15 (%) (1.0)	빈도 8 (%) (0.6)	빈도 23 (%) (3.0)	빈도 26 (%) (1.3)	빈도 17 (%) (1.0)	빈도 11 (%) (1.8)	빈도 54 (%) (1.2)
	건강	빈도 143 (%) (6.8)	빈도 135 (%) (6.0)	빈도 70 (%) (8.7)	빈도 96 (%) (6.5)	빈도 65 (%) (5.0)	빈도 44 (%) (5.8)	빈도 135 (%) (6.9)	빈도 102 (%) (5.8)	빈도 41 (%) (6.5)	빈도 278 (%) (6.4)
	안전	빈도 48 (%) (2.3)	빈도 36 (%) (1.6)	빈도 21 (%) (2.6)	빈도 32 (%) (2.2)	빈도 21 (%) (1.6)	빈도 10 (%) (1.3)	빈도 40 (%) (2.0)	빈도 33 (%) (1.9)	빈도 11 (%) (1.8)	빈도 84 (%) (1.9)
	자유	빈도 127 (%) (6.0)	빈도 171 (%) (7.7)	빈도 55 (%) (6.8)	빈도 104 (%) (7.1)	빈도 108 (%) (8.4)	빈도 31 (%) (4.1)	빈도 133 (%) (6.8)	빈도 124 (%) (7.1)	빈도 41 (%) (6.5)	빈도 298 (%) (6.9)
	돈(경제적인 것)	빈도 199 (%) (9.4)	빈도 194 (%) (8.7)	빈도 26 (%) (3.2)	빈도 93 (%) (6.3)	빈도 130 (%) (10.1)	빈도 140 (%) (18.3)	빈도 188 (%) (9.5)	빈도 153 (%) (8.7)	빈도 52 (%) (8.3)	빈도 393 (%) (9.0)
	기타 <sup>80)</sup>	빈도 30 (%) (1.4)	빈도 35 (%) (1.6)	빈도 18 (%) (2.2)	빈도 21 (%) (1.4)	빈도 22 (%) (1.7)	빈도 3 (%) (0.4)	빈도 21 (%) (1.1)	빈도 33 (%) (1.9)	빈도 11 (%) (1.8)	빈도 65 (%) (1.5)
	전체	빈도 2115 (%) (100.0)	빈도 2232 (%) (100.0)	빈도 804 (%) (100.0)	빈도 1472 (%) (100.0)	빈도 1291 (%) (100.0)	빈도 763 (%) (100.0)	빈도 1969 (%) (100.0)	빈도 1750 (%) (100.0)	빈도 628 (%) (100.0)	빈도 4347 (%) (100.0)
	x2		31.76***		752.92***			20.36			

\*  $p < .05$ , \*\*  $p < .01$ , \*\*\*  $p < .001$

80) 기타 의견으로는 “강아지(1명)”, “이성친구(1명)”, “덕질(좋아하는 아이돌 영상보기)(1명)”,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기(1명)”, “미래(1명)”, “이득과 손해(1명)”, “재미(1명)”, “정체성(1명)”, “지구온난화(1명)”, “행복(1명)” 등이 있었으며 “딱히 없다(5명)”는 의견도 나타났다.

(4)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다음 중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가족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14.9%), 돈(경제적인 것)(11.5%), 공부(11.3%), 친구(8.2%), 진로(일)(8.0%), 여가(취미)(6.5%), 자유(4.9%), 안전(4.4%), 학교(2.9%), 기타(1.5%), 종교(1.3%)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두번째로 높았던 데 반해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두 번째를 차지하여 위치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세 번째 순위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여가였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돈(경제적인 것)으로 바뀌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하지 않은 가치관과 변한 가치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성별(p<.001), 연령별(p<.001)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7.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다음 중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 입니까?	가족	빈도	587	480	367	349	232	116	487	430	150	1067
		(%)	(27.8)	(21.5)	(45.6)	(23.7)	(18.0)	(15.2)	(24.7)	(24.6)	(23.9)	(24.5)
	친구	빈도	184	172	72	176	85	23	169	145	42	356
		(%)	(8.7)	(7.7)	(9.0)	(12.0)	(6.6)	(3.0)	(8.6)	(8.3)	(6.7)	(8.2)
	여가(취미)	빈도	154	128	30	119	87	46	122	117	43	282
		(%)	(7.3)	(5.7)	(3.7)	(8.1)	(6.7)	(6.0)	(6.2)	(6.7)	(6.8)	(6.5)
	공부	빈도	220	273	41	186	227	38	221	197	75	493
		(%)	(10.4)	(12.2)	(5.1)	(12.6)	(17.6)	(5.0)	(11.2)	(11.3)	(11.9)	(11.3)
	학교	빈도	70	57	19	41	41	25	53	52	22	127
		(%)	(3.3)	(2.6)	(2.4)	(2.8)	(3.2)	(3.3)	(2.7)	(3.0)	(3.5)	(2.9)
	진로(일)	빈도	149	197	10	82	136	118	157	131	58	346
		(%)	(7.0)	(8.8)	(1.2)	(5.6)	(10.5)	(15.5)	(8.0)	(7.5)	(9.2)	(8.0)

종교	빈도	41	15	5	15	10	26	24	23	9	56
	(%)	(1.9)	(0.7)	(0.6)	(1.0)	(0.8)	(3.4)	(1.2)	(1.3)	(1.4)	(1.3)
건강	빈도	268	380	126	205	183	129	295	261	92	648
	(%)	(12.7)	(17.0)	(15.7)	(13.9)	(14.2)	(16.9)	(15.0)	(14.9)	(14.6)	(14.9)
안전	빈도	85	106	49	67	44	29	88	80	23	191
	(%)	(4.0)	(4.7)	(6.1)	(4.6)	(3.4)	(3.8)	(4.5)	(4.6)	(3.7)	(4.4)
자유	빈도	93	122	33	72	75	33	97	83	35	215
	(%)	(4.4)	(5.5)	(4.1)	(4.9)	(5.8)	(4.3)	(4.9)	(4.7)	(5.6)	(4.9)
돈(경제적인 것)	빈도	233	269	34	140	148	178	227	204	71	502
	(%)	(11.0)	(12.1)	(4.2)	(9.5)	(11.5)	(23.3)	(11.5)	(11.7)	(11.3)	(11.5)
기타 <sup>81)</sup>	빈도	31	33	18	20	23	2	29	27	8	64
	(%)	(1.5)	(1.5)	(2.2)	(1.4)	(1.8)	(0.3)	(1.5)	(1.5)	(1.3)	(1.5)
전체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43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64.41***			684.74***			7.92			

\*  $p < .05$ , \*\*  $p < .01$ , \*\*\*  $p < .001$

#### (5)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림고 가고 싶은 곳 34.1%,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 34.0%,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24.6%, 기타 7.2%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 $p < .001$ ), 연령( $p < .001$ ), 지역규모(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81) 기타 의견으로 ‘강아지(1명)’, ‘근육(1명)’, ‘기분(1명)’, ‘나 자신(3명)’,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1명)’, ‘등교(1명)’, ‘마스크(1명)’, ‘위에 것 모두(3명)’, ‘졸업여행(1명)’, ‘책읽기(1명)’, ‘행복(1명)’이 나타났다.

표 IV-28.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	빈도	700	779	259	544	497	176	683	563	233	1479
		(%)	(33.1)	(34.9)	(32.2)	(37.0)	(38.5)	(23.1)	(34.7)	(32.2)	(37.1)	(34.0)
	그립고 가고 싶은 곳	빈도	672	810	371	513	336	254	681	626	175	1482
		(%)	(31.8)	(36.3)	(46.1)	(34.9)	(26.0)	(33.3)	(34.6)	(35.8)	(27.9)	(34.1)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빈도	566	505	96	316	357	300	488	423	160	1071
		(%)	(26.8)	(22.6)	(11.9)	(21.5)	(27.7)	(39.3)	(24.8)	(24.2)	(25.5)	(24.6)
	기타 <sup>82)</sup>	빈도	177	138	78	99	101	33	117	138	60	315
		(%)	(8.4)	(6.2)	(9.7)	(6.7)	(7.8)	(4.3)	(5.9)	(7.9)	(9.6)	(7.2)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434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22.24***		245.10***				23.07***			

\* p<.05, \*\* p<.01, \*\*\* p<.001

(6)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 3가지

‘다음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을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에 대해서는 불안/걱정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짜증(42.5%), 두려움(24.9%), 우울함(23.0%), 화/분노(22.8%), 평온(18.2%), 침착함(12.2%), 충격(11.7%), 감사(8.6%), 공포(7.3%), 관심(6.5%), 따뜻함(4.1%),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82)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에 대한 생각이 코로나19 전후로 달라지지 않음(90명)’,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한 곳(6명)’,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곳(5명)’, ‘그냥 가라니까 가는 곳(13명)’, ‘가기 싫은 곳(3명)’,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어 학교 가는 즐거움이 없음(1명)’, ‘막상 가면 재밌는 곳(3명)’, ‘온라인하고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1명)’ 등이 있었다.

표 IV-29.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 3가지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다음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을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불안/걱정	빈도	1029	1385	454	767	738	446	1105	941	368	2414
		(%)	(48.7)	(62.1)	(56.5)	(52.1)	(57.2)	(58.5)	(56.1)	(53.8)	(58.6)	(55.5)
	두려움	빈도	485	599	203	324	331	221	511	419	154	1084
		(%)	(22.9)	(26.8)	(25.2)	(22.0)	(25.6)	(29.0)	(26.0)	(23.9)	(24.5)	(24.9)
	우울함	빈도	374	627	102	293	334	266	456	396	149	1001
		(%)	(17.7)	(28.1)	(12.7)	(19.9)	(25.9)	(34.9)	(23.2)	(22.6)	(23.7)	(23.0)
	짜증	빈도	823	1023	313	636	597	296	802	769	275	1846
		(%)	(38.9)	(45.8)	(38.9)	(43.2)	(46.2)	(38.8)	(40.7)	(43.9)	(43.8)	(42.5)
	화/분노	빈도	505	484	186	351	282	165	433	407	149	989
		(%)	(23.9)	(21.7)	(23.1)	(23.8)	(21.8)	(21.6)	(22.0)	(23.3)	(23.7)	(22.8)
	공포	빈도	163	154	73	89	85	68	151	122	44	317
		(%)	(7.7)	(6.9)	(9.1)	(6.0)	(6.6)	(8.9)	(7.7)	(7.0)	(7.0)	(7.3)
	충격	빈도	259	251	143	182	121	62	239	211	60	510
(%)		(12.2)	(11.2)	(17.8)	(12.4)	(9.4)	(8.1)	(12.1)	(12.1)	(9.6)	(11.7)	
감사	빈도	231	144	71	134	108	60	157	154	64	375	
	(%)	(10.9)	(6.5)	(8.8)	(9.1)	(8.4)	(7.9)	(8.0)	(8.8)	(10.2)	(8.6)	
평온	빈도	410	379	132	302	253	100	336	330	123	789	
	(%)	(19.4)	(17.0)	(16.4)	(20.5)	(19.6)	(13.1)	(17.1)	(18.9)	(19.6)	(18.2)	
관심	빈도	157	127	68	102	68	45	129	126	29	284	
	(%)	(7.4)	(5.7)	(8.5)	(6.9)	(5.3)	(5.9)	(6.6)	(7.2)	(4.6)	(6.5)	
침착함	빈도	282	249	111	201	150	69	241	229	61	531	
	(%)	(13.3)	(11.2)	(13.8)	(13.7)	(11.6)	(9.0)	(12.2)	(13.1)	(9.7)	(12.2)	
따뜻함	빈도	108	71	56	58	50	15	80	83	16	179	
	(%)	(5.1)	(3.2)	(7.0)	(3.9)	(3.9)	(2.0)	(4.1)	(4.7)	(2.5)	(4.1)	
기타 <sup>83)</sup>	빈도	79	44	38	41	39	4	51	54	18	123	
	(%)	(3.7)	(2.0)	(4.7)	(2.8)	(3.0)	(0.5)	(2.6)	(3.1)	(2.9)	(2.8)	
전체	빈도	2115	2232	804	1472	1291	763	1969	1750	628	10442	
	(%)	(231.8)	(248.2)	(242.5)	(236.3)	(244.5)	(238.2)	(238.4)	(242.4)	(240.4)	(240.2)	

83) 기타 의견으로 ‘(마스크가) 귀찮음(3명)’, ‘답답함(2명)’, ‘무기력(1명)’, ‘별 생각이 없음(3명)’, ‘심심하고 지루함(3명)’, ‘취미활동 제한에 따른 박탈감과 빈곤함으로 인한 절망감(1명)’, ‘(학교에 대한) 그리움’, ‘행복함(2명)’이 나타났다.

## 5) 지난 1년간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

### (1)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다중응답)

‘다음 중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에 대해 모두 이용한 경험이 없음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시설(5.9%), 돌봄관련시설(3.2%), 청소년복지시설(3.1%), 상담관련시설(2.5%), 청소년보호시설(2.1%), 기타(2.4%), 가족관련시설(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5명 중 청소년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명에 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이다.

표 IV-30.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구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전체	
		남자	여자	만 9세-11세	만 12세-14세	만 15세-17세	만 18세-24세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읍·면·리)		
다음 중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sup>84)</sup> 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모두 이용한 경험이 없음	빈도 (%)	1707 (80.7%)	1898 (85.0%)	637 (79.2%)	1234 (83.8%)	1106 (85.7%)	616 (80.7%)	1652 (83.9%)	1448 (82.7%)	505 (80.4%)	3605 (82.9%)
	청소년활동 시설	빈도 (%)	130 (6.1%)	125 (5.6%)	39 (4.9%)	87 (5.9%)	80 (6.2%)	47 (6.2%)	114 (5.8%)	79 (4.5%)	62 (9.9%)	255 (5.9%)
	청소년복지 시설	빈도 (%)	90 (4.3%)	45 (2.0%)	10 (1.2%)	37 (2.5%)	38 (2.9%)	48 (6.3%)	65 (3.3%)	49 (2.8%)	21 (3.3%)	135 (3.1%)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	65 (3.1%)	28 (1.3%)	17 (2.1%)	24 (1.6%)	21 (1.6%)	31 (4.1%)	44 (2.2%)	34 (1.9%)	15 (2.4%)	93 (2.1%)
	돌봄관련 시설	빈도 (%)	82 (3.9%)	58 (2.6%)	50 (6.2%)	33 (2.2%)	24 (1.9%)	33 (4.3%)	56 (2.8%)	70 (4.0%)	14 (2.2%)	140 (3.2%)
	가족관련 시설	빈도 (%)	32 (1.5%)	27 (1.2%)	17 (2.1%)	13 (0.9%)	10 (0.8%)	19 (2.5%)	23 (1.2%)	27 (1.5%)	9 (1.4%)	59 (1.4%)
	상담관련 시설	빈도 (%)	43 (2.0%)	65 (2.9%)	20 (2.5%)	36 (2.4%)	27 (2.1%)	22 (2.9%)	46 (2.3%)	46 (2.6%)	16 (2.5%)	108 (2.5%)
	기타 <sup>85)</sup>	빈도 (%)	60 (2.8%)	43 (1.9%)	47 (5.8%)	34 (2.3%)	16 (1.2%)	5 (0.7%)	44 (2.2%)	48 (2.7%)	11 (1.8%)	103 (2.4%)
	전체	빈도 (%)	2115 (104.4%)	2232 (102.5%)	804 (104.4%)	1472 (101.6%)	1291 (102.4%)	763 (107.7%)	1969 (103.7%)	1750 (102.7%)	628 (103.9%)	4498 (103.5%)

84) 조사에서 제시된 시설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보호시설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돌봄관련시설 :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가족관련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좋았던 점

‘지난 1년간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이 있는 경우 좋았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한 결과를 자주 언급된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771개 응답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436건이 ‘없다(268건)’ 또는 ‘모름, 무응답(168건)’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 이용에 대해 좋았던 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좋았던 점을 응답한 경우도 빈도가 최대 40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10~20회 내외로 언급되었으나 다양한 좋은 점이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 **[특별히 잘 모르겠음]** “그냥 그랬어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다지 없었어요.” “딱히 모르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되었어요.”
- **[재미, 즐거움, 편함, 따뜻함, 안정감]**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 “친구들하고 놀수 있어서 좋았어요.” “노는 곳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았다.”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밖에서 뛰어 놀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동안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수련회를 못 다녔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 **[심리상담, 고민을 들어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계속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진행해서 좋았습니다.”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상담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진로나 고민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의 강점에 대해 공감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줘서 좋았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나의 진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어두운 이야기를 털어내고 그 사람이 걱정을 해줘서 좋았어요.” “상담 내용으로 심적으로 편안해 졌습니다.” “성격 기질 검사도 해보고 우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예전보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줄었어요.”

---

85) 기타 의견으로 ‘위클래스/위센터(2명)’ 이 있었다.

- **[간식과 급식]** “급식 나오는 거요.” “돌봄에서 간식도 주고 좋았어요.” “밥 주는 거요.”
-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함]** “가족과 함께 키트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체험활동과 동아리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동아리활동이 좋았어요.” “많은 활동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멋진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서 부듯했어요.” “웹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꿈에 더 다가간다는게 행복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코로나이지만 약간의 활동이 있어서 삶이 윤택해졌어요.” “프로그램 참여로 좀더 활동적인 일을 하게 돼서 우울함을 덜 느꼈습니다.” “취미생활이 제한적이지만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 **[돌봄]**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돌봐줄 곳이 있어서 좋았어요.” “방과후가 재미있었어요.” “보호자 없는 집보다는 안정감 있고 돌봄교실이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 집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 **[친절함]** “강사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친절하셨습니다.”
- **[학습기회 제공]** “공부를 알려 줘서 좋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서관이 좋았어요.” “뭔가 배울수 있어서 좋았어요.”
-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오랜만이었어서 들떴어요.”
- **[무료로 쾌적한 시설 환경 활용]** “돈을 내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료라서 좋았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어요.” “시원하고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여름에 더위 피하기 좋았어요.” “청소년쉼터였다 한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으로 보내기 좋았어서 나중에 또 가고 싶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무서워서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여도 도서관이나 방과후를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일상생활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나마 밖에 나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코로나 시국에 집에 있기 싫었는데 집에만 있지 않아서 좋았어요.”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좋았어요.” “가자마자 체온체크를 해서 좋았어요.”

-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해줘서 좋았습니다.”
- **[봉사시간]**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 **[주거지원]** “청소년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있을 곳이 있어서 좋았어요.”
-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몰랐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3)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

‘지난 1년간 서비스나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없음이 총 750건 중 420건, 모름/무응답이 162건이었으며 나머지 청소년은 각각 10건 내외의 빈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 **[방역수칙과 관련된 사항]** “딱히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이 있는게 아쉬웠다.”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불안했다.” “방역이 미흡하였다.”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 “반을 더 넓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방역에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항균, 방역필터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 **[재미없음, 지루함]** “너무 지루하다.”
- **[운영 횟수, 운영 시간, 이용인원, 이용대상, 지속성 부족]** “기간이 적다.” “당일치기로 갔다와야 해서 아쉬웠다.” “아예 막아놔어요.” “사람 인원 수를 제한해서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운영횟수가 적었다.” “지속성이 떨어진다.” “청소년문화센터 수업을 끊지 말고 계속 가주세요. 중간에 끊기면 까먹는 것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푼 것이 사라지니까.” “초등돌봄이 2학년까지만 있어서 아쉬웠다.” “하고 싶은 운동이나 활동장이 별로 없어 누가 이용 중이라면 이용하지 못하는게 아쉬웠다.”
- **[상담 등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리그나 대회를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 “상담사가 상담과 관련없는 정치성향을 얘기해서 상담사 자질이 의심된다.” “상담센터 후기에 상담을 진지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보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생활에 보다 밀착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상담에서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바뀌어서 이전만큼 제대로 상담할 수 없었다.”
- **[불친절함, 불편함]** “너무 부담스러웠다. 선을 지켰으면 한다.” “수련원 시설의 교육체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강압적임, 위계, 질서, 수박 겉핥기 느낌.” “약간 부담스럽다.”
-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불편함]** “부모님께 전화가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 결과를 말해주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시설 개선 및 확충]** “노후화된 시설이 새로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다.” “노래방 기계를 고쳤으면 좋겠다.” “시설 안에 있는 물건들이 고장난 것이 있어서 그걸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시설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면 좋겠고 이용물품도 좋게 바뀌면 좋겠다.” “좀 더 다양한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시설의 위치]** “너무 외딴 곳에 있다.” “대면이다 보니 직접 찾아가기 힘들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정적 프로그램.” “활동이 적다. 서울 같은데 비하면 지원도 활동도 진짜 적은 거 같다.”
- **[온라인 프로그램의 한계]** “대부분 온라인이라 지루하고 흥미도가 떨어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활동이어서 과제물 제출에 혼선이 있었다.” “원격수업을 안 하고 싶다.”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개인별로 세밀한 학습은 불가하다.”
- **[홍보 부족]** “광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 “홍보를 했으면 한다.” “더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4)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장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장소’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한 결과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진로·직업·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117건,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에 놀러가기 84건, 수련회·수학여행·졸업여행 등 학교활동 53건, 여행 52건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가, 문화, 취미, 체험, 스포츠·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진로, 직업, 취업 관련 프로그램]** “고등 진학관련 서비스가 있다면 사용해 보고 싶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꿈을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 장소, 학교를 이용하고 싶어요.” “나의 장래희망이 사육사인데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취업 준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바리스타나 미용 혹은 기술 같은 거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취업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을 받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직업들의 앞으로의 전망을 알려주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 **[심리상담 프로그램]** “MBTI 테스트를 하는 곳이에요.” “가벼운 심리상담소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감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교내 상담센터 정도는 이용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실질적인 개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 심리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또래상담을 하고 싶어요.” “심리상담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어요.” “상담 관련한 시설을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심리상태를 검사해보고 싶어요.”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에 놀러가기]** “놀러가고 싶어요.” “놀이공원이나 수영장, 캠핑장 등에 가서 놀고 싶어요.”
- **[수련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학교관련 활동]** “수학여행에 가고 싶어요.” “수련회 같은 곳에 다 가보고 싶습니다.” “졸업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졸업 여행이나 수련회를 꼭꼭 가보고 싶습니다.”

- **[대면, 비대면 여행 프로그램]** “가족이나 친구들과끼리의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 **[다양한 여가 문화 견학 취미 프로그램]** “경주 역사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공연관람 프로그램이요.” “과학관,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요.” “국악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공예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요.” “빵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악기 배우기를 하고 싶어요.” “음악 믹싱, 작곡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 **[다양한 교류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체험활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사람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군 체험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등으로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취미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학습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스포츠 신체활동 프로그램]** “같이 스포츠를 즐길만한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낚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넓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농구를 하고 싶어요”. “댄스 연습실이나 수강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고 싶어요.”
- **[IT, 기술 관련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드론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컴퓨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코딩 프로그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 **[학습 프로그램과 공간]** “과학, 수학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교재비용 지원? 그런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재도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 **[돌봄 프로그램]** “돌봄교실에 가고 싶어요.” “돌봄이요.” “방과후 활동이요.” “방과후 과목을 더 늘리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체육활동이요.”
-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에 가고 싶어요.”

- **[봉사활동 프로그램]** “유기 동물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요양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나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 **[건강 관련 프로그램]** “건강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의학 관련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 **[소동아리 활동]** “소동아리 같은 걸 하고 싶어요.”
- **[개인 또는 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인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대여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혼자 산다를 해보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편안한 분위기의 포근한 쉼터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운동 같은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 사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무료로 이용하거나 싸게 이용가능한 체육시설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야외활동]** “바다에 가고 싶어요.”
- **[교통비 지원]** “버스 택시비 지원이요.”



#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 현안 모색 심층면접

- 1. 심층면접 개요
-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3. 소결



## 1. 심층면접 개요<sup>86)</sup>

### 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전달체계, 서비스 실천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하여 코로나 19 사태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에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이 처한 환경 변화 및 청소년관련 기관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응 현황 및 대안, 청소년 정책 영역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와 정책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전달체계, 서비스 실천 현장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86) ‘제5장 심층면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먼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전달체계의 두 축인 청소년활동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상담 및 복지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도 및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중심으로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법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서비스 실천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청소년관련 시설은 첫째,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국립청소년치료재활시설(국립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셋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전문치료기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구분하였다. 그 외 여성가족부 주요 국가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표 V-1>과 같다.

**표 V-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

번호	소속	전공	청소년 경력	성별	학력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학	20년	남	석사 수료
2	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원	사회복지	25년 3개월	남	석사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	20년 8개월	남	박사
4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	20년 10개월	여	석사
5	청소년수련원	체육교육학	27년 8개월	남	학사

번호	소속	전공	청소년 경력	성별	학력
6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상담심리	25년	여	박사
7	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교육	18년 8개월	여	박사 수료
8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22년	여	박사 수료
9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30년 4개월	남	박사
10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심리	17년 6개월	여	박사 수료
11	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학 (상담 및 생활지도)	19년 7개월	여	박사 수료
12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관광경영학	20년	남	학사
13	한국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20년 8개월	남	박사 수료
14	청소년쉼터	사회복지	17년	여	석사
1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보호	7년 8개월	남	박사 수료
16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사회복지	25년 6개월	남	박사
17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사회복지	20년 4개월	남	박사
18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행정학	17년 5개월	남	박사 수료
19	도청소년진흥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심리	15년 5개월	남	석사 수료
20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상담심리	25년 이상	남	박사

### 3)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한 청소년 취약상황 파악 및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경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욕구 및 미래예측에 대한 내용 등이다.

먼저 청소년 정책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중앙기관 등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전달체계, 서비스 실천 현장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청소년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상황 파악, 단계별 대응 협조체제에 대한 현황 파악,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코로나19상황에서의 긴급조치 및 다음 위기 상황 대응,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준비, 청소년정책 방향의 미래예측 등이다.

대안을 모색할 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차원에서 시설장이나 직원 차원, 청소년 차원, 청소년과 가족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일상생활, 학습생활)은 무엇이며, 이들이 경험한 취약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
  - 지역 내 청소년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
  - 휴관, 비대면활동 등 시기별 분위기
  -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노력
- (2)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 기관내에서의 위기 대응 방법(청소년시설/기관/단체 및 인력이 안전하 게 일하는 대응 방법)
  -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어려운 요인 : 조직, 구성원, 기관의 변화
  -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전혀 다른 형식과 방법의 활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기관내 변화

- (3) 코로나19 상황에도 인력 및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재정을 확충한 시설과 해당 기관의 특징 및 사례 소개
- (4)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 위기대응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 위기상황 해소와 관련하여 중앙기관과의 소통형식
    -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기관간)
  - 위기대응시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기관간
-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청소년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법적, 제도적 지원노력
  - 청소년정책의 변화 양상
  - 청소년시설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
  -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성 등
- (6) 청소년의 미래 욕구를 반영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해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 (7)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청소년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미래 운영시스템 선진화 및 표준화 내용이 무엇인지?

#### 4) 연구 절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정책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착수

전에 미리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승인번호: 202109-HR-고유-019)을 거쳤으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실천현장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의 추천 및 소개를 받아 선정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조사기간은 2020년 9~10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줌을 이용해 질문지를 통한 심층 면담 및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지를 면접대상자에게 사전에 이메일로 배포하고, 면접시 구조화된 질문지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활동, 상담 및 복지, 보호 그룹 등 4개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심층면접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개인 정보와 관련된 비밀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면접 내용에 대한 녹취를 승낙 받아 자료 기록 및 녹음을 실시하고 녹취록을 들으며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내용을 구조화하고,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및 복지, 청소년보호 분야의 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 및 대책 마련

#### (1)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

청소년 활동	
1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은 돌봄 취약 청소년이 많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건강, 안전,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됨.
2	일상생활과 관련해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매우 답답해 함. 학습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어함. 차츰 비대면 학습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이 많아짐.

	<p>일상생활의 경우에는 차츰 온라인 활동과 더불어 가까운 친구들과 카페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갖고 소통하는 등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학습생활은 간간히 학교에 등교하는 횟수가 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p>
3	<p>일반 청소년들의 활동에 면적 대비 인원 참여, 방과후 돌봄 청소년들은 방문은 하지만 활동에 대한 제약</p>
4	<p>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자체가 취약 상황. 갈데도 없고 스트레스를 풀 곳도 없고... 돌봄은 더 강화 된 반면(찾아가는 서비스, 도시락 배달 등.) 활동은 못해도(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 되어 버린 듯함.</p>
5	<p>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학년 단위의 수련활동이 취소, 특히 초등학교는 전면 취소, 중고등학교 역시 학교 재량에 의거하여 수련활동을 거의 취소하는 단계. 간혹 동아리활동, 발표회 등 간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의 프로그램은 시설의 활동 환경에 따라 간혹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 또한 자연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특성상 접근성이 좋지 않음.</p>
<p><b>청소년상담</b></p>	
6	<p>고위기청소년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내방상담 진행. 그 밖의 상담 및 프로그램, 교육 등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 상담은 온라인 상담(사이버상담 또는 화상, 전화 상담)으로 진행. 온라인 상담의 경우 코로나 19상황에서 특히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으며, 가족갈등, 학습문제 등의 상담 등이 이루어짐.</p>
7	<p>코로나 이전의 상담활동은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에서 도움을 받고자 의뢰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신건강, 컴퓨터·인터넷 사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 늘어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났고, 이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호소문제 증가로 나타남. 또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문제와 가족 갈등 문제도 증가함.</p>
8	<p>학습격차 심해짐(맞벌이 부모, 한부모가정 등 청소년들의 온라인 수업 지도, 집중도, 이해도 등의 격차 심화). 신체활동 및 그룹놀이 활동 축소로 게임 및 스마트폰 과몰입 등 매체중독 현상 증가, 계속되는 실내 생활, 상담센터 방문할 수 없어 자기표현의 기회 감소 등으로 인해 우울감 및 스트레스 상승, 스트레스 및 우울감 상승으로 인한 분노표출, 공격적 표현 등 증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밤낮이 바뀌고 생활관리(씻고 규칙적인 식사 등)어려움. 인스턴트 식품 등 섭취 증가</p>
9	<p>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그 결과로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 폰의 과도한 활용과 부모님과의 갈등 및 대인관계 어려움 촉발, 가족 간 갈등(부모-자녀),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학습 부진, 무기력 그리고 ...코로나로 일상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등교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상황 발생. 학교밖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습지원 일시적 중지: 학습 방법의 부재 및 학습 의욕의 저하 초래,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시험에 어려움 초래, 또래 관계 어려움이 있음. 꿈드림 센터 휴관에 따라 그나마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단절.</p>

	<p>또한 집단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져 또래 관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단톡방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대화 활성화 촉진. 급식 지원은 1:1 비대면 급식 지원 실시하였고, 청소년 놀이 공간의 부재하였는데 꿈드림센터 휴관... 꿈드림 센터는 정상 운영이 되었음에도 연속성의 단절로 연락이 두절 되는 청소년들이 다수 발생</p>
10	<p>코로나 19로 인한 외출제한과 귀가일의 축소, 재입소를 위한 반복적 코로나 검사 등 실시로 불안한 마음. 원활한 가정 복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교외활동을 거의 하지 못함.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고위기 청소년의 비중이 많음. 2019년 진행사례의 57%. 2020년 65% 가 고위기 청소년으로 2020년 코로나 19로 (대구지역 근교, 지역내 코로나 확산 등) 7개월간 휴관을 진행하였으며 5개월은 일체의 대면을 허용하지 않아 고위기청소년들을 전화상담, 화상상담 등 비대면 상담으로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더군다나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야간에 킥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불법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기 시작함. 학교밖청소년들의 검정고시의 대면학습 지도가 어려워짐.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어나며 전체적인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2019 대비 2020년 3배 증가). 인터넷과다사용이 늘어남(2020대비 2021년 발생사례 약 3배증가)할 수 없어 높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함.</p>
11	<p>자살 및 자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은 코로나19 상황임에 따라 더욱 높은 비율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임. 또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자녀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족간의 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에 따라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대인관계 호소 문제가 높아짐. 또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그간 학습수행에 대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호소문제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 마지막으로 갈등이 발생할 때 관계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SNS상에서 혹은 외면하는 등 안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처함에 따라 일탈 및 비행 호소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해석이 되고 있음. 대체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됨에 따라 더욱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됨.</p>
<b>청소년복지</b>	
12	<p>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불안·우울,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학업중단 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9~18세의 청소년 거주형 치료재활(청소년복지) 시설로 입교생의 약 40%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계층 청소년임. 또한, 입교생의 약 70%가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이 약 5% 차지하고 있음. 입교생 대부분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스마트폰 과몰입 등을 겪고 있으며 가정 내 정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운영기간이 단축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을때는 치료효과성이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보호자들의 재입교 요청 등 민원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된 바 있음.</p>
13	<p>자립생활관(법무부산하),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여가부) 등의 경우 생활보호시설로서 외부(거리)의 생활에 노출되어 있던 청소년들이 안전장치로서 입소하는 시설에 가까움.</p>

	<p>문제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19 등의 위협요소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보호시설의 경우 결론은 외부입소를 매우 축소하여 운영함. 자립생활관의 경우 소년원 등 법정시설을 중심으로 입소를 받았으며, 청소년쉼터의 경우 일시쉼터를 거친 청소년만을 입소할 수 있도록 진행함. 이미 보호하고 있는 입소생들의 경우는 외부 외출을 최소화하여 운영함.</p>
14	<p>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표적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거리생활을 장기간 경험하고 있음. 특히 거리청소년 중 독립가구 청소년 또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는 청소년, 가정불화 갈등 상황의 방임 등 위기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용청소년의 취약 상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경제적 생활고로 인한 생활 지원(먹거리, 생필품 지원 등), 긴급지원(의료지원 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둘째,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를 하고,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인해 생활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는 주거비, 생활비 문제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격차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고 있음. 셋째,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인한 빚이 증가하고 있다...더욱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 등은 불법 형태의 빚(휴대폰 사기, 유흥업소 근로 갈취, BJ 매체 근로계약 사기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 능력도 없고,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음. 넷째, 기출판, 헬퍼 등 불법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성착취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고 있음. 다섯째, 청소년 부모의 경우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껴 자해, 자살 시도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방임, 학대, 청소년 부부 간 갈등, 다툼 등 다양한 가정위기를 재생산하고 있음. 여섯째, 코로나19 확진 발생으로 인해 청소년 부모 가정 내 구성원이 분리되면서 생계문제에 직접 타격이 있다. 양육자의 주요 근로 수입원이 끊겨 자가 격리 동안 생활지원 등 최소한 지원이 필요하나 보건소 등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으로는 건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일곱째, 생계형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고 불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일자리를 이용하지 못해 진로와 직업 선택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 학업중단 등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 등 준비를 하고자 하나 온라인 기기 부족, 꿈드림 이용 제한(청소년 부모의 경우 자녀 육아 문제 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그밖에 중앙방역당국 지침 근거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 기간 동안 거리상담 등 활동이 소극적으로 제한되어 실제 거리청소년을 발굴, 위기개입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오픈채팅방 등 매체이용 상담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음.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 교육공백으로 더 벌어진 학습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코로나19초반 우왕좌왕하며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어 집단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는 학교도 학년도 다른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개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었고 준비가 덜 된 학교현장에서는 쌍방 소통이 어려운 수업구조였음. 각자 방에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니 수업을 듣지 않고, 집단프로그램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게 하니 아이들끼리 잡담이 심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 이에, 근무자 중 1명씩 돌아가며 9시~15시까지 수업감독을 들어가야 했고 업무 공백이 매우 크게 생겼음. 정부나 지자체가 자산취득 예산을 주지 않아 온라인 학습용</p>

	<p>기기가 모자람. 일부시설에서만 외부자원 요청하여 2021년부터는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함. '자유'박탈감이 느껴졌는데,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외출제한으로 2년 가까이 개인외출이 어려워짐. 코로나19 초반에는 학교, 심리치료 등 모든 것이 중단되어 코호트격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몇 개월을 보냈고, 이후 필수외출이 가능해졌지만 개인외출제한이 있어, 또래친구들과 시간을 가지는 등 자유가 제한됨. 이로 인한 돌발행동과 정서적 어려움의 표현(자해 등)이 증가함. 개인주의 심화되었음. 또래 관계가 차단되고, 사회활동이 없어지면서, 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서로간의 대화가 금지되고 밥도 따로 먹다 보니 개인주의가 심화됨. 상대적박탈감 심화되었는데 방역수칙을 지키며 외부식사, 외출등을 하는 또래친구들에 비해,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집단생활시설에서 지낸다는 이유로 제한된 상황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 늘어남. 주기적인 코로나19선제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도 더해짐. 보호자체의 어려움이 있음 즉각분리제도가 생기면서 피해청소년들의 보호의뢰가 늘었지만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랜기간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함. 일시,긴급 보호시설의 위험성 증가 됨. 모든 시설들이 코로나19검사 후 음성이 나와야 보호가 가능하다보니 1차적 보호기관인 일시쉼터에서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남, 녀 각 1개의 방씩 있는 일시보호시설에서 1인 1방을 할 경우 보호원원이 줄어들고, 기존대로 보호를 할 경우 코로나19 접촉빈도가 높아짐. 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및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고용의 불안정이 증가함.</p> <p>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나, 일하던 청소년들은 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를 갚지 못해 신용도가 하락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자립을 목표로 쉼터에서 생활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자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p>
15	<p>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입소자의 경우는 비행과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들로 보호자의 보호력 부재 또는 관계악화 등으로 상습적인 가출, 장기결석으로 학업위기, 학업중단 등의 열악한 상황임. 이에 비행성과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으로 교정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편임.</p>
16	<p>자립지원관 지원대상 청소년의 경우 저학력, 전문자격증 미비로 인해 단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에 큰 영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이는 등의 변화가 생겨나며 청소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음.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던 청소년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관련 기관(학교밖지원센터, 큐넷, 학원 등)의 대면수업 중단, 자격시험 연기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계획했던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 구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p>
<b>청소년보호</b>	
17	<p>수업집중력, 몰입도 저하, 학업성취도 격차 및 인성교육, 생활 관리의 한계, 생활 사이클 붕괴, 신체 밸런스 붕괴, 비등교 상황에 따른 관계성, 사회성 저하. 원격 수업에 따른 의사소통, 공감 능력 저하, 사이버 폭력, 따돌림, 악플 등 혐오 표현 증가, 양육 부담에</p>

	따른 방안 및 가족간 갈등 증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확산,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소비 심화(오용),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따른 프린트 소유의 문제 등임.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p>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관계 제한, 학교 중단 이후 유일하게 다닐 수 있었던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 폐쇄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냄으로써 사회적 고립감 심화, 비대면 참여기회 확대 및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확대 필요. 센터에서 검정고시 공부하던 청소년 대상 비대면 강의 지원 불가피. 일부 청소년의 경우, PC 없어 온라인 강의 수강 불가 등 학습 지원 어려움 원격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필요, 공공기관 보유 유휴 PC 534대 지원. 온라인 학습 지원(인터넷 유료 강의 수강권 지원, 교재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및 일자리 발굴 어려움</p> <p>고졸 학력 미취득 등으로 정규직 진입은 사회진입 청소년 중 10% 수준에 불과(20년 학교밖청소년 취업현황 조사), 청소년 창업지원사업 강화, 급식 지원 확대 및 방식 개선 필요성 대두됨. 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게 지급해왔으나, 센터 방문 제한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중단, 지원 방식 다양화(모바일 교환권, 식품 꾸러미 키트 제공), 급식 대상 확대(사례관리 중인 모든 청소년)</p>
19	<p>청소년 기관은... 강제성이 덜함. 이에 ...기본적인 학습권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됨. 인터넷 강의나, 줌 등을 통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성이 약한 서비스 대상에게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대인관계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정서적 소외 및 우울로 이어지게 되어 청소년이 성장과정상 키워야할 사회성 훈련에 영향도 생기게 됨. 언제든 시설은 열려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나, 상습적 휴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게 됨.</p>
20	<p>상식적인 차원의 일상생활 패턴이 깨짐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 요소 증가(기상시간, 취침시간, 식사시간 등이 깨짐), 관계경험 부족. 또래관계 형성에 차질 우려(특히 초기 청소년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자율적인 학습 태도가 부족한 경우 학력 저하 예측(학교의 교과중심 진도에 익숙한 경우, 감독하에 수업을 받는 강제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터넷수업이나 동영상수업 시 집중하기 어려움)</p>

응답자들이 본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 취약상황은 삶 전반에 걸쳐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 결손, 학습격차 문제, 게임 및 스마트폰 과몰입 등 매체중독 현상 증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 갈등, 스트레스 및 우울감 상승으로 인한 분노 표출, 공격적 표현 등 증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한 생활 관리 어려움, 일탈, 비행 등이 있다. 특별히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 상황은 첫째, 경제적 생활고로 생활지원(떡거리, 생필품 지원 등)과

긴급지원(의료지원 등)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생활비 부족 현상, 채무 증가, 가출팸, 헬퍼 등 불법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성착취 등 사회문제에 노출, 자해,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 생계형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도 중독, 사이버 폭력, 의사소통, 공감 능력관계성, 사회성 저하, 기본적인 학습권 제약 등, 다양한 청소년 취약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지역 내 청소년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

청소년 활동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자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휴관 여부가 결정됨. 지역마다 코로나 확산 정도가 달라 운영 형태는 모두 다름.
2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차츰 적응하기 시작함.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영역의 활동으로 인식하면서 온라인 설비를 갖추는 등 향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3	여가부의 지침 - 도지침- 시지침으로 하달로 우리지역 상황은 비슷하지만 다만 그곳에서 비대면 활동 및 줌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음.
4	제주지역은 대부분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의집이 대부분이어서 시의 방침에 따라 활동이 전면 중단 되어버린 현실
5	생활권에 위치하고 상담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기관은 비대면 방식으로 그나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자연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음.
청소년상담	
6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해 일상의 규칙이 어긋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습의 어려움을 보임. 인스턴트 등 고열량 음식의 섭취, 활동량의 부족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 보임.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장시간 사용문제, 가족갈등,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
7	방역 등 제한적 상황에서 적극적 개입의 한계가 있음. 긴급상황, 해당 서비스 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사례발굴의 한계에 부딪힘. 사각지대 또는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관에 속하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8	학교 부적응 관련된 상담 의뢰 등이 많이 줄었음.

9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의 경우 상담자가 학교를 지정 순회하며 상담을 실시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방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이 단절되는 등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의 경우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시 프로그램 참여에 한계가 있음.
10	2020년은 전면 휴관조치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함. 하반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 됨
11	비대면 상황에 최대한 맞추어 줌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활동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담 쪽에서는 예산 및 인력조차 부족하여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임. 예산 및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대책을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b>청소년복지</b>	
12	지역 내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대부분의 청소년기관들이 코로나19 방역단계가 강화되면서 휴관하였음.
13	매우 소극적 자세와 태도로 사업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보호시설의 경우는 초기입소에 대해 검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후 입소가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거친 경우에만 입소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였음. 보다 심각한 상황은 입소생의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입소생과 보호지도자 등 모두가 폐쇄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음.
14	이용시설인 문화의집과 상담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은 오랜 시간 휴관이 이어졌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점차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운영을 재개 함. 생활시설은 코로나19 음성결과를 가지고 입소를 받았으나, 모든 시설이 그렇게 할 경우 긴급입소가 어려워 몇몇 일시시설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보호 할 수 밖에 없었음.
15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등교나 공식적인 일정(수강교육, 사회봉사 등) 외 전체적인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어 있음. 생활시설로 숙식을 함께 하고 있기에 운영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청소년들의 호소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임.
16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휴관, 대면활동 중단 등 사업에 제한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 지원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음.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비대면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생겨나고 있음.
<b>청소년보호</b>	
17	사이버 원격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방역 우선으로 이용 청소년의 대면 필요는 차순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청소년들의 시설 기관 방문은 어려워짐. 종사자들은 출근 지속(재택근무 시행). 오프라인 집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은 대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온라인 비대면 검정고시 지원, 온라인 멘토 연계 지원, 생필품 키트 발송 지원 업무 증가로 바빴음.
19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상시적 휴관 조치, 혹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휴관,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 운영 등으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여파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예산 삭감 등이 예상됨.

전반적으로 청소년기관들은 운영상 전면 중단되거나 위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기관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설비를 갖추는 등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상담기관들의 경우 고위기청소년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내방상담 진행하고, 그 밖의 상담 및 프로그램, 교육 등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다. 청소년복지는 축소 운영, 휴관하는 경우가 많고, 입소생의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폐쇄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 운영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청소년들의 호소도 가중된 상태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도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휴관, 비대면활동 등 시기별 분위기

청소년 활동	
1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다르나 1~4차 유행 시기에는 80% 이상 휴관하였고, 휴관을 하였더라도 대체로 돌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긴급돌봄을 시행함.
2	휴관시에는 하늘만 바라보는 심정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음. 거리두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이제는 다른 방향의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함. 비대면 활동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대면 활동만을 하던 시기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이 가능하게 됨을 인지하고 서서히 일상을 회복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면활동에 대한 욕구는 참여 청소년들이나 지도자들 모두에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3	송중이는 술입을 먹어야 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을 만나야 하는데 휴관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청소년지도자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사회 계획 후 변경 연기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음. 비대면 처음 일 때는 발 빠르게 청소년현장에서 대응 하였지만 장기화 되면서 학교 비대면 활동보다 장비, 예산이 뒤쳐져 만족도가 떨어짐. 콘텐츠에 대한 부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4	직영시설은 2020년은 처음이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진짜로 울 스톱이었고, 2021년은 비대면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키트를 나눠주고 사진과 설문을 받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 민간 위탁시설에서는 뭐라도 해 보려고 2020년부터 비대면 프로그램 직접 개발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5	<p>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휴관은 하지 않고 있으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전개하여 2020년은 4,500여명, 2021년은 9월말 현재 4,05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음. 특히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학교 방문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재능기부활동을 추진하였음. 또한 신설 학교를 찾아가서 드론을 이용한 학교의 모습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큰 호응을 얻었음. 이러한 모든 활동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선점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p>
<b>청소년상담</b>	
6	<p>본원의 경우 휴관 시기가 없었음. 코로나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 대면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전국의 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대응함.</p>
7	<p>코로나 발생 초기(20년 상) 휴관(3개월)으로 장기간 사업들이 정체 되어 사실상 진행이 어려웠음. 전화,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 비대면 사례관리, 이러닝 연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키트 제작 및 발송, 방역을 위한 안전물품 확보 및 제공에 주력함. 20년 하반기 이후 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유 기관 운영으로 열린 공간(야외)및 온라인 화상회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생활속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함. 2021년 부터는 온·오프라인,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여 사업 지속적 운영. 7월 이후부터 기관중사자 백신 자율접종으로 서비스 적극성을 가져올 수 있어 보다 사업을 유연하고 활동의 폭을 넓혀 운영하고 있음(4단계를 제외)</p>
8	<p>센터이용 청소년간의 응집력 약화. 온라인 프로그램 모집 시 비대면 활동에 대한 비선호도로 인해 모집이 어려움.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시 지속적인 참여 어렵고 집중력이 약해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지속됨. 프로그램 전달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방법, 교육 후 피드백 교류의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 온라인 활용프로그램의 발굴의 어려움. 기관의 온라인 환경 구축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온라인 환경 구축 역시 영향을 줌.</p>
9	<p>휴관인 경우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종사자들도 무기력해 짐. 또한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했던 청소년들은 과거의 문제로 회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 곳이 폐쇄됨에 따라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음. 비대면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부족 및 경험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의 한계 때문에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따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급식지원, 비대면 직업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높게 나타냄.</p>
10	<p>2020년 1차 휴관(2.22.~7.31.) 대구의 집단발생으로 대구와 인접지역인 거창은 대구의 집단발생, 그리고 지역내 감염확산 등으로 일체 활동 중지. 코로나 대응 파견활동함. 2020년 2차 휴관(8.24.~10.12.) 지역내 2차 발생확산으로 휴관조치됨. 청소년 캠페인</p>

	<p>알바로 인한 학습, 등교 문제가 발생함. 2021년 1차휴관(5.4.~ 5.11.), 2차휴관(8.18.~8.30.),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원 제한이 실시되었으며 휴관의 기간이 짧았으나 2020년 휴관은 학교 내 감염으로 5월 한달 동안은 학교 출입이 금지되고 그리고 9월 이후에도 학교내 출입하여 상담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p>
11	<p>지자체에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 따라 서로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임. 비대면 활동은 대체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숙련되어져 가는 것 같음.</p>
<b>청소년복지</b>	
12	<p>휴관 기간 동안 상담 관련 기관에서는 대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수련시설 등은 코로나19 임시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 하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디딤센터에서는 학교단위로 진행되던 4박 5일 형태의 단기캠프는 대부분 취소되어 운영할 수 없었으며,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던 입교기간을 10~12주로 단축하고 입교인원도 2/3 수준으로 운영함. 또한 매주 이루어지던 가정귀가를 주말 돌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코로나19 방역 4단계 격상시에는 가정귀가 후 2주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보호시설의 경우 수련관, 수련원 등과는 달리 완전 휴관자체가 어려운 상황기에 외부 입소를 최소화하고, 외출 등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였음. 외부활동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아웃리치 기관(이동일시센터 등) 등은 사이버아웃리치와 같은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입교생의 참여유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p>
14	<p>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초기 대응전략에 어려움이 많았고, 중앙방역당국의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 현장에 적용되는 일정이 일관된 지침으로 활용 적용 하는 것이 현장에 고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초기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등 사회복지관 휴관 등으로 비어있는 공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 제도 등을 해당 기관 시설에 위탁하는 등 환경적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다. 초기 휴관 등 공간 문제를 사각지대 취약 청소년의 코로나 보호 거점으로 활용했다면 현장에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단기, 중장기 보호시설은 사실상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외부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없고 비대면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에서 직원들이 청소년을 대면해야 하는 영역(외부강사나 봉사자가 하던 프로그램, 학습지도, 비대면키트활용, 상담등)이 더 늘어남. 코로나19초기에는 셋다운 되듯이 휴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수준의 제한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이용을 재개하던 시기에도 별다른 조치안내 없이 보호시설의 재량에 맡기면서 선제검사까지 요청하다 보니 기간도 길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입소생, 종사자 모두 높아짐.</p>
15	<p>다른 기관의 경우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지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변함없이 열리고 있기에 입소, 퇴소, 처분변경, 집행감독 등으로 동일한 운영을 하고 있음.</p>

16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장기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코로나가 장기화 되며 더 이상 일정을 연기하기 어려워지며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코로나 맞춤형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 됨.
<b>청소년보호</b>	
17	2020년 3~5월 3개월 간 휴지, 2021년 8월(중)~10월(중) 2개월 간 휴지, 입소 문의는 지속됨. 수요는 있으나 방역상 수용하지 못함.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전국적으로 휴관 기관 발생(초기 대구 지역 등), 지난해, 올해 일일 평균 30~40개 센터는 휴관했을 듯, 언론에서 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종사자들이 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억울했음.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년들은 오지 못했지만, 종사자들은 출근해서 일했음.
19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휴관 등으로 센터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들이 많았으나, 점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함. 운영 초기, 급식비를 도시락 및 간식 키트 등으로 전환하여 제공하였고, 온라인 강의, zoom 통한 학습지도 등을 운영하였으나, 시행 초기에는 참여도가 높았으나, 점차 참여도 및 성실도가 떨어지게 되었으며, 등록 청소년 뿐 만이 아닌 신규 청소년 발굴과 지속적 사례관리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임.

시기별 분위기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초창기부터 휴관과 비대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장비, 예산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유연하게 시행하는 기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노력

<b>청소년 활동</b>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실시하였음. 긴급돌봄은 식사 지원, 학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사 지원은 집으로 직접 도시락이나 식자재를 지원해주는 형태나 청소년들이 기관에 방문하여 급식을 먹는 형태임. 학습 및 체험활동은 방과후아카데미 강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청소년들이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함 특히,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청소년 집에 온라인 학습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 방문하여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돌봄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 비대면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 등을 확인하고, 대부분 비대면 활동을 통해 취약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혹은 대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면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줌 및 비대면 활동으로 수련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활동으로 청소년 건강관리 과일 꾸러미, 키트를 지도자가 직접 집으로 배달하여 청소년들을 생활관리를 체크함.
4	거의 없는 편임. 직영 시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거의 올 스톱이고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음.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입소인원 제한으로 기 예약된 학교별 청소년수련활동이 어쩔 수 없이 취소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청소년 수련활동이 지속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자체 공문 하달을 통해 산하 학생수련원에서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 공적인 업무라 규정하고 코로나 단계별 집합 인원의 제한을 풀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
5	감염 및 확산 염려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음.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2022년도 청소년수련활동이 57개 단체, 연인원 3만 여명이 예약되어 있음.
<b>청소년상담</b>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쉼터, 회복지원시설 등 사업 지원. 방역 및 위생용품 전달, 고위기청소년에 집중적인 사례관리로 심리적 안정감 유지
7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민간 차원에서의 1388청소년지원단 자원의 연계, 인터넷 미디어 관련 상담 치료 연계 서비스를 비롯한 사후 관리까지 인터넷 예방해소 사업, 문제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 기본, 심화, 특성화 교육 지원 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하고 있음.
8	심리적 우울 및 불안 해소, 가족간 교류 증대를 위한 심리방역 키트 제공, 가족간 교류증대를 위한 각종 보드게임 및 놀이 활동 안내,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화상상담 제공, 온라인 체험 및 프로그램 제공
9	화상상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 22년도 예산에 반영함. 예를 들어 방음시설 등임. 전화상담 및 SNS(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연락망을 활성화시킴. 위기청소년들에게 식자재 및 레시피를 동봉한 비대면 급식배달을 실시하며 지속적 연락을 유지, 기존 집단프로그램을 비대면 활동지로 프로그램 변경하여 활용, 센터 소독 및 칸막이 설치를 통한 예방조치 실시, 센터 공부방 이용예약을 통하여 센터 사용인원 조절함으로써 센터 이용을 최대한 유지, 청소년 심리 수첩을 제작하여 비대면 아웃리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함. 아울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키트 지원, 비대면 지원서비스 강화
10	2020년 1차 휴관에는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1388청소년지원단의 지원으로 고위기 청소년 간식지원(치킨지원), 방역키트전달, 2020년 2차 휴관시에는 슬기로운 마음방역하기를 통해

	<p>온라인심리검사 실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면상담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의 예외 상황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사례를 관리함(개인, 소집단 상담). 2020년 청소년안전망 고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실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협력으로 비행선도 및 예방을 함. 2021년 고위기 예외상황유지, 상담교육프로그램 계획에 대면계획과 휴관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계획을 같이 세워 진행함.</p>
11	<p>비대면 상담 적극 지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비롯하여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취약한 청소년에게 심적·물적 지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함.</p>
<b>청소년복지</b>	
12	<p>정부방역지침 철저 준수 및 방역활동을 강화(입교생·전직원 일 2회 체온체크 등)하면서 장기과정 서비스 기간 중 중단이 없도록 하였음. 센터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생활동수용인원 축소와 환경개선, 입교기간을 단축하되 운영횟수 확대 및 재입교 기회 부여, 외부 체험활동 축소 및 소규모 단위 활동프로그램 운영, 비대면활동을 위한 키트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 지원, 입교생 및 전직원 대상 정기적 코로나 검사와 독감백신 접종, 지도자 및 외부강사 등 코로나백신 조기 접종을 추진하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p>
13	<p>지립생활관의 경우 입소자체는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 외부 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 등에 대해 생활용품 지원과 거쳐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함. 아웃리치형 쉼터의 경우 외부 온라인을 통한 연계 및 구호물품 등을 비대면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14	<p>학습격차를 줄이고자 온라인학습용기가 꼭 필요했으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는 자산 취득이 없어 구입할 수 없었고, 일부 시설에서 외부지원을 연결하여 태블릿PC, 노트북, 학원비 등을 지원받았음. 심리적손상이 심한 입소생들의 심리치료비를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오전시간에 조리를 해주시는 자원을 연결함. 방역수칙을 지키며 외부활동을 시행 함. 밤바다 드라이브, 시설내 옥상에서 고기파티, 단독펜션을 빌려 여름캠프, 시설 옆 공원에서 전통놀이 등. 주기적인 코로나 선제검사로 스트레스 받는 입소생들을 위해 선제 검사 후 테이크 아웃으로 입소생들이 먹고 싶은 식사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은, 입소생들의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해 등의 위험상황이 반복되어 야간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게 되면서 주간 3명의 직원(소장, 팀장, 행정원)이 근무하는 구조가 되는데, 1명이 온라인학습 감독을 하면 주간 처리해야 할 행정적 업무나 외부업무 등을 처리 할 수가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주기적인 시설소독까지 해야 했음. 외부강사출입이 어려워 모든 프로그램을 종사자가 하다보니 업무량을 증가하고 대면하는 상황은 더 높아졌음. 재택근무가 어렵고 소수가 근무하다 보니 연가 등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입소생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해결하지 못함.</p> <p>일시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및 거리청소년들의 보호, 자립생활 등 전반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생활지원(먹거리, 생필품 등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긴급지원(의료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였음. 그 형태도 찾아가는 가구방문 상담, 택배물품 전달, 비대면 SNS 매체이용 청소년 생활환경 모니터링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음. 본 기관의</p>

	<p>경우 가정 밖 청소년 중 특히 독립생활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사각지대 위기군을 발견하고 시설과 제도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는 상황들을 찾아 지원함. 대표적으로 독립생활 청소년의 가구방문 사례관리 생활지원, 그밖에 건강강화 사업 등 의료지원 체계에서도 격차가 있어 치료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제대로 도움 받지 못하는 영역, 예를 들어 고비용 치과(미용 목적 제외, 치료목적)비용지원, 수술비 등 긴급한 의료적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외부지원(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즉각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왔음. 현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환경이 더욱 그 격차를 만들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입소하여 생활하지 않는 거리청소년 및 독립가구 청소년들의 경우가 대부분 그러함. 이들의 취약한 환경이 사회적 범죄 등으로 진입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자원에 연계하며 살아갈 길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시쉼터(이동형)에서의 정체성 측면에서 그 한계를 느끼고 있음.</p>
15	<p>보호력을 강화를 위하여 입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등교 지도, 하교 후 코로나취약 시설이나 공간 이용을 자제하도록 바로 귀가 지도를 하고 있음.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밀폐공간이 아닌 자연환경 등에서 낚시, 트래킹,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영화관람, 보드게임 등을 활용하고 있음.</p>
16	<p>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에 많은 제한이 생겼지만, 기존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거나, 비대면에 적합한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긴급복지 지원, 외부공모사업),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비대면 소통 횟수를 늘려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음.</p>
<b>청소년보호</b>	
17	<p>생활 관리 강화(생활 사이클, 신체 밸런스), 관계성 증진,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온라인 부모교육 실시, 온라인 전화 상담 실시)</p>
<b>학교밖청소년지원</b>	
19	<p>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 백신 접수 및 약품을 지원하여 지속적 연계의 끈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통비 목적으로 제공하던 (충남형교통카드지원사업) 세상소통카드 사업은 목적을 확대하여 간식, 문화체험, 자기계발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센터 내방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어, 수시 연락 및 멘토를 활용한 전화, 줌 등으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음</p>
20	<p>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 필요(부모 등 보호자의 일상관리 방법 매뉴얼 필요) 대안적인 관계형성 프로그램(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 활용)을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줌을 통한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운영, 학습모니터링, 자율학습 코칭 등 필요</p>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활동기관들의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나 비대면 활동을 통해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청소년상담기관들의 경우는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간 교류 증대나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청소년복지들의 경우는 일단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생계와 거주, 건강 관련 다양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스트레스 등 환경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내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시설의 경우는 생활 관리 강화, 관계성 증진, 가족 관계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는 방역용품 지원 등 물질적 지원과 비대면 멘토링 등 정신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내부적 대응 방법

### (1) 기관 내에서의 대응 방법(청소년시설/기관/단체 및 인력이 안전하게 일하는 대응 방법)

청소년 활동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였음. 입구에 손소독제 및 발열체크, 참여자 명단 관리 등.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는 방역 물품 발송
2	공식 활동을 제외한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면 방문을 요청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였음. 특히, 외출후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
3	비대면 영상 콘텐츠 개발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범교과 민주시민, 세계시민 등을 영상으로 작업하여 제공하고 수련관으로 찾아오지 않기에 학교로 찾아가 수업과 연계 14주 활동함. 자율방역대 운영으로 시간별 지속적인 소독과 열화상카메라 지원, 소독 및 생활지도 방역에 강화
4	마스크를 배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없음. 방역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줌.
5	대외적인 홍보 활동 강화 측면에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인군 초·중·고등

	<p>학교를 방문하여 드론을 이용한 학교 전경, 교실 모습 등을 촬영하여 신입생들에게 학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영상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음. 대내적인 활동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향후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구성원들과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경청TV(경북청소년TV)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음. 경청TV를 이용한 Live 퀴즈 프로그램, 체험키트를 제공하는 콘텐츠 활동, 진로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p>
<b>청소년상담</b>	
6	<p>본원에서는 이루어지는 교육, 회의, 상담 등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 사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버전으로의 전환. 비대면과 대면의 병행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역 센터의 방역 등 안전에 대한 조치, 향후 운영방안 마련</p>
7	<p>백신휴가 및 시차근무제 활용, 안전물품 제공 및 집콕 키트 활동,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안활동 제시, 교육의 온라인 전환(재택), 고위기 소진예방 힐링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카메라, 가죽공예, 자살·자해 집중 클리닉), 기관 시설 소독 및 방역</p>
8	<p>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역을 위한 소독 강화, 휴가후 복귀시 PCR검사, 예방접종을 위한 공가 제공 등</p>
9	<p>센터 소독 실시 및 칸막이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조사하여 공간별 이용인원 제한, 직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수시 환기 실시, 방문자 관리대장 철저 관리,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및 비대면 지원서비스 발굴</p>
10	<p>2020년 직원들의 방역교육, 기관의 방역 설비 실시하였는데 기관입구 소독실, 열화상 카메라, 상담 및 교육실 칸막이 설치, 2021년 비대면 상담과 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 2021년 비대면 상담과 교육을 위한 송출장소 마련</p>
11	<p>철저하게 매뉴얼에 따라 행동함. 1층 출입구부터 온도를 체크하고, 처음 발생 시에는 하루에 3회 이상 온도를 체크하고, 2회 이상은 소독을 함. 또한 인력들의 이동이 있을 시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바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 또한 우선 백신 접종을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오는 강사들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신청함.</p>
<b>청소년복지</b>	
12	<p>직원 재택근무와 생활 속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복무관리 시행. 불가피한 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소단위 집단활동, 거리두기, 취약청소년 주단위 가정복지 대체 주말잔류 프로그램 운영, 입교인원 축소,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춤 코로나 방역단계별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방역총괄담당 및 각 팀단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원, 외부강사 및 입교생 등 체온체크를 일 2회 정기 실시 보고, 코로나 백신 조기 접종 추진('21.7.21, 직원 및 외부강사 등 120여명)</p>
13	<p>쉽지는 않지만 재택 가능한 인력의 경우 재택근무를 진행하여 근무인원 밀도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인력의 건강상태 등에 보다 민감한 상태로 체크 확인하는 운영방식을 선택하였음.</p>

14	직원들 방역지침에 따라 식사 따로 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오전오후 열체크, 수시 소독, 가림막 설치와 거리두기를 하며 상담 진행함. 입소생들 공용 공간 마스크 착용, 개별 방에서 식사 혹은 가림막 설치하여 식탁에서 식사, 외부프로그램 자제, 내부 프로그램시 마스크 착용 등 쉼터 내 외부인 출입금지, 필수출입인(내부수리, 가스점검 등) 출입시 열체크, 소독 및 방문대장 작성
15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보호자면회를 제한하여 필요 이상의 노출이나 접촉을 차단하고 있음.
16	비대면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대면활동을 최소화하였음.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코로나 선제검사 진행함. 전체 종사자, 기관 방문자 발열체크 및 주기적인 기관 소독 진행
<b>청소년보호</b>	
17	방역 지침 마련 및 준수, 휴지기에는 온라인 전화 상담 실시함. 입소 직전(2일전) 코로나 19 검사 실시, 입소 전 1주간 역학조사를 실시함. 입소 후 내부 생활 중 거리두기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외출 및 외부 출입 통제, 외부활동 금지, 전직원 대상 PCR검사 및 백신 접종 완료하고 부모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수능 준비 청소년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함.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에 건의(교육부의 고3 학생 접종과 동일 기준 적용)하여 청소년 5천명, 종사자 500명 접종 완료함. 종사자 및 사례관리중인 청소년 대상 마스크, 손 소독제 지원 등 긴급 생필품 지원을 함.
19	방역의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비접촉식 체온계, 내방객 서명부 관리를 함. 또한, 취식 제공을 지양하고, 불가피 제공할 경우 취식 개별 제공 및 분리된 공간에서 취식 하도록 조치함. 밀접 상황을 예방하고자 참여자가 많은 행사의 경우 그 규모의 2~3배 이상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여 예방조치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운영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청소년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방역단계별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적으로 청소년활동기관들의 경우,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상담 기관들의 경우는 비대면과 대면의 병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긴급 생필품 지원이나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운 요인(조직, 구성원, 기관의 변화)

<b>청소년 활동</b>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변할 때마다, 지자체 별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현장의 문의사항을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수련 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다른 사업팀과의 업무 강도 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함. 수련시설이 휴관하면 다른 사업팀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과후아카데미는 긴급돌봄 체제로 전환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음.
2	특별하게 조직과 구성원, 기관에서의 어려운 요인은 발생하지 않음.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하는 분위기가 매우 발달함. 일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시락, 공동취식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함.
3	열화상카메라, 소독, 방역 물품 구매에 따른 예산 미비, 수련관 로비에 방문자 발열 체크로 지도자 배치로 인력 손실, 집단활동 대면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4	제주지역은 코로나19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보아짐.
5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이 전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운영이 힘들 정도의 사용자 수입이 급감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원 감축, 재정적 어려움 해결 방안 등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주문과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임.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보조금 확보와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전전공공 하고 있음.
<b>청소년상담</b>	
6	출장 및 대면활동의 금지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 발생, 비대면상담의 증가로 해당인력의 업무 과중
7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24시간 안전하게 보호·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일시보호소의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진단키트, 방호복)및 보호 장비 전무, 제한된 공간에서 방역지침 준수시 청소년 수용인원 및 지원서비스 축소의 문제점이 있음.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이용기관 안전, 기관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이 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또한 공공부문 서비스 영역에서 코로나 단계 심각 수준시 재택근무를 권장하나, 현장에서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지원방법, 관리방법, 평가 확인 등 실제 가이드가 전무하여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8	비대면 상황으로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의 어려움, 온라인 프로그램 전환 등 근무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원에 대한 설득 및 교육 어려움, 불규칙적인 방역 단계 조정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계획 대비 변경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혼란 가중됨.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도 상담실적 등에 대한 수정이 안되어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압박이 스트레스로 작용, 비대면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취합의 곤란 및 예산 사용문제로 인한 어려움.

9	<p>센터 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으로 목표로 했던 사업 수행의 어려움. 아웃리치 등 홍보 방법에 대한 변화 1:1 직접 전달에서 학교에 배포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직원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참여의 어려움,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부담이 높아짐. 조직, 구성원, 기관의 변화로 상담자가 타지역 방문이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하고 판정을 받은 후 업무 복귀 적용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프로그램 및 상담이 진행되어야 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방역 수칙을 준수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 과거에는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면 코로나 이후 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 및 소독 철저 등 방역에 더 집중하게 됨.</p>
10	<p>휴관조치를 하고 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직장내 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 하라고 되어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아 휴관시 전원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어 감염의 위험이 높았음. 코로나 19이후 전면 비대면 교육,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행정망을 사용하는 저의 센터의 경우 접속이 되지 않고 기기가 없어 초기에는 개인 노트북으로 회의 참여 하였으나 카메라가 없는 노트북, 노트북이 없는 직원의 경우가 더 많아 회의나 교육이 겹칠 때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p>
11	<p>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스러움 발생함. 자녀가 있는 경우 확진자에 대한 민감성과 더불어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 자택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공문 시달이나 일의 특성 상 할 수 없는 상황임. 사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직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약간의 혼돈과 좌절스러움, 불안을 겪게 됨. 가령, 비대면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센터의 물리적 존립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그러면서 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상담사로서의 일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함.</p>
<b>청소년복지</b>	
12	<p>거주형 치료재활시설으로서 청소년에게 대면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다수 프로그램이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 활동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치유재활 효과성 저하, 입교 기간 중 방역단계 상황으로 모두 가정 복귀 후 2주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의 참여유도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함. 비입교 기간 및 직원들의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시간외근무 감소,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함. 운영기간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불용액 증가와 평가에 영향</p>
13	<p>직원 본인이나 가족, 주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근무시스템(특히 야간, 당직 등)의 급작스런 변화를 수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으며, 대부분은 그 외의 인력 등이 근무의 무리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3~4일간의 연속 당직이나, 맞당직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p>
14	<p>비대면 활동과 사업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고, 조직문화가 변화되는 가운데 업무 슈퍼비전 등 환경도 변화가 일어남. 실무자의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개별 업무 적응과 관리자의 슈퍼비전 활동이 평소와 다른 전략적 차이를 불러옴. 신입직원의 경우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제한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업무에만 익숙하고 기존 활동과 전통적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는 등 기존 실무자들과의 업무역량의 격차를 경험하게 됨. 긴 사회적</p>

거리두기로 인해 업무 환경 적응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직을 경험하게 되거나 직업 환경에서의 진로 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됨.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 대한 맥락적 고려가 없고 일괄적인 제한조치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자유권은 무너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개별 기관에 지워짐. 가정학대 등으로 집에서 지내지 못해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집인 이 곳에서 '생활시설 거주자'라는 이름으로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간을 정해 따로 밥을 먹고,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는 등 일상이 무너짐. 개인외출이 어려워지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프로그램지도자, 봉사자 등의 발길이 끊겼고, 모두가 함께 살고 있지만 모두가 따로 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유일한 친구삼아 지내게 됨. 직원들의 업무 폭발적 증가가 심화되었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촉이 더 늘어난 직원들 기존 업무에 더해 코로나 방역업무(매일 시설소독, 하루2번 종사자 및 입소생 건강체크, 관련보고 및 긴급대응매뉴얼 상시 수정 등), 낮시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외부인출입제한과 외부프로그램제한으로 실무자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 횟수가 늘어남.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했지만, 생활시설에서는 터무니 없는 권고사항이었음.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일시보호시설은 직원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며 입소생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1인 1실을 권고했지만 다수가 1개의 방을 쓰는 일시침터와 2~3명이 한 개의 방을 쓰는 단기, 중장기 청소년침터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직원들이 계속해서 체크할 수밖에 없었음.

자가격리공간 확보와 코로나 검사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 공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자가격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3명이 생활하는 생활실 1곳을 빼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입소생을 정원만큼 수용하지 못하게 되며, 격리 될 공간 안에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자해 위험이 있는 입소생들은 혼자 격리가 불안해 선생님이 같이 격리되어야 함. 결국, 자가격리 공간을 지정했지만 비워두지 못하고 입소생이 생활하다가, 격리자가 발생하면 그 방을 쓰는 아이들이 짐을 싸 들고 다른 방에 '끼어'지내는 이사생활이 반복됨. 입소시마다, 단순 의심증상시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지방의 경우 선별진료소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1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시설 내 의료비 예산에서 감당할 수 없었음(연간 의료비 60~70만원선). 거기에 더해 종사자와 입소생 주1회 선제검사 권고가 내려졌으나 예산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음. 이후 선별진료소 마련되고 무료검사 시행되어 선제검사 지금까지 시행중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방역수칙 지키며 외출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통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 곳에서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입소생들은 다른 입소생이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아이 스스로도 자신으로 인해서 시설에 코로나가 퍼지면 전체가 코호트 격리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김.

1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2명의 종사자가 모든 업무(법원, 보호자 상담, 생활지도, 행정, 재정관리, 취사, 야간취침지도 등)를 담당하고 있기에 외출 외박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16	관련기관의 휴관, 연기 등으로 인해 전체 지원에 어려움을 겪음(교육지원-자격시험연기, 학원 휴강 등). 자립지원관의 경우 1:1 지원사업이 주 사업으로 대면활동의 최소화로 인해 예산, 관련증빙 등 비대면 지원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단계별 인원제한에 맞추어 지원사업 내용, 대상인원 수정이 계속 됨.
<b>청소년보호</b>	
17	가족 캠프, 외부체험 활동, 외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등 단위 프로그램 제한 등 프로그램 위축, 부모교육 온라인 전환 등 위축되었고, 참가 대상이 축소되었음. 방역 관리 상 소수 인원으로 운영(정원 제한)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외부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택배비, 키트 발송 업무 등 업무량 증가, 학교밖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매우 저조(53.9%)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은 1단계(상담, 1시간) 2단계(동기강화, 20시간) 3단계(기초기술훈련, 3주 30시간) 4단계(직장체험, 100시간) 5단계(전문직업훈련, 취업), 전국 9개 시도 센터 중심 운영(81개소, 553명 참여), 전년대비 60명 감소함. 직장체험 사업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운영 불가피, 코로나로 현장 체험 불가, 작업장찾기 힘들, 수료율이 56%(303명)운영되어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선 온라인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사무용 PC환경이어서 온라인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어려운 환경임. 캠, 마이크 등 기본장비 구입(소모품 수준), 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력 부족으로 OBS, 줌 등 활용법 숙지, 장비 구입비 부족 및 네트워크 환경 미비 해 유선 네트워크망 정비(허브구축)
19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어려운 요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불규칙적인 방역 단계 조정 등으로 인한 혼란, 인력 손실 및 업무 과중, 장비 부족, 예산 미비 등의 재정적 어려움, 프로그램 위축과 지원서비스 축소의 문제점, 그리고 다양하고 불편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언급했다. 특히 청소년복지들의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 활동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치유재활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한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전혀 다른 형식과 방법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기관내 변화

<b>청소년 활동</b>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의 경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함(교육, 컨설팅, 평가 등).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현장에서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방송장비 구축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2	처음의 당황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만족감에 더욱 크게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음.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
3	청소년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운영, 지도자에게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 및 동기부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기한이 없기에 언제 끝나나 무기력해짐.
4	기관내의 변화라기보다는 지도사들이 비대면으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장비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5	기존 2박 3일 청소년수련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청소년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현상임. 앞으로 청소년활동의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관리하여야 함. 예로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 방안, 대면 청소년활동과 대비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인증 문제,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등 비대면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하여 기관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비대면 청소년활동 활성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b>청소년상담</b>	
6	비교적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음. 사이버상담센터의 운영 등으로 비대면 상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 전환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력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높아짐. 다양한 회의체의 경우 비대면 회의로 인해 대상자의 참여도 높아짐. 회의의 경우 대면회의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확인 됨.
7	상담 부가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키트 지원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됨. 기존의 문화체험 대규모 서비스 지원에서 소규모로 내실 있게 운영함(플로리스트, 조향사, 메이크업, 슬기로운 직업탐구생활 등). 온라인 상담의 한계 및 보완점 발생(대면상담보다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제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기 힘든 상담의 특수성이 있음. 다양한 내담자의 특성상 화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담시 내용과 보안등 개인정보관리 등)
8	온라인 활용매체에 대한 사용방법 습득(사용 프로그램, 카메라 활용방법 등 IT기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의 업무저항에 대한 설득과정이 어려움(특히 기기 조작 및 새로운 프로그램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

9	기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및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보니 참여율의 저조, 내용 및 질적 수준 하락, 비대면 급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소진, SNS(카카오톡 채널)를 통한 소통방법이 활성화, 실시간 화상교육(zoom)활용 및 교육장 마련
10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마련, 장비마련, 프로그램 계획시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계획함.
11	예전에 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수용하고,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임. 그러한 적극성과 유동성에 대해 대처하는 기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에서 지역 타 기관과의 연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b>청소년복지</b>	
12	화상회의 시스템의 활용 증대(입교·수료식 행사, 부모교육, 각종회의 등)하여 동영상 안내자료 제작 배포, 거리두기를 위한 생활동 수용규모 축소, 소규모 단위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13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더 고립시키고 개인주의화 시켜버림.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정집에서 비대면생활이 가능한가?
15	법원의 재판과 처분과 관련한 회복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만, 학교의 온라인수업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비품, 환경 등의 마련을 위한 변화가 있었음.
16	대면지원 사업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비대면 지원사업이 개발, 진행되었음.
<b>청소년보호</b>	
17	기숙형 기관으로 일부의 변화, 문제는 기숙형 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직면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종사자들이 중 등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방식 습득 필요성이 있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 증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정기적인 전화, 문자 등 비대면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증가(20년 497,881건), 헤드셋 등 개인별 스마트 기기 추가 구매 필요성 (예산 확보 어려움 상존)이 있고, 기관내 화상 상담실, 화상 교육실 등 전용 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
19	서비스 제공시 온라인 제공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 온라인 제공 불가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사업 운영의 강제성 및 인센티브 부여가 불가하여, 참가자의 자율적 참가를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전혀 다른 형식과 방법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기관 내 변화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언급했다. 먼저 청소년 활동기관들의 경우 기한이 없기에 무기력증을 느끼기도 하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만족감에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떠한 위기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청소년상담기관

들의 경우, 인력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온라인 상담의 한계 및 보완점이 발생하여, 참여율의 저조, 내용 및 질적 수준 하락 등 부정적 변화가 있으나, 다양한 회의체의 경우 비대면 회의로 인해 대상자의 참여도, 효율성의 증가가 확인 되고, 상담 부가서비스 영역에서 대규모 서비스 지원에서 소규모로 내실있게 운영하게 됨으로 유연성 있는 운영능력을 얻었다. 나아가 청소년복지들의 경우, 거리두기를 위한 생활동 수용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 단위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비대면 지원사업이 개발, 진행되었다. 그 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는 비대면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증가와 기관내 화상 상담실, 화상 교육실 등 전용 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언급했다.

### 3) 코로나19 상황에도 인력 및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재정을 확충한 기관의 특징 및 사례

청소년 활동	
1	기업 및 외부 연계사업 등을 진행하여 현장 지원 강화, LG이노텍, 과학창의재단, 잡월드 등 방과후아카데미 정부지원 예산중 일부를 긴급 편성하여 현장에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함.
2	센터는 100%로 정부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다만,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응하면서 진행하였기에 지역 청소년지도자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음.
3	비대면 활동에 따른 학교에 찾아가는 활동으로 운영, 영상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제작으로 영상 및 줌회의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비대면 인증 1회 취득하였고,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으로 교과서 연계함. 여가부, 교육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찾아가는 활동에 대한 운영을 하였고, 2020년 중 교육이 선도적이라 교육청 교사 연수 운영
4	제주지역은 100% 지자체 지원이라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특별히 없지만 공무원지도사와 민간위탁시설간의 임금차이로 힘든 부분이 있으나 간극을 좁히려 노력 중(사례랄건 없지만 지역 특성상 의원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함. 의원들을 만나고 이해시키려 노력중임.
5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않고 폐쇄를 한다면 전국 청소년

	<p>수련활동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서두에 말씀 드린 2020년, 2021년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치단체 산하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페스티벌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청TV(경북청소년TV) 방송국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할 준비를 마쳤으며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올”)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청TV와 접촉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음. 특히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 플랫폼’을 기획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공모한 결과 오는 11월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음. 이 결과는 기업이 독식하던 것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안전 검증을 받아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뿐만 아니라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어 침체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램. 미래 청소년문화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작곡대회, 2024년 프랑스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댄스 대회를 개최 하여 청소년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함.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고용 노동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스스로 작가가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음.</p>
	<p><b>청소년상담</b></p>
6	<p>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상담수요가 비대면 서비스로 집중됨.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과 여가활동 전반에 이용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폭력, 온라인 도박 등의 문제 발생. 이에 적극적인 위기상황을 발굴하기 위한 상담서비스가 필요. 이에 사이버아웃리치 사업을 도입(인력과 예산 확보) 하여 SNS등 통해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예방, 조기개입함.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웹기반 프로그램 ‘인스탑’을 개발하여 대면과 비대면 병합형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p>
7	<p>온·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기존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과 서비스 성과를 내고 있음. 특히 고위기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외부기관 공모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지원이 힘든 영역(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청소년의 자립과 일상생활 복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p>
8	<p>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전자칠판, 마이크, PC, 노트북, 조명, 이어폰, 스마트 tv 등)하여 각종 교육 및 상담의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함. 카운슬러대학, 부모교육, 슈퍼비전, 캘리그래피, 칼럼바, 디지털마스터과정 등 온라인으로 전환 운영함. 상담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문제 및 내방이 어려운 내담자를 위한 심리방역 키트 및 문화체험 활동 키트 제공, 놀이치료, 미술치료, 시간제 동반자 등 파트 상담영역에서도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으로 사례 관리 지속하여 고용유지</p>
9	<p>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은 기존 여가부와 지자체 (5:5) 비율로 단가 4,000원에서 군산시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6,000원으로 단가상승함. 자몽청(스스로 꿈꾸는 청소년)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으로 군산시 100%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6,800만원, 2020년 7,200만원, 2021년 8,2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p>

	<p>하였음.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집단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시 진로직업에 관한 워크북을 제작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또한 비대면 공부방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실시함.</p>
10	<p>비대면 방송실 마련하였음. 코로나 19에 대응한 청소년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적으로 수련관내 상담복지센터 옆 휴게공간 일부에 비대면 방송실로 조성함. 2021년 비대면 방송실 공사 및 집기 구입 22,360,000하여 비대면 상황시 안정적인 송출을 위한 장소를 마련함.</p>
11	<p>본 기관은 100%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변화없이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온라인 접촉을 위한 기자재 등)은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점이 있음. 재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함. 직접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 절약되는 예산을 환경을 정비하는데 쓰고, 향후 예산에도 이러한 환경 정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데 노력함.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게 되니 전화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담사로 하여금 피로도를 느끼게 하기는 하지만 오고가는 시간이 절약됨에 따른 피로감이 적은 경우도 있다.</p>
<b>청소년복지</b>	
12	<p>100% 국고보조를 받고 있으며, 운영기간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시설보완함. 예를들어 온돌방에 침대방, 열감지 카메라 설치하여 예산으로 활용</p>
13	<p>생활보호기관의 인력,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이며, 외부 아웃리치형 사업을 운영하는 일시이동점터의 경우 현재의 변화 트렌드에 맞춰 사이버아웃리치 등으로 주요사업을 전환하여 외부지원 및 발굴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채팅앱이나 온라인 상의 가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업적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있다고 생각됨.</p>
14	<p>생활시설들은 모두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었음. 기존보다 더 많은 손이 필요한 지경임. 외부프로그램들이 제한되어 필수프로그램만 기존 종사자가 운영 함. 후원자분들에게 센터의 소식과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여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들에 공모를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공모처를 발굴 및 연계함. 이를 들어 자립과 관련하여 초록우산 등에 연계하여 주거처 및 월세 및 보증금 등, 자격증(학원비) 취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기관 내 9명의 청소년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용돈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개인 후원처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음. 일부 일시 청소년점터의 경우 건강특화 사업으로 일반 의료지원, 긴급지원(청소년 부모 산후조리 지원, 신생아 가구 물품 지원, 문신제거 지원 등) 형태의 사업을 최근 3년간 외부지원 사업으로 유지하였으며, 그밖에 생활지원을 위한 외부공모 사업을 통해 독립가구 청소년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지원을 지원한 바 있음.</p>

15	매년 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동지극단의 연극공연 '엄마의 바다 2021'을 2개월간 집중 연습하여 8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역지침에 따라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최소인원을 초청하여 공연하였음. 또한 유튜브와 줌으로 공연 생중계를 하여 관람토록 조치를 하였음. 이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단계도 하향하여 '찾아가는 봉사공연'으로 저소득층 할머니들의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공연하였음.
16	유지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 위탁운영기관은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라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의 어려움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태임. 그러나 청소년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후원금의 급감, 재정 확충 행사의 어려움(교육지원사업, 후원회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태임.
<b>청소년보호</b>	
17	별도 재정 확충 없었음. 다만, 프로그램 휴지기가 존재하여 그 예산을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었음 (Ex.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교육 공유시스템 온라인 꿈드림 클래스 운영(공유해 DREAM 사업)해 전국 꿈드림센터에서 개설 운영한 교육 콘텐츠 공유(대입 설명회 등) 및 교육 참여 개방함(타지역 센터 종사자 및 청소년 줌 교육 참여기회 부여), 비대면 직원 교육 전환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청소년 창업지원 플랫폼(스타트업 샌드박스, Startuo Sandbox) 구축하여 민관지원 조사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40개 기관 발굴하여 청소년 창업제품 전국 홍보 및 판매망 구축 지원, 전국 지자체에 청소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독려하고 창업지원 장려금 지급함.
19	재정을 확충한 기관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청이 속한 지역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어 재정이 확충된 지역이 존재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밖청소년 수당적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 대전(학교밖청소년꿈키움수당), 전남(학교밖청소년교육 참여수당)이 그에 해당됨. 충남의 경우 올해 학교밖청소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도민 참여예산제를 통해 신설되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도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내년도는 일몰되는 사업임.

코로나19 상황에도 인력 및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재정을 확충한 기관의 특징 및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재정확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됨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혹 기업 및 외부 연계사업 등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먼저 청소년활동기관의 경우 특히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페스티벌, 청소년작곡대회, 브레이크댄스 대회, 청소년 스스로 작가가 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으로 보였고,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대면과 비대면 병합형 개인상담 웹기반 프로그램 ‘인스탑’을 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청소년복지의 경우 사이버아웃리치 등으로 주요 사업을 전환하여 채팅앱이나 온라인 상의 가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나아가 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공연, 초록우산 등에 연계하여 주거처 및 월세 및 보증금 등, 자격증(학원비)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용돈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개인 후원처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도 교육 공유시스템 온라인 꿈드림 클래스나 청소년 창업지원 플랫폼(스타트업 샌드박스, Startup Sandbox) 구축 등 돋보이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외부적 지원

##### (1) 위기대응에 대한 기관별 대응

청소년 활동	
1	정부 방역단계 및 지침에 의거하여 현장에 내용 안내 및 지침 전달(약 10회 정도)
2	처음에는 방역물품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추후 비대면 프로그램의 욕구가 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법 및 운영방법,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홍보방법 교육,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현 상황에 맞는 현장 지도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협의되었으며, 대응을 하고 있음.
3	기관별 지침과 운영회의 마련으로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항 공유 협조, 시에 위기 대응에 대한 방역 운영, 지원
4	지자체에서 방역 지원, 활동진흥원에서 체온측정기를 지원 해 줌.
5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만 의존하던 예산 지원을 조금이라도 외부 기관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노력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및 각 대학 청소년관련학과,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음.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취소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경상북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추경을 포함하여 2021년 21억3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음.

<b>청소년상담</b>	
6	코로나 상황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으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7	시·도 센터에서 시군구 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지원종사자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역량강화 교육방식의 온라인 전환, 오프라인 병행(구군센터, 청소년유관기관), 지역 내 긴급대응 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가동 및 비상체계로의 전환(온·오프라인 솔루션 회의-구군센터, 교육청, 지자체 등), 청소년 긴급상황 (자살·자해)응급처치 및 자살중재기술훈련 프로그램 지원으로 위기대응 능력향상, 위기교육 시스템 구축(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하여 지역사회내 지역현안 및 이슈화 연구사업(부산지역 긴급대응 매뉴얼 제작-교육청, 경찰청 연계),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및 도박문제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
8	마스크 등 방역용품 지원받음(보건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기도센터 등).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상 카메라, 마이크, 이어폰 등 물품 지원(경기도센터), 학교밖의 경우, 종사자 백신접종, 청소년백신접종 사전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기도상담복지센터)받고 온라인 상담 사전사후 평가지 실시함.
9	군산시는 마스크 홍보물 지원,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비대면 꾸러미(간식)지원, 마스크 및 개인위생용품 지원,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지원, 비대면 대학입시설명회 지원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소독용티슈(건강보험공단), 코로나백신 관련 의약품 제공(대웅제약), 마스크 제공 등임.
10	2020년 2차 실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문제(인터넷과다사용, 흡연, 가정 폭력) 연계방안 협의함. 군청, 경찰서, 교육청, 병원, 상담복지센터의 아동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연합아웃리치 계획, 사례관련 긴밀한 협력함. 2020년 3차 실행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학교폭력 증가, 청소년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하여 경찰서, 학교, 상담복지센터 협력구축, 기관실무자간 위기청소년지도 연계를 활발히 함. 2020년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 간식 배달, 코로나예방 키트 제작배포, 2021년 경남도재단 “ 청소년상담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설명, 중교육 실시함.
11	본 기관은 수련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달되는 예방대책이 모두 수련관으로 내려오게 되고, 본 기관은 수련관에서 마련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음. 다만 센터에 적합한 코로나방역수칙을 내부로 만들어 놓음. 또한 타 기관 및 민간에서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지원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살 수 없었던 센터나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음.
<b>청소년복지</b>	
12	질병관리본부에 종사자 백신 조기접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협조 공문 발송, 방역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등 추진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발생시 신속한 공유와 대응(방역단계별 대응매뉴얼과 관리체계 수립), 용인시 보건소, 119 등 비상연락 체계 유지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사운영 일정 조정 등임.

13	법무부산하 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외부적 지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입소생 상담 등을 위한 소년원 등 보호시설의 출입조차도 어려워져(법무보호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통제 확대 등) 입소생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이었음. 기재부 평가 등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기보다는 단순 입소인원 실적 등을 판단하고 지적 받는 등, 실질적인 지원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14	위기상황 발생시 사례회의등이 이루어지나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 한계를 느낌. 청소년안전망 체계 운영과 협력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15	부산지역 시설장들의 운영방침 논의 및 적용하고 다른 기관과는 협의가 없었음.
16	위기대응에 대해서는 여가부 및 경기도에서 공문을 통해 행정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정도의 협의가 전부임. 특별한 지원보다는 감염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였음. 대안없는 통제가 대상자에게까지 어려움이 전이되는 과정으로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많았음.
<b>청소년보호</b>	
17	인근 보건의료원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협조(주말 가능 등)하고 방역 지침 등 공유, 역 물품 등 지역사회 나눔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외부 자원 연계 지원을 하여 20년 24개 기관 28억원, 21년 25개 기관 30억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교육지원 PC 534대 지원(87개소), 건강식품 지원, 도서관 공간 지원, 장학금 지원, 도서지원, 자녀안심재단 대입 장학금 지원, EBS 검정고시 교재 지원, 국립황성순체원 산림분야 비대면 키트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야별 방문공연 지원, 예술단체 연계 전문강사 지원, 취약계층 관광지원사업, 창업지원, 화장품 지원 위기가정 주거비 지원, 미디어 분야 진로교육 지원, ICT분야 신기술 진로체험 지원 항공우주분야 멘토링사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필품 지원
19	적십자사, 대한노인회, 지역내 사기업 등을 통한 방역용품 지원, 한청원을 통한 의약품, 방역용품, 온라인 서비스 장비 등 지원, 한청원의 권역별 컨설팅을 지원받음, 도내 시군 센터 컨설팅을 지원함, 학교밖 청소년 발굴 관련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OBS 및 줌 사용법 강의 등을 제공, 사업 운영 회의시 온라인 환경에 맞는 사업지원 논의 등임.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의 소질문들, 그중 첫째 ‘위기대응에 대한 기관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복지의 경우 법무부산하 기관은 실질적인 외부적 지원이 거의 없고, 행정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정도의 협의가 전부라고 말할 정도였다. 반면 청소년활동기관이나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는 다양한 방역용품 지원, 물품 지원을 받으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공유, 협업,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는 20년 24개 기관 28억원에서 21년 25개 기관 30억원으로 다양한 외부 자원 연계 지원이 확인되었다.

(2) 위기상황 해소와 관련하여 소통형식

<b>청소년 활동</b>	
1	온라인 및 공문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인트라넷을 통하여 수시로 상황 전달, 일일 돌봄 현황을 파악하고 특이사항 파악, 특히 감염자 발생시 보고체계를 갖추고 대응 하도록 함(감염자 발생 약 6명)
2	초기에는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소통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부족한 소통에 대해서는 소규모(4인 이내, 인근 지역)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각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히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형식과 대면회의를 병행하는 추세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
3	학사일정 및 야외활동 모니터를 통해 대면활동 가능여부 확인, 교육청 - 시청 운영위원 모집으로 의견 수렴, 제안 등 타지역 운영사례 모니터 및 정보교류
4	거의 없음
5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와의 소통 채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정, 제도 등이 미흡하여 현장과의 소통에 애로 사항이 있음. 앞으로 교육계와 여성가족부 등 청소년 관련 부처의 단일화된 민관교육계의 소통 창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장의 소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계와 함께 통합적 교육시스템의 기능을 발휘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b>청소년상담</b>	
6	유선 및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상시 소통 채널 가동, 각 사업별, 지역별 담당자와 밀착 모니터링 가동
7	센터장회의 및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지역현안, 협업 등 현장 소통창구의 정기적 운영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로 청소년 의견수렴, 소통, 정책제안 등임.
8	온라인 센터장 간담회, 온라인 교육 운영 등임.
9	전라북도상담센터협의회를 통해 센터 간 소통 활성화함. 꿈드림의 경우 지역거점(전라북도꿈드림)센터를 활용한 소통이 이루어짐. 기존의 전달체계를 통한 신속한 사업 수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알림방 전체 공지함. 꿈드림의 경우 전북지역 꿈드림 센터 실무자 단체 채팅방 활용 소통

10	거창군 안전망은 대면으로 시행함(방역절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실시), 경남 청소년지원재단은 비대면
11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만날 때에는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함. 오히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 대면으로 할 때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적어지는 것 같음.
<b>청소년복지</b>	
12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신속한 대응(보건소 등 유관기관 등)하여 상황 발생시 분리 후 즉시 유관기관 협의,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 실시 등임.
13	관련 정책당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축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주로는 전화 등 온라인상으로 업무소통이 이뤄졌으며, 오프라인 회의 등은 매우 축소하여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음. 이사회와 같은 주요 회의 역시 온라인(줌 등) 방식으로 소통되었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음.
14	지자체별로 어떤 담당자가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됨. 쉼터는 위탁에 대한 법령 해석이 달라 전국적으로 절반정도는 민간위탁, 절반정도는 신고시설로 운영 되는데, 일부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용도 변경이 경직돼 있어 마스크 구입비가 부족했고, 청소년들의 쉼터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비 등 주부식비가 부족해졌으나 더 이상 지자체의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경 예산도 불가했음. 일부시설은 신고시설임에도 추경예산 편성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음. 결국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짐. 일시쉼터의 경우, 실무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합 아웃리치 형식을 사이버 공간 등 시간대에 접속 연계활동을 위한 노력을 제안, 형식적인 통합사례회의가 되지 않도록 가구사례 사례관리 발생 시 마다 연계하여 청소년동반자 활용 안내에 적극 연락 소통함.
15	전화 또는 단체채팅, 줌 회의
16	특별한 예로 백신접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은 우선순위로 접종을 진행하였으나 청소년복지는 각 시군구에 지침이 없어 나이순서 또는 대상자별로 접종을 하던중 중앙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사례가 있음. 위기상황에서 지시와 지도는 있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약한 것으로 보여짐. 상호 소통을 원함.
<b>청소년보호</b>	
17	온라인 화상 회의 증가함(대면 회의 최소화).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시도센터 팀장회의 정례화(분기별 1회),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회의 신설(연 2회), 긴밀한 정책 협의 강화, 여가부, 개발원, 센터 간에 수시로 줌 회의 개최
19	줌 회의 운영, 자료 분석을 통한 대응방법 모색 및 컨설팅 지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의 소질문들 중 둘째 ‘위기상황 해소와 관련하여 소통형식’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먼저 청소년활동 기관들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형식과 대면회의를 병행하는 추세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여성가족부 등 청소년 관련 부처의 단일화된 민·관·교육계의 소통창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장의 소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복지들의 경우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온라인상으로 업무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절하고 충분한 상호 소통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청소년상담기관들의 경우는 유선 및 온라인을 기반으로 상시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소통창구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도협 의회를 통해 센터 간 소통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그 외 청소년보호시설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는 통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 여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의 소질문들 중 셋째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 여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기관간 네 영역을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중앙부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청소년 기관들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도 위기단계별 센터운영 지침이 제공되나, 신속하고 통일된 지침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아가 의견을 수렴해도 형식적인 수렴이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① 중앙부처

청소년 활동	
1	중대본의 시행에 따른 지자체 승부
2	별도의 대책 시행 없음.
3	수련원 민간 지원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5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침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음. 대구시교육청 소속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이 기관의 공적 업무에 해당되어 인원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시설에 대한 지침 적용을 확실화시킬 수 있도록 함.
청소년상담	
6	각 사업별 코로나 단계별 지침 마련
7	현장에서의 필요성 인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 소통 예산의 매칭, 의사소통 창구, 전달 및 피드백 순환 구조
8	위기단계별 센터운영 지침 제공
10	없었음.
청소년복지	
12	현장 점검(차관), 주간 업무보고 및 상황 발생시 수시 보고체계 유지
13	사건발생시나 중앙에서의 상황변경시 지속적인 매뉴얼 및 조치 사항 등이 배포되었으며, 현장에서의 대응방식에 대한 대안 및 매뉴얼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음.
14	의견을 묻는다고 해도 형식적인 수렴이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음.
15	없음.
16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한발 앞선 행정지시를 원함. 백신접종과 4단계에서 행동지침등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 후 지속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행위가 필요함.
청소년보호	
17	방역 지침 제정함.
학교밖청소년지원	
18	신속한 방역 대책 마련 및 보급
19	방역 지침 전달, 코로나백신 등 청소년과 종사자의 권리확보(질병청과 소통)

## ②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활동	
1	중대본 시해에 따라 지자체 별도의 지침 시행함
2	방역지침 시달, 사업계획 변경시 빠르게 진행함.
3	중앙정부에 지원이 없으니 지자체는 근거가 없음.

<b>청소년상담</b>	
6	행안부 및 지자체별 코로나 지침 마련 및 기관 모니터링
7	현장에서의 현안 사업반영(ex. 상담자 소진관련 사업계획)예산확보 및 반영, 공감대 형성
8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공
10	고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예외상황 결재후 시행함
11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내용대로 시행
<b>청소년복지</b>	
13	법무부 산하기관이기에 지자체와의 소통 등이 잘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지자체의 형식적이거나 기본 업무적인 내용 등이 배포되고 업무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 소독도구 등의 임대나 활용 등의 사안 등을 요청시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음.
14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노인과 장애인분야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지방비가 추가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구조가 특징이지만, 시설입소청소년이 전국구이고 투표권도 거의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함.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부분(학교를 안가고 시설에 있으니 주부식비가 증가한다던지, 외출을 못하니 시설내에서 즐길거리를 구비한다던지, 정신과적인 문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던지)을 제안해도 예산 전용이 어렵거나 추가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역 다수 발생함.
15	단계에 다른 방역지침 공문수령
16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기관에 변경된 예산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이 필요함.
<b>청소년보호</b>	
17	방역 관리 수행 : 코로나 19 검사 등 조치 수행 협조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시설 방역 지원
19	방역 지침 전달, 세상소통카드 사용확대 검토 및 승인.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프로그램 사업비 확보

다음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 여부'에서 청소년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 전달, 시설 방역 지원 등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그 외 특별한 지원은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 상담자 소진관련 사업계획 등 현장에서의 현안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및 반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경우가 확인되었다. 그 외 예산 집행관련 사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경우가 있었다.

### ③ 중앙기관

청소년 활동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은 의견수렴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컨설팅 실시, 온라인 설문지 배포를 통한 의견 수렴, 시행여부는 방역물품 지원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등임.
2	방역지침 시달, 방역물품 지원
3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및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함.
청소년상담	
6	중앙부처와 행안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모든 사업에서 청소년 및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운영형태를 정함.
7	위기대응현장 대응시 상담자 소진 발생, 지역 현황 및 의견수렴 및 대응,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관계유지 현장과의 가교역할함.
8	방역물품 제공
10	상담복지센터 위기대응 지침을 안내함.
청소년복지	
13	법무부의 협회 본부와 지역기관과의 지속적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사건 발생시의 보고 및 대처 등의 공동대응은 잘 이뤄진 것으로 보여짐.
14	중앙기관 역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 마스크지원1회정도에 그침.
청소년보호	
17	방역물품 전달
학교밖청소년지원	
18	매주간 휴관 현황 조사, 민간 자원 발굴 지원(30억원)
19	컨설팅 및 코로나19관련 상시적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백신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전달,대기업 및 중앙급 자원 발굴 및 전달(방역용품,약품,교재 등등)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청소년기관들이 중앙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역시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역 관련한 것들이었음, 공동대응이나 소통 관련해서는 전체나 대부분이 아니라 소수의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④ 기관간

청소년 활동	
2	설문, 온라인 회의, 소규모 대면회의, 단독면담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3	기관들 끼리 잘된 사례 및 모니터 지역 환경에 맞게 운영 및 준비
4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및 비대면 교류 시도 및 메타버스 활성화

청소년 상담	
6	기관간 협의 등은 온라인으로 상시 소통하고 협의함.
7	현장 대응상황과 현황,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필요사항 공유 및 논의
8	위기상황 프로그램 운영 공유
9	실행위원회 등 주요 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요 청소년 기관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 노력
10	청소년안전망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함.
11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달된 내용에 부합되게 대책을 세우고 시행함.
청소년복지	
1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어려움 파악과 지원 방안 모색 등임(온라인 상담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13	사건발생과 대안마련을 위해 의견조율과 관련 내용 배포 등 서로간의 내용 보안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14	다수가 이용시설이다 보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협조가 어려움구조가 매우 많음.
15	단계에 따른 지역 회복지원 시설간 지침 논의
청소년보호	
17	의견 없음.
학교밖청소년지원	
18	시도팀장 회의 등 운영
19	서비스 대상 및 자원간 연결하고 사업 운영 방향 컨설팅 및 운영 상황 파악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 여부’에 관한 기관간 상호 관계에 대해 청소년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공유, 협의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생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5)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대응시에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

### (1) 중앙부처

청소년 활동	
1	일관된 지침 시행 및 빠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람.
2	활동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 확충으로 현장 지도자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고용노동부와 같이 여가부도 민간 수련시설 고용에 대한 안정 및 지원
4	혼란이 생기지 않게 운영매뉴얼이 있었으면 함.
5	각 부처별 상이한 대응체계를 현장에 맞도록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지침에 근거한 운영지도안 마련
<b>청소년상담</b>	
6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지침 마련
7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기관 간 중앙부처가 상이, 상황발생시 소관 부처에 따라 세부적 매뉴얼 유무가 존재하여,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현장에서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8	위기상황별 대응 지침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백신접종, 센터출입 등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차별적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9	대면 상담에 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담과 프로그램의 경우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 시스템 적용 필요
10	청소년시설 지도자의 예방접종이 일반교사처럼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1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정보 제시
<b>청소년복지</b>	
12	아동청소년 청소년 근접 돌봄지도자에 대해 백신 접종 등 우선적인 지원
13	사업 특성에 맞춰 평가 등의 내용 조정 및 예산 배분 등이 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희망함. 법무부 산하기관의 경우, 실적여부에 따라 예산 배분이 축소하여 집행되기도 함.
14	전달체계 등 기구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부처 간 협력,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길 바램. 중앙방역당국의 지침 등 생활에 대한 대응요령을 청소년복지 현장에 맞게 수정 적용하여 현장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원들의 업무와 무방비상태로 안전에 노출된 부분, 직원들의 심리소진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상담 늘려라', '심층상담 하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16	청소년복지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기관 대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음.(백신 접종 등) 청소년 복지기관도 사회복지 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b>청소년보호</b>	
17	상황에 따른 유기적 대응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신속한 방역 지침 시달 / 방역 지침의 융통성 있는 개정 필요함.
19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함.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적 서비스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수정
20	국가재난대응체계에 준하는 부처합동 청소년위기대응체계 구축(합동본부:여가부), 체계내 실제 가동을 위한 실질적 예산 지원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대응시에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 관련 질의에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신속한,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지침 시행 및 빠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외 환경에 맞는 평가 시스템 적용,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해줄 것을 언급했다.

##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활동	
1	일관된 지침 시행 및 빠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주시바람.
2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음.
3	현장 방문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 방과 청소년들 운영 등, 자체 예산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려 대처 할수 있도록 마련
4	방역지침 단계에 따른 기준이 명확 했으면... 방역지침 발표할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지도관리 권한은 있으나 기관 운영의 방향은 자율성에 맡겨 운영토록 지원이 필요함.
5	감염 및 확산에 대한 면피성 책임전가 보다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청소년활동은 기관 고유의 목적사업을 감안할 때 이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보호체계 마련 시급
청소년상담	
6	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공동책임 대응
7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연간 계획되어진 사업대로 진행하기에 시스템이 제한적임. 변화된 현장 상황에 능동적·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변화가 요구됨.
8	변화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출의 융통성 확보
9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10	지역내 감염관련 발빠른 대응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외상황 인정하고 바라는 점은 고위기상황에서 탄력근무, 재택근무가 유연했으면 함.
11	보다 적극적인 행정 실현
청소년복지	
12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내자료 배포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14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복지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하기를 바람.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편차를 두지 말고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
15	획일적인 지침이나 적용보다는 기관에 따른 차별화

청소년보호	
17	상황에 따른 유기적 대응
학교밖청소년지원	
18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스마트 기기 및 시설 구축 지원(AI 장비 및 스마트 기기 구입 지원, 화상 시스템 구축), 청소년 수당 등 지급 확대(교육청 수준으로)
19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 내역을 유연히 변경함. 집단적 숙박형 프로그램을 일몰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사업환경 전환 혹은 개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환경이 열악하여지지 않도록 예산확보
20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청소년안전망팀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체계 운영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대응시에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 관련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신속한,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지침 시행 및 빠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현장상황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과 공유할 것, 그에 따른 현장 중심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외 운영의 자율성, 현장과 긴밀한 소통, 변화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언급했다.

### (3) 중앙기관

청소년 활동	
1	기관과 정부기관에 매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함. 특히 현장의 애로사항등을 잘 전달해야함.
2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나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중앙정부나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적 오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면 함.
3	비대면 활동에 대한 제안 예시가 필요하나 그런 역할이 필요
5	기관 및 종사자 상황별 대처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실시, 현장요구에 능동적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	
6	현장에서 사업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상시모니터링,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콘텐츠 개발
7	현장에서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매뉴얼 보급 및 표준화가 필요함.
8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및 활용프로그램, 기기 등 신속하게 보급

10	성과는 위기상황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을 지도함, 다양한 비대면 교육하였고 바라는점은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제적 지도 방법교육
11	타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b>청소년복지</b>	
13	법무부 산하기관의 경우 근본적으로 법무부 중앙관리 보다는 지자체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과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됨. 여가부의 쉼터나 청소년시설과 같은 방식의 운영체계가 필요함.
14	청소년상담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 복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세심한 이해와 업무연결이 필요함. 현장의 어려움 등 온도감을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기를 바람.
16	코로나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간편키트, 방역물품 등)
<b>청소년보호</b>	
17	현장의 어려움 파악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민간자원 발굴 확대 및 사업실적 인정기준 완화
19	시의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상시적 대응체계로 관리하여 서비스 누수를 최소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지역센터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소통방식의 모델링을 제시함.
20	중앙부처 합동 청소년위기대응체계 참여 및 정책개발 참여, 통합정보망 운영 및 성과관리 지역별 청소년위기 대응 사업 컨설팅, 각종 시의적절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원 개입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대응시에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 관련 질의에서 중앙기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현장 중심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4) 기관간

<b>청소년 활동</b>	
1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을 준수하고 참가 청소년들이 혼란이 없도록 대처해야함.
2	상호간 우수사례 혹은 발전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 였으면 함. 필요하면 기관 연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에 촉구할 수 있었으면 함.
3	또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하여 잘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5	소통체계 구축으로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 소통력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b>청소년상담</b>	
6	기관간 연계체계를 갖추고 상황별 협조체계 구축 및 실행
7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기관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통된 의견, 문제점 등이 도출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 및 필요한 상황들을 추진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상황별 대처전략 공유 등
10	비행청소년관련 협력이 잘 이루어짐
11	정보 공유
<b>청소년복지</b>	
12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한 벤치마킹 활성화
14	기관 상호 간 청소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소통 대응방식에 집중할 것을 요청함. 청소년 현재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적극적인 사례 예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 위기상황과 위기청소년 발생시 생각처럼 네트워킹이 잘 되지 않고, 어느 한 기관에 이양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생활시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원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식의 소통이 지양되어야 함. 아동학대 긴급분리제도 실시 이후, 초기 경찰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늘어났을 때처럼 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자리만 있으면 입소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고 알아 가는 과정이 또 생겨남. 아동과 청소년 나이가 혼재되어 있으니 아동학대업무에 청소년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정확한 업무구조나 논의에도 포함되어야 함.
16	코로나로 인해 변동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공유 활성화(현재 기관별 별도 확인 진행)
<b>청소년보호</b>	
17	정보 공유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키트 등 긴급생계 지원 / 활동 및 교육 등 프로그램 공유
19	자원의 연결의 활성화됨.
20	위기청소년 정보공유 및 연계 적극 협조, 정보공유의 핵심역할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지역별 협의체 적극 참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지원에 자원 우선 배정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대응시에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 관련 질의에서 기관간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청소년활동기관들 상호간 우수사례 혹은 발전사례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기관간 연계체계 및 상황별 협조체계 구축 및 실행을 제안하였다.

##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

### (1) 법적, 제도적 지원 노력

청소년 활동	
1	비상상황화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개념의 재정립과 현장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함.
2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및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해야 함.
3	민간 수련원에 대한 고용의 지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4	어려움이 있어도 상호작용이 있는 실제로 무언가를 해 보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
5	청소년수련활동은 기존 관습처럼 진행해 온 초등 5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으로 편성하지 말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즉, 수련활동에 대하여 범위를 특정할 것이 아니라 초, 중, 고등별 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초, 중, 고등별 1회씩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무적인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
청소년상담	
6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른 이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7	다양한 청소년과 기관별 요구와 특성을 반영, 미디어·디지털 환경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됨.
8	청소년지원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촘촘한 법적근거 마련. 위기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들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건강한 인성함양, 정신건강 케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9	위기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법제화.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일원화 조속히 실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중심의 사례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실행되는 것 필요
10	축법소년 비행문제, 학교폭력 특별교육(부모교육)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 매뉴얼 개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무설치, 상담요구에 따른 상담사 인력지원, 교육 매뉴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단체의 활동 인정 범위 확대
11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 예를들어 교육과정에 진로교육과 같이 상담시간을 의무로 배정해 둔다던가 등,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카페(자립) 조성, 초기, 후기 청소년에 대한 정책 지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소년을 참여 시킴으로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b>청소년복지</b>	
12	아동청소년의 돌봄이 어려워지는 경우 일·가정양립의 공백과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의료진 이상으로 교사 및 아동청소년 근접돌봄 지도자의 예방백신 우선 접종 등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정난이 심각한 민간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지원, 저금리 특별 대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책적 지원 필요
13	코로나19와 같은 심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특히 생활보호기관의 경우 평시와 다른 방식의 평가와 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됨. 청소년생활 보호기관을 제외한 청소년센터 등의 경우역시, 자립형 시설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확보가 필요함.
14	국가 재난 상황과 같은 영역의 어려움이 발생 할 때, 청소년 대상이 매회 누락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요청.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 효율적 정책 설계 및 효과적 전달체계 등을 위한 부서의 일원화. 먼저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 설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기적인 욕구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부처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설계와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어렵다고 생각됨. 현재의 부처 등에 대한 조율이 어렵다고 하면, 정기적인 범정부차원의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금번과 같은 코로나 시국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면 함. 여가부는 현장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함. 지방비를 50%이상 편성하라고 하면 50%만 편성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그렇게는 운영자체가 어려움. 지역이동이 있는 생활 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자체에 시설 설치를 계속 해야 함.
15	학습의욕이 약하거나 부진한 청소년을 위한 대책
16	청소년복지지원법이 후기청소년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 영역을 삽입해주시길 바람.
<b>청소년보호</b>	
17	비대면(비등교) 원격 수업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필요함. 예를 들어 방역 물품 지원,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 지원 등임.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학교밖 청소년 지속 증가 상황임.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 발굴(정보 연계)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초중교 의무교육단계 청소년 의무화되어 있으나, 강제 규정으로 추가 개정 필요. 정보연계 대상을 고교 연령까지 확대 필요, 전국 지자체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필요(현재 80% 수준 제정 완료), 시군구 별 미설치 지자체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필요(특히 대전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독립된 학교밖청소년지원 운영 필요(업무 과중으로 인해 센터장 겸직 등 해소 필요)

19	학교 밖 청소년 정보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검진, 코로나백신접종 등 사회적 서비스 안내를 위해)
20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법 적극 개정, 유해매체관련,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청소년활동 관련, 청소년보호관련 등임. 자녀인터넷코칭지원센터 설립, 청소년안전망 전국 확대 및 지자체 안착

일차적으로 응답자들 다수가 복지, 보호, 활동, 상담의 청소년 전 영역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 나아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6~18세)과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9~24세)의 지원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문제를 해소할 법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 공통적으로 응답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심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교사 및 아동 청소년 근접돌봄 지도자의 예방백신 우선 접종 등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현재 법적, 제도적 지원이 대상자인 청소년 중심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종사자 역시 고려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결국 청소년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설계 및 효과적 전달체계 등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응답자들 다수가 적절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다양한 청소년과 기관별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영역별로 보면 청소년 활동의 경우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의 경우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중심의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조속히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밖 청소년 발굴(정보 연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의(현재 80% 수준 제정 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 은둔형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 발굴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2) 청소년정책의 변화 양상

<b>청소년 활동</b>	
1	비대면 사회에 신속 대처하고 사회변화와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현상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발빠른 정책적 대처가 필요함. 전통적인 청소년정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움.
2	단순한 일상에서의 어려움(스트레스해소 등)을 탈피하여 거시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특히, 이제는 환경과 기후 등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의 정책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되고 있음.
3	청소년 나이대 재개념화 18세까지 아동, 9~24세 청소년 19~34세 청년, 청소년이지만 타 생애주기 중복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연령의 재정립
4	청소년정책이 다양한 방면에 녹아 있을 수 있도록...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협업 (청소년정책위원회의 활성화)
5	위기 청소년 대응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청소년활동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현재 청소년정책은 위기 청소년 그리고 상담 활동에만 치우쳐 있으며 청소년활동 분야에는 소홀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위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소외된 지방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청소년정책의 수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함.
<b>청소년상담</b>	
6	위기청소년에 일상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상담지원정책과 일반청소년의 심·신의 건강을 위한 정책 필요
7	최근 온라인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상용화로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짐.
8	청소년 정책추진 및 강화를 위한 독립된 청소년국 설치, 학교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여건 조성(현재 공공 청소년기관 활동까지도 제약 받고 있는 상황임)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의 경향성의 변화(온라인 소통,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회피 등), 세월호이후 탐험 활동 등의 축소 등으로 청소년의 대외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 탐험과 도전을 이을 끌어내는 모험활동의 기회도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학교밖청소년의 직업훈련과정확대가 필요. 적은 수의 학교밖청소년의 직업훈련도 지원 가능한 인프라 필요, 최소인원을 맞추지 못한 시군에서 직업훈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11	온오프라인 활동 및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예측 능력 그리고 자치분권화에 따른 학교 자치 등임.
<b>청소년복지</b>	
12	포스트 코로나 이전부터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온라인 수업, 상담프로그램, 활동키트를 이용한 활동프로그램 등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도자들의 디지털 중심의 청소년활동 수행역량과 청소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개발 절실, 반면에 또래와의 관계도 온라인 게임 등으로 연계되면서

	중요한 성장기에 대인관계 기술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과 대면프로그램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소규모 단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상호 간 연대와 협력,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변화 필요
13	오프라인을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있는 청소년관련 활동 등에 대해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감안하여 시설과 사업 모두 변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됨.
14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부처에서 예산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함. 청소년전담 부처 또는 행정전담 기관을 두고 청소년 예산 및 사업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붕개선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함. 현재 자립정착금이 '퇴소청소년'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퇴소를 해야 자립정착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결국 자립정착금을 보증금삼아 집을 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고시원 등으로 자립하여 퇴소하고 퇴소이후 자립정착금을 받아서 입소 정원 외 청소년을 위해 방을 구하는 등의 강도 높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이 필요함. 2021년부터 신설된 자립지원사업비의 사용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함. 현재 자립훈련비, 대학등록금 첫1회만 가능하며 1인 50만원 제한이라 활용도나 낮음. 실제 자립할 때 필요한 기자재 구입등으로 활용영역이 넓어져야 함.
15	오프라인과 온라인 청소년정책의 시도
16	청소년복지의 개체수 증가에서 질적인 지원을 요구함. 정책적인 방향이 양에서 질로 가야합니다. 개소당 실제적인 개소당가를 산출하여 청소년지도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함. 대상자 중심에서 종사자 복지중심으로 가야함. 더 이상의 헌신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청소년현장에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음.
<b>청소년보호</b>	
17	의견 없음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메타버스 기반 사업 추진 필요, 메타버스 기반 학교밖청소년지원 운영(청소년 정책 전반으로 확대 필요), 온라인 학교밖청소년지원 운영(APP)
19	청소년 정책은 개별화되고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향후 정책 추진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를 소외되는 사람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공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선택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정책의 변화 양상에 맞춰 개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도성 및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공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함.
20	보호의 대상만으로 보기보다는 보호와 더불어 참여의 주체임을 명문화, 더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MZ세대 특성과 어우러져 거세질 가능성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임.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수를 늘리는 작업보다 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지도자들의 디지털 중심의 수행역량과 청소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성은 그러나 대면 프로그램의 약 50%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중심의 청소년 활동과 함께 대면 활동도 강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 활성화, 최첨단 시설 공유 및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례로 수련 시설 등의 용도도, 다양한 각도의 소규모 단위 치유 캠프 등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청소년 정책추진 및 강화를 위한 독립된 청소년국 설치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그리고 환경과 기후 등 거시적 차원으로의 청소년 정책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 청소년 복지, 보호, 상담, 활동 모든 영역의 균등한 관심 필요하고, 도시만이 아니라 소외된 지방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청소년시설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

청소년 활동	
1	청소년시설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을 재정의 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중심의 시설로 변화해야 하며 경쟁적인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니라 주도적이면서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함.
2	현재까지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거시적 정책을 밑바탕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제는 단순 체험보다는 체험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3	공간과 시간을 뛰어 넘는 시대가 되었고 굳이 청소년기관까지 방문해가면서 체험할 경쟁력이 없어짐 수련시설보다 학교시설이 좋아 오지 않음. 그래서 청소년자유공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을 청소년수련시설중 하나로 추가하여 청소년자유공간에 배치하여 생활밀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4	시설을 공간으로만 한정 짓지 않았으면... 그리고 수련시설 설치 기준을 지역에 맞게 설치가 가능했으면 함.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시설 내부의 공간은 자율적이게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 생각함.

5	자연권 청소년시설은 대단위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실정임. 소수 학급 단위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지원과 최첨단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되어야 함.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남아 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왜 예산을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수련활동에 투입하지 않는지 궁금함.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함.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중앙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즉, 실행할 수 있는 고품질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b>청소년상담</b>	
6	집합, 대면상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하며, 온오프라인 병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
7	기존의 집단 및 대면 서비스 지원에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인공지능(AI) 앱기반 활용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 참가자들의 시·공간적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참여 기회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8	독립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시설의 목적에 따른 전문성 강화(활동, 심리복지, 보호 등등). 원스톱 형태로 추진되어 가는 형태이다보니 각 영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역이 생김. 온라인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운영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양이 아닌 질적인 서비스 증대 방안 강구
9	비대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화상 상담 및 온라인 상담실 개설
10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11	고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11	온오프라인에 따른 소통 창구 마련. 비대면 상담에 대한 효과 및 개입 방안 마련하여 기관의 역할 정립
<b>청소년복지</b>	
12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청소년시설들의 규모는 줄이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련시설은 대규모 활동을 지양하고 개선을 통해 치유재활 프로그램 등을 가미한 소규모 단위 치유캠프 등이 활성화 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13	앞서 언급한 온라인 비대면 활동의 확대와 필연적 수용을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4	청소년정책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지붕 밑에 청소년시설이 분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발달 단계에서의 여러 지원 정책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행정제도 기관의 변화 속에 청소년시설의 재배치 등 구조변화가 필요함. 개인이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다 보면 시설수도 늘어나기 힘들고 열악한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음. 전국 일관화된 시설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함.
15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자가 격리나 여유있는 공간 확보, 온라인수업환경 마련
<b>청소년보호</b>	
17	단위 시설별 특성화, 전문화 강화 추진 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	
18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시설 환경 구축 필요(전용 공간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 필요, 은둔형 청소년 발굴 강화를 앱개발 필요, 위기 청소년 발굴 시스템 강화 학교밖청소년은 기존은 교육청, 경찰청에서 21년은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9	서비스 대상자가 상시적으로 머무르고, 정원이 정해진 학교와 달리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정해지지 않고, 법적 기준 역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므로, 공간이 지니는 매력이 약함.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지와 서비스 비용 지출이 어려운 대상층임을 감안하여 접근성 및 시설 이용의 매력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공공인력(노인일자리 창출)을 활용한 시설 방역 강화 노력도 필요
20	기관별 전문영역을 더욱 확실하게 정립한 후 이를 연계하는 것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상담복지, 수련관(문화의집), 학교밖 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관, 위센터, 청소년생활지원관 등임.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은 온라인 비대면 활동의 확대와 필연적 수용을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시설과 장비, 비대면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시설의 규모는 줄이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 병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외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청소년시설로의 전환 필요성,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4)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성

청소년 활동	
1	전달체계는 긴급성, 직접성, 슬림화하여 현장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항상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2	의견 없음. 지방이양으로 활동진흥센터들의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전달체계가 있지만 중앙-도-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료 조사에 대한 요청자료가 너무 많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체감온도 부족
5	기존의 전달 체계는 개인 간의 의견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음. 아무리 훌륭한 제안이 있어도 실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관에 제안하기 보다는 중앙 청소년관련 부처 개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부처에 의견 수렴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b>청소년상담</b>	
6	청소년 분야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또한 상담, 활동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한 사업과 진화된 전달체계가 필요함.
7	중앙부처, 관할 시도단위 각 특성에 맞는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인터넷 미디어 예방해소사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과 관련된 부처가 산발적이라 중앙차원에서의 협의기구가 필요해 보임. 관할 시도 단위 차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시설에서 기관의 운영 목적에 맞게 치료, 예방 지원 활성화 등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아닌 청소년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설 정례화 및 약간의 구속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 및 기회 마련 증대. (지자체 및 중앙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마련)
9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등을 상시적 회의체로 전환시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센터,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와 같은 대표적 청소년안전망 사업 기관들의 상시적 회의체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공유
10	현재 시군구- 시도- 중앙부처의 의사전달체계가 현 시군구의 상황전달에 미흡하다. 시군구의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의사전달체계의 구성이 필요
11	청소년의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열린 창구 이용
<b>청소년복지</b>	
12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시설기관 합동회의 등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시설과 기관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종합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정보공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3	청소년생활보호 활동의 경우 사이버아웃리치나, 치료형체계, 사후지원 등의 시스템적 연결망을 갖출 수 있는 중간단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며, 일정부분 중앙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광역시도단위 정도의 시스템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14	전달체계는 청소년부처 산하 중앙전달기구 등의 형태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상담의 영역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보호	
17	특성화된 기관, 시설 구축, 학교와 시설간 연계 시스템 구축(교육부 협조)
학교밖청소년지원	
18	청소년 정책 전반의 전달체계의 공공화 필요함.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을 민간 위탁 사업이 아닌 직영 운영 필요, 기금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청소년사업 전체)
19	현재 구성된 기초지자체 - 광역 - 중앙기구를 세분화하여 기초지자체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하고, 광역 (시, 도)를 분류하여 비슷한 유형안에서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한 회의체계 운영 및 컨설팅을 강화, 광역센터의 기능을 체계화하여 방향 설정이 필요
20	새로 구성하기 보다는 지자체별로 설립중인 청소년안전망팀 활용하면 국가-광역-기초 전달체계 자동 확립된다고 생각함.

응답자들 다수는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시설기관 합동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시설과 기관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종합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정보공유,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일관화 된 시설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현재 시군구- 시도- 중앙부처의 의사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등을 상시적 회의체로 전환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7) 청소년의 미래 욕구를 반영한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핵심 내용

청소년 활동	
1	변화하는 사회와 청소년들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생활과 삶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뒤따라가는 한발 늦은 정책의 시행은 신뢰와 참여를 위축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 하고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함.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고 코로나 시대에 대비 하고 미래역량을 자기 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의 청소년의 위치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청소년의 무한 한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필요함 더 이상 시켜서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적 이슈와 글로벌 문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활동이 되도록 했으면 함(기후환경, 탄소 중립 등).
2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전환, 청소년참여와 사회생활,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확충(공공, 민간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 가치관 교육
3	지역사회 참여활동활성화와 학교와의 연계운영으로 청소년활동이 교과 교육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읍면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보다 자유공간 설치로 슬립하고 유동적일 수 있도록 마련이 필요함.
4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알아서 찾아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도덕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5	코로나 19로 극심해진 교육양극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육성, 소득, 가족구성원의 결핍, 교육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구제 방안,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률 급증 및 또래 간의 소통 강화 정책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리 추구 및 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역량 극대화 필요
<b>청소년상담</b>	
6	청소년인구수의 감소, 위기청소년의 증가를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탄탄한 운영을 위한 자원과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느냐 할 것으로 보임.
7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환경 구축 및 활성화, 코로나 발생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청소년들은 다양한 세상을 체험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집단단위 대규모 행사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미디어 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 후기 청소년 시기는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취업 좌절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 사회적 편견, 자아정체성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자립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분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후기 청소년 직업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제도 마련(인턴십 등). 코로나로 인한 공동체 경험 및 사회적 교류 결핍문제에 대한 경험제공. 학습격차 간극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연구, 심리서비스제공 전문화 및 독립영역확보. 글로벌의식 함양 확대(인터넷상 전세계 매체 접근 수월, 지역 내 외국인과의 접촉 및 교류 기회 증대)
9	청소년의 정치 역량 강화, 공동체성의 회복, 로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으나 한편으로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적 철학을 반영한 인문학적 소양 강화 필요

10	z세대와 알파세대의 진로 교육,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 우울증, 불안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부적응문제를 위한 힘기르기
11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둔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화 마련. 진로교육 유사 학교 내 상담교육 시간 의무화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시간 보장 등 가치나 직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예측 및 대처 능력 함양.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권 교육. 사유와 성찰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b>청소년복지</b>	
12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및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언택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 즉,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휴먼터치역량으로, 이를 청소년 복지시설 지도사의 고유한 능력으로 설정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필요. 디지털 청소년 활동이 확대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계층, 학교밖 청소년 등의 차별이나 격차 최소화
13	현재 아동과 청년, 교육과 활동, 보호와 복지, 법무보호 등 밀접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업무 등에 대한 연계와 통합에 대한 주요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자립이라는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후기청소년과 청년이슈의 통합적 접근과 아동보호와 청소년복지 등의 이슈의 구분에 대한 고민 지점 등이 큰 틀에서 다루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14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 등 모든 과정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됨. 정책참여 등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 현재 국내외적으로 뉴노멀 및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됨. 이에 '글로벌 리더'로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메타도구'(AI, 나노기술 등)를 활용 역량 등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시설 입소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쉼어하우스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 청소년지도자들이 생활지도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청소년들에게 개별 독립생활의 기회를 주어야 함.
15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16	가정밖청소년 중 자립준비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체계 수립, 2021년 7월 28일 합의한 정책논의에 현실화를 위한 법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
<b>청소년보호</b>	
17	사회적/법적 규제의 명확화와 책임성 강화. 청소년 개인의 참여 다양성 확보
<b>학교밖청소년지원</b>	
18	메타버스 기반 청소년정책 추진 선도 및 투자, 청소년 활동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등) 리모델링 필요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시설 구축), 청소년이 원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제공(상담, 복지, 활동 등 전 분야), 지구 환경문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리기 운동 등 선도(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동아리 운영 등)

19	학교밖청소년 권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시설 환경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 개선 및 신고 플랫폼 개발, 학교 밖 청소년의 공정과 공평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서비스 정보접근성 강화(국가관리 체계망 구축)
20	청소년 보호, 청소년 참여, 청소년 자립이라는 세가지 키워드 확립이 필요함. 전기9-13세(보호), 중고연령13-18(참여), 후기19-24(자립). 청소년정책이 다분히 13-18에 맞추어진 경향이 있음. 전기와 후기 청소년에 대한 대안 마련 시급. 만약 타부처(고용부,법무부,교육부,복지부)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 근데... 문제는 실행력이 중요함.

응답자들은 현재 교육과 활동, 보호와 복지, 상담 등 밀접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업무 등에 대한 연계와 통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있어 청소년들이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적 이슈와 지구 환경문제 등 글로벌 문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환경 구축 및 활성화의 필연성과 함께, 고도화된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 즉,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휴먼터치역량을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고유한 능력으로 설정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소득, 가족 구성원의 결핍, 교육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 소외계층의 차별이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인성과 인권 등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역량 강화와 관련 기준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개별 영역에서 진로교육과 유사하게 학교 내 상담교육 시간 의무화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시간 보장 등 특히 여럿이 후기 청소년 직업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제도 마련(인턴십 등)의 필요성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경우 교과 교육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8) 뉴노멀(New Normal)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청소년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미래 운영시스템 선진화 및 표준화 내용

청소년 활동	
1	무엇보다도 가상세계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메타버스 등의 활용이 청소년역량에 미치는 연구들도 이루어져야함. 청소년활동을 위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디지털 리더러시와 같은 빠르게 다가오는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함. “청소년활동은 그저 시간 나서 취미로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하고 개인의 역량을 갖추는 자아성장을 위한 필수 활동 이라는 것을 온국민이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것”을 조심히 기대함. “청소년지도자가 바뀌면 청소년이 바뀌고 청소년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2	행정 및 회계의 체계성, 자료 공유시스템
3	개별특성에서 상호작용,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유사한 마을공동체, 마을교사 양성으로 청소년은 청소년지도가 아니어도 두루두루 지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도자에 대한 역할이 부족. 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 부족에 따른 이직률이 높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마련
4	운영시스템은 선진화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맞지 않다고 보여짐.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본 아니라 문화의집 운영 필수인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음.
5	감염병시대의 대처 방안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교육계의 원격지원교육시스템 구축에 비해 청소년활동시설등은 접목할 만한 운영체계의 미흡,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탄력적 시설자원을 위한 체계 정립안 마련이 절실함. 청소년 정치 참여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만 18세 유권자 및 이후 유입대상에 대한 청소년정치 참여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 외 정당활동 등의 자유보장에 관한 현장 교육 매뉴얼 등의 지원체계 확립, 지역사회 참여활동 모델 구축 운영 및 지원사업 발굴, 육성, 가상(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활용한 현장 접목 방안 마련, 활동현장의 기간설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지원확대 및 교육체계 구축, 공적자금의 현장지원 체계 구축 및 현실화
청소년상담	
6	뉴노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청소년의 컨디션에 따른 서비스형태와 내용 등이 가능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7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미래 운영 시스템 선진화 및 표준화는 정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즉 비대면 사업의 이해와 적응이라고 생각되어짐. AR·VR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즉 가상세계에서 청소년과 콘텐츠가 교류하는 공간 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실천적 방법 등임. 현재 비대면 상담은 사이버채팅을 뛰어 넘어 모바일 챗봇, 가상증강현실 등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뉴노멀 시대 즉, 코로나 이후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의 특성, 지역 고객 경험 중심의 방법이 곧 표준이 될 수 있고 글로벌 기준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지역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8	메타 버스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IT기반 활동 영역 확대. 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집단상담 콘텐츠의 다양화. 상담효과 증대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및 방법훈련. on/off라인 병행 콘텐츠 개발
10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정책, 우울증, 불안등의 정신건강문제와 부적응문제 위한 자율적 힘 기르기, 청소년정신건강 상담 설치의무화, 상담사 자격기준 강화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배치 확대(청소년인구대비 청소년상담사 배치), 청소년정신건강 주기적 실태조사, 교육청 등과 정신건강증진 협업 필요
11	가상과 현실의 구분, 회복탄력성, 인간에 대한 신뢰
<b>청소년복지</b>	
12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 공간 재구조화. 대면과 비대면 활동이 혼합된 블렌디드 형태로써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 모든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으로 활동의 장을 넓혀서 물리적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활동에 참여 가능함.
13	가장 큰 고민 지점은 이제껏 밀접한 접촉과 만남 등을 통한 오프라인 중심의 청소년 활동과 보호복지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점임. 온라인과 비대면을 중심으로도 앞서 언급한 이시대 청소년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점차 변할 수 있었던 시대적 요구였다고 생각됨. 오프라인중심이었던 아웃리치 활동이 점차 사이버아웃리치로 변화해 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됨. 중요한 지점은 온라인으로의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구현해 내던 주요한 목적들을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임. 이에 대한 시스템 선진화와 표준화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선불리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부족하나마 고민해 본다면 결국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목적 지점을 얻어내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라는 지점이라고 생각됨.
14	메타버스와 같은 청소년 생활영역의 환경을 청소년복지에서도 그 환경적 시설을 갖추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램. 선진화 및 표준화는 그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됨. 낙후된 시설과 민간자본의 시설 구축은 지양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 환경개선을 시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청소년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진로지도와 같은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개별 진로탐색이 아닌 집단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이며, 진로상담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로체험이나 지도로 이어지기 어려움. 단순한 몇 개의 직업군이 아닌 다양한 직업영역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영역에서의 체험이 보편화 되어야 하며,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센터를 만들거나 일부 활동시설에 보급하여 그곳을 이용하도록 하면 위기청소년들은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기존 청소년 모든 시설에 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보호	
17	4차 산업 혁명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정서성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복지적 접근 강화 필요. 개인주의화로 인한 파편화된 공동체성 강화 교육 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	
18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자율권 보장(기존 틀에서 탈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있어 학교와의 차별화(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
19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청소년이 학교라는 현장을 벗어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열악하여 관련 교육을 누리기 어려움. 이에,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관련 교육과 관련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선택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나, 지방 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고 재정역시 증액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아파트 시공사 혹은 지역별 미래세대투자세 등을 통한 펀딩형 정책이 필요함.
20	인터넷 환경에서의 학습과 각종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서비스 체계 개편 고민 필요. 화상상담(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모두 활용됨), zoom회의와 줌을 통한 교육,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습득, 메타버스 등을 통한 대인관계 보충(물론 직접적인 대인관계는 필수. 청소년보호정책 영역에 IT전문가 부재 - 전문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증원, 어려운 경우 대학생 방학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모전, 채용형 인턴십, 개방직위 등 확대하여 IT분야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응답자들은 청소년 시설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시설지원을 위한 체계 정립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또 청소년 관련 전 영역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AR·VR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즉 가상세계에서 청소년과 콘텐츠가 교류하는 공간 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실천적 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는 대면과 비대면 활동이 혼합된 블렌디드 형태로, 즉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갈 것으로 보고,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행복과 성장을 보장해주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만 18세 유권자 및 이후 유입대상에 대한 청소년 정치 참여체계 구축, 그리고 정당활동 등의 자유보장에 관한 현장 교육 매뉴얼 등의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소결

청소년복지, 활동, 상담, 보호 관련 청소년기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의 위기상황이 초래한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열정과 노력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져온 구조적 어려움에도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 하였고, 온택트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한 블렌디드 방식의 구조전환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업무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과중한 업무나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예산과 재정문제, 장비와 지원 부족, 전염병의 지속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치창출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기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코로나의 종식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의 위기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청소년기관 사이의 통일되고 유기적인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가족부 산하 킷트를 타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견고하며 효율적인 협조와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조사-해결정책 마련-현장정책지원’의 현장중심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구조의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한 구조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상담 및 복지를 담당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원적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업무 측면에서 비록 청소년 활동의 비중이 높고, 그러므로 규모와 조직 면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보다 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에도, 상담과 복지 그리고 보호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담당하기에는 양이 아닌 업무의 질적 측면에서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 및 유해콘텐츠 사용 및 사이버폭력의 비중 등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 분야에는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상담과 복지와 같은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람직한 방향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활동, 복지, 상담, 보호,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합 체제를 구축한 상태에서 각 기관이 콘트롤 타워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청소년기관을 현장중심, 청소년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 변화와 함께 응답자들은 법제도 상 청소년 관련 기본 개념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지도자의 지도 및 개입 방식의 다각화, 비대면과 대면의 융합적 서비스 활성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대안적 융합모델 개발, 양질의 콘텐츠 개발, 공유, 제공을 위한 전문 콘텐츠 개발, 청소년의 삶과 밀착된 소통지향적 시스템 개발,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상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용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주도성에 기반하고, 주도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가치와 의미를 인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모색되어야 함을 함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6장 정책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방향의 주된 전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sup>87)</sup>.

### ■ 하향식(Top-down) 청소년정책 위주에서 상향식(Bottom up) 청소년정책 확대로의 변화

재난이나 위기 상황 또는 발 빠른 상황 대처를 위해서는 최상층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sup>88)</sup>. 반면 상향식 정책(Bottom up)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둘은 빠르고 강력한 변화가 필요할 때 ‘무기’로써의 하향식 정책,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로써 상향식 정책으로 상호 보완재의 성격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하향식 정책과 상향식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전주일보, 2016.2.28.). 기존의 정부 정책은 주로 하향식 정책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최근 정책 방향은 상향식 정책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18.). 이는 정책방안 도출에

87) ‘제6장 정책 제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88) 단, 하향식 정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위험을, 상향식 정책은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아래에서 출발해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전주일보, 2016.2.28.).

있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또한 위에서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정책보다는 청소년과 시민, 현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향식 정책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며 정책대상자의 욕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보다 현실성 있는 최적의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상향식 정책에서는 정책대상자의 욕구와 희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민원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 ■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는 상호간의 ‘협력’

미래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제사회에서 또한 소통과 협력을 기술 혁명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보고 있다(Schwab, 2017; 조대연 외, 2020: 13에서 재인용). 이러한 협력의 대상은 비단 청소년뿐이 아니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동, 보호, 복지로 나뉘어 주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분야 간의 인력, 자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협력은 물론, 이를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각 부서인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등 간의 원활한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생태체계 환경인 가족 지원을 통해 청소년대상 서비스의 효과성, 지속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부서와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등 가족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구분된 활동, 보호, 복지 구분이 흑여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가로 막는 ‘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협력의 대상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청소년 관련 주요 관계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물론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법무부, 재난관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이외의 다른 부처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청소년관련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합동(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9.8.) 또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7.28.)를 통해 협력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기존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처간, 부서간 칸막이 행정은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인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정부부처나 전달체계가 청소년에게 각각 개별적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누락,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책입안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강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함께 서비스를 기획,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현장전문가 들은 청소년, 특히 취약 청소년이 ‘다차원적 중복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정책이 당면한 다차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 ■ 위기로 체득된 경험의 체계화, 제도화

위기와 재난이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년 어찌면 십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뉴노멀 시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현실이 되었고 이전에는 물리적, 거리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던 일들이 줌 수업과 블렌디드 교육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현장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과 대면 프로그램의 혼합 모형에 대한 실험이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고, 경직된 기존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유연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20), 온라인 학습 자료로 수업 준비를 하고 오프라인 강의실에서는 토론과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다시 옛날의 대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기로 체득된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체계화, 제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프로그램과 대면 프로그램의 장점을 각각 살리는 방안을 찾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미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을 새로운 청소년정책 변혁의 기회로 받아들여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재난후 학습(Learning from Post Disaster)**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정책의 **재조정(Restructuring)**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난으로 체득된 경험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Imperiale & Vanclay, 2016). 참고로 연구 결과 도출된 유연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혼합 모형 예시를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면, 비대면 혼합 모형의 분류 및 예시	
1) 시간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일부 요일의 일부 시간에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li> <li>• 주말 특정 시간에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li> <li>• 등원하지 않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li> <li>• 청소년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방학 기간동안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 등</li> </ul>
2) 콘텐츠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장비(태블릿 PC)를 제공하여 상시 비대면 맞춤형 학습지원</li> <li>• 간식제공을 비대면 프로그램화하여 청소년 심리정서에 기여</li> <li>• 다양한 진로 콘텐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쌍방향 프로그램 시도 등</li> </ul>
3) 비대면 당사자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보호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li> <li>• 전문성 있는 원거리 강사가 비대면으로 쌍방향 프로그램 진행, 거리의 한계를 비대면으로 극복 등</li> </ul>
4) 비대면과 대면의 혼합방식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단계, 활동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을 대면, 비대면으로 유연하게 변경 진행하는 혼합 프로그램</li> <li>• 대면, 비대면 상태 청소년 모두를 위해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동시 진행으로 순차적 전환</li> <li>• 특정 프로그램과 요일 또는 주를 정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li> </ul>
5) 비대면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쌍방향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보다 활발한 상호작용 가능)</li> <li>• 일반 학급 규모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li> </ul>
6) 비대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활동에 적합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li> <li>• 기존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비대면 방법을 접목</li> </ul>
7) 비대면 프로그램의 포괄성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등원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li> </ul>
8) 비대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쌍방향 프로그램</li> <li>• 동영상상을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등의 단방향 프로그램 등</li> </ul>

■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현장,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숙고를 통한 명확한 역할 분담

최근 들어 마을과 지역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20) 청소년정책에 있어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김형용(2016)은 보편적 사회정책과 마을은 상호 추구하는 목표와 대상이 상이하야 자칫 마을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책 방향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한다. 마을이나 지역사회 또는 민간에 정책 기능을 이양하고 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자칫 보편적 복지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Bennett, 1990; 김형용, 2016). 여전히 많은 재난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사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험에 대한 즉각적 대처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중단기 지원 또한 국가주도하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일상으로 회복하고 적응하며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마을이나 지역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를 계기로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평상시와 재난 상황 발생시 국가, 지자체, 현장,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숙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각 영역의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지속 지양

정용주 외(2020)는 나오미 클라인의 책 ‘쇼크 독트린<sup>89)</sup>(shock doctrine)’을 언급하면서 쇼크 상태에서만 도입 가능한 정책과 제도들이 재난 이후에도 영구적인

---

89)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은 신자유주의자들이 20세기 후반 남미와 러시아 등에서 경제체제를 개혁한 다며 민영화 규제 철폐 복지삭감 등의 경제적 쇼크요법을 쏟아붓는 바람에 공공성의 축대가 무너진 것을 비판하는 말로 ‘큰 재난이나 위기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을 선동해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로 사회를 이끌고 가는 전략’을 의미하며(한국일보, 2011.3.27.),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매일경제, 2021.5.18.).

것이 되어 버리는 데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및 비정규직 제도를 대표적인 쇼크 독트린의 예시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상승세를 보이는 ‘언택트 수혜주’, ‘온라인 학습시장의 공교육 침해’, 교육과 기술을 융합한 ‘에듀테크’ 산업의 급반등과 온라인 강의를 ‘미래 교육’으로 둔갑시키는 것의 위험성, 플랫폼 학교로의 전환 기획이 포스트 코로나 담론 속에서 가속화되고 이상적인 미래 학교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부분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 교육 기기가 원래의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무력화 하면서 온라인 체제를 현실에서도 연장하고 지배하는 ‘구글리피케이션’과 더불어 데이터3법과 맞물려 개인정보가 자본화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피력하였다. 그들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교육은 더 관계 중심의 연결과 접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재난을 틈타 속전속결로 추진 되는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 미래를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 지각: 지향점이 아닌 수단으로써 과학기술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수단으로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sup>90)</sup>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 논의인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혁신) for SDGs는 최근 전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목표로 SDGs 분야의 과학기술적 요소 및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신기술<sup>91)</sup>의 빠른 발전 속도가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

9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내에 포함된 17개의 목표로 국제개발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적용 및 달성되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유엔이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자 용어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발전"을 의미한다(UN, 1987, UN, 2015, 민경서, 이계영, 오채운, 2020에서 재인용).

91) SDGs와 관련한 신기술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선인경, 2020)

하고 기업 참여 환경 개선(ESG 경영), Covid-19 대응 및 회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SDGs 재원 분배·활용의 정상화 등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과학기술혁신의 인류에 대한 영향과 바람직한 역할과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TI for SDGs의 개념적 프레임은 과학지식 생산 및 기술 발전, 산업·경제발전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주요 개념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해야 할 역할에 주목한다(선인경 외, 2020). 이러한 흐름은 과학기술기본법(<https://www.law.go.kr/>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 관련 조항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비전과 4대 전략, 중점 추진과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그 자체가 목표나 지향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미래 예측과 관련한 과학기술 위주의 담론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나 목표 또는 지향점이 아니라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활용 가능한 최적의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의 목표와 수단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92)</sup>.

- 
- ITU(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8가지 프론티어 기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청정에너지, 디지털트윈, 로보틱스, Space 2.0, 디지털전환, 빅데이터
  - UNCRAD(2021). 공정한 기술과 혁신 보고서(Technology and Innovation Report 2021: Catching technological waves innovation with equity)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보틱스, 드론, 유전자편집, 5G, 나노기술, 태양광발전

92) 다양한 현장의 교사의 말은 이러한 관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자꾸 언택트라는 말,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에 논의의 논의가 매몰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일종의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특정한 유형만 있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 또 어떤 비상 상황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고, 그 비상 상황이 꼭 언택트라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이를테면 갑자기 전기가 다 끊겨서 어떤 종류의 전자 기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교육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다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택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콘택트에 맞는 교육을 언택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언택트에 맞는 교육을. 이 기본적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듯해요.”(실천교육교사모임, 2020).

## ■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

이현웅 외(2018)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공공정책이나 행정에서 유용함을 강조한다. 데이터 활용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지며 데이터는 미래사회가 직면한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 융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회구조를 생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될수록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위험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외(2016)는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예산의 절감, 정책 운영 효과성 향상, 사회비용 절감, 합리적 정책 수립, 위기대응 능력 향상, 업무 효율성 제고, 공공 기관과 국가투명성 제고, 정보 비대칭 해소,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적극적 전환을 모색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전환 방향을 기초로 연구에서 도출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 없는 교육을 더 강도 높게 추구하려는 경향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인식 없이 현상적이고 기술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정용주 외, 2020).

###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정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분야 위험 재난 대응 체계 수립의 필요</li> <li>• 정책 영향 평가 실시하여 정책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공공자원을 적절히 분배</li> <li>•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관점의 강화</li> <li>•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청소년정책의 추진</li> </ul>
실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위험에 관계없이 인권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 시간, 운영 횟수, 이용인원,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li> <li>• 추후 재난 발생시 청소년시설을 지속 운영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li> <li>• 통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청소년관련 정부부처, 국가 통계부처, 연구기관과 파트너십 형성</li> <li>• 미래의 충격과 재난에 적응하는 레질리언스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 취약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표적화된 정책과 서비스 제공</li> <li>• 청소년 개인에 대한 서비스 수혜 현황 데이터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li> <li>• 상담 중심의 심리정서 지원에서 탈피하여 활동, 봉사, 신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리정서 향상 지원</li> <li>• 현장 전문가 개인의 헌신이 아닌 시스템에 기반한 청소년현장 운영으로의 전환</li> <li>• 소규모 프로그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li> <li>•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청소년 관련 포털 홈페이지 개편</li> <li>• 코로나19로 증가된 미디어 이용 등에 맞춰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함양</li> <li>•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 1인 가구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개입</li> <li>• 청소년 연령별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 코로나19 동안 가족구성원이 경제적,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실시</li> <li>•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의 학습, 개별 휴식 공간으로 제공</li> <li>•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또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li> <li>• 심리정서지원 강화</li> <li>•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가족 활동 프로그램 확대 보급</li> <li>•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편</li> </ul>

###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 실천적 측면

- 혁신적 회복(Transformative Recovery)을 위한 현장실천
-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청소년지도자 상에 대한 고민
- 다차원적 배제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
- 코로나 이후 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 성매매, 자살 예방 교육 실시
  -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 지원 확대
  -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처
  - 가정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대중, 김경애, 김미윤, 김차명, 박승원, 부은희 외(2020). **코로나 19, 한국교육의 잠을 깨우다**. 서울: 지식공작소.
- 강성국, 김상철, 김수진, 김은애, 김은영, 도재우 외(2020). **코로나19 대응 국가 수준 원격교육체제 진단 및 과제**(이슈페이퍼 IP2020-02).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경기도교육연구원(2020).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생활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1). **인구변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자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과제**. 총괄보고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연구자료 GM 2020-11).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동완, 김기범, 배현주, 김다영, 김옥빈, 이하림, 이현영, 최명수(2020).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2020). **소환된 미래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를 바라보다**. 서울: 테크빌교육.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소희, 강은경, 김성천, 김영자, 김인엽 외(2020). **소환된 미래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를 바라보다**. 서울: 테크빌교육.
- 국회입법조사처(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권기현(2008). **미래예측학**. 서울: 법문사.
- 권인경(2020). **강원도 일부 지역 여자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에 따른 간식 섭취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하영(2021). **온라인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기은광(2021). **코로나 19 전후, 중고등학교 청소년 삶의 만족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1(1), 73-91.
-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외(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임은미(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김균희·이용해(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외(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황금 개의 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서울: 미래의 창.
- 김대용, 최진혁. (2020). **코로나-19 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 85-108.
- 김아름, 박은영(2020).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연구보고 2020-0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한준(2017). **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현안대응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자료집.
- 김현집(2020).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실태 및 운영 방안 탐색**.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용(2016). 복지와 마을, 접합시도에 대한 시론: 개념적 그리고 실천적 쟁점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0, pp. 38-75.
- 김희진(2020). **코로나19(Covid-19)가 초등학생의 식생활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경서, 이계영, 오채운(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STI for SDGS) 로드맵의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시사점**. 1(5), pp. 1-41.
- 박미희(2020).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30, 113-145.
- 박선영(2020).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73-194.
- 박성원(2009). **한국은 왜 미래학 불모지가 됐는가?**. **신동아**, 통권 598호.
- 배운지(2016). **미래연구방법론을 적용한 한국의 미래 의생활 예측**.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병부(2020). **코로나19와 교육: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이슈페이퍼 2020-02).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 이수광, 박복선(2020). **코로나19와 교육: 교육체제 전환에 주는 시사점** (이슈페이퍼 2020-07).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보건복지부(2021).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시복지재단(2020). **지역사회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 3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2020-66). 서울: (재)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2021). **지역사회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 3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서정아(2017).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인경, 유지영, 안지용, 김태경, 김현옥(2020). **SDGs 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법정 감염병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대안과 전략**. 이슈페이퍼(2020-1호),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미애, 진미정, 장영은, 유재언, 손서희(2021). **가족의 코로나 19 관련 정책 인지도, 이용 정도,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 가족정책연구, 1, 3-20.
- 손숙미, 이인화(2020). **1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성평등**. 선진화 정책시리즈, 384-396.
- 신영미, 권순범(2021). **코로나 19 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와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25, 227-245.
- 신오련(2021). **온라인 비대면 학생 수련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흥기(2018). **청소년이 지각하는 미래사회 변화와 청소년정책 요구도 조사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학위논문.
- 실천교육교사모임(2020). **코로나 시대의 교육**. 서울: 도서출판 우리학교.
- 아동권리보장원(2020).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NCRC-04-20-018-01).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여성가족부(2020).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2.26.).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 청소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 예충열, 송기한, 윤석재, 김현옥, 윤여준, 김효상 외(2020).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코로나19 대응 종합연구 중 증기과제**(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47-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오재호(2020). 코로나 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 & 진단**. 2020. 6월. (pp. 1-25). 경기: 경기연구원.
- 오해섭, 문호영(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연구보고 20-R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숙자, 김희정(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8), 23-30.
- 이경상·이창호·김민 (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규(2007). **미래예측의 조직학습 전개과정에 관한 분석: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2021). **지난 1 년간 코로나 19 유행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5-92.
- 이수미, 조아미(2020). 청소년 분야 창의융합 핵심역량 측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7(1), 105-126.
- 이승록(2021). **중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쌍철, 강성국, 손찬희, 장혜승, 김정아(2020). **교육 분야 감염병(COVID-19) 대응과제: 정규 수업 인정 원격교육을 중심으로**(이슈페이퍼 IP2020-01).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은(2021).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의 온라인 개학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환. (2020). **코로나 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 & 진단, 1-25.
- 이찬술(2021).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여가제약과 건강위험행동 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웅, 김종업, 최현재(2018).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생각나눔.

- 이혜정, 민윤, 박진아(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습복지의 재개념화**(이슈페이퍼 2020-11).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경숙, 이복희, 여예슬(2020). **국의 COVID-19 학교 교육 대처 방안 사례 분석을 통한 후속 추진 과제**(연구자료 ORM 2020-40-9).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한송(2020). **유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대영, 이수진(2020). **코로나 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이슈 & 진단, 1-25.
- 정세정(2020). **청년의 일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2020(6), 19-32.
- 정용주, 조영선, 김진우, 정형철, 이하나, 조진희 외(2020).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포스트가 아닌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육**. 서울: 교육공동체벗.
- 정용주, 조영선, 김진우, 정형철, 이하나, 조진희, 김중미, 천성호, 이운승, 이현애, 채효정, 강석남, 서상희, 양서영, 박노해, 김석규, 정수연, 정명옥, 김인순, 안정선, 윤규식, 최영미(2020).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포스트'가 아닌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육**. 서울: 교육공동체 벗.
- 정혜옥(2020).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 실태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옥(2020).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실태조사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대연, 김대영, 정홍인, 김은비(2020).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변화 방안 모색**. 세종: 교육부, 고려대학교 HRD 정책연구소.
- 조안나(2021). **비대면-대면 수업 후 학생들의 학업무기력 및 우울의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2020). **2020년도 코로나19 대비 청소년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청소년·보호자용**. 충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 천정웅·이민희·박선영·황성하(2013). **글로벌 청소년정책론**. 경기: 양서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2020). **'나에게 2020년은? (부제: 아이들이 평가하는 2020년 코로나 한해)**.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2020-0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2020).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6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정책 분야의 현황과 대책**(정책자료 2020-0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6.25.).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0(2), 1-14.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002.pdf](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002.pdf)  
 에서 2021년 2월 10일 인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2020년 5월 제2호,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2020년 5월 제2호,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재단, 코리아스픽스(2020.8.12.).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청소년재단·코리아스픽스(2020).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서울: 한국청소년재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8.18.).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포럼 자료집 20-S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12.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한국청소년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2020). **2020 전국 온라인 청소년활동: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2020 비대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운영 안내서**(K YWA-2020-081-0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종민(202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상태변화와 청소년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행정자치부(2016). 2016년도 정부3.0 실행계획. 서울: 행정자치부.

홍문화(2020).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10.21.).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 자료집, 23-26.

홍섭근(2021.5.10.). **코로나 1년이 갈라놓은 아이들의 미래**.

희망친구 기아대책(2020).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이슈페이퍼**, 2020년 10월 1권, 서울: 희망친구 기아대책.

Ahmed, D., Buheji, M. & Almutawwa, W.(2020). The ‘silver-lining’ of youth future in the new normal: Describing a new generation. HUMAN Systems Management, 39, pp. 495-510.

Anderson, J., Rainie, L. & Vogels, E. A. (2021). Experts Say the ‘New Norma’ in 2025 will be more tech-driven, with more big challenges. Pew Research Center.

Arnold, M. E.(2020). America’s moment: Invest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 transform youth and society.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15(5), pp. 16-36.

- Bajpai, N., & Biberman, J.(2020.10.). COVID-19 and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 Buheji, M.(2020). Future foresight of post COVID-19 gen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Youth Economy*, 4(1), 1-3.
- Burke, M(2020.3.8). COVID-19 reduces economic activity, which reduces pollution, which saves lives. *Global Food, Environment and Economic Dynamics*.
- Chen, P., Mao, L., Nassis, G. P., Harmer, P., Ainsworth, B., & Li, F. (2020). Returning Chinese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to physical activity in the wake of COVID-19: Actions and precautions.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 Chia, R.(2004). Re-educating attention: What is foresight and how is it cultivated?. In: Tsoukas, H. and Shepherd, J. (eds.). *Managing the future: Strategic foresight in the knowledge economy*. Blackwell: Oxford, pp. 21-37.
- Cohen, S. I. S., & Bo, E. A.(2020). Vulnerable youth and the COVID-19 Pandemic. *Pediatrics*, 13(6). pp. 1-7.
- Courtney, D., Watson, P., Battaglia, M., Mulsant, B.H., & Szatmari, P.(2020). COVID-19 impacts on child and youth anxiety and depress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5(10), 688-691.
- D. Courtney, P. Watson, M. Battaglia, Benoit H. Mulsant, and P. Szatmari(2020). COVID-19 Impacts on Child and Youth,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65(10) 688-691.

- Ettekal, A. V. & Agans, J.P.(2020).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leisure: Confront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15(2), pp. 1-20
- European Youth Forum(2020). The European Youth Blueprint to Recovery.
- Fong, V. C., & Iarocci, G.(2020). Child and family outcomes following pandemics: A systemat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on COVID-19 policies. *Journal of Pediatrics Psychology*, 45(10), 1124-1143.
- Goffman, E.(2020). In the wake of COVID-19, is glocalization our sustainability future?.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6(1), 48-52.
- HM Government (2020). 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
- HM Government (2021). COVID-19 Responses – Spring 2021.
- Imperiale, A. J., & Vanclay, F. (2016). Experiencing local community resilience in action: Learning from post-disaster communities. *Journal of Rural Studies*, 47, 204-219.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Youth and COVID-19: Impacts on jobs, education, rights and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Jesus, T. S., Landry, M. D., & Jacobs, K.(2020). A 'new normal' following COVID-19 and the economic crisis: Using systems thinking to identif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isability, telework, and rehabilitation. *Work*, 67(1), 37-46.
- Korze, D.& Korze, A. V. (2020). Young people and digital techn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Youth Economy*, 4(1). pp. 1-11.
- Liang, L., Ren, H., Cao, R., Hu, Y., Qin, Z., & Li, C. et al.(2020). The effect of COVID-19 on youth mental health. *Psychiatric Quarterly*, 91, 841-852.

- Marjit, S., & Mishra, S.(2020). Post COVID-19 impact on local and global economy. *Trade and Development Review*, 13(1), 1-15.
- Matthewman, S., & Huppatz, K.(2020). A sociology of Covid-19. *Journal of Sociology*, 56(4), 1-9.
- McMahon, J.(2020.3.16.). Coronavirus lockdown likely saved 77,000 lives in China just by reducing pollution.
- National Youth Agency(2020.4.). *Vulnerable young people: COVID-19 Response*. National Youth Agency.
- National Youth Agency(2020.8.). *INSIDE OUT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A response to COVID-19*. National Youth Agency.
- National Youth Agency(2020.8.8.). *Managing youth sector activities and spaces during COVID-19*. National Youth Agency.
- OECD(2020). *Youth and COVID-19: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OECD.
- Oxfam International(2021). *The Inequality Virus*.
- Power, E., Hughes, S., Cotter, D., & Cannon, M.(2020). Youth mental health in the time COVID-19.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37, 301-305.
- Semerikov, S., Chukharev, S., Sakhno, S., Striuk, A., Osadchyi, V., & Solovieva, V. et al.(2020). Our sustainable coronavirus future. *E3S Web of Conferences* 166, 00001(2020).
- Sibieta, L. & Cottell, J. (2020). *Education Policy Responses across the UK to the Pandemic*. London: Education Policy Institute.
- Sinha, M., Kumar, M., Zeitz, L., Collins, P. Y., Kumar, S., & Fisher, S. et al.(2020). Towards mental health friendly cities during and after COVID-19. *Cities & Health*, 2020(August), 1-4.

UK Youth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 the Youth Sector. London: UK Youth.

United Nations(2020).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2020.3.27.). Special issue on COVID-19 and Youth.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2020.4.15.).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2020.8.).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United Nations.

Venter, Z. S., Aunan, K., Chowdhury, S., & Lelieveld, J.(2020). COVID-19 lockdowns cause global air pollution declin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2). DOI: 10.1073/pnas.2006853117.

Verma, A., & Prakash, S.(2020).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 and society. Journal of Global Biosciences, 9(5), 7352-7363.

Waselewski, E.A., Waselewski, M.E. & Chang, T.(2020). Needs and coping behaviors of youth in the US during COVID-19.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7, pp. 649-652.

WHO(2020.3.11.).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World Bank(2020). The COVID-19 Pandemic: Shocks to Education and Policy Responses. World Bank: Washington, DC.

Youth Partnership(2020). Effects of Covid-19 across youth work and youth activities: Summary of the survey launched by the CMJ working group on responses to Covid-19.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eMD Medical News(2020.6.24.) GSK, '도바토' 론칭 기자간담회.

FORTUNE KOREA(2020.4.2.). [포춘US] 2020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How's Your Head : Young Voices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lobal Report: Youth & COVID-19.  
Ministry of Health, New Zealand Government, COVID-19 Health and Wellbeing Survey,  
UNESCO, UNESCO Online Survey on COVID-19 and Youth Wellbeing: A global Study.

경향신문(2020.4.19.). 인류사 최초의 온라인개학을 응원하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9210102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92101025&code=990100) 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공공보건포털 G-health(2021.1.10.) 코로나19 유행에 소아 비만 '비상'...고혈압·지방간 부른다 <https://www.g-health.kr/mobile/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6&nttId=412301&lang=&searchCndSj=&searchCndCt=&searchWrd=&pageIndex=1&vType=A>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과학기술기본법>, 2021. 11. 1.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2021.1.20).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31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교육부(2020.10.5.). [포스터]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lev=0&statusYN=W&s=moe&m=0202&opType=N&boardSeq=82149> 에서 2021년 2월 11일 인출.

교육부(2020.11). 행복한 교육. vol.460.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Notice.do?bbsId=BBSMSTR\\_000000000232&nttId=11244](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Notice.do?bbsId=BBSMSTR_000000000232&nttId=11244) 에서 2021년 2월 11일 인출.

굿네이버스(2020.12.31.),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https://www.goodneighbors.kr> > boardFileDownload, 2021.10.1.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7.28.).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사회분야  
일상회복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등).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39>,  
2021. 11. 1.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9.8.).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905>,  
2021. 11. 1. 인출.

매일경제(2021.5.18.). 새롭게 다시 보는 나오미 클라인의 신자유주의 비평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5/477797/>, 2021.11.1. 검색.

매일경제(2021.8.11.). "국민 10명 중 9명,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통제 중요하다 생각",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76180/>, 2021.10.1. 인출.

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8월). [https://www.korea.kr  
> common > download](https://www.korea.kr/common/download). 2021. 10. 1. 인출.

복지뉴스(2020.4.29.). 생명보험재단, 코로나19로 청소년 모바일 상담 집중 지원: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고민 가족갈등 늘고 대인관계 줄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53> 에서 2021년 2월 11일 인출

서울신문(2021.3.16.), 우리 아이도 코로나 블루? TV 끄고 아이 마음 들어주세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7016003>,  
2021.10.1.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btSn=70773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tSn=707739) 에서 2021년 5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보도자료(2021.3.10.).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d144f8d4b6d445bb  
b97f4e3f9b66d7f.hwp&rs=/rsfiles/202110/](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d144f8d4b6d445bb97f4e3f9b66d7f.hwp&rs=/rsfiles/202110/), 2021. 10. 1. 인출.

연합뉴스(2020.12.17.). 코로나19로 청소년의 가족 갈등·우울 상담 31.6%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66700530>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연합뉴스(2021.9.28.). 한국 자살률 OECD 1위... 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73600002>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연합뉴스(2021.8.11.). 코로나19 확산 인식 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GYH20210811000500044>, 2021.10.1. 인출.

전주일보(2016.2.28.) 바람직한 의사결정 구조,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433>, 2021.11.1. 인출

조선일보(2020.12.15.). 구글, 재택근무 연장하고 새로운 근무체계 실험 구글, 재택근무 연장하고 새로운 근무체계 실험.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2/15/FZDMQ4T7X5DNPCOHP7YLEMQJVE/](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2/15/FZDMQ4T7X5DNPCOHP7YLEMQJVE/)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중독포럼 보도자료(2020.11.2.). 청소년 미디어 사용 시간 늘면서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폭력 경험 증가.  
[http://www.addictionfr.org/web/content06/index1.php?&v\\_type=detail&c\\_code=374](http://www.addictionfr.org/web/content06/index1.php?&v_type=detail&c_code=374) 에서 2021년 2월 11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2021.10.1.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2021.10.1.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2021.10.1.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자료.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한국일보(2011.3.27.). 쇼크 독트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103271247853413>, 2021.11.1. 인출.  
한국일보(2021.8.25.). 문체부, 실효성 논란 게임시간 선택제, 보호자 교육으로 보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509350000907>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한겨레(2020.12.17.). 청소년 가족문제 온라인 상담, 지난해보다 75.8% 늘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472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4723.html)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18.). 행정안전부,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 <https://www.mois.go.kr/>, 2021. 11. 1. 검색.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https://unsdg.un.org/>, 2021.2.19. 인출

World Value Survey,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2021.10.1. 인출.

## [미국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권점례, 김명화, 이상하, 유금복, 최정숙, 강현숙, 신승기(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한준(2017). 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현안대응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자료집.

박선영(2020).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 청소년활동연구. 6(4), 173-194.

여성가족부(2020).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오재호(2020). 코로나 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 & 진단. 2020. 6월. (pp. 1-25). 경기: 경기연구원.

이경상·이창호·김민(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혜정·민윤·박진아(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습복지의 재개념화.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천정웅(2020). 미국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사례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3), 11-20.

Anderson, J., Rainie, L. & Vogels, E. A.(2021). Experts Say the ‘New Norma’ in 2025 will be more tech-driven, with more big challenges. Pew Research Center.

Arnold, M. E.(2020). America’s moment: Invest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 transform youth and society.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15(5), pp. 16-36.

Bodily, S., & Beckett, M. K.(2005). Making out of school time matter: Evidence for an action agenda. Santa Monica, CA: RAND.

Borden, L. M., Ballard, J., Michi-Petzing, L., Conn, M., Mull, C. D., & Wilkens, M.(2020). Foundations for the future: Building an integrated, cohesive field of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15(1), 266-286.

- Cohen, S. I. S., & Bosk, E. A.(2020). Vulnerable youth and the COVID-19 Pandemic. *Pediatrics*, 13(6). pp. 1-7.
- Cooper, T.(2018). Defining youth work: Exploring the boundaries, continuity and diversity of youth work practice. *SAGE Handbook of Youth Work Practice*, 3-17. London: Sage.
- Dunne, A., Ulicna, D., Murphy, I., & Golubeva, M.(2014). Working with young people: The value of youth work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ttekal, A. V., Agans, J. P.(2020).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leisure: Confront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15(2), 1-20.
- Fernandes-Alcantara, A. L. (2020). Vulnerable youth: Background and polici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 Fusco, D.(2012). Advancing youth work: Current trends, critical questions. New York: Routledge.
- Grossman, J. B., & Rhodes, J. E.(2002). The test of time: Predictors and effects of duration in youth mentoring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2), 199-219.
- IWGYP(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2016). Pathways for youth: Strategies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IWGYP.
- Jones, S. M., & Doolittle, E. J.(2017).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27(1), 3-11.
- Korze, D. & Korze, A. V.(2020). Young people and digital techn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Youth Economy*. 4(1). pp. 1-11.
- Leman, P. J., Smith, E. P., Petersen, A. C. & SRCE Ethic-racia issues and international committee(2017). Introduction to the special

- section of Child Development 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diverse and glob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88(4), 1039-1-44.
- Mahoney, J. L., Vandell, D. L., Simpkins, S., & Zarrett, N.(2009). Adolescent out-of-school activities. In R. M. Lerner and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 2: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3rd ed., pp. 228-269). John Wiley & Sons.
- Pozzoboni, K. M., & Kirshner, B. (Eds.)(2016). *The changing landscape of youth work: Theory and practice for an evolving field*.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 Shek, D. T. L., Leung, J. T. Y., & Merrick, J.(2017). Paradigm shift in youth development: Development of “soft skills”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n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16(4), 337-338.
- Swadener, B. B., & Niles, K.(1991). Children and families “at-promise” making home-school community connections. *Democracy in Education*, 5(3), 13-18.
- United Nations(2020).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United Nations.

<https://4-h.org/about/4-h-at-home>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forumfyi.org/blog/what-happens-when-out-of-school-time-is-all-the-time/>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givewp.com/fundraising-events-are-cancelled-giving-is-decreasing-what-now/>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iop.harvard.edu/youth-poll/spring-2021-harvard-youth-poll>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https://kdvr.com/news/teens-working-on>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https://livingclassroom.org/important-safety-update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https://nasbe.nyc3.digitaloceanspaces.com/2020/04/Hedger\\_Continued-Learning-Plans\\_Final.pdf](https://nasbe.nyc3.digitaloceanspaces.com/2020/04/Hedger_Continued-Learning-Plans_Final.pdf)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https://www.aei.org/covid-19-education-response-longitudinal-survey-cerls/>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www.aspencommunitysolutions.org/who-are-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https://www.aspenprojectplay.org/coronavirus-and-youth-sports/>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https://www.aypf.org/youth-populations/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calgary-parents-homeschool-pandemic-1.5535203>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www.cnn.com/2020/03/31/us/coronavirus-math-lesson-teacher-trnd/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www.cnn.com/2020/04/15/us/iyw-teens-delivery-service-for-the-elderly-trnd/index.html> 에서 2021년 8월 18일 인출.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coronavirus-public-health-emergency-underscores-need-department-educations-proposed-distance-learning-rules> 에서 2021년 7월 22일 인출.

<https://www.edweek.org/leadership/how-bidens-new-actions-on-guns-could-affect-students-and-schools/2021/04> 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at-promise-can-a-new-term-for-at-risk-change-a-students-trajectory/2020/01>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https://www.forbes.com/sites/ellevate/2018/08/06/the-skills-you-need-to-succeed-in-2020/?sh=3aa7db89288a> 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https://www.foxnews.com/us/california-change-at-risk-to-at-promise-youth>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https://www.gofundme.com/> 에서 2021년 6월 21일 인출.

<https://www.impact.upenn.edu/opportunity-youth-toolkit/why-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https://www.kbtx.com/content/news/Blue-Baker-making-the-most-out-of-their-COVID-19-situation-569518421.html> 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https://www.momjunction.com/articles/parallel-play-toddlers-benefit-activities\\_00680826/](https://www.momjunction.com/articles/parallel-play-toddlers-benefit-activities_00680826/) 에서 2021년 6월 21일 인출.

<https://www.pbs.org/about/blogs/new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https://www.seventepees.org>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https://www.weforum.org/agenda/2020/10/3-ways-to-prepare-young-people-for-the-post-covid-jobs-market> 에서 2021년 5월 25일 인출.

<https://www.wilder.org/article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https://youth.gov/feature-article/covid-coronavirus-resources>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https://youth.gov/federal-resources>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https://youth.gov/youth-topics/opportunity-youth>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https://youthlead.org/innovations/>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영국 및 국제기구 사례]

강호원 (2020). 코로나19에 따른 영국 교육동향. **교육정책포럼**, 328, 25-28.

강호원 (2021).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3) 영국 온라인 학교 설립... 빈곤층 학력 저하 해소에 예산 지원. **행복한 교육**(2021년 8월호).

김지현 (2021). 유해 콘텐츠 규제·디지털 광고 독과점 방지에 올인하는 정부. **신문과 방송**, 601, 140-145.

이연옥 (2019). 英 온라인 폐해 백서(The Online Harms White Paper)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중재**, 151, 68-75.

현진희, 김석주, 김희국, 백종우, 손선주, 이소희, 이종선, 최윤경 (2021). **코로나 19-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경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Abbs, I. & Marshall, L. (2020). *Emerging evidence on COVID-19's impact on health and health inequalities linked to housing* (The Health Foundation's Blog Series: COVID-19, Health and Health Inequalities).

<https://www.health.org.uk/news-and-comment/blogs/emerging-evidence-on-covid-19s-impact-on-health-and-health-inequalities>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Adoption UK (2020). *Hom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Lockdown: The Impact of School Closures on Care Experienced Children*. London: Adoption UK.

Andrew, A., Cattan, S., Costa Dias, M., Farquharson, C., Kraftman, L., Krutikova, S., Phimister, A. & Sevilla, A. (2020). *Family Time Use and Hom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Lockdown*. London: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arnardo's (2020). *Mental Health and Covid-19: In Our Own Words*. Essex: Barnardo's.

Carers Trust (2020). *My Future, My Feelings, My Family: How Coronavirus is Affecting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and What They Want You to Do Next*. London: Carers Trust.

- Child Safeguarding Practice Review Panel (2021). *Annual Report 2020: Patterns in Practice, Key Messages and 2021 Work Programme*. London: Child Safeguarding Practice Review Panel.
- Cullinane, C. & Montacute, R. (2020). *COVID-19 and Social Mobility Impact Brief #1: School Closures*.  
<https://www.suttontrust.com/wp-content/uploads/2021/01/School-Shutdown-Covid-19.pdf>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Industrial Strategy (2021). *UK Innovation Strategy: Leading the Future by Creating It*.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Office for Civil Society (2021). *Youth Covid-19 Support Fund: Funding for Grassroots and National Youth Organizations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gov.uk/guidance/apply-for-the-youth-covid-19-support-fund>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epartment for Education & Home Office (2021). *Coronavirus(COVID-19): Support for Parents and Carers to Keep Children Safe Onlin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keeping-children-safe-online/coronavirus-covid-19-support-for-parents-and-carers-to-keep-children-safe-online?priority-taxonomy=b350e61d-1db9-4cc2-bb44-fab02882ac25#support-for-children>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State of the Nation 2020: Children and Young People's Wellbeing*.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a). *Coronavirus (COVID-19): Guidance for Children's Social Care Servic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guidance-for-childrens-social-care-services>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b). *Education Recovery: Support for Early Years Settings, Schools and Providers of 16-19 Education*.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c). *National Tutoring Programme(NTP)*.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tutoring-programme-ntp/national-tutoring-programme-ntp>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Geddes, L. & Quinn, B. (2021). First year of pandemic claimed lives of 25 young people in England. *The Guardian*, July 9.
- Griggs, J. & Walker, R. (2008). *The Costs of Child Poverty for Individuals and Society: A Literature Review*. New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ustafsson, M. (2020). *Young Workers in the Coronavirus Crisis: Findings from the Resolution Foundation's Coronavirus Survey*. London: Resolution Foundation.
- Hagell, A. (2021). *Summarizing What We Know So Far about the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London: AYPH.
- Hern, A. (2020). Online harms bill: Firms may face multibillion-pound fines for illegal content. *The Guardian*, December 15.
- HM Government (2020). *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 London: HM Government.

- IPPR (2020). *1.1 Million More People Face Poverty at End of 2020 as a Result of Coronavirus Pandemic, Finds IPPR* (Press release on April 6).
- Kelly, J. & Morgan, T. (2020). Coronavirus: Domestic abuse calls up 25% since lockdown, charity says. BBC News, April 6.
- Kluge, H. H. P. (2020). Older people are at highest risk from COVID-19, but all must act to prevent community spread.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Statement*, April 4.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statements>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Kooth (2020). *Week 10: How Covid-19 I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Kooth.
- Mlambo-Ngcuka, P. (2020).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e shadow pandemic. *UN Women Statement*, April 6.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20/4/statement-ed-p-humzile-violence-against-women-during-pandemic>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Mutter, J. (2016).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장상미 역). 파주: 동녘 (원서 출판: 2015).
- NHS (2021a). *COVID-19 Population Risk Assessment*.  
<https://digital.nhs.uk/coronavirus/risk-assessment/population>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NHS (2021b). *Who Is at High Risk from Coronavirus (Clinically Extremely Vulnerable)*.  
<https://www.nhs.uk/conditions/coronavirus-covid-19/people-at-higher-risk/who-is-at-high-risk-from-coronavirus-clinically-extremely-vulnerable/>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NSPCC (2020).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Child Welfare: Online Abuse*. London: NSPCC.
- OECD (2020). *Youth and COVID-19: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 *Securing the Recovery, Ambition, and Resili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Post-COVID-19 Decade*. Paris: OECD Publishing.
- Ofcom (2020). Ofcom Nationals and Regions Technology Tracker 2020 -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Access to Internet and Devices. [https://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30/198138/tech-tracker-internet-and-device-access-children-data-tables.pdf](https://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30/198138/tech-tracker-internet-and-device-access-children-data-tables.pdf)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 Coronavirus and Well-being of Young People throughout the Pandemic.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adhocs/12287coronavirusandwellbeingofyoungpeoplethroughoutthepandemic>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Paleologou, M. P., Anagnostopoulos, D. C., Lazaratou, H., Economou, M., Peppou, L. E. & Malliori, M. (2018). Adolescents' mental health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Greece: The first epidemiological data. *Psychiatriki*. 29(3), 271-274.
- Pearcey, S., Shum, A., Walte, P., Patalay, P. & Creswell, C. (2020). *Change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through Lockdown(Co-SPACE Study Report 04)*. <https://cospaceoxford.org/findings/4th-update/>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Romanou, E. & Belton, E. (2020). *Isolated and Struggling: Social Isolation and the Risk of Child Maltreatment, in Lockdown and Beyond*. London: NSPCC.
- Sibieta, L. & Cottell, J. (2020). *Education Policy Responses across the UK to the Pandemic*. London: Education Policy Institute & Nuffield Foundation.
- Smith, A. & Barron, R. (2020). *The State of Child Poverty 2020 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Covid-19 on Families and Young People Living in Poverty*. London: Buttle UK.
- Streetgames (2020). *The Experience of the Coronavirus Lockdown in Low-Income Areas of England and Wales*. London: Streetgames.
- Swann, O. V., Holden, K. A., Turtle, L., Pollock, L., Fairfield, C. J. Draper, T. M., et al. (2020).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dmitted to hospital with covid-19 in United Kingdom: prospective multicentre observational cohort study. *BMJ 2020*; 370: m3249. doi: <https://doi.org/10.1136/bmj.m3249>.
- The Council of Europe (2020). Youth Sector Strategy 2030: Engaging Young People with the Council of Europe's Values (CM/Res(2020)2). <https://rm.coe.int/background-document-youth-sector-strategy-2030-english/1680a0bb33>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8).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on a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2018/C 456/0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2018:456:FULL&from=EN>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Townsend, M. (2021). Victims in 84% of online grooming cases are girls. *The Guardian*, March 28.
- UN (2019). **청소년 2030: UN 청소년전략** (이지향 역).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원자료 출판: 2018).
- UN (2020). *A UN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  
<https://unsdg.un.org/resources/un-framework-immediate-socio-economic-response-covid-19> 에서 2021년 8월 23일 인출.
- UN (2021). Youth2030: Progress Report 2021. <https://www.un.org/youthenvoy/>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UNICEF (2020a). *Children in Monetary Poor Households and COVID-19*.  
<https://data.unicef.org/resources/children-in-monetary-poor-households-and-covid-19/>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UNICEF (2020b).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and Youth*.  
<https://www.unicef.org/lac/en/impact-covid-19-mental-health-adolescents-and-youth>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UNICEF (2021a). *Education Disrupted: The Second Year of the COVID-19 Pandemic and School Closures*.  
<https://data.unicef.org/resources/education-disrupted/>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 UNICEF (2021b). *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  
<https://data.unicef.org/resources/one-year-of-covid-19-and-school-closures/>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Van de Poll & Williamson (2021). *European Youth Strategies - A Reflection and Analysis*. Brussels & Strassburg: The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Youth Partnership.

Winchester, N. (2020). Covid-19: Risking a rise in online child sexual abuse?. *House of Lords Library*, June 10.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covid-19-risking-a-rise-in-online-child-sexual-abuse/>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National Tutoring Programme 홈페이지. <https://nationaltutoring.org.uk/>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Oak National Academy 홈페이지. <https://www.thenational.academy/>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영국 정부 포털 코로나19 대응 페이지. <https://www.gov.uk/coronavirus>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영국 정부 포털 코로나19 데이터 페이지. <https://coronavirus.data.gov.uk>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독일 사례]

AGJ (Arbeitsgemeinschaft für Kinder- und Jugendhilfe)(2021). Deutscher Kinder- und Jugend(hilfe) MONITOR 2021. [https://www.agj.de/sonstige-seiten/jugendpolitik/artikel.html?tx\\_news\\_pi1%5Baction%5D=detail&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news%5D=7316&cHash=e605907d044c96f00724796f2bcdd529](https://www.agj.de/sonstige-seiten/jugendpolitik/artikel.html?tx_news_pi1%5Baction%5D=detail&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news%5D=7316&cHash=e605907d044c96f00724796f2bcdd529) 에서 2021년 8월 27일 인출.

BJK (Bundesjugendkuratorium) (2021). Kindheit und Jugend in Zeiten von Corona. Konsequenzen für die aktuelle und zukünftigen Kinder- und Jugendpolitik. München.

<https://www.bundesjugendkuratorium.de/stellungnahmen> 에서 2021년 8월 22일 인출.

BmBF & 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1). 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 für Kinder und Jugendliche für die Jahre 2021 und 2022 - 2Mrd. Euro.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78838/798ecd9014605892b3638f1a866cf30d/aktionsprogramm-aufholen-nach-corona-fuer-kinder-und-jugendliche-factsheet-data.pdf>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1). Übersicht zu gesundheitlichen Auswirkungen der Corona-Pandemie auf Kinder und Jugendliche(Stand 29. Juni 2021),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83046/9880e626ab0dfcf849ec16001538f398/kabinett-auswirkungen-corona-kinder-jugendliche-data.pdf> 에서 2021년 8월 23일 인출.

Bundesregierung(Hg.)(2020). Deutsche Nachhaltigkeitsstrategie. Weiterentwicklung 2021. Berlin: A Vitamin Kreativ- agentur GmbH.

Deutsche Jugendinstitut(2020). Corona erschwert die Kinder- und Jugendhilfe. 2/2020 DJI Impulse. München. [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ulletin/d\\_bull\\_d/bull124\\_d/DJI\\_2\\_20\\_Web.pdf](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ulletin/d_bull_d/bull124_d/DJI_2_20_Web.pdf) 에서 2021년 8월 23일 인출.

Deutscher Bundestag(2013). 14. Kinderund Jugendbericht. Drucksache 17/12200. Berlin.

Salihi, N.(2021). Jugendbilder in Zeiten von Corona; Engagement, 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 jenseits von Corona-Partys, <https://www.jugendhilfeportal.de/fokus/coronavirus/artikel/jugendbilder-in-zeiten-von-corona-engagement-verantwortung-und-solidaritaet-jenseits-von-corona/>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https://de.wikipedia.org/wiki/Corona-Party> 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 부 록



# 부록

## 1. 설문지(초중고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 50% 100%

QA.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광명양언정실 주식회사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의 삶과 욕구에 대한 조사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의 삶과 욕구에 대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관저 국제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과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지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에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설문지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신부서의 노출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되,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목적**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다른 중요한 설문임을 알았다.
- 나는 내가 응답한 조사가 정당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적절히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했다.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분석기관: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설문계속

QQ2.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설문계속

QQ1. 여러분의 학교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EX: 한빛중학교)

설문계속

QQ3. 다음 중 어느 학년에 해당하십니까?

- 1학년
- 2학년
- 3학년

설문계속

※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Q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였습니까?

- 예  아니오

설문계속

Q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설문계속

Q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되어서(이미 항체가 있어서)
- 특별한 이유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1년간 경험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Q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을 3 가지 내로 골라주세요.

- 집안일 도움
- 가족들뿐(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 학습 및 숙제
- 미디어 감상(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 취미 활동
- 스포츠 및 신체활동
- 게임(컴퓨터, 모바일 등)
- SNS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냄
- 아르바이트 또는 일함
- 상급학교로의 진학 준비
- 취업 준비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설문계속

Q5.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컴퓨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등교 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	<input type="radio"/>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주기적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잘 지키고 있다.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501.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심리정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절망감을 자주 느꼈다.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502.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사회관계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코로나19 이후 또래관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성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늘었다	<input type="radio"/>				
나는 온라인 수업이나 강의를 들을 경우 종교 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6.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악재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input type="radio"/>				
우리 정부는 방역 정책을 잘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나는 '위드코로나'의 전환(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input type="radio"/>				
치명률(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4차 대유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 간에 교육(학력)격차가 커졌다.	<input type="radio"/>				

실문계속

Q7. 다음 중 어떠한 수업(또는 활동)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 등교수업
- 온라인 학습
- 순회교육
- 등교 수업+온라인 학습
- 등교 수업+순회교육
- 등교수업+온라인학습+순회교육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귀하와 가족의 최근 1년간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Q8.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에 평균 며칠 학교에 직접 등교합니까?

- 학교에 다니지 않음
- 주1일
- 주2일
- 주3일
- 주4일
- 주5일

설문계속

Q9.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을 3가지 내로 표시해 주세요.

-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
- 원격수업
- 생활리듬이 깨짐(시간, 건강관리)
-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
-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 진료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등)
- 나와 주변사람들의 감염 위험
-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
- 막연한 걱정과 스트레스
- 부모님 등 가족과 자주 싸움
-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불가능
- 식사 해결이 어려워짐
- 열악한 원격학습 환경
- 불명확한 학습 손실, 더 커지는 학습격차
- 온라인 과다,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감소
- 학교나 청소년시설이 문을 닫음
- 외로움/고립감
- 심심함/의욕이 없음
- 나 또는 가족이 일자리를 잃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짐
- 특별히 힘든 점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설문계속

**Q10. 코로나로 인해 좋았던 점을 3가지 내로 표시해주세요.**

- 운동을 할 시간이 늘음
- 건강한 끼니를 챙겨먹을 수 있게 됨
-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생김
-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취미/호미를 가진 활동을 할 수 있음
-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
- 단순하고 느리고 조용한 생활
- 친구관계가 더욱 돈독해 짐
- 재정상태가 좋아짐
- 열 바람
- 특별히 좋은 점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1. 코로나19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은?**

- 여가생활 지원
- 학습지원
- 봉사활동지원
- 시간관리지원
- 심리상담
- 활동지원
- 식사지원
- 진료/취업지원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2. 다음 중 최근 1년간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가족구성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
-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
- 가족구성원이 병원에 입원했음
- 직업을 잃거나 해고당함
- 돈을 적게 받게 됨
- 위의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3. 코로나19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이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5. 코로나19 발생 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6. 코로나19 이후 즐겼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7.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8. 국가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9.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행복한 편
- 행복한 편
- 보통
- 행복하지 않은 편
- 전혀 행복하지 않은 편

설문계속

Q20.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즘을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b>대단히 불만족 한다</b>	<--	---	---	---	---	---	---	-->	<b>매우 만족 한다</b>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21.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표시해 주세요.

- 낙관적임
- 걱정됨
- 불확실하게 느껴짐
- 비관적임
- 두려움
- 슬픔
- 신남
- 수동적임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22. 다음 중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 가족
- 친구
- 여가(취미)
- 공부
- 학교
- 진로(일)
- 종교
- 건강
- 안전
- 자유
- 돈(경제적인 것)
- 종교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23. 다음 중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가족
- 친구
- 여가(취미)
- 공부
- 학교
- 진로(업)
- 종교
- 건강
- 안전
- 자유
- 돈(경제적인 것)
- 종교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Q24.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
- 그립고 가고 싶은 곳
-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Q25. 다음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을 3가지 내로 선택해 주세요.

- 불안/걱정
- 두려움
- 우울함
- 짜증
- 화/분노
- 공포
- 중격
- 감사
- 명운
- 관심
- 침착함
- 따뜻함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지난 1년간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 해주세요.

Q26. 다음 중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모두 이용한 경험이 없음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시설)
-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 관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돌봄관련시설(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가족관련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관련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27.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설문계속

Q28.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설문계속

Q29.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장소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Q30.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설문계속

Q31. 태어난 연도와 월은 무엇입니까?

년  월

설문계속

Q32.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생
-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 주부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33.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부산 | <input type="radio"/> 대구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대전 | <input type="radio"/> 울산 |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충남 | <input type="radio"/> 전북 | <input type="radio"/> 전남 |
| <input type="radio"/> 경북 | <input type="radio"/> 경남 | <input type="radio"/> 제주 |                          |                          |                          |                          |

설문계속

※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인 경우 모두 '① 대도시(특별·광역시)'에 표시해 주세요.  
 나머지 지역은 '동'에 사는 경우 ② 중소도시로, '읍·면·리'에 사는 경우 ③ 농어촌(읍·면·리)에 표시해 주세요.

Q34.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설문계속

Q35. 학교에 다니는 경우, 나의 학교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낮은 편       중간 정도       높은 편

설문계속

Q36. 귀하의 가족의 경제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낮은 편                       중간 정도                       높은 편

실문계속

Q37.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경제 상태 변화는 어떠한가요?

- 경제 상태 나빠짐                       경제 상태 변화 없음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Q38.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하셨거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북한에서 오셨나요?

- 예     아니오  
 잘 모름

실문계속

Q39.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없음(나 혼자 산다)
- 아버지
- 어머니
- 새아버지
- 새어머니
- 형제 또는 자매
-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 친척
- 유택, 그룹홈, 위탁가정, 시설의 식구들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40. 요즘쯤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매우 건강하다
- 건강한 편이다
- 보통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건강하지 않다

설문계속

## 2. 설문지(청년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 50% 100%

QQ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알선알선법인 주식회사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의 삶과 욕구에  
대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선한 국제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 19 이후 청소년의 삶과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지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원으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자유로운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설문지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신분상의 노출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감사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동의표**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 나는 내가 원하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 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 동의합니다.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분석기관: 알선알선법인 주식회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설문계속

QQ1.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8세 이하
- 만 18세 - 만 24세
- 만25세 이상

설문계속

QQ2.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설문계속

QQ3.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부산 | <input type="radio"/> 대구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대전 | <input type="radio"/> 울산 |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충남 | <input type="radio"/> 전북 | <input type="radio"/> 전남 |
| <input type="radio"/> 경북 | <input type="radio"/> 경남 | <input type="radio"/> 제주 |                          |                          |                          |                          |

설문계속

※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인 경우 모두 '① 대도시(특별·광역시)'에 표시해 주세요.  
 나머지 지역은 '등'에 사는 경우 ② 중소도시로, '읍·면·리'에 사는 경우 ③ 농어촌(읍·면·리)에 표시해 주세요.

QQ4.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리)

설문계속

※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Q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였습니까?

- 예       아니오

설문계속

Q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설문계속

**Q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되어서(이미 항체가 있어서)
- 특별한 이유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1년간 경험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Q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을 3 가지 내로 골라주세요.**

- 집안일 도움
- 가족들뿐(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 학습 및 숙제
- 미디어 감상(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 취미 활동
- 스포츠 및 신체활동
- 게임(컴퓨터, 모바일 등)
- SNS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낼
- 아르바이트 또는 일할
- 상급학교로의 진학 준비
- 취업 준비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설문계속**

Q5.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동교 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	<input type="radio"/>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주기적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잘 지키고 있다.	<input type="radio"/>				

실문계속

Q501.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심리정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절망감을 자주 느꼈다.	<input type="radio"/>				

실문계속

Q502.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사회관계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코로나19 이후 또래관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성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늘었다	<input type="radio"/>				
나와 관련된 수업이나 강좌를 들을 경우 해당 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6.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 역제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input type="radio"/>				
우리 정부는 방역 정책을 잘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나는 '위드코로나'의 전환(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input type="radio"/>				
치명률(그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4차 대유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input type="radio"/>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 간에 교육(학력)격차가 커졌다.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7. 다음 중 어떠한 수업(또는 활동) 형태를 선호합니까?

- 통교수업
- 온라인 학습
- 순회교육
- 통교 수업+온라인 학습
- 통교 수업+순회교육
- 통교수업+온라인학습+순회교육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귀하와 가족의 최근 1년간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Q8.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한 주에 평균 며칠 학교에 직접 등교합니까?

- 학교에 다니지 않음
- 주1일
- 주2일
- 주3일
- 주4일
- 주5일

설문계속

**Q9.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을 3가지 내로 표시해 주세요.**

-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
- 원격수업
- 생활리듬이 깨짐(시간, 건강관리)
-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
-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등)
- 나와 주변사람들의 감염 위험
-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
- 막연한 걱정과 스트레스
- 부모님 등 가족과 자주 싸움
-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불가능
- 식사 해결이 어려워짐
- 열악한 원격학습 환경
- 불명확한 학습 손실, 더 커지는 학습격차
- 온라인 과다,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감소
- 학교나 청소년시설이 문을 닫음
- 외로움/고립감
- 심심함/의욕이 없음
- 나 또는 가족이 일자리를 잃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짐
- 특별히 힘든 점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설문계속

**Q10.** 코로나로 인해 좋았던 점을 3가지 내로 표시해주세요.

- 운동을 할 시간이 늘음
- 건강한 끼니를 챙겨먹을 수 있게 됨
-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생김
-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취미/호미를 가진 활동을 할 수 있음
-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
- 단순하고 느리고 조용한 생활
- 친구관계가 더욱 돈독해 짐
- 재정상태가 좋아짐
- 열 바뀜
- 특별히 좋은 점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1.** 코로나19 기간 중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은?

- 여가생활 지원
- 학습지원
- 봉사활동지원
- 시간관리지원
- 심리상담
- 활동지원
- 식사지원
- 진료/취업지원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2. 다음 중 최근 1년간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가족구성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
-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
- 가족구성원이 병원에 입원했음
- 직업을 잃거나 해고당함
- 돈을 적게 받게 됨
- 위의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3. 코로나19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이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5. 코로나19 발생 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6. 코로나19 이후 즐겼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7.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8. 국가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19.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행복한 편
- 행복한 편
- 보통
- 행복하지 않은 편
- 전혀 행복하지 않은 편

설문계속

Q20.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즘을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b>대단히 불만족 한다</b>	<---	----	----	----	----	----	----	---	<b>매우 만족 한다</b>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설문계속

Q21.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표시해 주세요.

- 낙관적임
- 걱정됨
- 불확실하게 느껴짐
- 비관적임
- 두려움
- 슬픔
- 신남
- 수동적임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22. 다음 중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 가족
- 친구
- 여가(취미)
- 공부
- 학교
- 진로(일)
- 종교
- 건강
- 안전
- 자유
- 돈(경제적인 것)
- 종교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23. 다음 중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가족
- 친구
- 여가(취미)
- 공부
- 학교
- 진로(업)
- 종교
- 건강
- 안전
- 자유
- 돈(경제적인 것)
- 종교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Q24.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
- 그림고 가고 싶은 곳
-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Q25. 다음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을 3가지 내로 선택해 주세요.

- 불안/걱정
- 두려움
- 우울함
- 짜증
- 화/분노
- 공포
- 중격
- 감사
- 명운
- 관심
- 침착함
- 따뜻함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지난 1년간 이용한 서비스나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 해주세요.

Q26. 다음 중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모두 이용한 경험이 없음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시설)
-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 관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돌봄관련시설(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가족관련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관련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27.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설문계속

Q28.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설문계속

Q29.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장소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 다음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Q30. 태어난 연도와 월은 무엇입니까?

년  월

설문계속

Q31.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생
-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
- 주부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32. 학교에 다니는 경우, 나의 학교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낮은 편
- 중간 정도
- 높은 편

설문계속



Q33. 귀하의 가족의 경제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낮은 편                     
  중간 정도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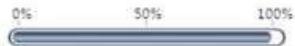
실문계속



Q34.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경제 상태 변화는 어떠한가요?

- 경제 상태 나빠짐                     
  경제 상태 변화 없음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실문계속



Q35. 부모님이 귀정감(歸情) 하셨거나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이거나 북한에서 오셨나요?

- 예   
  아니요  
 잘 모름

실문계속

Q3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없음(나 혼자 산다)
- 아버지
- 어머니
- 새아버지
- 새어머니
- 형제 또는 자매
-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 친척
- 심타, 그룹홈, 위탁가정, 시설의 식구들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설문계속

Q37. 요즘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매우 건강하다
- 건강한 편이다
- 보통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건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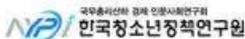
설문계속

### 3. 심층면접 질문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심층 면접조사 설문지

#### ○ 조사목적 및 안내

- 이 조사는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한 청소년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경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욕구 및 미래예측에 대한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인터뷰(FGD) 형태로 진행되는 심층면접 조사입니다.
- 응답한 내용 및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진행은 약 1시간 ~ 2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b>1</b>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b>2</b>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수료          ⑥ 박사 졸업	
<b>3</b>	귀하의 소속 및 직위를 써주십시오.	(                    소속 ) (                    직위)	
<b>4</b>	귀하의 전공과 청소년 활동·복지·상담·보호 등 청소년 관련 업무 관련 경력을 써주십시오.	(                    전공 ) (                    년                    개월)	

※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일상생활, 학습생활)은 무엇이며, 이들이 경험한 취약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1-1.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 상황

1-2. 지역 내 청소년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

1-3. 휴관, 비대면활동 등 시기별 분위기

1-4.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노력

문2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2-1. 기관내에서의 대응 방법(청소년시설/기관/단체 및 인력이 안전하게 일하는 대응 방법)

2-2.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어려운 요인

- 조직, 구성원, 기관의 변화

2-3.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전혀 다른 형식과 방법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 기관내 변화

문3

코로나19 상황에도 인력 및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제정을 확충한 기관의 특징 및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 4**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

4-1. 위기대응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대응

4-2. 위기상황 해소와 관련하여 소통형식

4-3. 위기대응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동과 대책의 시행 여부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중앙기관

- 기관간

문5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대응시에 기관별 대응 성과 및 향후 바라는 사항은 무엇  
입니까 ?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중앙기관
  
- 기관간

문6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체계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 향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6-1. 법적, 제도적 지원 노력

6-2. 청소년정책의 변화 양상

6-3. 청소년시설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

6-4.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성 등

문7

청소년의 미래 육구를 반영한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해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8

뉴노멀(New Normal)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청소년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미래 운영시스템 선진화 및 표준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 등 국가재난 상황이 청소년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체계의 기존 운영, 정책 방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적응시켜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취적,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재난 상황과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적응 변화하는 증거기반적 청소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포스트코로나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책 분석방법론 콜로키움 개최,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사례 검토, 비정형, 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의제 도출,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향식(Top-down) 청소년정책 위주에서 상향식(Bottom up) 청소년정책 확대로의 변화,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로써 상호간의 '협력' 강조, 위기로 체득된 경험의 체계화, 제도화, 청소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현장,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숙고를 통한 명확한 역할 분담,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지속 지양, 미래를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 지각: 지향점이 아닌 수단으로써 과학기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고 정책적, 실천적 측면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A Study on Plans for Youth Policies in the  
Post-COVID-19 Era**

This study presented a direction and vision of the youth policy paradigm that proactively, preemptively, and actively responds to the age of post-COVID-19 and an evidence-based plan for youth policies that are adaptively changing in the face of national disaster and the future.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national disaster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rapidly changed the youth and their lives. The study presents that it should be necessary and imperative for the existing direction of youth policies and the service system to be proactively transformed and adapted.

The research methods employ theoretical reviews on post-COVID-19 and youth policies, holding a policy analysis methodology colloquium, reviewing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rawing policy agendas using unstructured and structured big data, surveys on the yout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ield and academic experts.

Based on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it suggested various to-do lists and detailed policy tasks in the practical aspect: the change from top-down youth policy to bottom-up youth policy, emphasis on mutual “cooperation” as important keywords in the future, systemat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xperiences learned through crisis, clear role sharing of state, local governments, field, and community by seriously considering their missions in terms of youth policy promotion, preventing shock doctrine from continuing in the post-COVID-19 era, recognizing the limits of viewing the future as technology-oriented, technology as an instrument rather than a goal, and transition to a data-based administration.

##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 연구개발직립금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효·김현수·장원빈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 (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 (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 (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닛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흥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청년 이직자
-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21-R12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24-4  
979-11-5654-323-7 (세트)



연구보고 21-R12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24-4  
ISBN 979-11-5654-323-7(세트)